





# 차례

## | 제1편 | 춘천의 산과 하천

1장   춘천의 산	… 8
2장   춘천의 하천	… 20

## | 제2편 | 읍면동별 지명유래

1장   강남동	… 30
1절   삼천동	… 31
2절   송암동	… 41
3절   온의동	… 48
4절   칠전동	… 55
2장   교동	… 66
3장   근화동	… 69
1절   근화동	… 70
2절   소양로1가	… 82
3절   중도동	… 89
4장   석사동	… 92

<b>5장   소양동</b>	… 100	<b>8장   조운동</b>	… 166
1절   소양로2가	… 101	1절   조양동	… 167
2절   소양로3가	… 107	2절   운교동	… 171
소양로4가	… 108		
3절   봉의동	… 110	<b>9장   퇴계동</b>	… 174
4절   옥천동	… 117		
5절   요선동	… 122	<b>10장   효자동</b>	… 186
6절   낙원동	… 126		
7절   중앙로1가	… 127	<b>11장   후평동</b>	… 199
<b>6장   신사우동</b>	… 130	<b>12장   신복읍</b>	… 211
1절   신동	… 131	1절   발산리	… 212
2절   사농동	… 137	2절   산천리	… 229
3절   우두동	… 145	3절   용산리	… 238
<b>7장   약사명동</b>	… 153	4절   유포리	… 251
1절   약사동	… 154	5절   율문리	… 269
2절   죽림동	… 158	6절   지내리	… 276
3절   중앙로2가	… 162	7절   천전리	… 292
중앙로3가	… 163		

# 春川地名事典

---

上



# 제1편

## 춘천의 산과 하천은

『한국지명유래집』, 『춘천의 지명유래』, 『강원도 땅이름』,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위키백과 등을  
토대로 하고, 옛 문헌에서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하여 작성하였음.

# 춘천의 산과 하천

# 춘천의 산

## ● 가리산(加里山)

춘천시의 동면과 홍천군 두촌면 사이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1,051m). 산 이름인 ‘가리’는 ‘단으로 묶은 곡식이나 떨나무 따위를 차곡차곡 쌓아둔 큰 더미’를 뜻하는 우리말로서, 산봉우리가 노적가리처럼 고깔 모양으로 생긴 테서 유래한다. 『중종실록』에 의하면 중종 26년(1531) 5월 17일에 팔도 각지에서 기우제를 지내도록 유서를 내리고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한 일이 기록되었는데, 홍천의 가리산에 제사를 지내도록 한 기록이 보인다. 『신증 동국여지승람』은 홍천의 가리산에 용연(龍淵)이 있는데, 날이 가물 때 범의 뼈를 용연에 잡그면 응보(應報)가 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가리산에는 한 천자 묘 전설이 전해진다. 춘천시 물로2리 가리산 자락에 있는 주인 없는 묘가 한천자 묘로, 한씨 성을 가진 머슴이 조상 묘를 잘 써서 후에 중국 천자가 됐다고 한다.

춘천의 인문지리서인 『수춘지』는 가리산(佳利山)으

로 적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부의 동쪽 팔십 리에 있다. ◇ 제3의 기우단이 있다. ◇ 한총(汗塚)이 있다. 전하는 말로는 한(汗)이 한대곡(汗塹谷)에 살았는데, 하루는 노승(老僧)이 와서 묵었다. 그런데 밤중에 나갔다가 꽤 오래 지나서야 돌아왔다. 다음날은 달걀을 청하기에 한이 이상하게 여기고 그것을 삶아서 주었다. 이날 밤에 스님이 또 남모르게 나가므로 한이 뒤를 따라가 보니, 스님이 계란을 지금의 장사지낸 자리에다 묻는 것이었다. 한참이 지나도록 기다리더니 탄식하여 말하기를, “닭이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으니 뭔가 잘못된 것임을 알겠군!”이라 하고는 이내 파하고 가버렸다. 그 뒤에 한이 파내서 보니 닭이 거의 다 되었는데도 울지 않은 것은 그것을 삶았기 때문이었다. 한이 이에 제 어버이 장례를 지냈더니 과연 울고 화하여 나왔고, 돌을 파내고 산이 끊어지게 하여 한대곡이 생겨났고 강이 흘겨져 이곳으로 통하게 되었다. 또 먼저 산소를 벌초하는 자가 반드시 삼(蓼)

을 얻으니 벌초하려는 자가 많았다. 혹시 가뭄이 들거나 큰물이라도 나게 되면 투장(偷葬: 남의 땃자리에 몰래 장사지냄)한 자가 있다고 의심하여 부근의 관민(官民)이 다 출동하여 파내버렸다. 가물게 되어 비를 빌면 그에 응해 비가 내렸다고 한다. 이것들은 모두 의아하고 이상한 것인데, 항간의 말은 징험할 길이 없으니 또한 탄식할 만하다. ◇ 경인란(庚寅亂: 6·25전쟁) 때는 중공군이 여기에 많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기록하였다.



가리산(일제강점기지도)

### ● 검봉산(劍峯山)

춘천시 남산면 강촌리와 백양리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530m). 칼을 세워 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칼봉 또는 검봉(劍峯)이라 한다. 북쪽으로 북한강이 흐르며, 강 건너편에는 삼악산(三岳山, 654m)이 있다. 검봉산은 강선봉과 굴봉산의 주봉이다. 삼악산과 대척점을 이루며, 강촌과 창촌 일대를 품고 있는 모양새다. 1895년 을미의병 당시 춘천 의병장을 지낸 습재(習齋) 이소옹(李昭應)의 기록에 의하면 강선봉을 포함한 검봉산을 좌수봉(座首峯)이라 불렀다. 좌수(座首)는 지방 향리의 우두머리를 일컫는 말인데, 인근에서 이 봉우리가 가장 높은 봉우리였기 때문에 붙였던 이름이다.

### ● 고산(孤山)

부래산(浮來山), 봉추대(鳳翫臺)라고도 부른다. 의암호에 있는 상중도 북쪽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99m). 북한강 상류에서 바위산이 떠내려와서 부래산이라고도 하며, 작은 봉의산이라 하여 봉추대라 부르기도 한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상중도(上中島) 북쪽에 위치한 돌산으로 (종략) 일명 부래산(浮來山)이라 부르고, 작은 봉의산이라 해서 봉추대(鳳翫臺)라 부르기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평지에 우뚝 솟은 고립된 산의 형국에서 유래한 듯하다. 『조선지도』, 『청구도』, 『동여도』에는 소양강 북쪽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고산과 관련된 전설도 전해온다. 어느 해 큰 장마가 졌는데 낭천강 상류에서 큰 바위산이 떠 내려왔다. 금성 땅의 관리가 큰 바위산을 찾아서 춘천까지 오게 되었다. 금성의 관리는 이 부래산(고산)이 눈을 즐겁게 해주었으니 세금을 받겠다고 하였다. 그때부터 매년 금성 관리가 세금을 받아 갔는데 원님의 어린 아들의 기지로 더이상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외롭게 홀로 우뚝 서 있는 고산은 시인들의 좋은 소재가 되어 매월당 김시습 등이 지은 한시가 전한다.



고산(조선지도)

### ● 구봉산(九峰山)

시의 동면(東面)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441m). 후평동에서 만천리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원편으로 9개의 봉우리가 길게 뻗어 있으며, 동면 감정리·장학리·만천리 경계의 산이다.『강원도 땅이름』에 “9개의 봉우리가 길게 뻗어 산형을 이루고 있어 구봉산이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면 만천리에서 7명의 향촌 선비가 1764년(영조 40년)에 결성한 시회를 만곡동사(晚谷同社)라 한다. 그들의 여러 기록을 모아 놓은 책이『만곡동사록(晚谷同社錄)』인데, 주변의 경관을 소재한 시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만곡팔경(晚谷八景)인데, 만곡(晚谷) 주변의 대표적 경관 여덟 개를 시의 소재로 삼아 읊은 것이다. 만곡(晚谷)은 만천리의 옛 지명이다. 그 중 『구봉제월(九峯齋月)』이 있는데 ‘구봉산 위 비 갠 하늘에 밝게 뜬 달’을 하나의 승경이라 여기고 형상화한 것이다.



구봉산(팔도지도)

### ● 구절산(九折山)

춘천시 동산면 및 홍천군 북방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 연엽산(850m)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려간 능선 위에 있다. 높이는 750m로, 산세가 마치 구절양장을 연상케 하듯 아홉 개가 넘는 봉우리와 지·

능선이 어지럽게 갈라진 형상을 하고 있다. 산행은 도화동에서 주로 시작한다. 계곡 길의 아기자기함을 감상하며 470m 고지에 올라 다시 원쪽 능선을 따라 험준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한 시간 정도 가면 정상에 도착한다. 정상 아래 동굴이 있어 신비감을 선사한다. 구절산의 아름다움은 정상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암릉에 있다. 20여 분 아래로 내려오면 더운침내기 고개가 있는데, 겨울에도 더운 바람이 불어와 나무꾼들이 언 빨을 녹였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도화동 부근에는 처녀 총각 나무꾼들이 인연을 맺었다는 각시골이 있다.

### ● 국사봉(國土峯)

퇴계동에 있는 높이 203.3m의 아트막한 산으로, 춘천 선비의 나라 사랑 정신이 서려 있는 곳이다.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1월 22일에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이 승하하였다. 춘천의 어느 곳에서도 마음 놓고 슬퍼할 수 없게 되자,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슬픔을 토로하고 황제의 제사를 지내며 독립을 염원하고 선비의 지조를 지킬 장소로 국사봉을 택했다. 당시 춘천의 선비 200~300인이 국사봉에 올라 대한제국의 상징인 태극 모양의 단을 만들었다. 태극단은 소나무 아홉 그루를 심어서 이루어졌다. 태극단을 만드는 일은 김영하 선생이 주도하였고 여기에 뜻있는 춘천의 선비 200여 명이 힘을 합쳤다. 국사봉에 소나무 태극단이 설치되자, 춘천의 선비들은 앞다투어 국사봉에 올라 제를 올리고 조문과 시문을 지어서 독립의 필요성과 일제의 만행을 기록하고 이를 세상에 알렸다. 일제는 글을 지은 선비들을 투옥하여 고문하며 선비의 지조를 꺾으려 했다. 그러나 삼년상이 끝날 때까지 망제는 면면히 이어졌고 글도 함께 지어져 광복의 밀거름이 되었다. 1993년 시는 춘천 선비의 지조와 정신

을 높이 여겨 후손에게 영원히 전달하고자 탑을 세웠다. 그것이 바로 ‘국사봉망제탑(國土峯望祭塔)’이다. 망제탑의 화강석 기단에는 무궁화를 돋을새김했고 상부에는 무궁화 꽃봉오리 모양의 돌을 올려놓았으며 탑의 몸돌에는 기문과 시문을 오석(烏石)에 선명하게 새겨 놓았다.

### ● 굴봉산(屈峰山)

굴봉산은 남산면에 있는 해발 308.1m의 산이다. 정상 남쪽의 급사면을 따라 내려서면 ‘이심이굴’과 ‘우물굴’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낸다. ‘우물굴’은 안쪽의 움푹 파인 곳에 고인 물이 사철 마르지 않는다고 한다. 삼거리에서 계속해 산길을 따라 조금 더 내려서면 바위벽에 구멍 두 개가 뚫려 있는 ‘쌍굴’이 나타난다. 3m 정도 떨어진 두 개의 굴이 연결되어 있다. 산 아래에 산 이름을 딴 굴봉산역(屈峰山驛)이 있다. 경춘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기 전까지는 무궁화호 열차가 하루에 몇 회 정도 정차하다가 2010년 12월 21일에 경춘선 복선 전철이 개통되면서 역사가 백양리로 이전되었고, 이와 함께 인근에 있는 산의 이름을 딴 굴봉산역으로 역명이 변경되었다.

### ● 금병산(金屏山)

금병산(錦屏山), 진병산(陣兵山)이라고도 한다. 시의 신동면, 동내면, 동산면에 걸쳐 있는 산이다(고도 : 652m). 인근의 삼악산은 바위산인데 금병산은 전형적인 흙산이다. 산기슭이 비단 병풍을 둘러친 듯 아름다워서 금병산(錦屏山)이란 이름이 유래되었다. 임진왜란 때 강원도 조방장 원호(元毫)가 진을 치고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 하여 ‘진병산(陣兵山)’이라고도 부른다. 1895년 의병장 이소옹(李昭應)과 이진옹(李晋應), 유홍석(柳弘錫) 등이 춘천 지방

의 의병부대를 이끌고 이곳에 진을 쳤으며, 1907년 12월, 13도 연합 의병부대가 서울로 진격하던 때에는 이강년(李康季) 의병부대가 이곳을 출발하여 격전을 벌였던 전적지이다. 1972년 12월 춘성군에서 호국의 얼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전적비를 건립하였다. 1930년대에 주옥같은 소설을 남긴 김유정의 고향 마을인 ‘실레마을’이 산의 기슭에 위치한다. 김유정은 고향에 내려와 산 이름을 따서 ‘금병의숙’이라는 간이학교로 농촌 계몽운동을 펼쳤으며, 고향을 무대로 여러 편의 농민소설을 발표하였다. 금병산은 시민들의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원창고개에서 정상까지는 봄봄길, 정상에서 서쪽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 내려가는 길은 산골나그네길, 북쪽 능선으로 가다가 계곡으로 내려서는 길은 동백꽃길, 산의 남쪽에 해당하는 중4리에서 능선을 넘어 다시 중리쪽 계곡으로 내려오는 길은 금띠는콩밭길, 산골나그네길에서 저수지로 내려서는 길은 만무방길이라고 이름 지어 부르고 있다.



금병산(전병산, 여지도)

### ● 대룡산(大龍山)

시의 동내면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899m) 옛 문헌에는 여매압산(汝每押山)이라고도 표기하였다. 시의 동쪽을 에워싸고 있는 산으로 가리산(1,051m)에서 뻗어온 산줄기에 솟아 있다. 『춘주

지』에 따르면 “부의 동쪽 25리로 일명 여매암산이 다. 기우제를 지내면 효험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수춘지』에 “제2의 기우단(祈雨壇)이 있다.”는 기록이 보인다. 『대동지지』에는 “여매암산이라고도 한다. 동쪽으로 20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관동읍지』와 『관동지』에는 “부의 동쪽 20리에 있다. 일명 여매암산이라고도 한다. 중전산으로부터 와서 한 가닥은 봉의산의 주맥이 되고, 다른 한 가닥은 전방산의 주맥이 된다.”고 묘사하고 있다. 『강원도 땅이름』에는 “춘천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발 899m의 산이다. 병자호란 때 춘천 향교의 위패를 잠시 이 산에 옮겼다고도 전해지며, 산 정상에서 춘천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춘천지방에서 이 산의 이름을 딴 사회단체나 친목회 이름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다. 춘천 향교의 위패를 산에 옮겼다고 알려진 장소는 호성암(護聖巖)이다. 『수춘지』는 지계사(池繼凹)가 여러 성현의 위판(位版)을 지고 대룡산의 암혈(巖穴) 중에서 화를 꾀했으므로 이름이 붙여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영조 시대의 『만곡동사록(晚谷同社錄)』에 만곡(晚谷) 주변의 대표적 경관 여덟 개를 시의 소재로 삼아 읊은 것 중에 ‘대룡산의 떠도는 구름(大龍歸雲)’이 있다.



대룡산(조선지도)

### ● 드름산

드름산(357.4m)은 신동면 의암리에 위치한 산으로 삼악산 동쪽에 자리하고 있다. 『수춘지』는 드름산을 문암산(門巖山)이라 기록하고 있다. 1823년에 정약용은 배를 타고 삼악산과 드름산이 만든 협곡을 지나다가 춘천으로 들어가는 곳을 지키는 대문과 같이 보이는 문암(門巖)을 보고 시를 지었다. 문암(門巖)은 풍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봉의산에서 바라보면 좌우의 산들은 펼쳐져 나가고, 강물은 돌아들며 춘천을 감싸 안고 있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곳에 문암이 우뚝 솟아 기운이 누설되지 않도록 산세를 짜임새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드름산 정상을 지나면서 간간이 바위 지대가 나타나며 평범한 능선길이 이어진다. 나무 사이로 춘천 시가지가 보이고 의암호가 지척으로 다가온다. 봉어섬과 중도, 고슴도치섬이 물 위에 떠 있다. 춘천을 둘러싼 풍광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능선길이다. 전망대를 지나면 곧바로 하산길이다. 이 계곡 옆에 춘천 산악인들이 개척한 200m 길이의 암릉코스 ‘춘클리지’가 있다. 주변에 여러 개의 암벽등반 코스도 있다.

### ● 마적산(馬蹟山)

시의 신복읍과 사복면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610m). 마작산(麻作山)이라고도 한다. 오봉산 서남쪽의 주 능선이 남쪽으로 뻗어 여러 봉우리를 이루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봉우리이다. 북쪽으로 오봉산(779m)과 연결되어 있고, 동쪽으로는 봉화산(736m)과 맞대고 있다. 디산 정약용의 시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름이 오래됐음을 알 수 있다.



마작산(광여도)

### ● 봉의산(鳳儀山)

봉산(鳳山)이라고도 한다. 시의 소양동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301m). 시의 상징이자 진산(鎮山)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봉산(鳳山)은 춘천부 북쪽에 있으며, 진산이다.”는 기록이 있다. 주석에 의하면 봉산은 봉의산의 딴 이름이며, 산의 형상이 현재의 춘천시 퇴계동과 온의동 방면에서 보았을 때 봉황새가 알을 품고 있는 듯한 형상이라고 한다. 『춘주지』에 “부의 북쪽 1리에 있다. 산을 올라가 그 꼭대기를 바라보면, 바람이 나부끼면서 선계를 오르는 듯하며 앞이 탁 트여 막힘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른 들판과 화악산(火岳山)·독산(禿山)·경운산(慶雲山)·전방산(箭防山)·향로산(香爐山)·삼악산(三岳山)이 모두 눈 아래에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강원도지』에는 “군 북쪽에 있다. 진산이다. 위에 봉수대 및 성벽 유지(遺址)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

봉의산에 있는 산성에 대한 기록도 자세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봉산 산성의 둘레는 2,463 척이고 높이는 10척”이라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에는 “몽고족의 4차 침입 때 춘천 주민들이 산성에 들어가 항거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895년 을미의병이 일어나자 춘천의 의병 1천여 명이 모

여 이소옹(李昭應)을 초대 의병대장으로 추대하고 진영을 설치한 곳이 봉의산이었다. 의병들은 봉의 산성 안에 진영을 설치하고 봉의산 정상에 제단을 쌓고 거의서천제(舉義誓天祭)를 올린 후, 서울로 향하여 진격하였다. 일제강점기 때인 1937년에 춘천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이 조직한 항일 학생 비밀 결사인 상록회(常綠會) 회원들이 우두산·봉의산 등지에서 비밀 모임을 가졌다. 6·25 전쟁 당시 군과 경찰, 학생 등 민·관·군은 춘천 옥산포와 소양강, 봉의산 일대에서 전투를 벌였다. 동족상잔의 비극을 오롯이 품고 있는 곳이 봉의산이다. 조선시대 반석평은 1534년 봉의산에 올라 시를 지었는데, 후손이 새긴 시문이 지금도 봉의산 바위에 남아 있다.



봉의산(광여도)

### ● 봉화산(烽火山) 1

북산면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734m). 부용산(882m)에서 남쪽으로 능선이 뻗어 있는데, 이 능선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이다. 부용산 외에 오봉산(779m)과도 능선이 이어져 있다. 정상에서는 북쪽으로 오봉산과 부용산이, 동쪽으로는 바위산(858m)과 매봉(800m)이, 남쪽으로는 소양호 너머로 멀리 대룡산 능선이 보인다.

『강원도 땅이름』에 “춘천에는 봉화산이라고 불리



광여도

는 산이 세 곳이 있는데 북산면의 봉화산과 강원도청이 위치한 봉의산, 그리고 남산면 강촌리와 남면 후동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세 곳 모두 조선시대에 봉수대가 있어 외적의 침입을 알리고 방비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곳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 ● 봉화산(烽火山) 2

남산면 강촌리와 남면 가정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고도: 487m). 조선시대에 사용했던 봉수대가 설치되어 봉화산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현재 봉수대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정상에서는 북쪽으로 명지산과 화악산이 멀리 보이고, 북동쪽으로 북한강 건너 삼악산의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산의 규모는 작으나 입구의 경관 및 편의시설이 좋아 주말 가족 야유회 장소로 좋은 곳이다. 산 아래에 구곡 폭포와 문배마을이 있고, 특히 강촌역 근방은 여름철이면 행락객 인파가 끊어지지 않고 모여든다. 겹봉산과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종주 등반도 가능하다. 산 입구까지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 자전거를 이용한 하이킹 코스로도 제격이다.

### ● 북배산(北培山)

경기도 가평군 북면과 춘천시의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고도: 866m). 북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가덕산(858m)과 몽덕산(632m)을 지나 서쪽의 화악산(1,468m)까지 맥을 잇는다. 북배산은 등산로로 유명하며 골짜기가 작다고 이름 지어진 작은 벽골이 있다. 몽덕산에서 계관산에 이르는 능선에는 방화선이 설치되어 있어 색다른 경관을 자아낸다. 산세가 수수하고 소박하며, 굴곡이 심하지 않다. 능선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 여름보다는 겨울에 산행하기가 수월하다.

### ● 삼악산(三岳山)

시의 서면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656m). 삼학산(三鶴山)이라고도 불렸으며, 주봉은 용화봉이다. 『춘주지』에 따르면 “부의 서쪽 25리의 강 북쪽에 있다.”라고 전하며, 『대동지지』에는 “서쪽으로 35리 강의 북쪽 언덕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지도』, 『청구도』, 『동여도』에는 이 산에 고성이 표기되어 있는데, 삼국시대 이전 맥국(貊國)의 성터로 알려져 있다. 주봉인 용화봉과 함께 청운봉(546m)과 등선봉(632m)의 세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삼악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삼악산은 돌로 이루어진 수려한 경관 때문에 석금강(石金剛)이란 별칭도 있다. 특히 등선폭포가 있는 협곡은 웅장한 아름다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폭포들은 등산객들을 매료시킨다. 등선폭포가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약 100년 전이다. 그 이전엔 경천폭포·삼학폭포라고도 불렸다. 삼악산 북쪽에 있는 석파령을 넘나들며 외부와 소통할 때는 삼악산 남쪽의 등선폭포를 알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에 북한강변을 따라 경춘차도가 개설되면서 비로소 외부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삼악산은 통천굴(通天窟)과 직녀굴(織女窟)이 있다. 통천굴은 상원사(上院寺) 뒤에 있다. 처음에는 널찍하다가 점차로 좁아지며 기어서 위로 오르면 이내 만경대(萬景台) 위로 나



삼악산(1872년지방지도)

가므로 이름이 붙여졌다. 직녀굴(織女窟)은 통천굴 오른편에 있다. 임진왜란 때 최대지(崔大智)가 여기서 난을 피하였는데, 두 굴 가운데서 오른편 굴에서 방직(紡織)을 하였으므로 이름이 붙여졌다. 삼악산성은 축조 연대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삼국시대 더 나아가 맥국 시대에 축조되었다고 하며, 조선시대 중기에 축조했다는 주장도 있다. 내성(內城)과 외성(外城)으로 이루어졌으며 길이가 5.8km에 달한다. 성벽은 대부분 붕괴되거나 유실되었지만, 아직도 성곽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일부 구간 남아 있다. 비록 온전한 모습을 잃었지만 삼악산성은 의암리 옷바위, 말골 등과 함께 맥국과 관련된 전설을 지금도 들려준다. 맥국 전설에 궁예 전설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산성은 궁예가 왕건을 맞아 싸운 곳으로 와데기라는 곳에서 기와를 구워 궁궐을 짓고 흥국사라는 절을 세워 나라의 재건을 염원했다고 하며, 당시 궁궐이 있던 곳을 지금도 대궐터라 부른다고 들려준다. 삼악산을 오르는 방법은 동선풍포에서 시작하는 코스와 의암호 옆 상원사로 오르는 두 가지 코스가 대표적이다. 동선풍포 협곡은 5억 7000만에서 25억 년 전에 퇴적된 모래 암석들이 굳어져 형성된 규암층이 오랜 세월 동안 갈라지고 무너지면서 형성됐다고 한다. 산을 오르면 작은 절 흥국사가 있다. 후삼국시대 궁예가 왕건과 전투를 벌일 무렵 세웠다는 절이다. 흥국사 대웅전 건물은 오래된 것이 아니지만 거대한 느티나무는 흥국사의 역사를 말없이 보여준다.

### ● 안마산(鞍馬山)

안화산·아내산·아나산이라고도 부른다. 퇴계동과 동내면 정족리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304m). 춘천시에서 원창고개를 넘는 길옆에 있어 동녘 쪽의 관문이 된다. 춘천의 안산인 향로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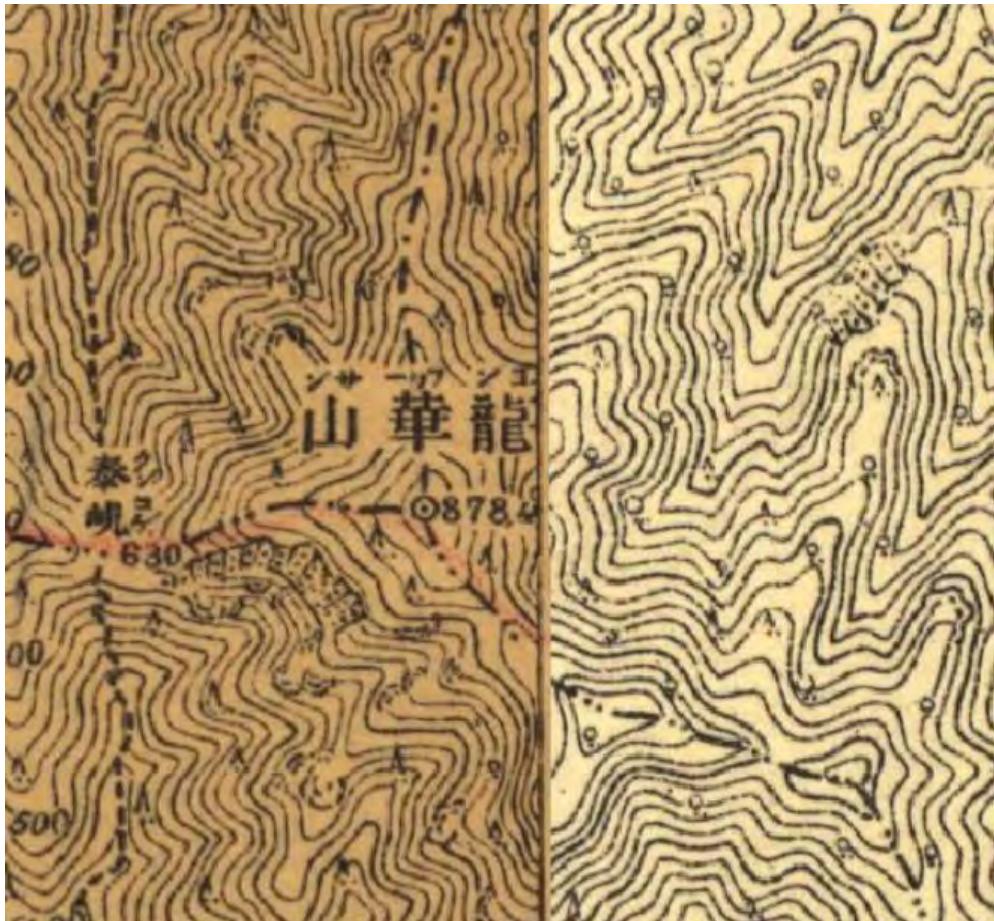
서남쪽의 관문이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안마산 동남향으로 천주교 공동묘지가 있다. 『강원도 땅이름』에는 "춘천 동쪽 관문의 산으로 말안장을 엮어 놓은 것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하여 안마산이라 하며 또한, 안화산·아내산·아나산으로도 불린다."고 기록하고 있다.

### ● 오봉산(五峰山)

경운산, 경수산으로도 부른다. 옛 명칭은 청평산으로, 시의 북산면과 화천군 간동면에 걸쳐서 위치한 산이다(고도 : 779m). 소양강댐 건너 청평사 뒤에 솟은 비로봉·보현봉·문수봉·관음봉·나한봉의 다섯 봉우리 때문에 오봉산이라는 명칭이 생겼다고 하는데 근거는 찾기 어렵다. 『강원도 땅이름』에 "5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진 해발 779m의 이 산은 고려 선종 때 이자현이 청평산이라 했다 하여 청평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오봉산에는 거사불교 및 선의 중심지인 청평사와 아홉가지 소리가 난다는 구성폭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 ● 용화산(龍華山)

시의 사북면과 화천군 간동면·하남면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878m). 주봉(主峰)은 만장봉이다. 지네와 뱃이 서로 싸우다 이긴 쪽이 용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갔다 하여 용화산(龍華山)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용화산성·용화사·용흥사 등이 있고, 준령 북쪽의 성불령에 성불사터가 있다. 용마굴(龍馬窟)·장수굴(將帥窟)·백운대(白雲臺)·은선암(隱仙岩)·현선암(顯仙岩)·득남(得男)바위·충계바위 등 각종 전설을 간직한 기암이 많고, 폭포도 6개나 되어 경치가 아름답다. 정상에서는 남쪽으로 춘천시를 에워싼 대룡산·금병산·삼악산이 보이고 그 사이로 인근의 파로호·춘천호·의암



용화산(일제강점기지도)

호·소양호 등이 보이며, 서쪽으로는 화악산·북배산이 보인다. 인근 주민의 정신적 영산(靈山)이자 명산으로서, 옛날에는 가뭄이 들면 화천군에서 군수가 제주(祭主)가 되어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고, 요즘도 해마다 열리는 용화축전 때 산신제를 지낸다. 용화산의 안개와 구름은 예로부터 성불사의 저녁 종소리, 기괴한 돌, 원천리 계곡의 맑은 물 등과 함께 화천팔경(華川八景)이라 불렸다. 『삼국사기』에는 고대국가인 맥국(貊國)의 중심지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용화산성으로 알려진 산성의 흔적도 남아 있다. 『수춘지』는 사인암성(舍人巖城)이라고

표기하였다. 특이한 바위로 선기암(仙基岩)을 거론 하며 “사북면 사인암 산성에 있다. 이 지역은 절승(絕勝)으로 군에서 제일인데, 사방에 돌이 있고 반석 위가 바둑판 모양과 흡사하다. 전해오는 말로는 예전에 선인들이 이곳으로 내려와 바둑을 두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 ● 우두산(牛頭山)

시의 북쪽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134m). 우두산은 넓은 우두벌 평지에 솟아 있는 일종의 고립 구릉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부 북쪽 13리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춘주지』에는 “부의 북쪽 13리에 있고, 산 아래에는 큰 마을이 있어 대성(大姓)이 무리지어 산다.”고 하였다. 우두산 지역은 6·25 개전 초기 국군 제6사단 장병들이 애국적인 춘천시민과 한 덩어리가 되어 인해전술의 파상공격을 자행해 온 북괴군 제2, 제7사단의 주력을 섬멸함으로써 한국전쟁 초기 전선에서 유일하게 승전보를 올렸던 유서 깊은 곳이다. 우두산은 전적지로 알려지기 전에 오래전부터 ‘솟을뫼(소슬묘)’ 전설을 들려주던 곳이다. 옛날 이곳에 소를 놓아먹이던 시절, 소들이 묘지를 마구 밟고 해집어 엉망으로 만들어 놓아도 다음 날이면 신기하게도 다시 솟아나 원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솟을뫼(소슬묘)’란 이름을 얻었다. 우두산 꼭대기에 있는 묘지는 이 이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먼저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할아버지 묘라는 설이다. 두 번째는 이 무덤의 주인이 일본 왕자 숙슬(肅瑟)의 무덤이라는 설이다. 이로 인해 일본인들이 이곳을 신성시하고, 이곳에 신궁을 건립할 생각까지 했다. 또한 아들 없는 사람이 이 무덤을 벌초하고 지성으로 공을 들이면 아들을 얻는다고 하여 부녀자들이 몰래 벌초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병든 이가 이곳에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산에는 우두정(牛頭亭)과 우두사(牛頭寺), 천제단(天祭壇)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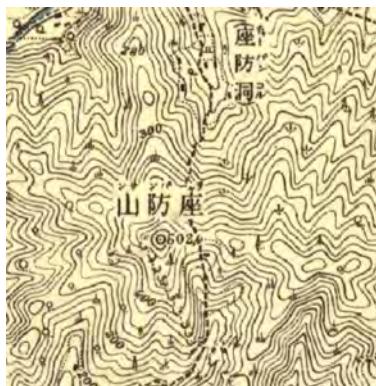
### ● 좌방산(座防山)

높이 502m로, 잣나무가 많고 정상이 잣송이처럼 생겼다 하여 잣방산이라고도 부른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남서쪽 기슭으로 홍천강이 흐른다. 좌방산에는 잣과 관련된 전설이 전한다. 옛날 이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머슴 덕쇠

가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병이 났다. 덕쇠는 갖은 약을 구해다 먹었으나 어머니의 병은



우두산(광여도)



좌방산(일제강점기지도)

깊어만 갔다. 지성으로 신령님께 비는 덕쇠 앞에 산신령이 나타나 잣방산의 잣 세 송이를 따다가 같아 먹이라고 하였다. 덕쇠가 그 말대로 따랐더니 어머니의 병환이 췄은 듯이 나았다고 한다.

### ● 청평산(淸平山)

경운산(慶雲山)으로도 부르며 최근에 오봉산으로 알려졌다. 시의 북산면 청평리와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에 사이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779m).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일명 경운산(慶雲山)이라고 한다. 부의 동쪽 44리에 있다. 고려 때 이자현

(李資玄)이 이 산에 들어와 문수원(文殊院)을 짓고 살았다.”고 전하고 있다. 『춘주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춘주의 청평산이란 것은 경운산이다. …… 때는 희녕 원년이었다. 그 뒤에 희이자가 벼슬을 버리고 여기에 숨어 사니 도적이 그치고 호랑이와 이리가 자취를 감추었다. 이에 산 이름을 바꾸어 청평(淸平)이라 하고, 원명(院名)은 문수라 하였다.” 청평산이 유명한 이유는 경치의 빼어남도 있지만, 이자현, 김시습과 같이 뛰어난 인물들이 은거라는 방식으로 거처했기 때문이었다. 그중 이자현이 청평산과 먼저 인연을 맺은 후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게 되었다. 김상현(金尙憲), 서종화(徐宗華), 안석경(安錫敬), 조인영(趙寅永), 양대박(梁大樸) 등이 지은 유람기 외에 다수의 시문이 전한다.



청평산(일제강점기지도 경운산과 동일)

### ● 향로봉(香爐峰)

칠송동과 송암동의 경계에 위치한 산이다(고도 : 314m). 『춘천읍지』에 따르면 “향로산은 춘천부 남쪽 1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동지지』에는 “향로산은 남쪽으로 10리에 있다. 서쪽으로 봉황대가 강 가까이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관동지』에는 “춘천부의 남쪽 10리에 있는데, 읍기(邑基)의 안산을 이룬다. 전방산에서 뻗어 나와 봉황

대의 주맥을 이룬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지도』, 『청구도』, 『동여도』에도 표기되어 있다. 『수춘지』는 향로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의 남쪽 삼 리에 있으며 부의 바로 맞은편인 안산[正案]이 된다. 산 모습이 수려하고 금의 광채가 정채(精彩)롭다.”



향로봉(광여도)

## 춘천의 하천

### ● 가정천(柯亭川)

남면 가정리 북쪽 봉화산 자락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큰 사행을 이루며 가정리를 관통하여 흐르다 홍천강으로 유입되는 한강수계의 지방하천이다. 하천 연장은 5km, 유로 연장은 8.71km, 유역 면적 20.43km<sup>2</sup>이다. 발원지 북쪽으로는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하천 중류 지역에는 조선 말 의병활동을 했던 의암 유인석의 유적지가 있다.

### ● 강촌천(江村川)

남산면 수동리에서 시작하여 북서 방향으로 흘러 북한강으로 유입되는 한강수계의 지방하천이다. 하천 수계는 본류와 3개의 소하천인 구곡폭포천, 둔일천, 수동리소하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천 연장은 6.8km, 유로 연장은 8.2km, 유역 면적 33.78 km<sup>2</sup>이다. 하천 주변에는 봉화산과 고깔봉 등 해발 500m 내외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다. 유역 인근의 토지 70% 이상이 임야인 산간 지역이며, 일부 구

간에는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다. 상류부와 하류부에는 하천을 따라 좁고 긴 형태의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으며, 중류부에는 논과 밭, 구릉성 경지로 이루어진 농경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하천의 재료로 상류부에는 자갈 호박돌이, 하류부에는 굽은 모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천을 따라 403번 지방도로가 있다.

### ● 고단계(古丹溪)

사북면 고단리를 지나는 하천이다. 『강원도지』에 의하면 "강원도 춘천시 북쪽에 있다. 사인암에서 발원하며 서쪽으로 흘러 모진강으로 들어간다. 하류의 송목탄(松木灘)은 산과 내가 밟고 고우며, 굽이진 곳마다 풀이 우거진 섬에 기이한 형상의 바위가 겹겹이 쌓여 있고 늙은 소나무가 가지를 드리우고 서 있어 사단보다는 못하나 퇴곡(退谷)보다는 낫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환여승람』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으며, 『춘주지』에는 더하여 "처사

(處士) 이주는 호가 출옹인데, 정자를 만들어 살았다."고 전하고 있다. 『수춘지』는 "예전에 이주(李胄)가 성품이 고상하여 혼조(昏朝)를 만나자 자취를 산수 간에 숨기고 조[朶·차조, 삽주]를 먹고 베옷을 입으며 이십여 년을 살았는데, 시내에 정자를 지어 '출옹'이라 편액을 걸고 매일 여울 가에서 잣끈을 빨고 귀를 씻었다."라고 하였다.

### ● 공지천(孔之川)

공지내, 대동천(大同川)이라 부르기도 한다. 효자동을 흐르는 하천이다. 동내면 및 홍천군 북방면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대룡산(899m)에서 발원하여 효자동을 비롯한 춘천시가지를 지나 의암호로 유입된다. 『춘천읍지』에는 "남부내면에 있다. 물의 근원은 대룡산에 있는데, 서쪽으로 흘러 봉황단으로 들어간다. 공지어(孔之魚)가 많기 때문에 이름하였다. 병술년 봄 관군을 뵐하여 내를 막고 수축하니, 백성들이 많은 이익을 보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조선환여승람』과 『강원도지』에도 비슷한 기록이 보인다. 『대동지지』에는 "대동천(大同川)은 공지천이라고도 한다. 남쪽으로 15리에 있다. 사현(沙峴), 무이협(武夷峽)에서 발원하여 서쪽 신연강으로 유입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춘천의 지명 유래』에는 "원래 곰지내라고 불렸다. 퇴계 이황이 춘천 퇴계동 외가에 왔다가 곰지내에서 고기잡이를 한 후 머슴에게 여물을 썰게 한 다음 삼태기에 담아 곰지내에 버렸는데 여물로 쓴 짚이 고기로 변해 공지어로 변했다는 것이다. 공지어(공지어는 진어[珍魚]라고도 부른다)가 산다고 하여 공지천이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국지명사전』에는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사암리 매봉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흘러 신촌리의 후하리에서 동쪽에서 오는 곰실내를 합류 춘천시 남부를 지나 서쪽 소양강에

유입하는 하천이다."고 전하고 있다.



공지천(1872년 지방지도)

### ● 금강(錦江)

『수춘지』에 "일명 서강(西江)이라 하고 부의 서쪽 삼 리에 있으니, 곧 자양강 하류이며 서면으로 통하는 진이다."라는 기록이 보인다. 서면 금산리 앞을 흐르는 강을 금강이라고 한다.

### ● 누항천(樓項川)

북산면을 흐르는 하천이다. 누항(樓項)은 다른 자료에 오항(鼯項) 혹은 오향(吾項)으로 표기되어 있다. 현재 북산면 오향리에서 발원하여 남동쪽으로 흐르다가 소양강으로 흘러드는 하천을 말한다. 『강원도지』에 "사북면의 응봉 골짜기에서 발원한다. 반석과 팔송대는 모두 빼어난 곳으로 참으로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춘천읍지』에 따르면 "북산의면에 있는데, 물의 근원은 누항 응봉곡에서 나와 남쪽으로 흘러 용담(龍潭)을 만들고 만초강으로 들어간다. 가뭄이 든 해에 개를 잡아 빠뜨리면 비가 온다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환여승람』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

### ● 만천천(萬泉川)

동면 만천리에서 시작하여 북서 방향으로 흘러 소

양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다. 소양강의 제1지류이다. 하천 수계는 본류와 2개의 소하천인 도일천과 무명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천연장은 4.7km, 유로연장은 6.8km, 유역면적 12km<sup>2</sup>이다. 유역의 상류 지역에는 하천을 따라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으며 중류 지역에는 주거지 및 상가가 형성되어 있다. 하류부는 전형적인 도심하천으로 동서 방향으로 산업단지 및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다. 점토와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천의 경사도는 상류부가 1/94, 하류부가 1/238로 하류 지역으로 갈수록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하천 상류지역에는 5번 국도가 하천을 가로지르며 지난다. 『만곡동사록(晚谷同社錄)』에 만곡팔경(晚谷八景)이 실려 있는데 「석계(石溪)에서 낚시(石溪釣魚)」가 있다. 석계(石溪)가 어디인지 정확하지가 않지만 만천천으로 추정된다.

### ● 모진강(母津江)

사북면 중앙을 흐르는 하천이다. 북한강 수계의 일부 구간을 지칭하는 옛 이름이다. 모진강 하류를 장양강과 중진강으로 구분해 부르기도 하였다. 정약용은 북한강이 마령(馬嶺)의 남쪽을 경과하여 모진이 된다고 하였는데, 마령은 지금의 원평리의 말고개를 가리키는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부 북쪽 40리에 있다. 희양의 덕진, 금성의 보제진, 낭천의 대리진이 상류이다."고 기록하며, 『관동지』와 『관동읍지』에 "부의 서북쪽 42리에 있다. 한 줄기는 황룡산(黃龍山)에서 발원하고, 한 줄기는 추지령(秋池領)에서 발원한다. 희양(淮陽)의 덕진(德津), 금성(金城)의 보제진(菩提津), 낭천(狼川)의 대리진(大利津)과 합류하여 모진강(母津江)이 된다. 하류는 신연강(新淵江)이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환여승람』에는 "군 서쪽 42리에 있다. 한 줄

기는 황룡산에서 발원하여 희양의 덕진에서 미륵산의 물과 합하고, 다른 한 줄기는 추지령에서 발원하여 양구를 지나는데, 두 물이 초사흘리탄(草沙吃里灘)에서 합하여 낭천현 앞을 지나 군 북쪽에 이르러 모진이 된다. 북관(北關)의 직로(直路)를 통과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지도』, 『청구도』, 『동여도』에는 현재의 사북면 지촌촌이 북한강으로 합류하는 지점과 북한강과 소양강이 만나는 구간에 표기되어 있다. 『광여도』에는 "동북쪽 금성현(金城縣)에서 들어온 북한강이 고을의 한가운데를 지나 서남쪽의 춘천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곳에서는 북한강이 모진강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모진강의 모진나루터는 춘천과 영서 북부를 이어주는 중요한 요충지였다.



모진강(광여도)

### ● 부귀천(富貴川)

북산면 부귀리의 부용산 건천령 지점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흘러 소양강으로 유입되는 한강수계의 지방하천이다. 하천연장은 2.88km, 유로연장은 7.67km, 유역면적 16.74km<sup>2</sup>이다. 유역 인근에는 봉화산과 오봉산 등의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토지 대부분은 임야로 구성되어 있다. 하천의 경사도는 최상류부가 1/41, 최하류부가 1/29로 유역 전반에 걸쳐 매우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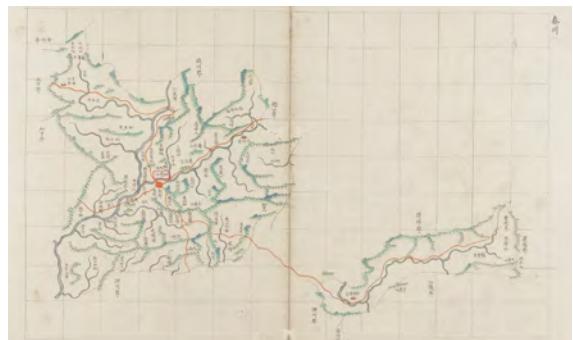
### ● 서사천(西土川)

남산면 백양리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북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한강수계의 지방하천으로 북한강의 제1지류이다. 하천연장 6.6km, 유로연장은 8.2km, 유역면적 17.14km<sup>2</sup>이다. 유역 인근 토지 대부분이 임야 지역이며, 하천 주변으로는 좁고 긴 형태의 농경지가 발달되어 있다. 유역 대부분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농가는 하천 인근에 분포하고 있다. 하천의 재료는 호박돌과 자갈이 섞여 있으며, 하류부에는 모래가 많다.

### ● 소양강(昭陽江)

북산면을 지나는 하천이다. 인강(麟江), 동강(東江), 여강(女江)이라고도 한다. 인제군 서화면 북쪽 무산(巫山)에서 발원하여 양구를 관류하면서 춘천 우두평야 동북쪽으로 흘러 북한강과 합류하고 있다. 설악산 계곡의 물과 오대산 고원에서 흐르는 내린 천 물이 인제 합강정에서 합쳐져 비로소 큰 강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부 북쪽 6리에 있다. 인제의 서화현(瑞和縣)에서 발원하여 부의 기린현수(基麟縣水)와 합류하여 양구현(楊口縣)의 남쪽에 이르러 초사리탄(草沙里灘)이 되고, 또 부의 동북쪽에 이르러 청연(靑淵)·주연(舟淵)·적암탄(狄岩灘)·소양강(昭陽江)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춘천읍지』에는 “부의 북쪽 6리에 있다. 한쪽의 물의 근원은 서화현에서 나오고 한 쪽의 물의 근원은 미수파(尾首坡) 밑에서 나온다. 한계산(漢溪山)의 절 뒤편의 물과 인제 삼기리(三岐里)의 산 아래에서 합쳐진다. 또 한쪽의 물의 근원은 오대산의 북대(北臺) 아래에서 나오는데 설악산의 남쪽 산록의 물과 합쳐져 기린현이 되었다. 또한 인제 원통역 앞에서 합쳐 양구현 남쪽으로 흘러 내려가 초사리탄이 된다. 또 부의 경계에 이르러 청

연탄이 되고 주연탄이 되고 적암탄이 되고 소양강 진(昭陽江津)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소양강 하류 백로주 머리 부분에 신용연(神龍淵)이 있었는데, 춘천에서 기우제를 지내던 첫 번째 장소였다. 소양강은 많은 문인이 노래한 춘천의 대표적인 강으로, 이황(李滉), 오숙(吳翻), 유항(柳恒), 이주(李胄) 등이 읊은 한시가 전해진다.



소양강(조선지도)

### ● 신연강(新淵江)

서면에 위치한 하천이다. 의암댐의 축조로 인하여 현재 의암호가 되어 베린 신연강은 소양강과 북한강이 합쳐서 가평 쪽으로 흐르던 강이었다. 지금의 경춘국도가 생기기 전 송현동~신연강나루~덕두원~석파령~당립리로 통하는 길이 서울과 춘천의 유일한 통로였을 때 신연강 나루는 춘천의 관문이 되어 번창하였다. 신연강 나루는 1939년에 신연교(지금의 의암호다리)가 만들어지면서 쇠퇴했지만 지금도 강 양쪽의 문암과 삼악산이 경치가 아름다워 소금강이라 불리고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신연진(新淵津)은 부의 서쪽 15리 소양강 하류에 있다.”고 하였고, 『여지도서』에는 “모진, 소양 두강이 합쳐져 신연강이 된다. 양근(楊根)의 용진강(龍津江)으로 유입된다. 관문(官門)으로부터 서쪽으로 15리 떨어져 있다.”, 『대동지지』에 “서쪽으로

10리에 있다. 모진강의 하류이다.”, 『관동지』에 “부의 서쪽 15리에 있다. 소양강과 모진강이 합류하여 남쪽으로 흘러 양근(楊根)의 용진강(龍津江)이 된다.”고 하였다. 현재 모진강과 소양강의 합류부는 의암호로 인하여 수몰되면서 없어지고 호수에는 중도와 봉어섬이라는 독특한 경관이 남게 되었다.



신연강(여지도)

### ● 신촌천(新村川)

동내면 신촌리에 소재한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인 공지천 상류에 있는 신촌천은 대룡산에서 흘러나와 석사동에서 공지천과 합류한다. 최근에 생태하천으로 정비되었는데, 호안을 자연 석축으로 정비하고 여울, 소, 정검다리 등을 설치했다. 산책로와 마을 안길 격인 관리용 도로도 놓았다.

### ● 약사천(藥師川)

도심 약사동에 흘렀던 하천이 약사천이다. 최근에 약사천을 복원하면서 이 일대에 있었던 풍물시장은 온의동으로 이전하였다. 약사천 복원사업은 1980년대 초 도시개발로 복개되어 사라진 물길을 되살려 시민 휴식·문화공간을 조성한 것이다. 옛 별당막국수에서 봉의초교를 거쳐 공지천 합류점

까지 이르는 총 1.35km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약사천 복원사업을 통해 하천을 덮고 있던 도로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모두 걷어냈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물길 주변에는 공원과 산책로가 조성됐다. 약사천 옆으로 이어지는 남부사거리~운교사거리 도로가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혀지는 등 약사천 복원사업을 계기로 주변 일대가 탈바꿈했다.

### ● 오항천(梧項川)

북산면 오항리에서 시작하여 남동 방향으로 흘러 소양강으로 유입되는 한강수계의 지방하천이다. 하천연장은 2.23km, 유로연장은 3.57km, 유역면적 6.94km<sup>2</sup>이다. 하천 인근의 토지 90% 이상이 임야로 되어 있으며 일부 지역에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다. 전형적인 산지 계곡 하천이며, 하천의 경사도는 1/7~1/40로 유역 전반에 걸쳐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하천의 재료는 큰 자갈과 굵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 ● 월송천(月松川)

서면 서상리에서 발원하여 신매저수지를 거쳐 동쪽으로 흘러 북한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다. 하천연장은 5.25km, 유로연장은 9.3km, 유역면적 21.19km<sup>2</sup>이다. 하천의 발원지 북쪽에는 가덕산과 북배산이 있다. 유역 인근의 토지 대부분은 산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중상류부와 하류 일부 지역에 농가가 분포하고 있다. 하천의 경사도는 상류부가 1/63, 하류부가 1/86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북한강 합류 지점 인근에는 70번 지방도로가 하천을 가로지르며 지난다. 『수춘지』는 월송천을 퇴로천(退老川)이라 표기하였고, 염황의 『춘주지』 ‘천석계담’에서는 ‘퇴곡천(退谷川)’이라고 되어 있다.

### ● 자양강(紫陽江)

서면 앞쪽을 흐르는 북한강을 말한다. 문헌에 따라 장양강(長楊江), 낭강(狼江), 북강(北江), 남강(男江)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장양강(長楊江)은 북한강의 발원지인 금강산이 회양부(淮陽府) 장양현(長楊縣)에 있어서 생겨난 이름으로 추정되며, 낭강(狼江)은 화천의 옛 지명인 낭천(狼川)에서 유래하였고, 남강(男江)은 맞은편에 있는 소양강과 짹을 맞춰 부르는 이름으로 보인다. 소양강의 소양(昭陽)이 방위로는 동쪽, 시간으로는 새벽에 해당되고, 자양강의 자양(紫陽)은 방위로는 서쪽, 시간으로는 저녁에 해당되기에 명명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 ● 지내천(枝內川)

동면 감정리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흘러 소양강으로 합류하는 한강수계의 지방하천이다. 하천 수계는 본류와 2개의 소하천인 월곡천과 뒷골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천연장은 4.2km, 유로연장은 6.24km, 유역면적 20.34km<sup>2</sup>이다. 발원지 남쪽에는 명봉이 있으며 서쪽으로 구봉산이 있다. 유역 대부분 지역에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류 지역에는 하천을 따라 농경지와 주거지가 좁게 분포하고 있다. 하천의 재료는 주로 굵은 자갈과 노출암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류구 간에는 자갈이 섞인 굵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다. 하천의 경사도는 1/23~1/77로 유역 전반에 걸쳐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하천 중류부에는 56번 국도가 하천을 가로지르며 지난다.

### ● 지촌천(芝村川)

사탄천(史吞川), 사내천으로 불린다. 백운산과 화악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화천군 사내면의 물을 모아 춘천과의 경계를 따라가다가 북한강으로 들어

가는 하천이다. 현재는 하천이 지촌리를 지나 북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므로 지촌천(芝村川)이라고 한다. 『조선지도』와 『동여도』에서는 서상면을 흐른다고 해서 서상천(西上川)이라 표기하였다. 『강원도읍지』에는 “춘천부의 70리에 있으며, 동쪽으로 흘러 사탄오리(史吞五里)의 계곡을 감싸고 돌아 오지촌(五芝村)을 돌아 동남향으로 모진강 상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춘지』는 청한계(淸寒溪)라 표기하였다. 강줄기를 따라 곡운구곡이 조성되어 있는데, 제1곡 방화계(傍花溪), 제2곡 청옥협(靑玉峽), 제3곡 신녀협(神女峽), 제4곡 백운담(白雲潭), 제5곡 명옥뢰(鳴玉瀨), 제6곡 와룡담(臥龍潭), 제7곡 명월계(明月溪), 제8곡 융의연(隆義淵), 제9곡 침석대(疊石臺)이다.

### ● 청평계(淸平溪)

북산면 청평리를 흐르는 하천이다. 북산면과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 사이에 있는 오봉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지나 소양호로 흘러든다. 『춘천읍지』와 『조선환여승람』에 “물의 근원이 경운산(慶雲山, 지금의 오봉산)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청평산은 일명 경운산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청평계는 청평산에서 발원하였기 때문에 발원지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평계가 흐르는 유역 일대가 청평리이며, 관련 지명으로 청평골·청평사·청평선착장·청평교 등이 있다.

### ● 추곡천(楸谷川) 1

북산면 추곡리에서 발원하여 남동쪽으로 흘러 추곡리의 농경지를 관통한 후 소양강으로 유입되는 한강수계의 지방하천이다. 하천 수계는 본류와 3개의 소하천인 횃골천, 상추곡1천, 상추곡2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천연장은 1.26km, 유로연장은 4.82km, 유역면적 16.05km<sup>2</sup>이다. 하천의 명칭은 발원지의 지명에서 유래하였다. 유역 인근의 토지 대부분은 임야로 구성되어 있다. 하천의 경사도는 최상류부가 1/31, 최하류부가 1/21로 유역 전반에 걸쳐 매우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하천변을 따라 46번 국도가 있다. 『춘천읍지』에 "북산외면(北山外面)에 있는데, 물의 근원은 양구군 사명산 서쪽 계곡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러 두담 상류로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 ● 추곡천(繳谷川) 2

남면 추곡리에서 발원하여 사행을 이루며 남서 방향으로 흘러 홍천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다. 한강수계의 지방하천으로 홍천강의 제1지류이다. 하천 수계는 본류와 9개의 소하천인 저질천, 전의 골천, 솔만이천, 터골천, 피아골천, 벼들천, 후동천, 웃자골천, 황골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천연장은 7.28km, 유로연장은 9.39km, 유역면적 25.24km<sup>2</sup>이다. 『춘주지』에 의하면 "추곡고개에서 근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추곡리에서 다시 서쪽으로 흘러서 발산을 지나 홍천강에 유입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 ● 팔미천(八味川)

동산면 원창리에서 발원하여 북서 방향으로 흘러 북한강으로 유입되는 한강수계의 지방하천이다. 하천연장은 18.8km, 유로연장은 24.93km, 유역 면적 74.54km<sup>2</sup>이다. 유역 인근의 토지 대부분에는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하류 일부 지역에만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다. 삼포유원지 인근의 하천 중하류지역에는 70번 지방도로가 있으며, 북한강 유입 지점 인근에는 46번 국도가 있다. 동산면(東山面) 원창리(原昌里)의 고원평지를 지나는 하천이다.

『춘주지』에 "대룡산지(大龍山地)에서 근원하여 서 남쪽으로 흘러 시의 동산면을 지나 구암동·재취동에서 서북방향으로 바꾸어 증리(增里) 앞 팔미평야에 흐르며 의암리(衣岩里)에서 신연강(新延江)에 유입한다. 하류 팔미평야에 발달한 퇴적층은 신동면(新東面)에서 중요한 농경지를 이루고 있으며 농업 취락이 발달되었다. 그러나 토층(土層)이 깊지 못하고 보수력(保水力)이 약한 편이다."고 기록하고 있다.

### ● 퇴계천(退溪川)

신동면 정죽리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퇴계동을 관통하여 흐르다가 공지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옛 문헌과 지도에는 무릉계(武陵溪)로 표기되어 있다. 물린개, 무린개 등으로 불리던 이름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 무릉계(武陵溪)이다. 행정명 퇴계동의 유래가 되는 하천이다. 반희언이란 호자와 관련된 전설이 다음과 같이 전한다. 반희언이 어머니와 함께 이 지역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며 살고 있었는데 폭우가 쏟아져 과수원이 물에 잠길 상황이 되었다. 이에 하늘에 떨었더니 물길이 저 멀리 물러나서 흐르게 되었다는 전설이다. 물길이 물러났다고 하여 물린개로 불렸다고 하며 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퇴계(退溪)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전설일 뿐이다. 우리나라 하천의 대부분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이 하천은 특이하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생겨난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 복숭아가 많았던 골짜기라서 도연명(陶淵明)의 <도화원기(桃花源記)>의 배경이 되는 고을이름인 무릉(武陵)에서 따와 붙인 이름이라고도 한다.

### ● 품곡천(品谷川)

동면 품결리를 관류하는 하천이다. 품결리는 품실(品谷)과 말결리(末傑里)리에서 한 글자씩 따서 명명된 지명으로, 품실의 한자표기가 품곡이다. 품결리는 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간 마을이다. 북쪽으로 소양호가 위치하고 있다.

### ● 학곡천(鶴谷川)

동내면 사암리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공지천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다. 한강수계의 지방하천으로 북한강의 제2지류이다. 하천연장은 3.6km, 유로연장은 5.13km, 유역면적 14.44km<sup>2</sup>이다. 하천 상류부 인근에는 산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하류부에는 농경지와 주택지가 조성되어 있다. 하천의 경사도는 상류 지역이 1/10~1/65, 하류 지역이 1/70~1/131로 유역 전반에 걸쳐 비교적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공지천 합류 지점 주변으로 55번 중앙고속도로와 46번 국도가 하천을 가로지르며 지난다.

### ● 한계천(寒溪川, 漢溪川)

신북읍 지내리에서 시작하여 남쪽으로 흘러 북한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다. 한강수계의 지방하천으로 북한강의 제1지류이다. 하천수계는 본류와 1개의 소하천인 지내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천연장은 4.9km, 유로연장은 5.03km, 유역면적 5.9km<sup>2</sup>이다. 유역의 상류지역에는 하천을 따라 뱀이 좁게 분포하고 있으며, 중하류지역에는 동서 방향으로 농경지가 넓게 형성되어 있다. 하천의 재료는 모래 혼합물과 호박돌로 이루어져 있다. 하천의 경사도는 상류부가 1/40, 하류부가 1/154로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하천의 중류부 인근에는 용산저수지와 지내리저수지가 있으며, 하

천 중하류부를 따라 403번 지방도로가 지난다.

### ● 후하천(後下川)

동내면 거두리 후하천은 대룡산 계곡물이 도심을 통과해 공지천으로 유입되는 작은 시내이다. 거두리에서 서류하여 석사동 쌍다리 부분에서 공지천과 합류하는 하천이다. 지명의 유래는 응곡(熊谷)과 후옹곡(後熊谷)을 상·중·하로 나눈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후하천 산책로 구간 벽면에 추억의 영화 포스터 등 간판을 그려 넣어 ‘추억의 영화 벽화 거리’를 조성, 이색 관광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 제2편

### 인용문헌 서지사항

- 『춘주지(春州誌)』(1648, 인조 26)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 영조 33~41),  
『호구총수(戶口總數)』(1789)  
『춘천읍지(春川邑誌)』(1831, 순조 31)  
『춘천부지(春川府誌)』(1850 이후 추정)  
『대동지지(大東地志)』(1864)  
『관동읍지(關東邑誌)』(1871, 고종 8)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1910)  
『강원도지지조사(江原道地誌調查)』(1915)  
『강원도지(江原道誌)』(1941)  
『수춘지(壽春誌)』(1953)  
『춘주지(春州誌)』(1984)  
『춘천백년사(春川百年史)』(1996)

# **춘천의 읍면동별 지명유래**



## 강남동(江南洞)

삼천동, 송암동, 온의동, 칠전동

춘천시의 서남부에 위치한 행정동이다. 삼천동·송암동·온의동·칠전동의 4개의 법정동을 관할한다. 이 지역은 서울 춘천 간 경춘국도가 맞닿은 춘천시의 관문으로 춘천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이 소재한다. 강남동은 예전에 남내면(南內面)에 포함되었다. 『여지도서』에 “삼천리(三川里)는 남내면 지역이며, 관문으로부터 15리이며 79호가 산다.”는 기록이 있다. 송암동은 송현리(松峴里)와 의암리(依巖里)가 통합된 이름이다. 『여지도서』에 송현리와 의암리는 남내면 지역으로 “송현리는 관문으로부터 17리, 30호이며, 의암리는 관문으로부터 25리, 47호”라고 기록하고 있다. 칠전동은 『여지도서』에 “칠전리(漆田里)는 남부내면 지역이며 관문으로부터 8리, 28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온의동을 남부내면 하칠전리(下漆田里) 온의골”로 기록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오누골로 불렸다. 1939년 일본식 지명에 따라 상반정(常盤町)이라고 했다가 해방 후 온의동이 되었으며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강남동이 되었다. 삼천동은 춘천군 남내면 지역으로 마삼내·마삼천이라 불렸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삼천리라고 하였고, 1998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강남동이 되었다.

# 삼천동(三川洞)

1절

**위치와 현황** | 춘천시 강남동의 법정동으로 의암호와 접해 있어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원래 춘천군 남부내면 지역으로 마삼내(麻三內) 또는 마삼천(麻三川)이라 불렸으며, 1914년 강창리·농암리·양지변리·송현리 일부를 병합하여 춘천군 신남면으로 편입되었다. 1973년 춘천시에 이속되며 삼천동이 되었고, 1998년 강남동이 관할하는 법정동이 되었다. 서울-춘천간 46번 국도가 맞닿은 지역으로 춘천 시내로 들어오는 관문이다. 송암동과 삼천동에 걸쳐 있는 의암호와 주변의 공원은 호반의 도시 춘천을 상징하는 지역이다.

**연혁** | 삼천동은 1648년도에 작성된 『춘주지』에 ‘남내(南內)’의 ‘삼내(三內)’와 봉황대 남쪽에 있었던 ‘염창(鹽倉)’으로 표기했다. 이후 『여지도서』에서 남내면(南內面)의 삼천리(三川里)로 표기되었다. 『호구총수』에는 남내일작면(南內一作面)의 삼천리(三川里),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남내면(南內面) 삼천리(三川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남내일작면(南內一作面)에서 마삼천리(麻三川里), 양지변리(陽之邊里)로 기록되었다. 『강원도지지조서』, 『강원도지』에는 신남면(新南面)의 삼천리(三川里)로, 『수춘지』에는 신동면(新東面)의 삼천리(三川里)로 표기하였다.

**유래** | 세 개의 하천이 만나는 지역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서 세 개의 하천이란 북한강과 공자천 그리고 지금은 의암댐 건설로 사라진 신연강을 의미한다고 한다.

## ● 강원국악예술회관

[별칭] 국악예술회관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83-6. 삼천동 200번지. 춘천어린이회관, KT&G 상상마당 춘천 아트센터 입구 삼거리에 있다.

[유래]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육성 및 도민의 문화 수요 충족과 예술 창작 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강원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건립하였다.

## ● 강원도향토사료관

[별칭] 향토사료관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99번길 25 어린이회관. 삼천동 223-2번지. 어린이회관 안에 있다. KT &G 상상마당 춘천 아트센터와 같이 있다.

[유래] 강원도 지역의 역사·향토·생활에 관한 유물과 농기구류 등 약 1,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 ● 강창골

[별칭] 강창리(江倉里)

[형태] 골짜기

[위치] 현재 베어스타운호텔 뒤편 골짜기. 행정지 번호 '강창골길'이 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마삼내 북쪽 소양강 가에 있는 마을. 조선 시대 소양강창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베어스타운호텔 뒤편 골짜기”로 소개되어 있다. 『조선지지자료』에는 ‘농암리(籠巖里)’ 소재 골짜기에 ‘江倉谷(강창골)’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강창[江倉]+골[谷]’로 분석된다. ‘염창(鹽倉)’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된다. ‘염창’은 소금창고이다. 1648년도에 작성된 『춘주지』에 “봉황대 남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는 설명과

함께 ‘염창(鹽倉)’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염창(鹽倉)이 있어 생겨난 지명으로 보인다. 염창(鹽倉)은 소금창고를 말한다. 지금도 기와조각이 발견된다고 한다.

## ● 강창고개

[별칭] 강창현(江倉峴)

[형태] 고개

[위치] 별동리(자라우)에서 삼천동 강창골로 넘어가는 고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별동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江倉峴(강창고개)’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강창(江倉)+고개[峴]’로 분석된다. 강창골로 가는 고개라는 의미이다. 강창골은 삼천동 베어스호텔 뒤편 골짜기이다.

## ● 공원산마을

[형태] 마을

[위치]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주변 마을

[유래] 평화의 종이 설치된 뱈산에 공원이 있어서 ‘공원산’이라 불렸고,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이라 공원산마을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공원(公園)+산(山)+마을’로 분석된다.

## ● 공지천교(孔之橋)

[형태] 다리

[유래] 공지천에 놓인 다리이다. 1929년 최초로 공지천에 근대식 다리가 세워졌고, 1966년 기존 교량 옆에 신축하였다가 2002년 철거 후 확장하여 새롭게 건설하였다.

[유래담] 공지천, 공지어 유래담 : 퇴계 이황이 공지어를 만든 춘천 퇴계동과 공지천 이야기 | 퇴계 이황이 춘천의 퇴계동에서 아이들을 가

르치고 있었다. 하루는 강아지가 오더니 퇴계의 가르침을 들었다. 삼 년이 지난 후 강아지는 사라지고, 초립동이가 와서 용왕의 아들이라면서 용궁으로 퇴계를 모셔갔다. 용궁에서 지푸라기를 선물 받아 나온 퇴계는 그것을 잘라 먹었더니 고기였다. 마지막 남은 지푸라기를 물에 던져 공지어를 만들었다. 이때부터 이 물을 공지천이라고 하며, 퇴계가 아이들을 가르치던 곳을 퇴계동이라 한다.

용궁에서 지푸라기를 선물 받은 퇴계 이황 | 퇴계 이황이 지금의 춘천 퇴계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루는 강아지가 집으로 들어오더니 글을 가르치고 있는 마루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는 퇴계의 가르침을 경청하였다. 이를 이거나고 사흘이 지나도 강아지는 가지 않았다. 퇴계는 강아지가 기특하여 끼니때마다 자기 밥의 반을 덜어서 강아지에게 주었다. 반찬도 반을 덜어서 강아지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기를 삼 년, 강아지는 배울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는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웬 초립동이가 퇴계를 찾아왔다. 그는 전복을 입고 초립을 쓰고 있었다. 초립동이는 퇴계에게 큰절을 하고 나서 공손하게 말하

였다. “저는 용왕의 아들입니다. 아버님께서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하셔서 이렇게 선생님을 모시려 왔습니다.” “용왕께서 어째서 나를 부르시는�?” “제가 용궁에서 학업을 게을리하고 아버님 말씀을 잘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 진노하시어 저에게 개 탈을 씌워 주시며 퇴계 선생님 맥 마루 밑에 가서 삼 년을 엎드려 있다가 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삼 년 동안 마루 밑에 있으면서 선생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기다가 선생님께서 끼니때마다 제게 밥을 주시어 황공할 뿐입니다. 아버님께서 이런 사정을 아시고 감지덕지하시어 선생님을 용궁으로 모셔오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렇지만 세속 사람이 용궁에를 어찌 갈 수 있는고?” “저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퇴계는 초립동이를 따라나섰다. 물가에 이르러 초립동이가 주문을 외자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길이 생겨나는 것이 아닌가! 선녀들과 초립동이의 안내를 받아 퇴계는 용궁에 이르렀다. 용궁은 그야말로 별천지였다. 용왕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퇴계는 며칠을 잘 지냈다. 용궁에서 나오는 날 용왕은 퇴계에게 짚 한 오라기를 주며 말하였다. “이것을 조금씩 잘라서 반찬으로 드십시오.” 초립동이와 선녀들이 퇴계를 세상으로 안내해 나왔다. 작별하면서 초립동이가 퇴계에게 말하였다. “아버님께서 주신 것, 꼬리부터 자르지 마시고 머리부터 잘라 드십시오.”

집에 돌아와 퇴계는 지푸라기를 조금 잘라 지져보았다. 자를 적에는 지푸라기인데, 지져놓고 보니 고기였다. 그것은 용궁에서 먹던 그 진미의 고기였다. 오래오래 두고 먹다 보니 지푸라기 끝이 조금만 남게 되었다. 퇴계는 그것을 개울에 넣었다. 그랬더니 그것이 수많은 고기가 되었다. 그 후로는 개울에 손을 넣기만 하면 고기가 한 마리씩 잡혔



공지천교

다. 맛이 일품인 그 고기가 바로 공지어라는 것인데, 그로부터 그 개울을 공지어가 살고 있는 강이라 하여 공지천(孔之川)이라고 일러온다. 그때 퇴계가 살았던 곳이 춘천의 퇴계동이 되었다.

### ● 공지천유원지야외공연장

[별칭] 공지천야외공연장, 야외공연장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수변공원길 18. 삼천동 469-15번지. 공지천유원지 안에 있다.

[유래] 춘천시민의 각종 축제 및 공연 등 유원지로 이용된다. 춘천시민이 사랑하는 도심지에 있는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여유로운 호반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수변산책로를 비롯해 조각공원, 분수대, 야외공연장, 레포츠시설 등이 있는 춘천을 대표하는 유원지이다.

### ● 구마니

[별칭] 구만리

[형태] 마을

[위치] 삼천교차로에서 춘천수변공원 사이 스포츠타운길 남쪽 일대이며, 도로지명 ‘구마니길’이 산재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강창리(江倉里) 소재 마을 이름으로 ‘구만이’와 주막이름으로 ‘九萬里酒幕(구만이쥬막)’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굼[穴, 崇]+안[内]+이[명사파생접미사]’로 분석된다. ‘굼/곰’의 어원은 “Vm(V)”이며 그 뿌리의미(root meaning)는 ‘승(崇)’이다. “Vm(V)”는 ‘감/검/곰/굼/금/개마/고마/금마’ 등으로 실현되며, ‘승(崇)’은 ‘높고 현묘하여 신령스럽다’의 의미망을 가진다. ‘굼+안(内)’은 “Vm(V)+”이 다양한 의미전성을 가지는 가운데 ‘산과 산 사

이 깊은 골짜기 안에 있는 현묘한 곳’이 된다. 일본어의 力ミ(가미) · 力ム(가무), 아이누어(語)의 ‘Kamui’ 등도 곰[熊] · 신(神)의 토템으로 쓰이며, 북방민족에겐 공통 어원형을 가진다. ‘구멍’은 ‘골+양=고랑’처럼 ‘굼’에 축소파생접미사 ‘-양/엉-’이 결합한 것이다. ‘골’보다 작은 ‘고랑’이듯 ‘굼’보다 작은 ‘구멍’이다. ‘굼’은 ‘구멍’의 준말이 아니다. ‘아득하게 먼 거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서 九萬里(구만리)는 ‘구마니’의 의미를 격상한 한자 표기이다.

### ● 김유정문학비

[형태] 유적

[위치] 춘천시 삼천동 조각공원 내에 있다.

[유래] 1994년 10월 20일 김유정기념사업회에 의해, 제작은 이운식 강원대 교수가, 글씨는 황재국 강원대 교수가 맡아 건립되었다.



김유정문학비

### ● 당재

[형태] 고개

[위치] 춘천시 삼천동 산1. 춘천MBC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농암리(籠巖里)’ 소재 고개이름으로 ‘唐峴(당지)’와 포구(浦口) 이름으로 ‘唐峴浦口(당지포구)’가 등재되어 있다. 춘천MBC가

위치한 언덕을 ‘당재’라 불렀다.

[어원풀이] ‘당[서낭-堂]+재[峙]’로 분석된다. ‘당’은 ‘서낭당’이고, ‘재’는 ‘고개’이다. 서낭당이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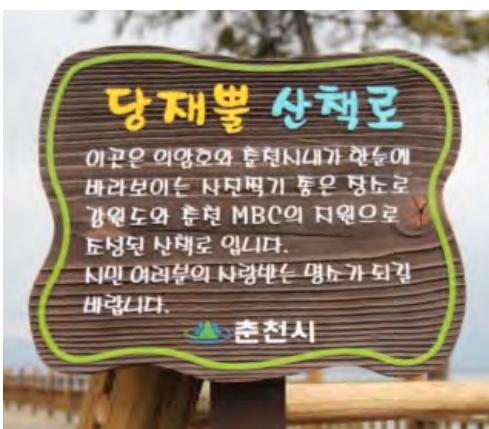
### ● 당재뿔

[형태] 등성이

[위치] 춘천시 삼천동 산1. 춘천MBC 부근 공지천을 따라 설치한 산책로가 있는 곳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농암리(籠巖里)’ 소재 고개이름으로 ‘唐峴(당지)’와 포구(浦口) 이름으로 ‘唐峴浦口(당지포구)’가 등재되어 있다. 춘천MBC가 위치한 언덕을 ‘당재’로, 춘천MBC 사옥에서 의암호 물가쪽으로 빠져나온 부분을 ‘당재뿔’이라 불렀다.

[어원풀이] ‘당[서낭-堂]+재(峙)+ㅅ+불/부리’로 분석된다. ‘당’은 ‘서낭당’이고, ‘재’는 ‘고개’이고, ‘-ㅅ-’은 사이시옷이며, ‘-부리/뿌리’의 어원적 의미는 1) 산(백제어), 2) 고을/흘(고구려어), 3) 불(신라어)이나, 신라어를 계승한 ‘부리>불(火)’ 과는 달리, 백제계와 고구려계 ‘-부리’는 고지명에 스며들면서 그 기본의미를 넘어 어의 확장이 일어나 ‘산, 마을, 모룡이, 등, 들, 골, 내, 벼랑’ 등으로 남게 된다.



당재뿔 산책로

그래서 ‘-부리’는 어떤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어느 지역에 반영되었는가에 따라 그 해석을 취하게 된다. ‘당재뿔’은 서낭당이 있는 고개에서 물가로 툭 빠져나온 곳을 말한다.

### ● 도장골

[별칭] 도장곡(道藏谷)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마삼천리(麻三川里)’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道藏谷(도장골)’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도장[闡]+골[谷]’로 분석된다. 한자표기 ‘道藏’은 음차자이다. 지명에서 ‘도장’은 ‘안방[闡]’의 고어로서 ‘사방이 산이나 둑덕으로 둘러싸여 안방’처럼 아늑하기 때문에 붙여진 지명이다.

### ● 돌고개

[별칭] 돌모루, 석현(石峴)

[형태] 고개

[위치] 중도 선착장 옆 잠두봉 입구를 지나는 스포츠타운길 도로 한 가운데이다.

[유래] 예전엔 작은 고갯길이었으나 현재는 4차선 도로가 개설되었고, 180년 된 갈참나무 성황목이 도로 가운데에 서 있었다. 『조선지지자료』에 ‘마삼천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石峴(돌고기)’이 등재되어 있다. 언덕에 큰 바위가 있어 돌고개란 명칭이 붙었다고 『춘천백년사』에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돌[石]+고개[峴]’로 분석된다. 돌무더기와 바위가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돌모루’란 이칭이 있고, 도로가 직선이 아니라 빙 둘러 굽은 모양으로 되어 있기에 ‘돌아가는[回] 고개[峴]’란 의미로 볼 수도 있다.

## ● 마삼내(麻三內)

[별칭] 마삼천(麻三川)

[형태] 마을

[위치] 시내에서 송암리로 가는 언덕의 첫 마을.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마삼천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麻三川里(삼니)’가 등재되어 있다. 기존 문헌에는 삼천동의 유래가 마삼내라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마[南]+삼(三)+내[川]’로 분석된다. ‘삼내(三內)’는 세 개의 냇물, 삼거리, 오거리와 같은 물의 갈래를 말하며, 삼천동(三川洞)은 뜻으로 쓴 지명이고 ‘내(內)’라는 말은 본래 아니누말로 〈마을〉 또는 〈강〉을 칭하나, 주로 〈강〉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또 ‘마’는 남풍(南風)을 ‘마파람’이라 부르듯이 우리 옛말 ‘남쪽’의 뜻이며, ‘麻’는 한자 음을 빌려 표기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마삼내(麻三內)’는 ‘삼내(三內) 남쪽 마을’의 뜻이다.

〈참고〉 예전 춘천의 수로 이용에서, 오미나루가 있는 자양강의 북쪽 섬 ‘고슴도치섬[蝸島]’의 고유 이름은 ‘된섬’인데, 이때 ‘된’은 뱃사람들의 은어로서 ‘북쪽’을 뜻한다. ‘된섬’과 봉황대가 있는 ‘마삼내’는 각각 북쪽과 남쪽 나루터를 오르내리는 뱃길이었다.

지금은 삼천동 350번지 삭녕최씨(朔寧崔氏) 교도공춘천파(敎導公春川派) 사당인 승조사(崇祖祠) 옆에 있다.



모현재



모현재에 봉안된 세 분의 위파

## ● 모현재(慕賢齋)

[형태] 유적

[위치] 삼악산호수케이블카주차장 동쪽 스포츠타운길 너머 능선 자락에 있다. 본래 용담서사터에 있던 것을 지금의 위치로 옮겼다.

[유래] 춘천 지역에 성리학을 전파하고 후학을 양성한 중암(重菴) 김평묵(金平默), 용담(龍潭) 최운경(崔雲卿), 동은(東隱) 최광의(崔廣義) 선생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제자들과 후손들이 고개 입구 오른쪽 산 평평한 곳에 모현재를 세웠다.

## ● 배뫼

[별칭] 뱠애, 뱡애, 농암리(籠巖里)

[형태] 마을

[위치] 옛 농암리, 현 공지천 뱡산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농암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籠巖里(빔이)’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빔이>배뫼

‘빔>비>배[舟]+이>미>매/뫼[山, 岩]’로 분석된다. ‘배뫼’에서 ‘배[舟]’는 지형 모습을, ‘뫼[山]’는 지칭 대상을 가리킨다. 전국적인 지명인 ‘농암리’의 한

자 표기는 篠巖里이거나 農巖里이다. 篠巖里는 '농  
작, 삼태기 모양의 바위'라 하고, 農岩里는 '농소(農  
所)에 있는 바위'라 한다. 「빔이>배뫼」를 『조선지지  
자료』에서 篠巖里로 한자 표기한 것은 그 지형이  
장룡처럼 길고 곧게 늘어선 바위 모양에서 따온  
것이다. 공지천 변에 있는 '뱀산'에서 유래한 것으  
로 보인다. '뫼'는 지명 전의(轉意)로 '바위[岩]'를  
지칭하기도 한다.

### ● 뱀산

[별칭] 뱵의산, 뱵애산

[형태] 산

[위치] 공지천과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사이

[유래] 뱀이 많은 산이라 하여 뱀산으로 불렸다는  
증언이 있다.

[어원풀이] '뱀/뱅/벵애/빙애[벼랑, 崖]+산(山)'으로  
분석된다. 절벽처럼 가파르게 솟아있는 산으로, 비  
탈이란 의미의 '벼랑산'이 벼랑의 옛말인 '빙애산/  
빙에산/베에산, 뱵애산/뱅의산/비로산' 등으로 나  
타난다. '뱀이 많은 산이라 하여 뱀산으로 불렸다'  
는 유래는 '뱀'을 훈차한 민간어원설이다.



1930년대 춘천시가지 그림에 표기된 '공지천'과 '뱀의산'

### ● 봉황대(鳳凰臺)

[별칭] 봉황대산, 봉대산(鳳臺山)

[형태] 산

[위치] 중도 선착장 좌측이고, 삼천동 라데나콘도  
우측 사이에 있는 잡두봉(蠶頭峯 126m)을 말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마삼천리' 소재 산 이름  
으로 '봉황대산(鳳凰山)'이 등재되어 있다. 봉황대  
란 이름은 중국 시인 이태백이 난징[南京]의 봉황  
대에서 쓴 한시에서 연원한다. 봉황대에 오르면 장  
강(長江) 주위에 있는 이수삼산(二水三山)과 백로주  
(白鷺洲)가 보인다고 했다. 잡두봉(蠶頭峯)에서 바라  
본 두 개의 물줄기(자양강과 대바지강)와 백로주, 그  
리고 삼산(삼악산)까지 저곳과 흡사한 풍광이어서  
이곳을 봉황대라 불렀다. 자양강은 춘천의 현 의암호  
위치의 북한강을, 대바지강은 춘천의 현 의암호  
위치의 소양강이다. 백로주는 예전 중도와 봉어섬  
일대가 모두 백사장이던 시절에 붙인 명칭이다.

[어원풀이] '봉황(鳳凰)+대(臺)'로 분석된다. 수컷을  
봉(鳳), 암컷을 황(凰)이라 하는 봉황(鳳凰)은 상서  
롭고 고귀한 의미를 가진 상상의 새이다. 태평성대  
를 상징하는 동물로 기린, 거북, 용과 함께 사령(四  
靈)으로 불렸다. 대(臺)는 주위 평지보다 높은 공간  
으로 경치를 감상하며 한시(漢詩)를 짓고 풍류를  
즐기던 곳이다. 봉황대는 전국적으로 산재하는 그  
지역의 명소이다.

### ● 삼악산호수케이블카

[별칭] 삼악산케이블카

[형태] 관광

[위치]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245. 삼천동 392-10  
번지.

[유래] 2021년 10월 8일 개장한 3.61km 케이블카  
이다. 삼천동에서 의암호를 가로질러 삼악산을 연

결하는 국내 최장 케이블카로, 산, 호수, 도시 그리고 문화가 함께하는 춘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악산호수케이블카

### ● 삼천동 생태공원

[별칭] 생태공원

[형태] 공원

[위치] 삼천동 산4-1. MBC춘천문화방송국 입구, 산 능선에 있다.

[유래] 삼천동생태공원은 산까지와 한국산 개구리가 서식할 수 있는 수준의 생태환경과 탐방시설을 갖췄다. 생태공원은 춘천지구전적기념관, KT&G 상상마당 야외공연장, 시립도서관 맞은편 샛길로 진·출입 할 수 있다.

### ● 삼천동 의암공원

[별칭] 의암공원, 의암근린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수변공원길 18. 삼천동 469-15번지. 공치천이 의암호와 만나는 입구 주변에 있으며, 공지천야외공연장 등이 옆에 있다.

[유래] 삼천동 공지천 변에 위치한 근린공원으로 인근에 공지천조각공원과 공지천유원지, KT&G

상상마당춘천아트센터 등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인라인스케이트장과 X-game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풋살장 등의 운동 시설과 야외공연장, 잔디광장, 유아숲체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의암공원에는 맥바위(맥국바위), 여성의병 장윤희순동상, 위안부기림소녀상이 있고, 조각공원에는 청오차상찬동상이 있으며, 공지천교 건너에 에티오피아한국전참전기념탑이 있다.

### ● 선들

[별칭] 입석평(立石坪)

[형태] 들

[위치] 돌고개를 지나 호반요양병원으로 이어지는 들판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농암리’ 소재 들판이름으로 ‘立石坪(선들)’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서다->선[立]+돌[石]+들[坪]’로 분석된다. ‘선들[立石]’이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돌+들’의 유사한 음운 중복을 피하면서 ‘선들’이 되었다.

### ● 선돌고개

[별칭] 선돌고개

[형태] 고개

[위치] 자라우[鼈洞]에서 춘천 시내로 가는 고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별동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立石峴(선바위고기)’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선[立]+들/돌[石]+고개[峴]’로 분석된다. 선돌이 있는 마을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돌+들’의 유사한 음운 중복을 피하면서 ‘선들’이 되었다.

### ● 송조사(崇祖祠)

[형태] 사당

[위치] 삼천동 350번지. 옆에 모현재(慕賢齋)가 있다. 삭녕최씨(朔寧崔氏) 교도공춘천파(敎導公春川派) 사당이다.

### ● 안산(案山)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농암리’ 소재 산 이름으로 ‘안산(案山)’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안산(案山)’은 일반적으로 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땅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을 말한다. 농암리가 현재 공지천 가 뱃산 부근 마을임을 감안할 때 뱃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 ● 연산골

[별칭] 영산곡(靈山谷)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농암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靈山谷(연산골)’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연(連)/영(靈)+산[山]+골[谷]’로 분석된다. ‘연산(連山)골’로 본다면 산이 이어져 있는 골짜기란 의미가 되고, ‘영산(靈山)골’로 본다면 신성한 산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가 된다. 농암리가 현재 공지천 가 뱃산 부근 마을임을 감안할 때 의암공원 뒤편 산줄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춘천 MBC부터 산줄기가 죽 늘어서 있다는 점과 예전에 서낭당이 있어 ‘당재’로 불렸다는 점이 그 근거가 된다.

### ● 용늪

[별칭] 용늪. 용녹구미, 용소(龍沼), 용연(龍淵), 용담(龍潭)

[형태] 소(沼)

[위치] 강원체고에서 의암호 방향 산자락 아래 있던 소(沼)로 현재는 수몰되었다.

[유래] 『강원도지지조서』에 마삼천리에서 서남쪽에 용소(龍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 “용이 올라갔다는 늪. 신영강의 후미가 되는 용녹구미가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용(龍)+늪[소, 沼]’으로 분석된다. 별칭 ‘용녹구미’는 ‘용녹/용늪[龍沼]+구미(屈美사)’로 분석되며, 지명접미사 ‘구미’는 ‘바다나 강가 주변에서 음푹 들어간 곳이나 후미진 곳’을 뜻한다. 그 형태는 ‘구미/귀미/후미’가 있고, 유사 의미로 ‘-소(沼)’와 ‘-안’ 등이 있다.

### ● 용담서사터

[별칭] 용담서당(龍潭書堂)

[형태] 유적

[위치] 춘천체육고등학교 인근 작은 고개 너머 우측 작은 산자락, 연못(용담) 옆에 있었다.

[유래] 최운경(崔雲卿, 1842~1926)이 후학을 양성할 목적으로 세운 서당의 이름이다. 용늪 앞 산자락에 위치하여 용담서사란 이름이 지어졌다. 홍재구(洪在龜)가 지은 행장에 의하면 김평묵은 홍창섭(洪昌燮), 김부순(金富淳), 최인하(崔寅夏) 등이 거처를 마련해 주어 삼천강(三川江) 근처에 살게 된다. 이때 최운경이 개설한 용담서사(龍潭書社)에 초빙되어 후학을 양성했다. 용담서사는 김평묵 이후에 최운경이 후학을 양성하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 ● 장고개

[별칭] 장조개, 장꼬개

[형태] 고개

[위치] 삼천사거리에서 공지천 방향으로 있었던 고

개이다.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으로 난 좁은 길의 도로명이 '장고개길'이다.

[유래] 기존 문현에서는 삼천동과 돌고개 중간에 있는 고개로, 온의동에서 춘천 시장으로 가는 고개라고 소개되어 있다. 삼천동 사람들이 시내로 장을 보러 다니던 고개라는 증언이 있다.

[어원풀이] '장[市場]+고개[峴]'로 분석된다.

### ●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

[별칭] 시립도서관

[형태] 공공기관

[위치] 춘천시 옛경춘로 830-24. 삼천동 28-79번지.

[유래] 춘천시립도서관이 석사동으로 신축 이전하고, 그 자리에 2017년 10월 28일 춘천시립청소년도서관으로 재개관하였다

### ● 춘천지구전적기념관

[별칭] 춘천전적기념관, 전적기념관

[형태] 공공기관

[위치] MBC춘천문화방송국 앞, 능선 위에 있다.

[유래] 한국전쟁 때 국군 6사단이 치열한 방어전을 펼쳤던 춘천지구 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전쟁기념관으로, 1978년 개관하였다.

### ● 큰골

[별칭] 대곡(大谷)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농암리' 소재 골짜기이름으로 '大谷(큰골)'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큰[大]+골[谷]'로 분석된다.

### ● KT&G 상상마당 춘천 아트센터

[별칭] KT&G 상상마당, 춘천 아트센터, KT&G, 상상마당. 어린이회관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스포츠타운길399번길 25 어린이회관. 삼천동 223-2번지. 구)춘천어린이회관 자리이다.

[유래] 춘천어린이회관과 강원체육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새롭게 꾸민 공간이다. 공연, 영화, 전시, 생활 예술, 창작 기획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 ● MBC춘천문화방송국

[별칭] MBC, 춘천문화방송국, MBC문화방송국, 춘천MBC, MBC방송국, 춘천문화방송.

[형태] 공공기관

[위치] 춘천시 수변공원길 54. 삼천동 238-3번지. 공지천과 소양강이 합류한 의암호를 끼고 있다.

[유래] 강원도 춘천시 등 영서 중부, 북부지역을 가청권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지상파 TV·라디오 방송사이다. 현재 TV 채널 1개, 라디오 채널 2개, DMB 채널 3개를 운영중이며, 호출부호는 HLAN 이다.

**위치와 현황** | 기존의 온의동에 있던 춘천종합운동장을 철거하고 이곳에 춘천송암스포츠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종합운동장을 건설하였다. 의암레저스포츠타운은 춘천종합경기장(주경기장)·보조경기장·의암야구장·국제실외테니스장·족구전용구장·국궁장·엑스게임파크·의암빙상장 등 다양한 체육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동장 이전과 함께 강원체육중·고등학교가 함께 옮겨 왔으며, 이외에 카누체험을 할 수 있는 물레길이 있다. 봉어섬이라는 인공섬에는 태양광발전단지가 들어섰다.

**연혁** | 『여지도서』에 남내면(南內面)의 송현리(松峴里)로 표기하면서 등장한다. 『호구총수』에는 남내일작면(南內一作面) 송현리(松峴里),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남내면(南內面) 송현리(松峴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에서는 남내일작면(南內一作面)의 천동리(泉洞里), 송현리(松峴里), 별동리(鼈洞里)가 각각 표기되어 있다. 『강원도지지조서』와 『강원도지』는 신남면(新南面) 송암리(松岩里)로, 『수춘지』에는 신동면(新東面)의 송암리(松岩里)로 표기하였다. 1984년에 출간된 『춘주지』에는 칠송동(漆松洞)으로 표기되었다가 삼천동, 온의동, 칠전동과 함께 행정동인 강남동(江南洞)에 속하게 되었다.

**유래** |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천동리, 별동리와 송현리, 양지변리, 마삼천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송암리(松岩里)라 하였다. 소리개[松峴]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 ● 강원체육고등학교

[별칭] 강원체고

[형태] 학교

[위치] 춘천시 자라우새길 126. 송암동 129. 강원체육중학교와 같이 있다.

[유래] 1992년 3월 2일 개교하고 2012년 11월 21일 현 부지로 이전하였다.



강원체육고등학교

### ● 강원체육중학교

[별칭] 강원체중

[형태] 학교

[위치] 춘천시 자라우새길 126. 송암동 129. 강원체육고등학교와 같이 있다.

[유래] 2005년 3월 2일 개교하고 2012년 11월 21일 현 부지로 이전하였다.



강원체육중학교

### ● 거칠

[별칭] 거치내, 거치래

[형태] 들

[위치] 송암리포츠타운 족구장 앞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송현리’ 소재 들판 이름으로 ‘蕪坪(거치내)’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거칠’과 ‘거치내’는 ‘거칠/거치[蕪]+나[坪]’로 분석된다. 지역민의 증언으로는 ‘거치래’라 불렀다고 한다. 거친 들판이란 뜻으로 논과 밭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의암호에 수몰되었다.

〈참고〉 ‘거칠’은 현대국어에서는 관형사형이니 뒤에 명사가 와야 한다. 즉 ‘거칠내’가 문법적이다. ‘거치내’는 ‘거칠내’에서 ‘내’이 탈락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칠’은 단독으로 쓰일 수 없다. 고대국어에서는 지금 관형사형 ‘-ㄴ, -ㄹ’이 동명사형 어미 ‘-ㅁ’처럼 모두 동명사형(Verbal noun)이었다. 즉 ‘거칠’이 동명사형으로 단독으로 쓰인다. 다만 ‘거칠’이 고대로부터 유래했는지는 알 수 없다.

### ● 골말

[형태] 마을

[위치] 소리개에서 까투리봉 방향으로 더 들어간 골짜기

[유래] 송암리의 중심마을이었던 ‘소리개’에서 산 속으로 더 깊은 곳에 있는 마을로,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골[谷]+말[마을]’로 분석된다.

### ● 골통바우

[형태] 바위

[위치] 소리개 옆 스포츠타운길 좌측 산에 있다. 현재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송암리 산 봉우리에

있는 바위라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골통[頭]+바우[岩]’로 분석된다. 지명과의 연관성에서 ‘골통’의 사전적 의미는 ‘머리(頭)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 근사치이다. 이에 따르면 ‘골통바우’는 ‘(사람)머리 닮은 바위’란 의미이다. ‘골통’은 ‘담배통’의 중부 방언이기도 하다.

### ● 굴바우(窟岩)

[형태] 바위

[위치] 자라우에서 향로산 방향 우측으로 샘골 뒤편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별동리’ 소재 바위이름으로 ‘窟岩(굴바우)’가 등재되어 있고, 『춘천백년사』에는 ‘현 송암동’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넓직한 바위가 있고 그 아래에 작은 굴이 있다고 한다.

[어원풀이] ‘굴(窟)+바우[岩]’로 분석된다. 굴이 있는 바위란 의미이다.

### ● 노적봉(露積峰)

[별칭] 노적산(露積山)

[형태] 산

[위치] 인라인경기장 위쪽으로 의암호와 접해 있는 산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양지변리(陽之邊里)’ 소재 산 이름으로 ‘露積峰(노적산)’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노적(露積)+봉(峰)’으로 분석된다. 노적 가리처럼 보이는 봉우리를 말한다.

### ● 도둑고개

[형태] 고개

[위치] 골말에서 스포츠타운길로 올라가는 고개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도둑이 자주 나타난 고개’라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도둑[盜賊]+고개[峴]’로 분석된다. 전 국적으로 ‘도둑골’이나 ‘도둑재’란 지명이 많이 보이고 대부분 ‘도둑이 살던 곳’이란 유래가 전한다. 어원적으로 볼 때 ‘돌다, 도드라지다’의 어간인 ‘돌’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주변보다 불쑥 솟아있어 ‘도드라져 보이는 고개’란 의미이다.

### ● 뒷골

[별칭] 후곡(後谷)

[형태] 골짜기

[위치] 샘골 뒤편 향로산 방향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천동리(泉洞里)’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後谷(뒤골)’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뒤[後]+ㅅ+골[谷]’로 분석된다. 마을 뒤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 마당바우

[별칭] 장암(場岩), 너럭바우

[형태] 바위

[위치] 자라우에서 향로산 방향 우측으로 샘골 뒤편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천동리’ 소재 바위이름으로 ‘場岩(마당바우)’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마당+바우[岩]’로 분석된다. ‘반반하게 닦아 놓은 땅’을 ‘마당’이라고 하기에 ‘마당바우’는 ‘평평하고 넓은 바위’를 말한다.

### ● 무재산(舞裁山)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송현리(松峴里)’ 소재 산 이름으로 ‘舞裁山(무지산)’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무재(舞裁)+산(山)’으로 분석된다. ‘무재

(舞裁)’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소양강에서 예전부터 기우제를 지냈기에 기우제의 다른 말인 ‘무우제(舞雩祭)’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기우제를 지내던 산’이란 의미이다. 골말 서쪽 산에 성황당이 있고 정기적으로 마을제사를 지낸다고 하므로 관련이 있어 보인다.

### ● 물방우둔지

[별칭] 물방앗둔지

[형태] 언덕

[위치] 예전 거치내 부근으로 현재는 수몰되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예전에 물방아가 있던 둔지’라고 소개되어 있다. 향로산에서 벌원한 개울이 예전에는 자라우를 지나 의암호 방면에서 남쪽으로 굽어 거치내를 지나 신연강으로 유입되었고, 거치내 부근에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물[水]+방우/방아+ㅅ+둔지/둔치’로 분석된다. ‘둔지’는 ‘둔치’의 강원 방언으로 강, 호수 따위의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 언덕을 뜻한다.

‘물레방아가 있던 언덕’이란 의미이다.

### ● 병풍바위

[형태] 바위

[위치] 소리개 옆 스포츠타운길 좌측 산 ‘콜통바위’ 부근. 현재 등산로가 조성되어 있다.

[유래] 병풍처럼 늘어선 바위를 말한다.

[어원풀이] ‘병풍(屏風)+바위[岩]’로 분석된다.

### ● 샘골

[별칭] 천동(泉洞)

[형태] 마을

[위치] 스포츠타운 승마장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천동리’ 소재 마을이름으

로 ‘泉洞里(심골)’이 등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는 ‘찬 샘이 있음’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샘[泉]+골[洞]’로 분석된다. 샘물이 나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승마장 부근에 샘물이 있었는데 개발로 인해 없어졌다고 한다.

### ● 석동거리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송현리’ 소재 들판 이름

[坪名]으로 ‘석동거리’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석(石)+동(洞)+거리[路]’로 분석된다. 춘천에는 근화동과 신포리에도 동일한 지명이 전한다. 타 지역의 경우 ‘석동(石洞)’의 고유어지명으로 ‘돌골마을(평북 괴산군)’, ‘돌촌(경남 함안군)’, ‘돌리(亘里, 경남 진해)’ 등이 보인다. ‘석동’은 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돌다[曲]’란 의미로 보인다. 곧 게 펼쳐지지 않고 곡선 모양으로 ‘굽어 있는 마을’ 정도의 의미이다.

### ● 소리개

[별칭] 송현(松峴)

[형태] 마을

[위치] 송암 스포츠타운길에서 의암호 방향으로 송암레포츠타운 족구장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송현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松峴里(솔리기)’가 등재되어 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 ‘송암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이인직의 신소설 <귀의성>의 무대가 된 마을’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소리/솔리[松里]+개/고개[峴]’로 분석된다. 소나무가 울창한 고개란 뜻의 ‘솔고개[松峴]’ 아래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 양지말

- [별칭] 양지변리(陽之邊里)
- [형태] 마을
- [위치] 송암스포츠타운 인라인 경기장 부근
-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양지변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陽之邊里(양지말)’가 등재되어 있다.
- [어원풀이] ‘양지(陽地)+말[村]’로 분석된다.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 여나드리

- [형태] 나루
- [위치] 신연강 가
-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신연강 가에 있는 나루터로 현재는 의암호에 수몰되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 [어원풀이] ‘여[行]+나[出]+드/드리[入]’로 분석된다. 후미에 ‘나루터’가 생략된 채 ‘(배가) 오가는 출입구’로만 지명이 되었다. 배가 드나드는 나루터란 의미이다.

## ● 오음실구미

- [별칭] 오름실구미, 오음실귀미
- [형태] 포구
- [위치] 까뚜리봉 아래 의암호에서 길게 웁푹 들어간 일대이다.
-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송현리’ 소재 포구 이름 [浦名]으로 ‘五音浦(울음실구미)’가 등재되어 있다.
- [어원풀이] ‘오음(五音)+실(室, 洞)+구미/귀미’로 분석된다. ‘오음실’에 있는 ‘구미’란 의미인데 ‘오음’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지명접미사 ‘-구미/귀미’는 ‘바다나 강가 주변에서 웁푹 들어간 곳이나 후미진 곳’을 뜻한다.

## ● 자라우

- [별칭] 별동(鼈洞)
- [형태] 마을
- [위치] 호반장례식장에서 ‘자라우새길’을 따라 송암동으로 들어가는 입구
-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별동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鼈洞里(ձ리위)’가 등재되어 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 “샘골 동쪽에 있는 마을. 자라와 같은 바위가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있다. 먼저 자라 모양인 자라바위가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외에 지역민의 증언으로는 현재 송암스포츠타운이 조성된 지역이 예전에는 북쪽으로 강원체고 앞 산줄기와 남쪽으로 소리개 방향 산줄기가 에워싸고 있는 둑근 모양이었고, 송암스포츠타운이 조성된 지역으로 길게 내민 산줄기가 있어 전체적인 지형이 자라와 같았다고 한다. 따라서 ‘자라우’는 자라 모양의 지형 위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라고 한다.

- [어원풀이] ‘자라[鼈]+우/위/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자라 모양의 자라바위가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 절야우개울

- [별칭] 鼈岩溪(별암계), 자라우개울
- [형태] 하천
- [위치] 향로산에서 발원하여 자라우를 경유하여 강원체고 방향으로 흐른다.
-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별동리’ 소재 개천 이름으로 ‘鼈岩溪(절이우기울)’가 등재되어 있다.
- [어원풀이] ‘자라[鼈]+우/바우[岩]+기울>개울[溪]’로 분석된다. 자라우에 있는 개울이란 의미이다.

## ● 전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전나무가 많은 골짜기”로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전나무+골[谷]’로 분석된다. 전나무는 소나뭇과에 속하며, 높이 20~40m이며, 잎은 선 모양이다. 목재는 가구, 건축, 제지용으로 쓰고 정 원수로 재배하며, 한국, 일본, 만주, 유럽 북부 등지에 분포한다.

## ● 착골

[별칭] 착곡(着谷), 찻골, 챗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송암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향로산 방향 남쪽 골짜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천동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着谷(착골)’이 등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는 “풋니못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착(着)+곡(谷)’으로 분석된다. 정확한 의미는 미상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좁은 골짜기란 의미로 ‘窄골’, 차를 재배하던 골짜기란 의미의 ‘찻골’(茶谷), 뜰채를 만드는 집이 많아서 ‘깻골’이라 하였다는 소개가 참조된다.

## ● 창내고개

[별칭] 창내현(倉內峴)

[형태] 고개

[위치] 자라우에서 남쪽으로 향로산자락에 있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별동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倉內峴(창내고개)’가 등재되어 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 “소리개에서 칠전리의 창내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창[倉]+내[内]+고개[峴]’로 분석된다.

‘창내’는 칠전동 부근을 말하며 현재 삼성SDS춘천 데이터센터가 들어서 있는 골짜기 부근을 ‘아랫창내’라 불렀다. 자라우에서 아랫창내로 넘어가던 고개를 말한다.

## ● 춘천 물레길

[별칭] 춘천의암호물레길, 춘천중도물레길은 그 선착장이 따로 있다.

[형태] 레저

[위치] 춘천 의암호 일대,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유래] 2011년 7월 오픈하였고, 2015년에 <한국인이 꼭 가봐야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었다.

[어원풀이] ‘춘천(春川)+물레길’로 분석된다. 물레길은 강이나 호수에서 카누, 요트 등의 수상 레포츠를 체험하는 코스로, 제주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 강원도 바우길 등 자연과 함께 하는 많은 길 중의 하나이다.

## ●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별칭] 송암동 스포츠타운, 송암스포츠타운

[형태] 시설

[위치] 춘천시 송암동 297.

[유래] 본래 온의동에 있었던 춘천종합운동장을 대체하기 위해 2009년 송암동 의암호변에 건설되었다.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국궁장, 테니스장, 의암야구장, 승마장, 춘천의암빙상장, X-게임장, 족구장, 수상경기장, 인공암벽장, 풋살장로 구성된 스포츠 콤플렉스이다.

## ● 춘천승마장

[형태] 레저

[위치]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26. 송암동 산44번지.  
 [유래] 본래 삼천동에 있었는데 송암스포츠타운이 조성되면서 이전하였다. 춘천시 공공 승마장으로 실외·실내승마장, 원형승마장, 부대시설 등이 있으며, 송곡대 교과과정과 춘천시 평생교육에 승마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었다.

[어원풀이] ‘환한/화난/화낭/화랑-개[溪]’로 분석된다. 한자지명 ‘花浪’은 음차표기로 ‘환한 개울’이란 의미로 보인다.

### ● 풋나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역민의 증언으로는 소리개를 지나 ‘스포츠타운길’이 ‘옛경춘로’와 합류하는 삼거리 건너편 골짜기라고 하여 『춘천의 지명유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는 “소리개 근처에 있는 골짜기. 풋나뭇골 옆에 있는 골짜기는 챗골”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풋나무+ㅅ+골[谷]’로 분석된다. ‘풋나무’는 국어사전에 “갈잎나무, 새나무, 잡목이나 잡풀을 베어서 말린 떨나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지역민의 증언에 따르면 예전에 소리개 주민들이 떨나무를 하기 위해 많이 다녔던 골짜기라고 한다.

### ● 화랑계(花浪溪)

[형태] 하천

[위치] 향로산에서 자라우를 지나 송현리를 관통하여 남쪽으로 흐르던 개울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송현리’ 소재 개울 이름으로 ‘花浪溪(화낭계)’가 등재되어 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 “소리개에 있는 내”라 소개되어 있다. 향로산에서 발원한 개울이 예전에는 자라우를 지나 의암호 방면에서 남쪽으로 굽어 거치내를 지나 신연강으로 유입되었다. 송암리에서 제일 큰 개울이

**위치와 현황** | 온의동에는 마내·선들고개·장고개 등의 지명이 있고, 남춘천초등학교·남춘천중학교·남춘천여자중학교 등의 교육기관과 춘천고속버스터미널 및 춘천시외버스터미널, 88공원 등이 있다. 1979년 준공된 온의동의 춘천종합경기장은 2008년 12월 철거되어 송암동으로 옮겨갔으며, 그 자리는 유통시설과 초고층아파트 등의 대단위상업지구로 개발되었다.

**연혁** | 춘천군 남부내면(南府內面) 지역으로 오늦골, 오늦골이라 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신남면(新南面) 칠전리(漆田里)로 편입되었으며 1939년 상반정(常盤町)이라는 일본식 이름이 붙었다. 1946년 온의동으로 개칭되었고, 1998년 행정동인 강남동(江南洞)의 법정동이 되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온의·퇴계 택지개발사업으로 신시가지가 형성되었다.

**유래** | 옛 이름인 오늦골 또는 오늦골을 한자로 온의동(溫衣洞)이라 표기하기 시작한 데서 유래한다.

## ● 88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온의동 산75-1.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춘로로 조금 가면 칠전동에 소재한 현수공원과 같이 있다.

[유래]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여 조성되었다.

## ● 갈마고개

[형태] 고개

[위치] 풍물시장교차로에서 삼천사거리 방향으로 가는 길

[유래] 갈매울, 갈매곡에 있는 고개, 또는 갈매울, 갈매곡으로 가는 고개란 의미이다. 근처에 샘물터는 아직도 남아있다.

[어원풀이] ‘갈/가라[岐]+마/매/마을[村]+고개’로 분석된다. ‘갈라진 마을, 골짜기’란 의미의 ‘갈매울 [渴馬谷]’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유래담] 가평이나 삼천동에 살던 주민들이 말이나 나귀를 이용하여 고개를 넘다가 말에게 물을 먹이고 갔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 갈매울

[별칭] 갈마곡(渴馬谷),

[형태] 마을

[위치] 현 풍물시장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칠전리’ 소재 마을명으로 ‘大渴馬谷(큰갈미울골)’이 등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오붓골 북쪽에 있는 마을. 오붓골은 현재 온의동.”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갈/가라[岐]+마/매/마을[村]+울/고을[村]’로 분석된다. ‘골>갈’은 ‘分, 岐, 細, 長’의 의미 역을 가진다. 마’는 ‘마을(村)’의 준말 ‘말’에서 ‘근’이 탈락했다. ‘갈말’에 다시 ‘울(고울)’이 이중 결합

하며 ‘갈말울’이 되고, 말음의 동음을 피해 ‘갈마울’이 되었다. 별칭 갈마곡(渴馬谷)에서 갈마(渴馬)는 음차자이다.

## ● 강남동행정복지센터

[별칭] 강남동복지센터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방송길 86. 온의동 6-33

[유래] 강남동 주민에게 민원정보, 민원상담, 민원발급, 업무안내, 명소, 특산품, 축제, 우리마을소식, 중증장애인 일자리사업, 보조사업 등을 안내하고 처리한다.

강남동 주민의 행정 업무, 복지 개선과 도움을 행하는 국가공공기관이다. 행정복지센터는 대한민국의 지방 관청은 지방의 행정부 등이 자리잡고 있는 지방 정부의 청사이다. 행정 구역 체계에 따라 시·도청,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구분된다.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는 읍·면, 행정동에 설치하는 기관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과거에는 주민센터 그 전에는 읍·면·동사무소라고 칭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정회라고 지칭했으며, 이를 이어 동회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관할 구역은 행정동과 일치하지만 다른 동에서 일시적으로 대리 관할하는 경우도 있으며, 군사분계선에 인접하여 주민이 없거나 매우 소수인 면 지역은 인근의 다른 읍·면이 대리 관할한다. 그전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동 사무소를 시작하였다가, 2007년 7월부터 동 주민센터를 바꾸었으며, 2016년부터 동 행정주민센터를 전환하였다.

## ● 갯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온의동 서쪽에 있는 산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개천이 흐르는 곳에 조성된 마을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개[개울, 川]+ㅅ+골[谷]’로 분석된다.

### ● 궁갯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온의동 마을 앞에 있는 들”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궁/굼/구무[穴]+개[川]+ㅅ+골[谷]’로 분석된다. ‘갯들’ 앞에는 한자어보다는 고유어가 오는 것이 자연스럽다. ‘갯들’과 결합할 수 있는 고유어 ‘궁’은 찾아지지 않는다. 다만 ‘구멍’의 방언형 ‘굼’이 지명의 말음에서는 흔히 ‘궁’으로 실현되는 점을 참조할 수 있다. ‘굼’은 ‘구멍’의 옛말 ‘구무[穴]>굼’이기도 하다. 따라서 ‘궁갯들’은 ‘굼갯들/궁갯들’로서 ‘수령(구령, 구멍)처럼 움푹 패인 곳에 있는 갯들’이다.

〈참고〉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 치마 바위 위 허공을 향해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노송 한 그루, 멀리 갯들 논에서 바라보면 마치 날아가는 새 모양을 하고 있는 소나무였다. → 노송. 표준국어대사전, 〈전상국, 바람난 마을〉

### ● 궤바우

[별칭] 농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궤처럼 생긴 바위”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궤(櫃)+바우(岩)’로 분석된다. 공지천 부

근에 있는 뱃산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 ● 마내

[형태] 골짜기

[위치] 현수공원과 88공원 부근. 도로지명 ‘마내1길’이 사용되고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온의동 서쪽에 있는 산 골짜기”, 『우리의 소슬뫼를 찾아서』(이무상 저)에는 “마내(麻內)는 ‘내(川)’의 남쪽 마을’의 뜻으로 곰내(공지천) 남쪽 마을임을 나타내고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마[南]+내[川]’로 분석할 수 있다. ‘마남’과 ‘마내’에서 ‘마-’를 ‘마쪽, 마파람’에서와 같이 ‘마[南]’로 보면 모두 ‘남쪽’의 의미를 가진다.

### ● 마냇개울

[형태] 하천

[위치] 현수공원과 88공원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마내에 있는 개울”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마[南]+내[川]+ㅅ+개울[溪]’로 분석된다.

### ● 마내고개

[별칭] 마내현(馬內峴), 마냇고개

[형태] 고개

[위치] 현수공원, 88공원 북쪽으로 칠전동에서 송암동 자라우로 가는 고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별동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馬內峴(마니고개)’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마[南]+내[川]+고개[峴]’로 분석된다. 남쪽 골짜기 개천을 끼고 고개를 말한다. ‘馬內峴’의 ‘馬內’는 음차자이다.

### ● 매봉

[별칭] 응봉산(鷹峯山), 더벽산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마삼천리’ 소재 산 이름으로 ‘鷹峯山(미봉지산)’이 등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는 “매사냥을 하던 곳”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매[鷹]+봉(峯)’으로 분석된다.

### ● 모래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동리 서쪽 산에 있는 바위”, 『춘천의 지명유래』에 “온의동 서쪽 산에 있는 바위”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모래[沙]+바우[岩]’로 분석된다.

### ● 배나무골

[형태] 마을

[위치] 경춘로와 충혼길이 교차하는 사거리에서 칠전동 방향 우측에 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배나무가 있던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배나무[梨]+골[谷]’로 분석된다.

### ● 백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주지』(1984년)에 “온의동에 있는 바위”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백(白)+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흰색 바위를 말한다.

### ● 산제당산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칠전리’ 소재 산 이름으로 ‘山祭堂山(산제당산)’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산제당(山祭堂)+산(山)’으로 분석된다. 산신제를 모시는 사당이 있는 산이다.

### ● 선들고개

[별칭] 立石峴(설들고기)

[형태] 고개

[위치] 칠전동에서 호반장례식장 방향으로 가는 고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칠전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立石峴(설들고기)’이 등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는 “춘성군 신동면 삼천리(三川里)로 가는 고개”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선[立]+들/돌[石]+고개[峴]’로 분석된다. 『조선지지자료』에 농암리에 소재한 ‘立石坪(선들)’은 ‘선돌[立石]’이 있는 들로서, ‘선[立]+돌[石]+들[坪]’로 분석된다. ‘돌+들’의 유사한 음운 중복을 피하면서 ‘선들’이 되었다.

### ● 실랑바우

[별칭] 신랑고개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온의동에 있는 바위”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실랑/신랑(新郎)+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신랑(新郎)+바우[岩]’ 유형은 대부분 득남(得男)과 관련한 유래가 따른다.

## ● 안반지구령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 돌로 눌러 죽인 곳이라 한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안반지(안반뒤지기)+구령’으로 분석된다. ‘안반뒤지기하다’는 ‘안반 위에 반죽을 올려놓고 뒤집어 가면서 벼무려 만들다’와 ‘서로 붙들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힘을 겨루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구령’은 땅이 움푹하게 패인 곳이다. ‘구령논, 구령창’ 등이 있다. ‘안반지구령’은 아이를 낳은 처녀를 구령창에 돌짝으로 안반지기한 곳이다.

〈참고〉 안반은 떡을 칠 때에 쓰는 두껍고 넓은 나무 판이다.

[어원풀이] ‘오누/오누이[오라비]+누이=男妹]+ㅅ+

골[洞] → 오넛골로 해석된다. 그 옛 이름은 ‘노뉘골, 오놋-골/오낫-골/오누골’ 등의 별칭이 있다. 한자 지명은 ‘溫儀洞’이고, 요즘은 ‘溫衣洞’이다. 지명 유래에 따르면 ‘오누잇골’이 어원지명이다. 그 표제지명은 ‘오누잇골’의 축약형 ‘오낫골’이다. ‘칠전동’의 유래 가운데 하나로 전해지는 ‘옻내[漆泉]’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유래담] 타 지역의 경우 ‘오누이골’에는 오누이 간의 근친상간과 관련된 전설이 전하는 경우가 많다.

## ● 온누리공원

[형태] 공원

[위치] 강남동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있다.

## ● 언덕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온의동 552. 남춘천중학교 옆에 있다.

## ● 온의지구소공원

[별칭] 온의동소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온의동 6-22.

## ● 열린공원

[형태] 공원

[위치] 남춘천중학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조금 가면 나온다.

## ● 은행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은행나무가 있던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은행나무[杏]+골[谷]’로 분석된다.

## ● 오낫골

[별칭] 오누골, 오놋골, 노뉘골, 온의실(溫儀洞, 溫衣洞)

[형태] 마을

[위치] 온의동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칠전리’ 소재 마을 이름으로 ‘下漆田里(온의실)’과 주막 이름으로 ‘溫儀洞酒幕(온의실쥬막)’이 등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는 “온의동”이라 소개되어 있다.

## ● 음짓말

[별칭] 응짓말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오낫골 응달쪽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옹지/음지(陰地)+ㅅ+말/마을[村]’로 분석된다.

### ● 잔고개

[별칭] 잔고기>잔고개, 잔현(棧峴)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칠전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棧峴(잔고기)’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잔-[細, 小]+고개[峴]’로 분석된다. ‘잔고기’의 한자 표기 ‘棧峴’에 따르면 ‘잔(棧)+고기>고개(峴)’로 분석되고, ‘잔교(棧橋: 절벽과 절벽 사이에 높이 걸쳐 놓은 다리)’처럼 ‘잔(棧)’은 ‘사다리’나 ‘널판지’를 뜻한다. 고유지명 ‘잔고개’가 ‘잔(棧)’과 같은 특별한 한자어를 앞에 두는 것은 극히 부자연스럽다. ‘잔고개’는 ‘가늘고 작은’을 뜻하는 접두어 ‘잔-’이 자연스러운 지명 결합이다. 즉 ‘잔고개’는 ‘폭이 좁고 작은 고개’이다.

### ● 쥐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쥐처럼 생긴 바위”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쥐[鼠]+바우[岩]’로 분석된다.

### ● 춘천고속버스터미널

[별칭] 고속버스터미널

[형태] 교통

[위치] 춘천시 터미널길14번길 15. 춘천시 온의동 111-2번지

[유래] 춘천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가건물로 있는 버스 터미널이다. 과거에 동부고속에서 관리했

었지만 2010년 7월경에 노선 전체를 대원고속에 매각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노선을 모두 매각했지만, 2021년까지 해당 터미널 운영 및 관리를 해왔던 상황. 대원고속, 금호고속, 한일고속, 중앙고속 차량이 이 터미널에서 출발 및 운행을 한다.

### ● 춘천시외버스터미널

[별칭] 시외버스터미널

[형태] 교통

[위치] 춘천시 경춘로 2341. 온의동 511

[유래] 기존 터미널은 근화동 근화사거리에 위치하였으나 건물의 건립연도가 오래되었고, 터미널 부지 자체가 매우 협소하여 버스 주차장이 부족해 문제가 극심했다. 또한 터미널 근처의 차량 통행량도 매우 많은 데다 시내버스와 택시들이 입출차하는 버스와 엉켜서 인근 교통을 마비하는 바람에 이용객들과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되자 2002년에 온의동 현 위치에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 ● 춘천시풍물시장

[별칭] 풍물시장

[형태] 시장

[위치] 춘천시 영서로 2352-21. 온의동 29-3

[유래] 풍물시장은 남춘천역 교각 밑에 있다. 본디 약사동에 있었지만 2011년 이곳으로 새 둉지를 틀었다. 시장 한쪽 끝에서 출발해 다른 쪽 끝까지 세로 방향으로 1.5km 가량 된다. 2·7일, 매월 6일 열리는 민속 5일장은 풍물시장의 자랑으로,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춘천시뿐만 아니라 가평·양구 등 인근 시·군에 있는 상인들이 이곳에 모인다.

[어원풀이] ‘풍물(風物)+시장(市場)’으로 분석된다.



춘천시 풍물시장

### ● 춘천우체국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방송길 108. 온의동 589-4.

[유래] 1896년 춘천우체국사로 개소하였고 1949년 춘천우체국으로 개칭하였으며, 2017년 10월 28일에 현 청사로 개축 이전하였다.

### ● 큰골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큰 골짜기 밑의 들”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큰[大]+골[谷]’로 분석된다.

### ● 춘천온의동유적(春川溫衣洞遺蹟)

[별칭] 온의동유적지(溫衣洞遺蹟址)

[형태] 고적

[위치] 온의동 보배아파트 옆 과수원 일대에 위치한다.

[유래] 온의동에 있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 1976년 11월 지표조사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유물이 출토된 지역은 사방 500m 가량 되는 야산의 두 능선과 그 사이의 과수원 또는 채소밭 등지

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 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지부

[별칭]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 춘천교원공제회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경춘로 237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강원회관 5층.

[유래]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보장 교직원복지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강원지부이다.

### ● KBS춘천방송국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방송길 109. 춘천시 온의동 581

[유래] KBS의 강원도 지역 방송 제작을 담당하는 지역총국이다. 1944년 12월에 조선방송협회 춘천방송국으로 창설해 방송을 시작했으며, 1960년대에 강원 영서 각 지역에 중계소를 세우며 방송권역을 넓혔다. 2009년 12월 18일 현재의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위치와 현황** | 칠전동은 북쪽으로 송암동 삼천동 온의동을 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 의암호를 끼고 있다. 남쪽과 동쪽은 신동면이다. 칠전동의 대표적인 산인 드름산(357m) 정상에 서면 춘천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고, 드름산 골짜기 갓박골에 조성된 고려시대 문신 광성군(光城君) 김정(金鼎)의 묘역에는 강원도문화재자료 제125호로 지정된 ‘춘천 김정묘역문인석’이 있다. 강원지방조달청과 신남초등학교가 있으며, 마넷고개 · 자라우고개 · 창내 · 시창내 · 회골 · 풀못골 등의 옛 지명이 남아 있다.

**연혁** | 1648년 편찬된 『춘주지』에 남내(南內)의 칠암(漆巖)이 보이는데 칠전동의 옛 표기로 보인다. 『여지도서』와 『호구총수』, 『춘천읍지』, 『관동읍지』에 남부내면(南府內面)의 칠전리(漆田里)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남부내면(南府內面)의 상칠전리(上漆田里), 하칠전리(下漆田里)와 남내일작면(南內一作面)의 창천리(倉川里)로 구분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 『강원도지』는 신남면(新南面)의 칠전리(漆田里)로, 『수춘지』는 신동면(新東面) 칠전리(漆田里)로 표기하였다. 춘성군 신동면에 속해 있던 칠전리는 송암리와 함께 1973년 3월 춘천시에 편입되어 칠전 · 송암동이라는 행정동이 되었고, 1974년부터 칠송동으로 개칭되었다. 1998년 3월 칠송동은 온의동, 삼천동과 함께 강남동에 통합되면서 칠전동과 송암동으로 나누어졌다.

**유래** | 행정구역 통폐합 때 상칠전리와 하칠전리 그리고 남내일작면의 창천리를 병합하여 칠전리(漆田里)라 하였다. 옷바위(칠바위 漆衣岩)의 바깥쪽 골짜기에 있다 하여 ‘칠전(漆田)’이라는 지명이 붙었다.

### ● 갓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칠전리에 있는 골짜기로 작은박골과 큰박골이 있음”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가[邊]+ㅅ+박/밭[田]+골[谷]’로 분석된다. ‘큰박골, 작은박골, 갓박골’의 관계를 참조하면 ‘갓박골’은 ‘큰박골, 작은박골’ 주변에 있는, 즉 ‘갓밭골 -> 갓박골’이다.

〈참고〉 전국적인 지명인 ‘박골’은 그 어원 해석이 다양하다. 1) ‘박, 바가지’를 닮았다. 2) 밖(外) -> 박. 3) 박(朴)씨가 살았다. 4) 밭(田) -> 박. 5) 바우/바위(岩) -> 박

### ● 강남새싹공원

[별칭] 새싹공원

[형태] 공원

[위치] 라데나골프장 맞은편에 있으며, 경춘로 건너편에는 솔밭공원이 있다.

### ● 강원지방조달청

[별칭] 조달청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칠전동길 28. 칠전동 645

[유래] 국내·외 물자의 구매, 시설공사 계약, 기타 조달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경제부 산하의 지방행정기관이다. 1955년 2월 외자청 춘천사무소로 개소하여 1975년 7월 조달청 춘천사무소로 개칭했다. 1979년 7월 조달청 춘천사무소 강릉출장소를 개소했고 1980년 7월 조달청 강원지청을 거쳐 1998년 2월 강원지방조달청으로 개칭했다.

### ● 까투리봉

[형태] 산

[위치] 송암스포츠타운 남쪽, 의암댐 사이에 있는 의암스카이워크 옆에 있다.

[어원풀이] ‘까뚜리(꿩의 암컷)+봉(峰)’으로 분석된다.

### ● 곱등내

[별칭] 古登川(곰등너)

[형태] 하천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칠전리’ 소재 개울이름 [川名]으로 ‘古登川(곰등너)’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곰[熊]+등[背]+내[川]’로 분석된다. ‘곰등너’ 곰등내’의 한자표기 ‘古登川’에서 음차표기인 ‘古登’을 제외한 ‘川’이 훈차표기라면 ‘곰등천, 곰등개’이고 ‘곰등’은 川의 특징을 담게 된다. 다른 지역 ‘곰등이골, 곰등산’은 ‘곰(熊)의 등’과 관련짓는다. 칠전동에 소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검은내’에서 변형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 광성군김정묘역(光城君金鼎墓域)

[별칭] 광성군묘역(光城君墓域), 광성군산소(光城君山所)

[형태] 묘

[위치] 춘천시 칠전동 619-2번지.

[유래] 고려 때 인물 광성군 김정(金鼎)의 무덤이다. 묘역에 있는 문인석(文人石)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125호이다. 김정(金鼎)은 고려 공민왕 때, 양광, 전라도 촬방사, 대호군을 역임하였고, 신돈의 개혁 정치에 참여하였다. 공민왕 20년(1371) 신돈이 축출되어 김정도 유배되었다. 사후 중대왕 광성군에 봉해졌다. 문인석(文人石) 2기는 같은 수법으로 조각하였고 다른 문인석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다.

머리에는 장식이 없는 낮은 관모를 쓰고, 눈, 코, 입은 얇은 선으로 표현하였으며, 두 손에는 신하들이 임금을 볼 때 쥐던 홀(笏)을 들고 있다.

### ● 귀실고개

[별칭] 주현(珠峴), 구실고개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창천리(倉川里)’ 소재 고개 이름으로 ‘珠峴(귀실고기)’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귀실→구슬[珠]+고기→고개[峴]’로 분석된다. ‘귀실고기’의 한자 지명 ‘珠峴’을 따르면 구슬[珠]과 관련된 유래가 있는 고개가 된다. 전국에 산재하는 ‘귀신고개’도 고려된다.

### ● 김유정문인비

[형태] 비석

[위치] 칠전동 산95-2. 춘천의 의암호를 유유히 굽어보는 언덕에 세워져 있다.

[유래] 의암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김유정 선생의 대표적 기념물로서 1968년 5월 29일 김유정기념사업회에 의해 제호는 장운상, 도안은 이운식 교수 가 맡아 세워졌다.

### ● 대원사

[별칭] 옥수사

[형태] 절

[위치] 춘천시 옛경춘로 264-12. 칠전동 446-1번지.

[유래] 예전엔 옥수사였다.

### ● 더령

[별칭] 모란봉, 목단봉

[형태] 산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모란봉, 목단봉. 높은 벼랑으로 되어 있는 산”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더령’과 ‘서령’은 ‘더령바우, 서령바우골’처럼 주로 ‘바위’와 연결되는 지명에 나타난다. ‘모란봉, 목단봉. 높은 벼랑으로 되어 있는 산’이니 ‘바위 벼랑’이 추출된다. ‘서털, 너설, 너덜’에서 ‘서령, 더령’으로 전음(轉音)되었다. ‘더령’의 의미는 ‘너덜’에 가깝다. 즉 험한 바위가 무섭게 내밀어 있고 돌들이 널브러져 있는 벼랑 주변 모습이 그려지는 곳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더령’이 ‘모란봉’의 별칭으로 기재되었는데, 이는 ‘더령’이 ‘모란봉’의 한 특성, 상징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드름산(357m)은 높은 벼랑이 없으며, 그 산줄기는 200m에서 300m를 15차례 정도 오르내리는 산맥을 이루고 있고, 의암호에서 떨어지는 드름산의 말봉(암봉)만이 높은 벼랑으로 되어있는 산이다.

〈참고〉 서털 ; 강가에 돌이 널부러져 있는 형상. 너설 ; 험한 바위가 무섭게 내민 곳. 너덜 ; ‘너설’과 ‘서털’을 결합한 말 (너덜너덜하다). ‘돌이 많이 흘어서 흘러내리는 가파른 비탈길’을 뜻하는 ‘너덜경’과 ‘너뎅이’도 참조된다.

### ● 돌턱거리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큰 돌이 있는 길”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돌[石]+터[垈]+ㅅ+거리[路]’로 분석된다. ‘돌턱거리’가 ‘돌턱거리’로 변형되었다.

### ● 보타사

[별칭] 향로암

[형태] 절

[위치] 춘천시 옛경춘로 387-24, 칠전동 647-1번지.

[유래] 예전 향로산에 있던 향로암 주변에서 통일 신라 시대 기와편이 발견되어 조선 시대까지 존속 한 것으로 알려진 곳에 새로 들어선 사찰이다.

### ● 모리고개

[별칭] 모리현(毛里峴)

[형태] 고개

[위치] 팔미교차로에서 칠전동 방향으로 올라가는 고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창천리(倉川里)’ 소재 고개 이름으로 ‘毛里峴(모리현)’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모리+고개[峴]’ 분석된다. ‘모리’는 ‘모란/모리’와 같은 어원을 가진 것으로 보아 ‘산(山)’이나 산모뎅이’를 함유하는 고어 ‘몰’로 여겨진다. ‘毛里’는 음차자이다. ‘몰’은 ‘몰/모리/모오리’ 등으로 실현된다.

### ● 배나뭇골

[별칭] 이화곡(梨木谷)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참고로 온의동 소재 ‘배나무골’이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창천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梨木谷(이화곡)’이 등재되어 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 “배나무가 있던 골짜기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배나무[梨]+ㅅ+골[谷]’로 분석된다.

### ● 부흥사

[형태] 절

[위치] 춘천시 옛경춘로 366-25, 칠전동 377-1번지. 의암호를 바라보는 드름산(357m) 북쪽 자락에 있다.

### ● 불당골(佛堂谷)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칠전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佛堂谷(불당골)’이 등재되어 있고, 『한국 지명총람』에 “칠전리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불(佛)+ㅅ+당(堂)+골[谷]’로 분석된다. 불당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 불당골우물

[별칭] 불땅골우물

[형태] 우물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불땅골에 있는 우물”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불(佛)+당(堂)+골[谷]+우물[井]’로 분석된다.

## ● 사실기고개

### [형태] 고개

[위치] 온의동과 팔미리를 넘나드는 고개로, 예전엔 적당히 굽은 긴 고갯길이었으나 현재는 4차선 곧은 고개길 차도로 변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팔미리(八味里)와의 중간에 있는 고개”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사실기’(?)+고개[峴]’ 또는 ‘사실(?)+기’(基, 城)+고개[峴]’로 분석할 수 있다.

〈참고〉 사실기고개에 대하여,

1. ‘사실(?)+기’로 분석하면 ‘기’는,

1) 백제어 ‘성(城), 령(嶺)’을 뜻하여 ‘부릉기’(赤嶺)〈충북 옥천〉처럼 ‘높은 곳(高)’을 지칭하고,

2) 중세국어 이후는 ‘솔치기’(松峙+기)〈충북 청원〉처럼 명사형성 접미사로 쓰이며, 고개, 마을, 골짜기 등으로 지칭된다.

2. ‘사실기’는 ‘사실고개’이며 훗날 ‘기’가 가진 ‘고개’의 의미가 희석되자, 다시 ‘고개’를 첨가하여 ‘사실기고개’로 부르게 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3. ‘사실기’에서 ‘사실’은 아래 〈참고〉에서 ‘사실기’를 ‘사천동(泗川洞)’이라고 부르는 것을 참조할 수 있을 뿐이다.

1) ‘사천동(泗川洞)’에서 ‘동(洞)’과 ‘사실기’의 ‘기’는 같은 지명의 의미를 가지므로, 나머지 ‘사천(泗川)’과 ‘사실’이 대응된다. (사천동(泗川洞); 강원도 김화군 용현리 소재지 서북쪽에 있는 마을. 본래 금성군 동면에 소속된 리였는데, 1914년에 리가 폐지되면서 마을 이름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실기라고도 한다.)

2) ‘사천(泗川)’과 ‘사실’의 대응에서 ‘사’의 동일 대응 자를 제외하면 ‘천(川)’과 ‘설’의 대응된다. 그런데 지명에서 ‘설(室)’은 대부분 ‘마을’을 뜻하며 일부 ‘골짜기’와 ‘들’을 뜻하나, ‘천(川)’을 뜻하는 경

우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천’의 한 자표기 ‘泗川’은 음차자이다.

그리고 ‘사실기고개’에서 ‘사실’은 애매하다. (사천 고개(泗川峴); 강원도 김화군 용현리 ‘가래기’ 마을에서 사천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 ● 삼성SDS춘천센터도시첨단산업단지

[별칭] 삼성SDS춘천센터, 삼성SDS첨단산업단지,

[형태] 시설

[위치] 춘천시 칠전동 358-9.

[유래] 국내 최고 정보통신(IT) 기업인 삼성 SDS(주) 산업단지로 2019년 준공했다. 산업단지는 칠전동 옛 레저대학원과 춘천사격장 일원에 데이터센터(IDC)를 중심으로 4만여 m<sup>2</sup>에 조성되었다.

## ● 솔밭공원

[형태] 공원

[위치] 칠전대우2차아파트와 칠전종합상가 사이

[어원풀이] 솔(松)+밭(田)+공원(公園)

## ● 시창내

[별칭] 倉川里(창내)

[형태] 마을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창천리’ 소재 마을 이름으로 ‘倉川里(창내)’가 등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웃창내와 아랫창내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시(始)+창(倉)+내[村]’로 분석된다. ‘아래창내’와 ‘웃창내’가 있고, ‘시창내’는 그 중간에 있다. ‘창내’가 처음[始] 생기고, 그 위와 아래에 추가로 마을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음 조성된 ‘창내’는 ‘웃창내’와 ‘아랫창내’가 생기면서 ‘시창내’로도 부르게 되었다.

## ● 서낭고개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정족리로 가는 고개로 서낭이 있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서낭(서낭-堂)+고개(峴)’로 분석된다.

## ● 쇠네미

[별칭] 쇠내미, 쇠너미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향로산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쇠(鐵)를 녹이는데 쓰는 풀무가 있던 골짜기인 ‘풀못골’이 향로산에 있고, ‘쇠네미’도 향로산에 있다.

[어원풀이] ‘쇠(鐵)+네미’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네미’의 어원형은 ‘-나미’이며, 모음교체로 ‘-너미’를 가지며, 그리고 모음변이에 의한 ‘-내미/-네미’형이 있다. ‘-나미’는 ‘餘/餘伊’가 기본의미이며, 전의되어 ‘남다’로 쓰이고, ‘고개, 골짜기, 마을’ 등 의 지명을 뜻한다.

## ● 솟발리고개

[별칭] 솔바리고개, 정족현(鼎足峴)

[형태] 고개

[위치] 칠전동에서 정족리로 넘어가는 고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창천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鼎足峴(솟발리고개)’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솟>솔[鼎]+발[足]+리(里)+고개[峴]’로 분석된다.

## ● 아래창내

[형태] 마을

[위치] 삼성SDS춘천데이터센터가 들어선 골짜기 일대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창내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아래[下]+창(倉)+내[村]’로 분석된다.

## ● 아래창내지울

[별칭] 아래창내개울, 하창내계(下倉內溪)

[형태] 하천

[위치] 칠전동에서 의암호로 유입되는 개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창천리’ 소재 개울 이름으로 ‘下倉內溪(알이창내지울)’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아래[下]+창내(倉內->倉村)+지울>개울[溪]’로 분석된다.

## ● 아르쟁이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향로산에 있는 골짜기”로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아르(?)+쟁이’로 분석할 수 있다. ‘-쟁이’는 표준어에서는 사람과 관련된 접미사이지만 남부 방언에서 고개를 뜻하는 ‘재[峙]’의 변음이다. ‘골짜기’와 ‘고개, 재’는 늘 함께 위치한다.

〈참고〉 비교적 낮은 산인 ‘향로산/향로봉(314m)’이 김정호의 〈청구도〉 등, 여러 고지도에 기재되는 점을 주목하면 향로봉에 자리한 ‘아르쟁이’에서 ‘아르’를 ‘아르/어르/아리/어리/알/얼[卵, 靈魂, 生命]’과 관련지을 수 있다.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북한 강가에 고도가 낮은 ‘아리산’이 있는데, ‘아리산’의 ‘아리’도 위와 동계로 추정할 수 있다.

## ● 안말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안쪽에 있는 마을”로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안[內]+말/마을[村]’로 분석된다.

## ● 앞별

[별칭] 앞들, 암별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마을 앞에 있는 들”로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앞[前]+별[坪]’로 분석된다.

## ● 약못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약물 샘이 있는 골짜기”로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약(藥)+물[水]/무+ㅅ+골[谷]’로 분석된다. 약물이 솟는 샘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 양지말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양지쪽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양지(陽地)+말/마을[村]’로 분석된다.

## ● 오름실

[별칭] 오음포(五音浦), 올음실구미

[형태] 마을

[위치] 춘천의암호스카이워크 근처 골짜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송암리’ 소재 포명(浦名)으로 ‘五音浦(올음실구미)’가 등재되어 있고, 『강원도지지조서』에 “오음포(五陰浦) 항만(港灣), 창천리(倉川里)에 면(面)한 신연강(新延江)을 말한다.”라 하였고, 『한국지명총람』에 “창내 옆에 있는 마을”로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오름(?)/오음(五音)+실(室, 村)’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실’은 ‘지명의 뿌리에 붙어 골짜기[谷], 마을[洞]의 뜻’으로 쓰이며, 현대국어에서는 ‘실’ 단독으로는 쓰이지 못한다.

〈참고〉 ‘오름’에 대하여,

1. ‘오름’은 제주 방언 ‘오름(山)’을 제외하곤 모두 ‘오르다(騰)’의 동명사형으로 활용된다. 물론 제주 방언에서 山을 의미하는 ‘오름’도 그 어원은 ‘오르다’이다.

2. ‘오름’이 이 지역(漆田洞)의 특징인 ‘옻(漆)’과 관련될 수도 있다.

3. ‘오름실’의 별칭 ‘오음포(五陰浦)’는 또 다른 별칭 ‘올음실구미(올음(五音)+실(室)+구미(浦))’라는 지명 자료가 있다.

4. 현재 송암동에 소재하는 ‘올음실구미’는 춘천의 암호스카이워크가 있는 후미진 포구이다. 예전 신연강이 흐르던 때도 이곳의 지형이 골짜기여서 이곳 강물 소리가 다양하여 한자 지명 ‘五音浦’로 표현했을 듯하다. 지명접미사 ‘-구미’는 ‘바다나 강가 주변에서 음폭 들어간 곳이나 후미진 곳’을 뜻한다. 그 이형태는 ‘구미/귀미/후미’가 있고, 유사 의미로 ‘-소’와 ‘-안’ 등이 있다.

### ● 웃말꼴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횃골 곁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우[上]+ㅅ+말/마을[村]+ㅅ+골[谷]’로 분석된다.

### ● 웃창내

[별칭] 응달말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창내 위쪽 응달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우[上]+ㅅ+창(倉)+내[村]’로 분석된다.

### ● 의암피암터널

[별칭] 의암터널1, 의암터널.

[형태] 터널

[위치] 의암댐으로 가는 옛경춘로에 터널 세 곳이 연속되는데, 의암피암터널1은 칠전동에 소재한다. 의암피암터널2와 의암피암터널3은 신동면 의암리에 소재하며, 의암댐 신연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어원풀이] ‘의암(衣岩)+피(避)+암(岩)+1+터널(tunnel)’로 분석된다.

### ●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별칭] 전기안전공사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칠전동길 29, 춘천시 칠전동 634-2

[유래]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974년 설립 후 지금 까지 전기설비의 검사·점검 업무와 전기안전에 관

한 조사·연구·기술개발·홍보 등 전기재해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전문기관이자 재난관리책임기관이다.

### ● 절꼴

[별칭] 사곡(寺谷)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창천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寺谷(절꼴)’이 등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향로산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절[寺]+ㅅ+골[谷]’로 분석된다. 절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 진고개

[별칭] 이현(泥峴)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창천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泥峴(이현)’이 등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실례마을(증리)로 가는 고개”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진-/질-[泥]+고개[峴]’로 분석된다. 진흙이 많은 고개란 의미와 긴 고개란 의미 두 가지로 설명된다.

### ● 풀못골

[별칭] 야곡(冶谷)

[형태] 골짜기

[위치] 향로봉 아래 골짜기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창천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冶谷(풀못골)’이 등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쇠를 녹이는데 쓰는 풀무가 있던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풀무[治]+ㅅ+골[谷]’로 분석된다. ‘불을 피울 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를 ‘풀무’라 한다. 불무는 풀무의 방언이다. 현대 국어 ‘풀무’의 옛말인 ‘불무’는 15세기부터 나타난다. 17세기부터 제1음절의 첫소리 ‘ㅂ’이 거센소리 ‘ㅍ’으로 유기음화한 형태가 나타난다. 전국에 산재하는 ‘풀무골’은 특히 지명에 쓰일 때는 ‘대장간’을 특정한다. ‘대장간’과 결부되는 쇠가 나온다는 ‘쇠골’, 금대골, 쇠골산’ 등과 연관되곤 한다. 불무소리는 대장간에서 풀무질을 하며 부르던 한국의 전통 노동요이며, 아낙네들이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에도 불렀다.

### ● 춘천YWCA

[별칭] YWCA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칠전동 산31-21

[유래] 강원도민을 위한 고령자 인재은행, 가사돌보미, 산모돌보미, 아기돌보미 등 특히 여성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여성의 인권 증진에 힘쓰는 시민단체이다.

### ● 창내(倉內)

[별칭] 창천(創川)

[형태] 마을

[위치] 춘천시 칠전동 산41-1번지. 칠전대우아파트에서 팔미리 방향 골짜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창천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倉川里(창내)’가 등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칠전리에 있는 마을”, 『춘천의 지명유래』에 “조선 시대 세금을 거두어들여 보관했던 곳”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창(倉)+내[村]’로 분석된다. ‘창내(倉內)’의 ‘내(内)’는 음차표기이다. 창내는 ‘웃창내’와 ‘아

래창내’가 생기면서 ‘시창내’로도 부르게 된다. ‘창내(倉村)’의 ‘내’를 ‘川’으로 훈차하여 ‘倉川’이 된 것은 한자에 경도된 결과이다. ‘창내’의 ‘-내’는 ‘마을’을 뜻한다.

### ● 춘천칠전동유적지(春川漆田洞遺蹟趾)

[별칭] 춘천칠전동유적(春川漆田洞遺蹟), 칠전동유적지(春川漆田洞遺蹟趾), 칠전동유적(春川漆田洞遺蹟)

[형태] 고적

[위치]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철기시대 덧띠토기·반월형석도·점토대토기 등이 출토된 생활유적

[유래] 1994년 한림대학교 박물관이 지표조사를 실시해 유적의 존재와 성격을 확인하였고, 다시 1995년에 택지조성에 앞서서 발굴을 실시하였다. 발굴 결과, 약 1,670평의 산비탈에서 파괴된 구조 불명의 유구가 4곳에서 확인되었으며, 이 안에서 토기와 석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 칠전양지공원

[별칭] 양지공원

[형태] 공원

[위치] 신남초등학교 가까이에 있다.

### ● 현수공원

[형태] 공원

[위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서울 방향으로 경춘로로 조금 가면 온의동에 소재한 88공원과 같이 있다.

[어원풀이] ‘현(獻)+수(樹)++공원(公園)’으로 분석된다.

### ● 회골(灰谷)

[별칭] 회곡(灰谷), 재골, 잣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창천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灰谷(지풀)’이 등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횃돌이 나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회(灰)+골[谷]’로 분석된다. 고유 지명은 ‘지풀>잿풀’이다.

### ● 헌덕이고개

[별칭] 백석현(白石峴), 흰돌고개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창천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白石峴(헌덕이고개)’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헌>흰[白]+덕이/독이/독[石]+고개[고기]>고개[峴]’로 분석된다. 흰 돌이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교동(校洞)



**위치와 현황** | 교동은 시가지의 중심부로부터 500미터 반경 내에 위치한 순수 주거지역이다. 북쪽은 한림대학교, 서쪽은 도청, 남쪽은 조운동, 동쪽은 후평동이다. 관내는 400여 년의 전통을 지닌 춘천향교를 비롯하여 다수의 교육기관과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이 위치한다.

**연혁** | 향교골·아동리(衙洞里)·교동으로 불렸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향교는 부의 동쪽 5리에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여지도서』에 관아(官衙) 옆에 향교가 표시되어 있다. 춘천향교는 강원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98호로, 창건연대는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춘주지』에 ‘마승감(馬乘監)’이라는 지명이 처음 보이기 시작한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에는 ‘마동리(馬登里)’로 표기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을 폐합할 때 아동리에 편입되었고, 1939년 춘천 읍제 실시에 따라 대성정일정목(大成町一丁目)이라 하여 『강원도지』에 실렸다. 1946년 왜식 동명을 폐기하고 우리의 지명을 회복시킬 때 교동(校洞)으로 고쳤다.

**유래** | 고유지명으로는 말탕개미[馬乘監]가 있다. 향교 끝에 있는 마을로 이 마을을 가려면 향교 앞의 고갯길(馬峴)을 거쳐야 했고, 향교 앞을 지날 때는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으므로 생겨난 지명이라 전한다. 향교가 있었으므로 향교골 또는 교동(校洞)으로 불렸다.

### ● 말탕개미

[별칭] 말탄개미, 마승감(馬乘監), 마등리(馬登里), 마현(馬峴)

[형태] 마을

[위치] 향교말 끝에 있는 마을

[유래] ‘말탕개미’라는 지명은 ‘말탕감 마을’ 즉, ‘향교 끝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춘천읍지』에 “마승감(馬乘監) 이후에 마등리(馬登里)로 바뀌었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한국지명총람』에 ‘마승감’, ‘마현’, ‘향교말 끝에 있는 마을’, 말을 탄 행인은 향교 앞에 도착하면 말을 내려서 걸어가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춘천백년사』에는 ‘말탄개미’라는 지명이 있는 지역은 비교적 넓은 규모의 평坦한 대지이거나 풍수상 입지조건이 좋으면 그 일대에서 과거 장수들이 전쟁을 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고대 시기의 고분들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의하면 춘천향교 앞을 지나갈 때는 행인은 반드시 말에서 내려 걸어가야 했으며, 향교 앞의 고갯길은 ‘마현’, ‘말고개’로 불리웠으며 지금은 옥천동에서 교동으로, 교동에서 후평동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가 생겼다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말탕개미공원(근린공원. 강원 춘천시 후평동 858-3), 말탕개미 도리탕과 같이 주변에 음식점 이름에 남아 있다.

[어원풀이] ‘말[馬]+탕/탄[昇]+개미/가미/감[監]+이(파생접미사)’로 분석할 수 있다. ‘말탕개미’는 ‘마승감(馬乘監)’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 의미는 ‘말은 탄 벼슬아치’가 된다. 하지만 ‘말(馬)을 탄(乘) 개미(監)’에서 보듯 차훈(借訓)과 유사음(類似音) 차음(借音)을 섞어 전체의미에 빼어맞춘 한자 표기일 수 있다. ‘말탕개미’가 향교(鄉校)가 있는 교동(校洞)에 있어 훗날 앞의 지명 유래가 덧붙여졌을 수 있다.

### ● 백고개

[별칭] 백현(柏峴), 잣고기, 잣고개

[형태] 고개

[위치] 교동에서 옥천동으로 가는 고개, 즉, ‘춘천향교’에서 ‘춘천도시공사’를 지나 춘천예술마당으로 가는 고개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아동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柏峴(잣고기)’이 기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교동에서 옥천동으로 가는 고개라고 소개되어 있다. 『춘천백년사』에 예전에 과수원이 있던 동네라 ‘배[梨]고개’가 경음화하여 ‘백고개’가 되었다는 것과 ‘박달재’와 같이 ‘큰 고개’, ‘주요한 고개길’의 의미로 ‘백고개’라고 불리던 것이 ‘백고개’로 전 음된 것이라고 하였다.

[어원풀이] ‘백(柏)+고개’로 분석된다. 고유어 지명인 ‘잣고개’에서 ‘잣’은 ‘성(城)’을 의미하기에 성곽이 있는 고개로 볼 수도 있다.

### ● 아동리

[별칭] 아동(衙洞), 아쏠말

[형태] 마을

[위치] 현재 교동지역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아동리(衙洞里)’ 소재 마을이름으로 ‘衙洞里(아쏠말)’가 기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아동리는 ‘아동(衙洞)’이라고도 하며, ‘아전들이 사는 마을’, ‘관아의 관리들이 살던 마을’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춘천백년사』에는 “아동리의 현재 위치는 춘천도시공사 아래 지역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 지역은 조선 시대에 지방 관아의 아전이 살고 있었으며, 일제강점기와 1945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아(衙)+동(洞)+리(里)’로 분석된다. 관아가 있던 마을 또는 관아에서 근무하던 아전들이

살던 마을이란 의미이다.

### ● 춘천향교(春川鄉校)

[별칭] 향교

[형태] 향교

[위치] 산주로 21, 교동 27-1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유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향교는 부의 동쪽 5리에 있다.”는 기록이 있으며, 『여지도서』에 관아 옆에 향교가 표시되어 있다. 이 기록으로 볼 때 향교는 조선 시대부터 현재 위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향교는 조선 시대 지방의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기관, 공자를 비롯한 중국 성현 및 한국 성현의 위폐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냈던 곳으로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춘천향교는 1985년 1월 17일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98호로 지정되었으며, 전교와 장의 등이 실질적으로 향교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에도 ‘춘기석전대제’, ‘의암제례’ 봉행, 춘천 시민의 제사·예절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춘천시, 춘천 지역 대학교, 지방 자치기구 등과 협업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

### ● 하마비들[下馬碑坪]

[형태] 들

[위치] 현재 춘천향교 앞 부근을 말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아동리’ 소재 들판이름으로 ‘下馬碑坪(하마비들)’이 기재되어 있다. ‘하마비(下馬碑)’는 조선 시대 종묘나 궐문, 문묘 앞에 세운 비석으로, 향교 주변에는 ‘하마비(下馬碑)’를 세운 말을 타고 온 사람들이 내려서 향교 주변을 걸어 가게 하여 향교 주변을 신성하게 하였다.

[어원풀이] ‘하마비’+‘들’의 합성어로, ‘하마비’가 있던 들을 말한다.

### ● 한우물

[형태] 우물

[위치] 향교 좌측 소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아동리’ 소재 샘물 이름으로 ‘한우물’이 기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교동에 있는 큰 우물”이라 소개되어 있다. 『춘천백년사』에 “향교를 중심으로 좌측 소로로 향하는 곳에 있었으며, 1950년 이전까지 교동 지역의 상수도나 관개용 수로 등으로 물을 끌어들이는 근원지인 주요 취수원(聚水源)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현재 그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우물의 흔적도 없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한[大]+우물[井]’로 분석된다. ‘한’은 ‘큰’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서 ‘한길’, ‘한시름’, ‘한걱정’ 등으로 쓰인다. ‘큰 우물’이라는 의미이다.

### ● 향교골

[별칭] 향교말, 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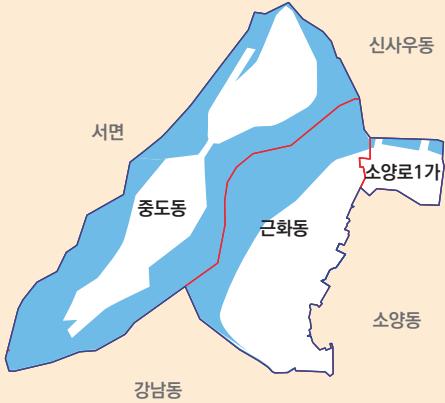
[형태] 마을

[위치] 춘천향교 부근의 교동 지역을 말한다.

[유래] 『춘천백년사』에 “조선총독부 문화재조사관이었던 오가와 게이키치 사진 자료집을 참고하여 향교골은 봉의산 자락에서 뺨어져 나온 나지막한 구릉에 둘러싸인 골짜기로서 향교가 위치하여 이 일대를 향교골이라고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향교’+‘골’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향교가 있는 골짜기 또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3장



## 근화동(槿花洞)

근화동, 소양로1가, 중도동

근화동

춘천시의 중서부에 위치한 행정동이다. 북쪽에 소양강이, 남쪽에 공지천이 감돌아 흘러 북한강에 유입되고, 동쪽에는 봉의산(鳳儀山)이 솟아 있으며, 서쪽에 중도가 있고, 그 남쪽에 의암호가 있어 자연경관이 아름답다.

근화동·소양로1가·중도동 등 3개의 법정동을 관할한다. 소양동과 강남동에 인접해 있으며, 중도·공지천·소양정 등이 있다. 조선시대 문헌에서 근화동에 대한 기록은 수동리(水洞里)에서 찾을 수 있다. 근화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춘천 읍내의 앞들에 있었으므로 ‘앞두루’ 또는 전평(前坪)이라 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죽전리(竹田里)와 수동리(水洞里)를 합쳐서 전평리(前平里)라 했고, 1930년 영락정(永樂町)으로 개칭하였다. 1946년 일본식 동명을 우리 이름으로 고칠 때 근화동으로 하였다. 근화동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에 무궁화가 많이 있던 지역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춘천백년사』에 의하면 특히 춘천역 주변에는 무궁화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철도를 보호하는 명목으로 없앴다고 한다. 행정동인 근화동은 법정동인 근화동, 소양로1가, 중도동 등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치와 현황** | 법정동인 근화동은 춘천의 남서부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북한강, 북쪽으로 소양로1가, 동쪽으로 소양동, 남쪽으로 온의동과 인접해 있다. 소양호 상류의 수자원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인조 잔디구장, 풋살장, 공지천 조각공원, 평화공원 등 체육공원 및 쾌적한 휴식 공간이 있어 시민들에게 쉼터로 각광 받는 지역이다. 당간지주, 소양정, 비석군, 소양강처녀상, 소양강처녀 노래비 등 문화유적 관광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다.

**연혁** | 근화동(槿花洞)은 죽전리(竹田里)와 전평리(前坪里), 수동리(水洞里)를 합하여 만들어졌다. 죽전리와 전평리는 『조선지지자료』에 처음 등장한다. 마을로서 죽전리(竹田里)는 이 시기에 등장했지만 ‘죽전(竹田)’이란 뜻의 ‘대바지’는 이전 기록에도 보인다. 정약용이 1820년에 기록한 『산행일기(山行日記)』에 “사공이 죽전촌(竹田村)에서 자자고 청하였으나 듣지 않고 배를 재촉하여 황혼(黃昏)에 소양정(昭陽亭) 밑에 정박하였다”란 구절이 보인다. 전평리(前坪里)는 읍내의 앞뜰에 있어 앞두루, 또는 한자화해서 전평리(前坪里)로 불렸는데, 『강원도지지조서』에는 죽전리는 보이지 않고 전평리만 보인다. 전평리는 1946년 일제식 동명을 우리 이름으로 고칠 때 근화동이라고 하였다. 수동리(水洞里)는 『여지도서』에 처음 보이기 시작해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 『조선지지자료』까지 보인다. 『수춘지』는 근화동1구(槿花洞一區), 근화동2구(槿花洞二區), 근화동3구(槿花洞三區)로 표기했다.

**유래** | 근화동(槿花洞)은 죽전리(竹田里)와 전평리(前坪里), 수동리(水洞里)를 합하여 만들어

졌다. 전평리는 춘천 읍내의 앞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두루’ 또는 한자로 ‘전평(前坪)’이라 했다. 근화동(槿花洞)은 무궁화가 많이 있던 지역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춘천역 주변에 무궁화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동아일보 기사(1935년 8월 15일)에 남궁억 선생과 관련된 기사가 전한다. 일본식 동명을 없애고 새 이름을 지을 때 무궁화가 많이 피어났던 곳, 앞으로도 많이 피어나는 곳이 되라는 소망이 담겨져 근화동이 되었다.

## ● 강원도보훈회관

[별칭] 보훈회관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중앙로172번길 24. 근화동 726. 국민건강보험공단 후면 골목길에 있다.

[유래] 강원도보훈회관은 2007년 7월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강원도에서 지원하여 신축했으며, 보훈 가족,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 ● 근화동 당간지주(槿花洞 檉竿支柱)

[별칭] 갯대, 전평등대(前坪燈臺), 종대(鐘臺)

[형태] 민속

[위치] 춘천시 근화동 793-1. 인근에 근화초등학교가 있다.

[유래] 근화동 당간지주는 보물 제76호이다. 양쪽 지주 사이의 바닥에는 당간(幢竿)을 뱇치고 있던 2단으로 된 간대석(竿臺石)이 있는데, 하단은 네모꼴로 양면과 뒷면에 안상이 두 개씩 음각되었고 상단은 8각으로 윗면 중심부에 원공(圓孔)을 마련해서 당간을 놓도록 하였다. 주변에는 외변에 맞추어 8각의 꾀임대를 깎아 세우고 측면에는 입상형(立狀形)의 연꽃잎 16개가 새겨져 장식되었다. 높이 3.52m의 지주에는 별다른 장식이 없고 상단 양쪽에 직사각형의 지레구멍이 있으며 꼭대기 부분은 앞뒤에서 볼 때 사분원(四分圓)을 그리고 있다. 고려중엽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춘천지방에서는 유일한 당간지주이다.

## ● 갯대배기

[형태] 들

[위치] 소양강 강변에 있는 들로서 지금은 당간지주만 남아 있고, 인근이 개발되어 시가지가 되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 '전평리' 소재 고적명소에

'介垈(기啻박니)'가 등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는 "소양강 가에 있는 들. 당간지주(幢竿支柱)가 서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개[浦]+ㅅ+대(垈)+배기'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배기'는 '무엇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가진 '-박이'의 방언형(-배기)이 지명으로 접미사화한 것이다. 갯대가 서 있는 곳이란 의미이다. 갯대는 당간지주(幢竿支柱)를 가리킨다. <참고> 갯가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의 물가나, 물이 흐르는 곳의 가장자리이다. 갯벌[潟]은 '개[潮]+ㅅ+벌[原]'의 합성어로서 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이다.

## ● 공지천유원지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근화동 690-1. 공지천이 의암호에 합류하는 곳이다.

[유래] 북한강과 이어지는 지방하천 공지천 일대는 춘천 대표 도심 속 휴식처다. 잔잔히 흘러가는 공지천 양쪽으로 공지천조각공원, 의암공원, 에티오피아한국참전기념관, 인라인스케이트장, 야외공연장, 분수대 등 다채로운 시설을 갖췄다.

## ● 공지천조각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옛 경춘로 880. 공지천유원지 인근에 있다.

[유래] 1997년 공원으로 조성하고 29점의 조각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바로 옆 공지천유원지와 의암호에서는 보트 등 수상레저도 즐길 수 있다.

## ● 근화동공원

[형태] 공원

[위치] 근화동 당간지주 부근

### ● 근화동생활체육공원

[별칭] 체육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영서로 2473. 춘천시 근화동 499-1

[유래] 2012년 1만4000여 $m^2$ 에 인조잔디 구장 등 체육시설과 주차장, 화장실 등을 조성하였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 ● 근화소양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별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당간지주길74번길 11-14. 춘천시 근화동 799-18.

[유래] 국토교통부, 강원도, 춘천시의 후원을 받아 춘천시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주관한다.

### ● 닥개

[형태] 수리

[위치] 근화동 당간지주 옆 의암호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전평리’ 소재 천명(川名)으로 ‘前浦(암기)’가 표기되어 있다. 의암댐이 만들 어지기 전에는 소양강의 지류가 근화동 옆으로 흘렀고 그 지류를 ‘닥개’로 불렀다. 위치에 따라 ‘아래닥개’와 ‘웃닥개’로 불리기도 하였고, 그 사이에 ‘명당구미’라는 소(沼)가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모두 의암호에 잠겨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어원풀이] ‘닥/닻/닻[碇]+개[浦]’로 분석된다. ‘배를 대던 소양강 갯가’란 의미이다.

### ● 대바지

[별칭] 죽전리(竹田里)

[형태] 마을

[위치] 근화동 일대를 가리키는 옛 지명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전평리’ 소재 마을 이름으로 ‘竹田里(디바지)’가 등재되어 있고, 『춘천의 지명 유래』에는 “옛날에 대밭이 있었으므로 대바지라 했다. 죽림동에 시누대(화살 만드는데 쓰는 가는 대나무) 숲이 있어서 죽림동이라 했고 근화동에 대밭이 있어서 죽전리(竹田里)라 했다. 대바지의 대밭도 봉의 산의 봉황이 대나무순을 먹고 산다고 해서 잘 보호했다. 대바지는 봉의산의 봉황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다.”, 『근화동지』에는 “춘천에 대나무가 숲을 이를 정도로 무성하게 자랄 수도 없거니와 위치상 물가 벌판에 대나무밭이 있었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 따라서 ‘대밭’은 ‘큰(넓은) 밭(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대[竹]+밭[田]+ {-이}’(명사파생접미사)로 분석되며 ‘밭이’는 구개음화로 ‘바지’로 발음된다. 대바지는 죽전리(竹田里)이고 죽림동(竹林洞)이다. 전국적으로 ‘봉(鳳)/봉황’이 들어간 지명 주변에 흔히 ‘대밭(竹林)’을 의미하는 지명이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지명 현장에 대나무가 있고 없고는 문제 되지 않는다. 대나무가 봉황을 보위(保衛)하는 관념에 따른 지명화이기 때문이다.

### ● 대바지강

[형태] 하천

[위치] 대바지 옆으로 흐르는 소양강 지류를 말한다.

[유래] 의암댐이 들어서기 전에 근화동 옆쪽으로 흐르던 소양강의 지류인데 현재는 의암호에 잠겨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어원풀이] ‘대[竹]+{밭[田]+이}’(접미사)->바지(구개 음화)+강(江)’으로 분석된다.

## ● 뚝너머

[별칭] 물방앗거리

[형태] 마을

[위치] 현재의 근화동 뱃터 좌측 일대

[유래] 『근화동지』에 “소양강이 근화동 벌판으로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쌓은 제방을 ‘성뚝’이라고 불렀고, ‘성뚝’ 건너편 강가쪽 마을을 ‘뚝너머’라고 불렀다. 해방 후 육군본부에서 연차적으로 제작한 『지방별지명조사첩(강원도 춘천시)』 ‘부락’ 항목에 ‘뚝넘어’가 기록되어 있다. 마을에 물방아가 있었기에 ‘물방앗거리’라고도 불렸다고 하며, 의암호가 본격적으로 담수를 시작하기 전까지 현재 근화동 뱃터 왼편 일대에는 물방아와 서낭당이 존재하였다고 한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뚝/뚝(성뚝)+너머[越]’로 분석되고, 별칭 ‘물방앗거리’는 ‘물방아+ㅅ+거리[街]’로 분석된다.

## ● 말무덤터

[별칭] 고총(古塚). 馬墳(말무덤이)

[형태] 고적

[위치] 옛날 대바지 부근으로 현재는 수몰되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죽전리’ 소재 고적명소에 ‘馬墳(말무덤이)’이 등재되어 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 “말이 죽어서 묻었다는 터. 실제로 말이 죽어서 묻었던 터가 아니라 옛 무덤(고총)이 있었으므로 말무덤이라고 불렀다. 중도의 적석총도 말무덤이라고 부른 것과 비슷한 이름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말[馬]+무덤[墳]+터[垈]’로 분석된다.  
옛날 큰 무덤인 적석총(積石塚)으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

## ● 명당구미

[형태] 수리

[위치] 아래닥개와 웃닥개 중간에 있던 소(沼).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소양강이 근화동 앞으로 흐르면서 물구비를 만들었는데, 그 둑 안쪽으로 소가 있었다. 춘천 폐수처리장 윗쪽에 있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명당(明堂)+구미[沼]’로 분석된다. 지명 접미사 ‘-구미’는 ‘바다나 강가 주변에서 읍쪽 들 어간 곳이나 후미진 곳’을 뜻한다. 그 변이형은 ‘구미/귀미/후미’가 있고, 유사 의미로 ‘-소’와 ‘-안’ 등이 있다.

## ● 목네미

[형태] 수리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작은 목 너머에 있는 개”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목[項]+네미[越]’로 분석된다. ‘목[項]’은 ‘목/목이/메기/매기/모기’ 등의 이형태를 가지며 ‘좁다란 산협이나 물속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뜻한다. 특히 ‘통로의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가리킨다. 지명접미사 {-내미/-네미}는 전국적으로 공존한다. 그 어원형은 {-나미}이며, 모음교체로 {-너미}를 가지며, 그리고 모음변이에 의한 {-내미/-네미}형이 흔히 쓰인다. {-나미}가 ‘餘/餘伊’로 훈차(訓借)되어 그 의미를 알게 한다. ‘나미/내미/네미’는 어의 화장되어 ‘넘다[越]’의 의미를 가지는 일이 많다.

## ● 밭돼기

[형태] 들

[위치] 옛 캠프페이지 부지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모순당댁 남쪽, 현재의 근화동 유치원이 있는 거리를 지칭하는 명칭”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밭[田]+쐐기’로 분석된다. 의미는 얼마 안 되는 자그마한 밭을 말한다. ‘쐐기’는 경계를 지어 놓은 논밭의 구획이나 일정하게 경계를 지은 논밭의 구획을 세는 단위이다.

### ● 봄내체육관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평화로 25. 근화동 199. 춘천 평화 생태공원 내에 있다.

[유래] 2013년 6월 개장한 지상 2층 규모의 실내체육관이다. 주한미군부대였던 캠프 페이지의 격납고로 사용되었던 곳을 개조하였다. 국내 최대 규모의 21면 배드민턴 코트와 암벽등반장이 있으며 평상 시에는 코트 10면을 클럽 전용, 5면을 일반인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면적은 탁구장으로 이용한다.



봄내체육관

### ● 상중도배터

[별칭] 중도배터

[형태] 교통

[위치] 춘천시 평화로 25. 근화동 199. 소양강스카 이워크 인근에 있다.

[유래] 예전 중도에서 근화동 춘천 시내로 오가던 나루터이다. 중도에 레고랜드가 개장되면서 4차선 춘천대교가 준공되었다.



상중도배터

### ● 서오포(鋤吾浦)

[별칭] 鋤吾浦(서옥기)

[형태] 들

[위치] 대바지강(소양강 하류) 앞에 있었다. 지금은 의암호에 수몰되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죽전리’ 소재 들판 이름으로 ‘鋤吾浦(서옥기)’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서우/새우[蝦]+ㅅ+기>개[浦]’로 분석 할 수 있다. ‘서옥’은 ‘서웃’의 변음이고, ‘鋤吾’는 음차자이다.

〈참고〉 ‘새우[蝦]’의 강원도 방언은 ‘생우, 생오, 새오, 새이, 새오이, 째우,’ 등이 있고, 강원북부방언, 황해방언에 ‘서오/서우’ 등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방언형들이 있다.

### ● 석동거리

[형태] 들

[위치] 근화동 앞 당간지주 부근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조선시대 조세(租稅) 세못[三束]을 바치던 들이라 해서 세못을 석동으로 불렀다.”, 『근화동지』에 “근화동 앞에 있는 들판으로, 조선시대 조세(租稅) 세못[三束]을 바치던 들이라 해서 ‘세못’을 ‘석동’으로 불렀다는 유래가 전한다. 그런데 조세로 바치던 곡식의 수량을 삼束(三束)으로 특정한 것은 수궁이 되지 않는다. ‘석동’이란 지명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확인이 되는데, ‘돌골마을(평북 괴산군)’, ‘돌촌(경남 함안군)’ 등의 고유어로도 표기되어 있다. 특히 경남 진해의 행정명인 ‘석동(石洞)’에 대해 마을의 고유명인 ‘돌리(亘里)’에서 유래되었다가 이후 ‘석리’(石里)로 표기하였다고 전해진다. 위에 언급한 전국의 ‘석동(石洞)’의 모양을 지도로 살펴보면 곧게 펼쳐지지 않고 곡선으로 완만하게 굽어있는 지형이란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석동’에서 ‘석’은 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돌다[曲]’라는 우리 고유어의 한자표기라 할 수 있다. 즉 ‘석동’은 ‘굽어있는 마을’이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근화동 ‘석동거리’도 소양강 물줄기가 소양2교를 지나면서 완만하게 굽어 흐르는 지형상의 특징에 따라 생겨난 한자표기 지명이라 할 수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석동(-세못[三束]+거리[路])’로의 분석과 ‘석[돌다 曲]에서 ‘돌’을 음차표기]+동(洞)+거리[路]’로의 분석이 가능하다.

### ● 선준석(仙樽石)

[별칭] 술단지바위

[형태] 바위

[위치] 소양1교 부근

[유래] 『춘천읍지』에 “소양강 가에 있다.”고 하였고, 『수춘지』에는 “소양나루 머리에 있다. 반석에 구멍

이 있어서 술단지 모양과 같고 술을 담아 마실 수가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선(仙)+준(樽)+석(石)’으로 분석된다. 준(樽)은 술통을 말한다.

### ● 성뚝

[별칭] 소양제(昭陽堤), 제일제방(第一堤坊)

[형태] 수리

[위치] 근화동에서 의암호 방향 일대

[유래] 『근화동지』에 “근화동 들판으로 소양강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쌓은 제방을 ‘성뚝’이라 불렀다. 매년 여름철이면 불어난 소양강물에 침수를 겪던 중 1925년 대홍수로 전평리 전체가 물에 잠기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일제강점기 신문기사에 의하면 제방공사는 1931년 시작하여 1937년 이전에 완공되었고 이후 계속하여 보강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950년 이후 육군본부에서 연차적으로 제작한 『지방별지명조사철(강원도 춘천시)』 ‘제방’ 항목에 ‘성뚝’이 표기되어 있으며, ‘소양제’ ‘제일제방’ 등의 이칭도 병기되어 있고, 김영하가 쓴 『수춘지』에도 ‘소양제(昭陽堤)’가 기록되어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성(城)+뚝(뚝방)’으로 분석된다. 성처럼 쌓은 제방을 말한다.

### ● 소양강스카이워크

[형태] 관광

[위치] 춘천시 영서로 2663 (근화동)

[유래] 춘천 의암호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 7월에 개장하였다. 전체 길이는 174m이고 바다이 투명 유리로 된 구간이 156m인 국내 최장 스카이워크 시설이다. 춘천의 랜드마크인 소양 2교와 소양강 치녀상 옆에 자리하고 있으며 바

dark은 특수 강화유리 3장을 겹쳐 깔아 안전성을 더 했다.(춘천관광포털사이트)

### ● 소양강처녀상

[형태] 동상

[위치] 춘천시 영서로 2675 (근화동). 소양2교 부근 [유래] 국민 애창곡인 <소양강 처녀>를 상징하는 동상으로 2005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반침돌이 5m, 처녀상이 7m로 총 12m 높이에 이른다.

### ● 속갯보

[형태] 수리

[위치] 근화동 운전연습장 맞은편 들녘에 있던 보(洑)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근화동 들 복판에 있던 보. 논에 물을 대기 위하여 보가 만들어졌다. 지금은 없어졌다.”, 『춘천백년사』에 “모순당 이씨의 중언에 의하면, 이 보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곳에 보가 만들어진 이유는 보 자리를 중심으로 넓은 논이 경작되고 있었기 때문인데, 1980년대 초반까지 이용되었고 일부 지역에 물을 끌어들여 미나리꽝을 경영하기도 하였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속[裏]+개[浦]+ㅅ+보(洑)’로 분석된다. 별판 복판으로 물을 끌어들였고 그 물을 막기 위한 보라는 의미이다.

### ● 수동리(水洞里)

[별칭] 물말

[형태] 마을

[위치] 현재 소양1교에서 근화동 당간지주 부근을 일컬던 옛 행정지명이다.

[유래] 『춘천백년사』에 “물방아거리를 조선 시대 수동리라고 하였다. 조선 시대 이곳에서 일부의 세역

미(稅役米)를 날랐다고 하는데, 그러한 까닭에서인지 물방아거리와 그 맞은편 강안(현재 매립)에 전통적인 관념으로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다수 살았다.”, 『근화동지』에 “일명 ‘물밀’이라고도 하였다. 말 그대로 소양강을 따라 조성된 마을이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독립적인 행정명으로 쓰이다가 전평리(前坪里)에 부속되면서 사라졌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수(水)+동(洞)+리(里)’로 분석된다. 물가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1918년 춘천지도에 표기된 수동리

### ● 아래닥개

[형태] 하천

[위치] 닥개 아래쪽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의암호 물이 가득 차게 되자 개는 의암호 밑으로 사라졌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아래[下]+닥/닻[碇]+개[浦]’로 분석된다. ‘닥개(닻개)’는 ‘배를 대던 소양강 갯가’를 말한다.

### ● 앞개

[형태] 하천

[위치] 근화동 의암호 방면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전평리’ 소재 천명(川名)

으로 ‘前浦(암기)’가 표기되어 있다.

[어원풀이] ‘암/앞[前]+기>개(浦)’로 분석된다. 마을 앞에 있는 물가란 의미이다.

### ● 앞두루

[별칭] 앞뚜루, 전평리(前坪里)

[형태] 들

[위치] 옛 캠프페이지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전평리’ 소재 마을 이름으로 ‘압들’이 수록되어 있다. 『근화동지』에 “현 춘천역 전면으로 캠프페이지가 위치하였던 일대를 부르던 명칭이다. 강원도청 자리에 있던 춘천관아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곳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의 ‘앞들’이 발음상의 편의를 좇아 ‘앞두루’, ‘앞 뚜루’ 등으로 불렸다. 한자로는 전평리(前坪里)로 표기하였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앞[前]+두루/들[坪]’로 분석된다.

은 기름져 곡창이기도 했지만 진흙으로 된 들이 있어서 앞두루의 지형을 다채롭게 했다. 진흙으로는 건축자재를 만들거나 기와 굽는 재료로도 사용했으므로 와(瓦)라는 이름이 생겼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왜/와[기와, 瓦]+둔지’로 분석된다. ‘屯地’는 음차자이다. ‘둔지’는 ‘둔치’의 강원 방언이며, 강, 호수 따위의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물가의 언덕)를 뜻한다.

### ● 우닥개

[형태] 하천

[위치] 닥개 위쪽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닥개 위쪽에 있는 개”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우[上]+닥/닻/닻[碇]+개[浦]’로 분석된다. ‘닥개(닻개)’는 ‘배를 대던 소양강 갯가’를 말한다.

### ● 이디오피아 참전기념비

[형태] 유적

[위치] 공지천 유원지

[유래]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의 우방 16개국 중 하나인 이디오피아군의 참전 기념과 침략자에 대한 자유 우방의 승리를 상징하기 위하여 건립되었다. 1968년 5월 7일 완공되고 5월 19일에 한·이(이디오피아) 문화협정 체결자 방한한 이디오피아 황제인 하이례·셀라시에 1세에 의하여 제막되었다.



1919년 춘천읍 전경 사진에 보이는 앞두루와 대바지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 ● 와둔지(瓦屯地)

[별칭] 와둔지

[형태] 들

[위치] 옛 캠프페이지 부근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근화동의 예전 이름, 앞두루(前坪)에 있던 진흙으로 된 들. 앞두루의 땅

### ● 종도주민선착장

[별칭] 근화동 선착장

[형태] 교통

[위치] 춘천시 근화동 8-1.

[유래] 옛 종도선착장으로 지금은 낚시배가 주로

이용한다. 중도에 레고랜드가 조성되면서 선착장 인근에 4차선 춘천대교가 건립되었다.



중도주민선착장

### ● 춘천꿈자람어린이공원

[별칭] 꿈자람어린이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평화로 26. 근화동 175번지. 춘천역에서 5분 거리에 있다.

[유래] 실내와 실외에 어린이들을 위한 47가지 놀이터와 기구들이 있다.



춘천꿈자람어린이공원

### ● 춘천대교

[형태] 다리

[위치] 근화동과 춘천역에서 중도 및 레고랜드를 오가는 다리이다.

[유래] 근화동과 중도를 잇는 다리로 2018년 개통 되었다. 총 연장 1,058m, 폭 25m의 4차로 교량이다. 교량 중간에 지름 45m, 높이 55m의 원형 주탑이 설치되고 양쪽으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며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수퍼콘크리트 UHPC 사장교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인 50~60년보다 훨씬 오래가는 약 2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교량으로, 한국 연구팀이 자체개발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춘천대교에 시범적용되어 있다.



춘천대교

### ● 춘천미군부대캠프페이지터

[별칭] 미군부대

[형태] 터

[위치] 예전 전평리 자리이며, 지금은 근화동 일대 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한국전쟁 직후부터 춘천은 군사요충지가 되어 왔다. 1·4후퇴 이후 전선이 교착되고 수복지가 확정되면서 춘천에는 주한 미군 부대가 근화동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한 때 유도탄부대가 있었고 헬리콥터부대도 배치되었다. 캠프페이지 안에는 비행장이 있어서 춘천의 항공기지를 상징한다. 중국 비행기가 비상착륙, 중국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일반에서는 그냥 미군 부대라고 부른다.”라 소개되어 있다. 2005년 한국에

반환되었다.



2005년 철거 전, 미군 부대 정문 모습

### ● 춘천역

[별칭] 한림대역, 레고랜드역.

[형태] 교통

[위치] 춘천시 공지로 591. 근화동 190

[유래] 1939년 세워진 춘천역은 경춘선에서 춘천의 시발역이며 종착역이기도 하다. 2012년 신축했다. 부기 역명은 한림대역이며, 2022년 레고랜드가 완공되면서 레고랜드역이 병기 역명으로 추가되었다.



옛 춘천역

### ● 춘천평화생태공원

[별칭] 평화생태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평화로 25. 근화동 199번지. 예전 미군 부대 자리에 속한다.

[유래] 축구장 100개 정도 넓이의 주한미군부대 캠프페이지(Camp Page)가 2005년 한국에 반환되면서, 춘천시에서는 춘천시민을 위한 레저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춘천평화생태공원, 봄내체육관, 꿈자람물정원 등이 조성되었고, 닭갈비, 막국수 축제 등이 열리기도 한다.

### ● 춘천평화생태공원꿈자랑물공원

[별칭] 춘천평화생태공원. 춘천꿈자랑물공원, 꿈자랑물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소양로 77. 소양로3가 128-1번지.

[유래] 옛 미군 주둔지인 춘천 캠프페이지 내 물탱크를 중심으로 조성한 도심 속 물놀이 시설. 유수풀, 유아 전용 풀, 위터슬라이드, 사계절 썰매장, 매점 등의 시설을 갖춰 가족 단위로 이용하기 좋다.

### ● 큰대문집거리

[형태] 마을

[위치] 『춘천백년사』에 “현재의 춘천역 합숙소(合宿所) 맞은편에 있는 마을을 지칭하는 명칭”이라 소개되어 있다.

[유래] 『춘천백년사』에 “일명 ‘이삼오식 거리’라고도 한다. 이러한 명칭이 생기게 된 까닭은 합숙소 맞은편에 모순당택(慕舜堂宅)이 있었는데, 이 일대에서는 가장 큰 대문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명칭을 얻게 되었다. 모순당택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상당 부분이 파괴되기 전까지 원형을 보존하고 있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큰[大]+대문(大門)+집[家]+거리[路]’로 분석된다.



춘천평화생태공원꿈자랑물공원

### ● 할미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소양강 할미여울 위에 있는 바위. 의암호의 물밑에 잠겨버렸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할미’/할머니[祖母]+‘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어 있다.

[어원풀이] ‘할미’/할머니[祖母]+여울[灘]’로 분석된다.

### ● 할미여울

[위치] 미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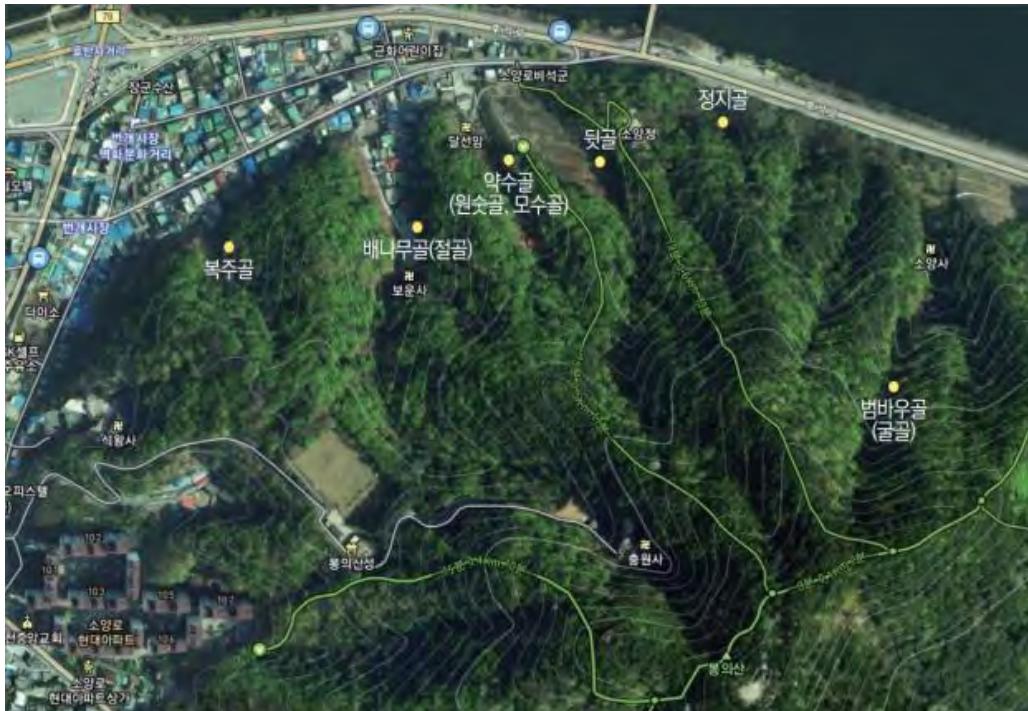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소양강에 있는 여울. 할미바위가 있다. 의암호 물밑에 잠겨버렸다. 소양강창이 있었을 때, 뗏목이 오르내릴 때, 할미여울은 물살이 세어 위험한 뱃길이 되었다.”라 소개되

## 소양로1가(昭陽路1街)

**위치와 현황** | 북쪽으로 소양강, 서쪽으로 근화동, 남쪽으로 소양동이 있다. 소양1교, 소양2교, 소양정, 소양강스카이워크 등의 이름이 모두 소양강에서 유래했듯이 소양강을 끼고 있다.

**연혁** | 『여지도서』에는 수동리(水洞里)가 등장하는데 수동리 일대가 소양로1가에 해당된다.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 『조선지지자료』까지 수동리(水洞里)로 표기되다가 『강원도지지조서』에는 전평리(前坪里)에 포함되었다. 『강원도지』에 소양통1정목(昭陽通一丁目), 소양통2정목(昭陽通二丁目), 소양통3정목(昭陽通三丁目), 소양통4정목(昭陽通四丁目)이란 지명이 등장하면서 ‘소양(昭陽)’이 사용되었는데, 1939년 춘천읍제를 실시하면서 전평리의 일부를 나누어 소양통1정목(昭陽通一丁目)이라고 하다가, 1946년 6월 1일 군정법령에 의해 춘천읍이 춘천부로 승격되면서 법정동인 소양로 1가가 되었다. 『수춘지』에 소양로1가(昭陽路一街), 소양로2가1구(昭陽路二街一區), 소양로2가2구(昭陽路二街二區), 소양로3가(昭陽路三街), 소양로4가(昭陽路四街)등의 지명이 사용되었다.

**유래** | 소양강이 지역의 북쪽을 에워싸서 흐르기 때문에 ‘소양’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김시습의 「소양강」이라는 시와, 신흠(申欽)의 「소양 죽지가[昭陽竹枝歌]」라는 시가 있다.



댓골

### ● 굴골[窟谷]

[별칭] 굴곡, 범바우골/범바웃골, 범바위골.

[형태] 골짜기

[위치] 봉의산 소양사 뒤쪽 골짜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수동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窟谷(굴골)’이 표기되어 있다. 『근화동지』에는 “지역민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범바우골’은 현 소양사 뒤쪽으로 더 올라가서 있는 골짜기라고 한다. 이곳에는 조그마한 바위 동굴이 있는데, 호랑이가 입을 벌린 모양이라고도 하며, 바위 위에 호랑이가 앉아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라 하였다. 범바우골과 굴골이 동일한 지명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굴(窟)+골[谷]’로 분석된다. 굴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 댓글

[별칭] 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로비석군 뒤쪽 봉의산 골짜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수동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竹谷(디꼴)’이 등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대나무가 있던 골짜기”, 『춘천의 지명유래』에는 “대나무가 있던 골짜기”. 봉의산에도 대나무가 자생했지만 봉의산과 관련하여 대나무를 많이 심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근화동지』에는 “지역민들은 ‘댓골’이란 지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거니와 봉의산 북서쪽 골짜기에 대나무가 자란다고 하는 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소양로 비석군 뒤쪽, 현 소양정 쪽에 있는 골짜기를 지역민들은 ‘뒷골’로 부르는 바, ‘뒷골’이 ‘댓골’로 와전된 것이 아닌가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다>대[竹]+ㅅ+골[谷]’로 분석된다. 별칭으로 추정되는 ‘뒷골’은 ‘뒤[後]+ㅅ+골[谷]’로 분석된다.

### ● 배나뭇골

[별칭] 배나무골, 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번개시장에서 보운사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말한다. 도로명은 ‘소양정길 34번길’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봉의산에 있는 골짜기. 배나무 밭이 있어서 배나뭇골이 되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근화동지』에 “원래 이 골짜기는 ‘절골’로 불렸다고 한다. 『조선지지자료』에도 수동리 소재 골짜기 이름에 ‘절꼴(寺谷)’이 표기되어 있는 데, 이곳을 지칭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현재도 보운사라는 절이 있지만 이 절은 비교적 근래에 창건되었다. 옛날부터 절이 있어서 ‘절골’이라고 부르다가 절이 없어지면서 ‘배나뭇골’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주거지로 개발되어 예전과 달라졌지만 실제로 이 골짜기에 배나무와 사과나무가 있었다는 지역민의 증언이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배나무[梨]+ㅅ+골[谷]’로 분석된다.

### ● 배터기

[별칭] 배터

[형태] 마을

[위치] 소양1교 부근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소양강의 나룻배가 닿던 곳. 노를 젓는 나룻배가 아닌 모터로 돌려서 다니는 발동선이 닿는다.”라 하였고, 『근화동지』에 “일제강점기인 1933년 소양1교가 부설되기 전까지 소양강의 북쪽과 남쪽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나룻배였다. 1918년과 1925년에 각각 제작

된 지도에는 ‘昭陽渡(소양나루)’가 현 소양1교 부근에 표시되어 있다. 나루터가 있던 지역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이 ‘배터기’이다. 소양1교가 개설되면서 이 나루터는 사라졌지만, 이후 소양강처녀상 부근에 중도와 서면 금산리, 신매리로 오가는 배가 정박하는 새 나루터가 생겨 오랫동안 운영하였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배[船]+터[垈]+기(基)’로 분석된다. ‘터[垈]+기(基)’는 ‘터’의 중복형이다.

### ● 범바우골

[별칭] 범바웃골, 범바위골, 굴꼴/굴골, 굴곡(窟谷)

[형태] 골짜기

[위치] 현 소양사 뒤쪽으로 더 올라가서 있는 골짜기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봉의산의 골짜기. 범바위에 밤마다 범이 와서 앉아 마을을 내려다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범바위골의 유래는 범이 춘천의 상징동물로 정해지는 근거가 되었다.”라 하였고, 『근화동지』에는 “범바위[虎巖]가 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범바위[虎巖]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한다. 현 소양정 앞에 호랑이 모양의 바위가 있었는데 현재는 개발로 인해 사라졌다 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대로라면 범바우골은 소양정 죠측에 있는 큰 골짜기를 지칭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 골짜기 이름은 ‘뒷골’이고, ‘범바우골’은 현 소양사 뒤쪽으로 더 올라가서 있는 골짜기라고 한다. 이곳에는 조그마한 바위 동굴이 있는데, 호랑이가 입을 벌린 모양이라고 하며, 바위 위에 호랑이가 앉아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조선지지자료』에 수동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窟谷(굴꼴)’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곳을 지칭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

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범[虎]+바우[岩]+골[谷]’로 분석된다.

### ● 번개시장

[별칭] 소양동 번개시장

[형태] 시장

[위치] 봉의산 북서쪽, 소양2교 앞 봉의산 자락 아래 형성된 재래시장.

[유래] 서면이나 우두동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시장이다. 새벽에만 잠깐 열린다고 하여 번개시장이란 이름이 붙었다. 현재는 근화동, 소양동 일대 도시문화재생사업을 통해 주차장과 산책로 조성이 이루어졌고 청년창업 공간, 재래시장 역사관, 재생사업 홍보관 등 문화 공간이 조성되었다.

### ● 복주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배나뭇골 좌측 골짜기

[유래] 『근화동지』에 “지역민의 중언에 따르면 배나뭇골 좌측 골짜기로 밥그릇 뚜껑 또는 주발을 덮어놓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복(覆)+주/주발[鉢]+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담] 이곳에서 여우가 울면 소양강 너머 우두동에서도 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 ● 비각거리(碑閣거리)

[별칭] 비석거리

[형태] 마을

[위치] 소양1교에서 번개시장으로 들어오는 입구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비각이 있던 마을. 조선시대 행정관들의 재임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

여 전임할 때 세워놓은 비석들이 있다. 지금은 소양강이 내려다보이는 소양정 아래로 모아놓았다. 일명 송덕비(頌德碑)거리라고도 한다. 송덕비 25개가 소양로1가로 옮겨져 있다.”라 하였고, 『근화동지』에는 “공식명칭은 ‘소양로 비석군’으로 춘천시의 향토문화유산 제2017-1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소양1교 근처인 옛 소양정 주변과 춘천 관내에 흩어져 있던 비석들을 1940년과 1983년에 모두 이곳으로 옮겨서 보호하고 있다. 이 비석군으로 인해 생겨난 지명이 비각거리이다. 비석거리라고도 한다. 아랫비각거리와 웃비각거리로 나눠 불리기도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비각(碑閣)+거리[街]’로 분석된다.

### ● 석왕사(釋王寺)

[형태] 사찰

[위치] 소양로1가 78의 45번지.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태고종 계통의 절로 시내에서 가까운 절이다.”라 소개되어 있고, 조사 보고서에는 “북한 안변에 있는 석왕사를 통일이 되면 재건하기 위해서 북한과 가까운 춘천에 석왕사를 지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자도 같다.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될 꿈을 꾼 곳이라 한다.”라 하였다.

### ● 소양1교

[형태] 교량

[위치] 지변은 춘천시 우두동 소재.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소양강에 놓은 첫째 다리. 1932년에 놓았는데 양구, 화천으로 통한다.”라 하였다. 1933년에 완공되어 소양교라 불렸는데 후에 근처에 놓인 다리와 구분하려 소양1교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국전쟁 초기 소양강을 건너려는 북한군과 이를 저지하려는 국군 6사단 사이에 치

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일방 통행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어원풀이] ‘소양(昭陽)+1+교(橋)’로 분석된다. 소양(昭陽)은 소양강(昭陽江)을 말한다.

### ● 소양2교

[형태] 교량

[위치] 지번은 춘천시 우두동 소재.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소양1교 아래쪽에 있는 다리. 1954년 미군이 가설, 1956년에 추가공사로 완성되었으나 홍수로 떠내려가고, 새로 2차선 다리가 놓였다.”라 하였다. 1951년 7월 미군 공병대에 의해 573m의 나무다리가 처음 개설되었고 미군 공병단 포니 대령을 추모하기 위해 ‘포니브리지(FORNEY BRIDGE)’라 명명하였다. 이후 계속된 보강공사가 이루어졌지만 나무다리라는 한계로 인해 봉괴위험을 늘 안고 있었기에 콘크리트로 새롭게 공사가 시작되어 1967년 준공식을 가졌고 교량 이름도 포니교에서 소양2교로 바뀌었다. 1995년 아치형의 교량을 완공하고 이어 1997년 똑같은 형태의 2차 교량도 완공되어 길이 510m, 폭 35m 왕복 6차선의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어원풀이] ‘소양(昭陽)+2+교(橋)’로 분석된다.

### ● 소양정(昭陽亭)

[형태] 고적

[위치] 춘천시 소양로1가. 봉의산 북쪽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봉의산 북쪽 기슭 소양강 가에 있던 정자. 옛날 삼한(三韓) 때 건립되었다고 전해진다. 조선 중엽에는 이요루(二樂樓)라 했다. 선조 38년(1605)에 홍수로 유실되었다가 광해군 2년(1610)에 재건되었다. 6.25 한국전쟁 때 소

실되었다. 소양정은 소양1교 근처 기슭에 있었는데 소양로와 후평동 간의 도로가 개통되자 소양정을 옛 소양정터에 세울 수 없게 되었다. 소양정터의 뒤편 봉의산 중턱에 소양정을 다시 건립한 것은 1965년. 정면 4칸, 측면 2칸, 종층누각에 주심포 8각 지붕이다. 정자가 누각으로 틸바꿈했다.”라 소개되어 있다.

### ● 아랫비각거리

[별칭] 아랫비석거리

[형태] 마을

[위치] 소양로비석군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비각거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아래[下]+ㅅ+비각(碑閣)+거리[街]’로 분석된다.

### ● 여제당(厲祭堂)

[형태] 건물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수동리’ 소재 고적명소로 ‘勵祭堂(여제당)’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여(勵)+제(祭)+당(堂)’으로 분석된다. ‘여제(勵祭/厲祭)’를 지내는 사당이란 의미이다. 제사를 받지 못하거나, 억울하게 죽어 사람들에게 화를 입히는 원혼인 여귀(厲鬼)를 달래기 위하여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 ● 웃비각거리

[별칭] 웃비석거리

[형태] 마을

[위치] 현 소양정 부근 골짜기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비각거리를 중심으로

위쪽에 형성되었던 마을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우[上]+ㅅ+비각(碑閣)+거리(街)’로 분석된다.

### ● 약수골

[별칭] 약수터, 육모정골

[형태] 골짜기

[위치] 번개시장에서 지장암으로 들어가는 골짜기를 말한다. 배나뭇골 우측에 있는 골짜기로 도로명은 ‘소양정길 42번길’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봉의산에 좋은 약수가 있는 골짜기. 광천수가 아니라도 좋은 샘물이 나오는 곳은 약수터, 약수골이라고 부른다.”라 소개되어 있다. 『근화동지』에는 “골짜기를 따라 들어가면 ‘천하약수암’이란 무속인 거주지가 있다. 이곳에 샘물이 있는데 한겨울에도 얼지 않으며 속병치료에 효험이 있다고 하여 예전부터 유명하였다”고 한다. 이 약수로 인해 생겨난 지명이 약수골이다. 지역민의 말로는 ‘육모정골’로도 부른다고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약수(藥水)+ㅅ+골[谷]’로 분석된다. ‘육모정골’은 ‘육(六)+모[角]+정(亭)+골[谷]’로 분석된다. 육각형 모양의 지붕을 얹은 정자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일제강점기 신문에 봉의산 온수골에 정자가 새로 조성되었다는 기사가 보인다.



약수골 샘물

### ● 원수골

[별칭] 웬수골, 온수골, 온수곡(溫水谷)

[형태] 골짜기

[위치] 약수골과 동일한 곳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옛날 여자가 바위에 서 떨어져 죽은 곳.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곳이라고 해서 원수처럼 여기던 곳. 원수골의 뜻을 담게 되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근화동지』에는 “원수골은 ‘온수골’의 와전으로 보인다. 『조선지지자료』에 ‘수동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溫水谷(오슈실)’이 표기되어 있고, 김영하가 쓴 『수춘지』에는 ‘소양정 서쪽 봉의산 허리를 온수동(溫水洞)이라 부르고 거기에 온수정(溫水亭)이 있다.’라 하였다. 위의 ‘약수골’과 같은 곳을 가리키는 이칭이라 하겠다. 약수골의 샘물 옆 바위 벽면에는 암각문자가 남아있는 데, ‘온수동천(溫水洞天)’과 이곳을 찾았던 권직상 춘천군수와 주사(主事)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광무사년(光武四年)’이란 글씨를 통해 1900년에 새긴 것임을 알 수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원수(怨讐)+골[谷]’로 분석된다.

### ● 전계심(全桂心) 묘비

[별칭] 춘천절기 전계심 묘비, 춘기계심순절비(春妓桂心殉節碑)

[형태] 비석

[위치] 소양정 입구에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요선당리’ 소재 고적명소로 ‘春妓桂心殉節碑(춘기계심순절비)’가 등재되어 있다. 원래는 도청 부근에 무덤과 비석이 있었는데, 소양1교에서 후평동 방향의 봉의산 기슭으로 옮겨졌다가 도로가 개설되면서 무덤은 없어지고 비석만 소양사 입구 후미진 곳에 방치되었다가 1997년 현재 위치로 옮겨 세웠다. 춘천의 기생이

었던 전계심이 정조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절개를 기리는 내용이 칠언(七言) 40구의 한 시 형태로 쓰여 있다. 1796년 당시 춘천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박종정(朴宗正)이 짓고 유상륜(柳尙綸)이 글씨를 썼으며, 무덤을 조성하는 작업을 총괄한 사람은 남편 김치인이라고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

### ● 절터

[별칭] 절골, 사곡(寺谷)

[형태] 고적

[위치] 지역민의 증언으로는 현재 배나뭇골을 예전에 절골이라 불렀다고 한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옛날에 절이 있던 곳. 봉의사, 석왕사 등의 절이 있어 옛날의 절터가 있던 곳을 방불케 한다. 불교도량이 춘천에서는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절터’는 ‘절(寺)+터(垈)’로 분석된다.

[어원풀이] ‘추안(?)+터[垈]+ㅅ+골[谷]’이나 ‘추(?)+안[内]+터[垈]+ㅅ+골[谷]’로 분석할 수 있으나, ‘추안’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 충원사(忠圓寺)

[형태] 사찰

[위치] 춘천시 소양로1가 26-75. 봉의산에서 북서쪽, 소양동 번개시장 방면 300m 부근.

[유래] 소양동 봉의산 중턱에 있는 선학원 사찰이다. 신라 시대에 세워진 고찰 충원사의 암자로 처음에는 ‘봉의사(鳳儀寺)’라 하였다. 1954년 금강산 유점사의 승려 권매월이 암자를 중창하면서 ‘봉시사’로 바꾸었다. 1988년 승려 성월(惺月)이 부임한 뒤, 선사당(禪寺堂)과 종각을 개축하고 대웅전과 충월당(沖月堂), 충월선원(沖月禪圓)을 중축하였다. 대웅전 중축과 함께 진입로 108계단을 축조하면서 옛 충원사의 명맥을 복원한다는 의미로 사찰 명칭을 충원사로 바꾸었다.

### ● 정지골

[별칭] 정자골

[형태] 골짜기

[위치] 『근화동지』에 “소양정 우측에 있는 골짜기로, 소양정이 원래 위치인 소양강 강가에 있었을 때 소양정의 뒤쪽 골짜기이기에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라 하였다.

[유래] 정자(소양정) 부근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정지/정자(亭子)+골[谷]’로 분석된다.

### ● 추안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봉의산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 중도동(中島洞)

**위치와 현황** | 북한강과 소양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의암호가 있는데, 그 호수 가운데 상중도와 하중도로 나누어져 있다. 원래는 북한강과 소양강에 의해서 형성된 삼각주인데, 의암호가 생기면서 완전히 물에 잠겨 섬이 되었다. 『청구도』에도 섬이 그려져 있는데 이름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중도에서는 북방식 돌널무덤과 돌무지무덤을 비롯해 고인돌·움집 등 선사 시대 문화유적이 많이 발굴되었다. 특히 선사 시대 유적으로 1~2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적석총을 비롯하여 지석묘군, 수혈식 주거지 등이 발견되었다. 이는 다른 한강유역의 선사 시대 유적들보다 그 양이나 질적인 면에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상중도에는 상중도유원지가, 하중도에는 레고랜드가 조성되어 있다.

**연혁** | 중도동(中島洞)은 본래 춘천군 서하일작면의 지역으로, 소양강과 북한강의 중간에 있는 삼각주이므로 중도(中島)라고 하였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북쪽 지역은 서면의 금산리(錦山里)에, 남쪽 지역은 현암리(玄岩里)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에 춘천시로 편입되면서 중도동(中島洞)이라고 하여 행정동인 근화동1구 지역이 되었다가, 1974년 호반동에 편입되었다.

**유래** | 소양강과 북한강의 중간에 있는 삼각주이므로 중도(中島)라고 하였다. ‘중도’는 예전에 ‘홍료도(紅蓼島)’라 불렸으며, 신흠(申欽, 1566~1628)이 유배 생활을 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 ● 가래모기

[별칭] 추항(楸項)

[형태] 들

[위치] 춘천시 중도동 166-2. 상중도 고산에서 서 면 쪽 강변을 따라 펼쳐진 곳.

[유래] 북한강이 상중도로 인해 양쪽으로 갈라져 흐르는 지형에서 유래하였는데, 지금은 개간되어 옛 지형 모습은 사라졌다.

[어원풀이] '가래/갈/가르[갈라지다. 岐, 枝]+모기/목[項]'으로 분석된다. 지명첩미사 '목[項]'은 '목/목이/매기/매기/모기' 등의 이형태를 가지며 '좁다란 산협이나 물속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뜻한다. 특히 '통로의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 요하고 좁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

## ● 고산(孤山)

[별칭] 고산대(孤山臺), 부래산(浮來山/浮來峰), 봉추대(鳳翽臺, 鳳翽, 鳳翽孤山), 상산대(象山臺/象山)

[형태] 산

[위치] 중도동 205-1. 상중도 북단에 있다.

[유래] 상중도 북단에 있는 98m의 산이다. 의암댐이 건설되기 전에는 북한강 복판에 홀로 솟아 있어 외로운 산이란 의미의 고산(孤山)이라 불렸다.

[어원풀이] '고(孤)+산(山)'으로 분석된다.

[유래담] 어느 해 큰 장마가 졌는데 낭천강 상류에 서 큰 바위산이 떠내려왔다. 금성 땅의 관리가 그 큰 바위산을 찾아서 춘천까지 오게 되었다. 중도 북쪽에 떠내려온 이 바위산을 춘천에서는 부래산이라고 불렀다. 금성의 관리는 이 부래산이 눈을 즐겁게 해주었으니 세금을 받겠다고 했다. 그때부터 매년 금성 고을 관리가 와서 세금을 받아갔다. 춘천에 새로 고을원이 부임했다. 금성의 관리가 올 때가 되어 부래산 세금을 낼 일이 근심이었다. 원

님에게 일곱 살 난 아들이 있었다. 일곱 살 난 아들이 금성의 관리는 자기가 맡아 잘 처리하겠다고 자신 있게 나섰다. 금성의 관리가 며칠 뒤 세금을 받으러 왔다. 원님의 아들이 금성의 관리에게 "바위산은 금성의 산이지만 바위산이 깔고 앉은 땅은 춘천 땅입니다. 자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으니 바위산이 떠내려온 때부터 지금까지의 자리세를 내십시오. 자리세를 내시고 이제부터는 부래산이 필요없으니 도루 가져가십시오."라 했다. 금성의 관리는 아무소리도 못하고 돌아갔다. 그 뒤부터는 금성의 관리가 세금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한다.

## ● 동재들

[별칭] 동지야(東芝野)

[형태] 들

[위치] 춘천시 중도동 766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서면 '와빈리' 소재 들판 이름으로 '東芝野(동지야)'로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동(東)+재[地+ ]+들[坪]'로 분석된다. 현재는 하중도 하단에 있는 무인도를 가리키는데, 의암호가 들어서기 전에는 서면의 벌판으로 인식되었다. 서면을 기준으로 할 때 동쪽 땅에 있는 벌판이란 의미로 보인다.

## ● 신촌(新村)

[별칭] 새말

[형태] 마을

[위치] 중도동 430-7. 현 중도 부근.

[유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소양강과 북한강에 둘러싸여 있는 섬으로 강 한가운데 있다 하여 중도라 하였으나, 1809년 마을을 새로이 형성하였다 하여 신촌이라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신(新)+촌(村)'으로 분석된다. 신촌(新

村)은 ‘새밀’의 한자표기이다. ‘새밀’은 ‘사잇말’의 준말로, 강 사이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 신촌도(新村島)

[별칭] 중도(中島)

[형태] 섬

[위치] 지금의 중도이다.

[유래] 일제강점기 지도에 ‘新村’이 표기되어 있고 『강원도지지조서』에 “島嶼 本面 江倉里에서 西方에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신촌(新村)+도(島)’로 분석된다. ‘신촌(新村)’은 특정한 곳 가운데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의 ‘사잇말’이 ‘새밀’로, 다시 한자로 표기하면서 ‘新村’이라 하였다.



일제강점기 지도에 표기된 신촌

### ● 춘천중도선사유적

[별칭] 춘천중도선사유적지

[형태] 고적

[위치] 중도 일대.

[유래] 레고랜드를 건설하며 드러난 선사 유적지.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와 삼국시대 초기의 도량 겹 마을 경계시설인 화호(環濠) 2기와 주거지 1495기, 고인돌 150기, 농경 유적 등 약 3100기의 유적이 확인됐다.

### ● 춘천대교

[형태] 다리

[위치] 근화동과 중도를 잇는 다리

[유래] 2015년 7월 1일 착공하여 2018년 1월 완공되었다. 세계 최초의 수퍼콘크리트 사장교로 총 연장 1,058m, 폭 25m의 4차로 교량이다. 교량 중간에 지름 45m, 높이 55m의 원형 주탑이 설치되고 양쪽으로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으며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춘천대교

### ● 하중도수변생태공원

[형태] 공원

[위치] 하중도 650-2번지

[유래] 춘천 중도동에 위치한 하중도수변생태공원은 호수변 산책로와 곳곳에 마련된 잔디광장, 벤치 등으로 가족단위 나들이객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자연경관을 즐길수 있는 힐링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중도수변생태공원

## 석사동(碩士洞)



**위치와 현황** | 춘천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효자동과 퇴계동, 후평동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으며, 현재 춘천종합고용지원센터와 춘천교육대학교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중앙고속도로의 시작점이 위치하며, 퇴계동과 함께 2000

년대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었다. 주로 아파트 등 주거 시설이 많아 춘천시에서 퇴계동과 함께 거주민이 많은 지역 중 하나이다.

**연혁** | 『춘주지』는 남부내(南府內)에 선돌(先石)이라고 표기한 곳이 있는데, 후에 지석리(支石里)가 된 것 같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에 동내면(東內面) 안에 지석리(支石里), 석사리(碩士里)가 표기되었다. 『조선지지자료』도 동내면(東內面) 안에 지석리(支石里), 석사리(碩士里)를 표기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는 부내면(府內面)에 석사리(碩士里)를 표기하였고, 『강원도지』도 춘천읍(春川邑) 안에 석사리(碩士里)를 표기하였다. 1984년에 출간된 『춘주지』에 석사동(碩士洞)으로 변경되었다. 현재 행정동과 법정동이 동일하게 석사동이다.

**유래** | 벌판에 돌[石]과 모래[沙]가 많아서 석사리(石沙里)라 하였다는 설과, 춘천사범학교(춘천교육대학교의 전신)가 들어서면서 한자를 석사리(碩士里)로 바꿨다는 설이 있다. 그러나 춘천사범학교가 들어서기 전부터 석사리(碩士里)란 명칭이 사용되어 왔다.

### ● 강원도여성회관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석사동 111-6. 춘천교육대학과 거  
두리성당 사이

[유래] 강원도여성회관은 처음에 시내 죽립동 지역  
에 건립 되었으나 사옥이 협소해 새로 지어 옮겼  
다. 여성회관은 강원도 여성들의 요람이 되고 있다.

### ● 곰도리공원

[형태] 공원

[위치] 공지천 석사교 북쪽 300m 거리에 있다.

### ● 국립춘천박물관

[별칭] 춘천박물관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석사동 95-3.

[유래] 2002년 10월 개관한 국립 박물관이다. 주  
요 소장 문화재로는 국보 제124호 강릉 한송사지  
석조보살좌상, 보물 제1509호 허목 초상, 보물 제  
1871호 동제염거화상탑지, 보물 제1872호 전 회  
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보물 제1873호 원  
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 국가민속문화재 제  
120호 청풍부원군 상여 등이 있다.

### ● 말무덤

[별칭] 고총(古塚)

[형태] 묘(墓)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난리 때 죽은 말을 묻었  
다는 무덤. 중도와 우두동의 말무덤과 같은 고총.”  
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말[馬]+무덤[墓]’으로 분석된다.

### ● 미리내공원

[형태] 공원

[위치] 우석중학교 옆

[어원풀이] ‘미리내’는 ‘은하수(銀河水)’의 고유어이다.

### ● 배다리보

[형태] 수리

[위치] 미상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곰지내에서 흐르는  
물로는 논에 물을 대기 힘들었으므로 배다리보를  
만들었다. 별말에도 보가 있었는데 별말보라 했  
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배[船]+다리[橋]+보(洑)’로 분석된다.  
배를 연결하여 만든 다리처럼 생긴 보란 의미이다.

### ● 벌말

[별칭] 석사리(石沙里), 석사동(石沙洞)

[형태] 마을

[위치] 석사동 일대

[유래] 석사동의 옛 이름이다.

[어원풀이] ‘벌/모래벌[石沙]+말[村, 洞]’로 분석된다.

### ● 벌말공원

[형태] 공원

[위치] 공지천 석사교 북쪽

### ● 벌말보

[형태] 수리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벌말에 있는 보”, 『춘주  
지』에 “지금은 벌말보 일대가 개발되어 주택가가  
되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벌/모래벌[石沙]+말[村, 洞]+보(洑)’로

분석된다. 별말에 있는 보란 의미이다.

### ● 사기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사기를 구웠다는 골짜기. 옹기나 기와도 구웠던 곳.”이라 하였고, 『춘천백년사』에 “춘천교육대학교를 지나 춘천~홍천간 도로 좌측에 있는 군부대 안쪽의 골짜기를 지칭하는 명칭이다. 과거 이곳에 사기를 굽고 제조하던 곳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은 한국전쟁 시기의 격전지이기도 한데, 1970년대까지 한국전쟁 시기 에 사용하던 참호와 전쟁 잔여물들이 많이 발견되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사기(砂器)+장(場)+골[谷]’로 분석된다.

### ● 상보(上洑)

[형태] 수리

[위치] 미상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위쪽에 있는 보”, 『춘천 의 지명유래』에 “석사동에는 보가 많았으므로 위에 있는 보는 상보라 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상(上)+보(洑)’로 분석된다. 위에 있는 보란 의미이다.

### ● 새로움공원

[형태] 공원

[위치] 석사동 846. 석사사거리에서 공지천 쪽으로 들어가, 공지천 산책길 가에 있다.

### ● 석사공원

[형태] 공원

[위치] 우석중학교 동쪽 맞은편

### ● 석사리(石沙里)

[별칭] 석사동, 별말

[형태] 마을

[위치] 석사동 일대

[유래] 현재 ‘석사동’의 지명 역사는 다음과 같다.

1) 별말 : 예전에 돌과 모래가 많은 벌판에 있는 마을이라서 ‘별말’이라 불렀다.

2) 석사리(石沙里) : 1914년 ‘지석리(支石里)’와 ‘상퇴계리’ 일부를 병합하여 ‘석사리(石沙里)’라 개정 했다.

3) 석사동(碩土洞) : 석사리(石沙里)라고 하던 것을 1939년 춘천사범학교가 개교함에 따라 한자를 ‘碩土洞’으로 바꾸었다.

4) ‘석사동(碩土洞)’의 이전 이름 ‘석사리(石沙里)’는 더 예전 이름 ‘별말’의 유래인 ‘돌과 모래가 많은 벌판에 있는 마을’을 1914년 한자 지명화한 것이다.

〈참고〉 ‘지석리(支石里)’와 ‘약사리(藥司里)’에서 한글자씩 따서 ‘石司里’라 하였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있으나, 이 경우 그 한자 표기는 ‘石司里’여야 한다.

[어원풀이] ‘석사(石沙)+리(里)’로 분석된다.

### ● 석사양지공원

[형태] 공원

[위치] 국립춘천박물관 서쪽 출입구 맞은편

### ● 쌍다리

[형태] 다리

[위치] 현 거두교.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관돌[支石] 동쪽에 있는 쌍으로 된 다리. 신동면 후하리 앞에 다리가 놓였다.”라 하였다. 지금은 4차선 도로가 지나는 거두교가 되었다.

[어원풀이] ‘쌍(雙)+다리[橋]’로 분석된다.

### ● 스무숲

[형태] 마을

[위치] 안마산 북쪽 자락, 스무숲역자골목 일대와 스무숲성당 사이를 통칭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스무나무 숲이 있었다.”라 하였고, 『춘천백년사』에는 “석사동에 소나무 군락이 있었는데, 이를 스무숲이라고 하였다 한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인지를 알 수 없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스무[스무나무]+金[藪]’으로 분석된다.

스무숲의 유래에 대해서는 네 가지 설명이 전한다.

1) 스무나무가 군락을 이룬 숲이 있었다.

2) 춘천관아에서 20리 되는 곳에 세운 정자[스무정]가 있었다.

3) 숲을 조성하였다는 의미의 ‘심은숲[成林]’이 변형된 것이다.

4) 숨어있는 듯 큰 길에서 눈에 띄지 않는 골짜기란 의미의 ‘숨은골[隱谷]’이 ‘스무골’로 변하고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 ‘二十谷’, 한글로 표기하여 ‘스무숲’이 되었다.

### ● 스무숲솔바람공원

[형태] 공원

[위치] 현진에버빌아파트 옆에 있다.

### ● 스무숲솔빛공원

[형태] 공원

[위치] 현진에버빌1차아파트 옆에 있다.

### ● 스무숲송화공원

[형태] 공원

[위치] 성립초등학교 북쪽에 붙어 있다.

### ● 스무숲햇빛공원

[형태] 공원

[위치] 석사동스무숲경로당 옆

### ● 승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도로지명 ‘승지골길’은 성립초교, 현진에버빌2차아파트, 주공6단지아파트, 춘천나눔성결교회 사이에 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석사동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승지[옹달, 隱地]+골[谷]’로 분석된다.

‘승지골’은 전국적인 지명인데 ‘승지’의 의미에 대해, 1) 중이 살던 곳[僧地], 절이나 암자가 있던 곳 2) 조선시대 관직 승지(承旨)가 살던 곳 3)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 응달/음달, 음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앞개울

[형태] 수리

[위치] 석사동 앞 공지천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별말 앞에 있는 개울. 공지천의 상류지역.”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앞[前]+개울[川]’로 분석된다. 마을 앞에 있는 개울이란 의미이다.

### ● 애막골

[별칭] 애막동(艾幕洞), 애맛골, 애맷골, 애마골

[형태] 마을

[위치] 강원대 동문 앞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석사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艾幕洞(이막골)’이 등재되어 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 “애막골, 애맛골로 부르는 애막골에는 애

마골 고개가 있다. 애막동이라고도 부른다. 안화산에 있는 마을이다.” 『우리의 소슬뫼를 찾아서』(이무상 저)에는 “애막골은 ‘애총(애塚)’ 즉 ‘어린애 무덤’이 있는 ‘애뫼골’이었으나 애막동(艾幕洞)으로 쓰여지고 애막골이라 칭하게 되었다.”라 하였다. <참고> 안화산은 안마산(303m)의 별칭이고, 애막골이 있는 안화산은 안마산(안화산)과는 다른 산이다. [어원풀이] ‘애/아이’[兒]+막[幕]+골[谷]’로 분석할 수 있으며, ‘애막’은 ‘움집’이고, ‘산막(山幕)’이다. 1527년(중종 22)에 최세진이 지은 『훈몽자회(訓蒙字會)』에 ‘窩 산막 와 又 애막 曰 窩鋪 又 鳥栖 曰 窩兒’라 하였다. ‘애막’은 ‘산막’이며, 용례 ‘窩鋪 又 鳟栖 曰 窩兒’에서 그 의미는 ‘새가 깃들 만한[鳥栖], 어린아이 산막 만한[窩兒]’ 옛날 ‘움집[窩鋪]’ 정도의 소략한 작은 거처에 해당한다. 즉 ‘애막’은 곧 ‘움집’이고 ‘산막’이며, ‘애막’의 ‘애’는 ‘애/아이’[兒]’이다.

### ● 애막골고개

[형태] 고개

[위치] 석사교차로에서 강원대 동문 입구를 지나는 4차선 고갯길이 되었다. 넘어가면 후평동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 등에 “애막골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애/아이’[兒]+막(幕)+골[谷]+고개[峴]’로 분석된다. ‘애막’은 ‘움집’이고, ‘산막’이다.

### ● 애막골성정하상바오로성당

[별칭] 천주교춘천교구애막골성정하상바오로성당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세실로 100-29. 춘천시 석사동 33.

[유래] 정하상(丁夏祥)은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정약종(丁若鍾) 아우구스티노의 둘째 아들이고,

실학자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의 조카이며 세례명은 바오로(Paul)이다. 19세기 동아시아 가톨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로, 한국 천주교 초기 평신도 지도자이다. 한국 가톨릭교회에서는 ‘성 정하상 바오로’로 불리고, 미국 가톨릭에서는 ‘Saint Paul Chong Hasang’이라고 부른다.

### ● 약물골

[별칭] 약못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약물이 나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약(藥)+물[水]+골[谷]’로 분석된다.

### ● 양지말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양지편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양지(陽地)+말/마을[村]’로 분석된다.

### ● 어울림공원

[형태] 공원

[위치] 석사동그랜드아파트 옆

### ● 여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강원대학교와 강원사대부고로 이어지는 능선에 있던 골짜기

[유래] 『춘천백년사』에 “사기장골에서 강원대학교와 강원사대부속고등학교 쪽으로 나있는 골짜기 이름. 지금 예전 여우골은 4차선 도로가 되었다. 도

로를 따라 막혔던 여우골 능선을 뚫어 터널이 개설되어 애막골과 만천리로 이어진다. 1960년대까지 이곳에 여우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여우[狐]+골[谷]’로 분석된다.

### ● 외솔배기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던 마을. 지금은 큰 소나무를 찾아볼 수 없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외[單, 獨]+솔[松]+배기(접미사)’로 분석된다. ‘-배기’는 ‘접박이, 불박이, 차돌박이’에 접미된 ‘무엇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가진 ‘-박이’의 방언형(-배기)이 지명으로 접미사화한 것이다.

### ● 우묵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우묵하다 함.”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우묵[우묵하-]+골[谷]’로 분석된다. ‘우묵하다’는 가운데가 둉그스름하게 푹 패거나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비슷한 말로는 ‘오목하다, 움푹하다, 잘록하다’가 있다.

### ● 우석새싹공원

[형태] 공원

[위치] 우석초등학교 2시 방향 150m 거리

### ● 응달말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응달쪽에 있는 마을. 그들이 드는 마을을 응달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응달[陰地]+말[마을]’로 분석된다.

### ● 중보

[형태] 수리

[위치] 석사동 공지천 부근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상보와 아랫보의 한 가운데 있던 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중(中)+보(洑)’로 분석된다.

### ● 쥐역두루

[별칭] 쥐역뚜루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석사동에 있던 들. 쥐역두루에는 쥐역두루보가 있다.”라 하였고, 『춘천백년사』에 “춘천-홍천 간 도로 우측에 있는 들. 이 곳에는 조선시대 아래 많은 논과 보(洑)가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대부분 사라졌다.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이 곳에 있던 보로서는 ‘상보’, ‘중보’, ‘쥐역뚜루보’ 등이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쥐역(?)+두루/뚜르/들[坪]’로 분석된다. ‘쥐역’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 쥐역두루보

[별칭] 쥐역뚜루보

[형태] 수리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취역두루에 있는 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취역(?)+두루/뚜르/들[坪]+보(源)’로 분석된다. ‘취역’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 지석리(支石里)

[별칭] 편돌, 고인돌

[형태] 마을

[위치] 석사동 공지천 주변으로 있던 마을. 지금은 개발되어 아파트단지로 변했고 지석공원과 도로 지명 지석로로 남아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지석리(支石里)는 고인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에 사람들이 이 살았던 것이 증명된다. 그만큼 사람이 살기에 알맞은 환경을 갖추었다. 편돌, 즉 돌을 편 돌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지석(支石-墓, 고인돌)+리(里)’로 분석된다. 고인돌이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일제강점기 지도에 표기된 석사리와 지석리

### ● 진선이장동이

[형태] 산

[위치] 석사동과 후평3동에 걸친 고개로, 지금은 4

차선도로가 개설되었다. 후평3동 소재. 1988년에 개설된 ‘진선1공원’과 ‘진선2공원’이 있다. 또는 강원대 정문 좌우 봄내중학교(춘천여중) 고개와 강원대 공대 고개 사이로 이어진 고갯길 능선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산등성이가 길다고 진선이장동이라 불렸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진/긴[長]+선이/서리[사이, 間]+장동이/잔등이[고개, 峴]’로 분석된다. 효자1동에 “산의 능선을 따라 20리나 길게 뻗은 길”이란 소개로 ‘진서리’라는 지명이 쓰인다. ‘진서리’에서 ‘서리’는 ‘사이[間]’의 고어이다. ‘잔등이’는 ‘고개[峴]’의 방언이며, ‘등(背)’을 속되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잔등이’는 ‘장등이/장등이’로 변이되기도 한다. 결국 ‘진선이장동이’는 ‘고개들 사이가 긴 고개길’이란 의미이다.

### ● 천주교춘천교구스무숲성당

[별칭] 스무숲성당

[형태] 성당

[위치] 춘천시 안마산로 290-7. 춘천시 석사동 173.

[유래] 이탈리아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주보성인으로 모시는 성당이다.

### ● 춘천교육대학교

[별칭] 춘천교대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석사동 339번지.

[유래] 1939년 춘천사범학교로 개교했으며, 1950년 국립으로 이관되었고, 1993년 3월 지금의 교명인 춘천교육대학교로 명칭을 변경했다. 교훈은 ‘학행일치’이다.

### ● 춘천국민체육센터

[별칭] 국민체육센터

[형태] 건물

[위치] 우석로 102-3

[유래] 1994년 춘천시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출범하여 2003년 3월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하고, 2011년 3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를 합병하여 춘천도시공사로 거듭났으며, 2014년 11월 체육진흥재단과 통합하여 현재는 춘천시 관내 복지시설, 관광지, 공영주차장, 상수도검침,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과 동산면 봉명리의 동춘천산업단지 및 남산면 광판리 일원의 남춘천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이다.

### ● 춘천시립공공도서관

[별칭] 춘천시립도서관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우석로 100(석사동)

[유래] 춘천시가 운영하는 도서관 중 대표격이며 삼천동에 위치했다가 2017년 석사동으로 이전하였다.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제1자료실, 제2자료실, 정보검색실, 북카페, 시청각실, 문화교실, 다목적실 등이 있다.

### ● 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골이 큰 골”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큰[大]+골[谷]’로 분석된다.

### ● 태극공원

[형태] 공원

[위치] 퇴계주공3단지아파트 동쪽

### ● 태백교(太百橋)

[형태] 다리

[위치] 한국교통안전공단 부근에서 공지천을 가로질러 놓인 다리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동내면 사암리의 태백동에서 나오는 개울에 놓인 다리. 태백이라는 태백동, 태백교 등의 이름은 백두산과 연계되는 이름이어서 어떻게 이 같은 이름이 남아있는가에 대한 신비감이 더한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태백(太百)+교(橋)’로 분석된다. ‘태백’은 사암리 지명인 ‘태백동’에서 따온 명칭이다. ‘태백동’은 솟대가 있던 마을이란 이름의 ‘솟대배기’가 ‘소태백이’로 변형되고 여기서 ‘태백이’가 지명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 ● 행복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석사아파트 동쪽 100m 거리



## 소양동(昭陽洞)

소양로2가, 소양로3가, 소양로4가,  
봉의동, 옥천동, 요선동,  
낙원동, 중앙로1가

북쪽에 소양강이 흐르고, 동북쪽에 봉의산 너머 후평동과 경계를 이루며, 동쪽으로는 교동에, 남쪽으로는 조운동·약사동에 인접해 있는 춘천 시가지의 서북부에 위치한 동이다. 소양로2가, 소양로3가, 소양로4가, 봉의동, 옥천동, 요선동, 낙원동, 중앙로1가 등 8개의 법정동을 관할한다. 동명은 춘천의 상징인 소양강에서 유래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소양강은 “부의 북쪽 6리에 있으며 인제 서화현(瑞和縣)에서 나와서 기린현의 물과 합류하여 양구현 초사리탄(草沙里灘)이 되며 이것이 청연(靑淵)·주연(舟淵)·적암탄(狄巖灘)·소양강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다. 1939년 춘천읍제 실시에 따라 요선당리(要仙堂里)와 사창리(司倉里)의 일부를 합쳐서 소양통이정목(昭陽通二丁目)이라 하였다. 1946년 일본식 동명을 개명할 때 소양로2가로 하였다가 1974년 소양동이 되었다.

**위치와 현황** | 소양로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지역의 2번째 구역이다. 한때는 기와  
집골이란 명칭으로 불리며 옛 춘천의 부유한 계층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남쪽으로 복  
합상가로 바뀐 춘천서부시장이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소양로 현대아파트가 위치한다. 서  
쪽으로는 옛 미군부대(캠프페이지) 일부가 포함된다. 서부시장 바로 앞으로 보물 77호인  
춘천칠층석탑이 있다.

**연혁** | 『여지도서』와 『호구총수』에 표시된 부내면(府內面) 요선당리(邀仙堂里)와 사창리(司  
倉里)의 일부가 소양로2가 지역이다. 『춘천읍지』에 부내면(府內面) 요선리(邀仙里)와 사창  
리(司倉里)로 표기되었다. 『춘천부지』, 『관동읍지』, 『조선지지자료』는 부내면(府內面)의 요  
선당리(邀仙堂里), 사창리(司倉里)로 표기하였고, 『강원도지지조서』는 요선당(要仙堂), 사창  
리(司倉里)로 표기하였다. 『강원도지』는 소양통1정목(昭陽通一丁目) 소양통2정목(昭陽通二  
丁目) 소양통3정목(昭陽通三丁目) 소양통4정목(昭陽通四丁目)로 세분화하였는데, 소양통2  
정목(昭陽通二丁目)이 소양로2가에 해당된다. 『수춘지』는 소양로1가(昭陽路一街), 소양로2  
가1구(昭陽路二街一區), 소양로2가2구(昭陽路二街二區), 소양로3가(昭陽路三街), 소양로4가  
(昭陽路四街)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소양로2가1구(昭陽路二街一區), 소양로2가2구(昭陽路二  
街二區)가 소양로2가에 해당된다.

**유래** | 1939년 춘천읍제에 따라 요선당리(邀仙堂里)와 사창리(司倉里)의 일부를 합쳐서 소양통이정목(昭陽通二丁目)이라 하였다. 1946년 웨식동명인 소양통이정목을 소양로2가로 개칭하였다.

## ● 구령고개

[별칭] 구룡고개, 구릉고개, 구룡고개

[형태] 고개

[위치] 강원도 청우 측방향 모수물길에서 옛 기와집 골로 내려가는 길

[유래] 『춘천백년사』에 “현재의 중앙로로부터 소양로 2가로 넘어가는 고개길이다. 과거에는 이 고개길이 사창고개와 함께 소양로와 근화동 방면으로부터 도청 쪽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고개길이었다. 70세 이상 노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의 비석거리 일대에서 장(場)이 선 후, 보부상(褓負商) 등이 이 고개길로 넘나들었다고 한다.”라 하였고, 『소양동지』에는 “구령고개 우측으로 e편한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을 예전에는 구령골이라고 불렀다.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는, 먼저 고개 입구가 움푹 패인 지형임을 감안하여 우뚝한 구령으로 된 곳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예전의 구령골 지역이 얕은 구릉이 연이어 이어져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구릉에 있는 고개란 의미로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모두 도로 밑으로 관을 통해 흘러서 보이지 않지만 예전에는 봉의산의 여러 샘물이 소양로 방향으로 흘렀다. 따라서 진흙구령팅 이에 있는 고개란 의미로 붙여진 지명으로 볼 수도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구령/구룡/구릉+고개[峴]’로 분석된다. ‘구령’은 ‘움푹하게 파인 땅’이고 ‘구룡, 구릉’은 방언이다. 지형이 우뚝한 구령으로 된 곳, ‘구령/구룡’은 변이형이고, ‘구룡(九龍)’은 지명 의미를 높힌 훈자자(訓借字)이다.

## ● 구령골

[형태] 골짜기

[위치] 현 e편한아파트 단지

[유래] 지금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지만 예전에는 봉의산자락을 따라 많은 구릉이 소양로 큰 길까지 뻗어져 있었고 구릉을 따라 달린논과 판잣집들이 출비하였다고 한다.

[어원풀이] ‘구령/구룡/구릉+골[谷]’로 분석된다.



1930년대 춘천시가지 지도에 표기된 구령고개와 구령골  
(춘천초등학교 소장)

## ● 기와집골

[별칭] 백석골, 백석동

[형태] 마을

[위치] 소양로 2가 일대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부자들이 많이 살았으므로 자연히 많은 기와집이 세워졌다. 기와집만 출비했으므로 기와집골이라고 불렀다. 근화동의 앞두루에도 농토가 있었지만 춘천의 평야 지대인 우두와 샘밭에도 농토가 많았다. 기와집골에 살던 부자들은 앞두루의 농토에서 거두어들인 곡식과 우두 샘밭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으로 더욱 부자가 되었다. 1백석 이상 추수를 한다고 해서 1백석 부자, 백석추수의 부자가 산다고 해서 백석골, 백석동이라 부르기도 했다. 앞으로 소양강이 유유히 흐르고 앞두루의 평야가 있고 봉의산을 의지해 명당 자리에 주택을 마련하려 했던 풍수지리설도 기와

집골이 생기게 된 배경이기도 했다. 샘밭과 우두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은 소양강 나룻배를 이용해서 운반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기와집골’은 ‘기와[瓦]+집[家]+골[谷]’로, ‘백석동’은 ‘백(百)+석(石)+동(洞)’으로 분석된다. 백석 부자가 들어 사는 기와집이 많은 동네란 의미이다. 현재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동네가 모두 헐렸다.

### ● 봉현선원

[별칭] 봉현사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모수물길22번길 22. 도청 서쪽 100m쯤 아래, 소양동성당 조금 위쪽에 위치

[유래] 대한불교 조계종 사찰이다. 봉현사 200여m 아래 광장에는 보물 제77호인 춘천칠층석탑이 있다.



봉현선원

### ● 사창고개

[형태] 고개

[위치] 서부시장에서 요선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옛날에 사창(司倉) 있었으므로 사창고개라고 불렀다. 6.25 전쟁 이후 사창고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사창(私娼)이 번창

했으므로 창고가 있었다는 뜻보다는 윤락촌이라는 뜻의 사창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사창고개를 중심으로 한 소양로3가 지역은 옛날에 대부분 뽕밭이었다.”라 하였고, 『소양동지』에는 “춘천칠층석탑 부근에서 요선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현재 e 편한아파트와 한신휴플러스아파트 사이로 4차선 도로가 뚫려 있지만 예전에는 높은 구릉이 막고 있어 통행이 힘들었다. 이에 따라 소양로에서 요선동을 거쳐 시내로 들어가는 길이 구릉을 우회하여 형성되었다. 조선시대 고지도에 사창(司倉)이 표기되어 있는 점을 통해 사창이 있던 고개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많은 윤락업소가 들어면서 이름은 같지만 다른 의미로 통하기도 하였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사창(司倉)+고개[峴]’로 분석된다. 조선시대 곡식창고인 사창(司倉)이 있었던 고개란 의미이다.

### ● 소양로성당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모수물길22번길 26. 도청 서쪽 100m쯤 아래 봉현선원(봉현사) 조금 아래쪽, 모수물길 바로 위쪽에 위치

[유래] 소양로성당은 1950년 1월 5일 죽림동 본당에서 분가되어 설립되었으며 성 파트리치오 성인을 주보로 모시고 있다. 한국전쟁 후인 1956년 완공된 성당은 한국 천주교 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된 반원형이라는 독특한 형태로 건축되었는데, 부채꼴의 구조는 신자들이 전례 공간의 중심인 제대에 가까이 다가가고 사제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한국 최초로 지어진 근대양식 성당이라는 건축사적 의미가 반영되어 2005년 등록문화재 제161호

로 지정되었다.



봉현사에서 보이는 소양동성당 모습

### ● 주막거리터

[형태] 마을

[위치] 칠층석탑이 있는 서부시장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요선당리’ 소재 주막이름으로 ‘塔山街里酒幕(탑산거리주막)’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주막(酒幕)+거리[街]+터[垈]’로 분석된다. 예전에 주막이 있던 거리란 의미이다.

### ● 초현동(韶軒洞)

[형태] 마을

[위치] 소양로2가 일대

[유래] 『춘주지』에 “손재(損齋) 조재호(趙載浩)가 서울에서 와서 초현동에 거주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어원풀이] ‘초현(韶軒)+동(洞)’으로 분석된다. 초현(韶軒)은 조선시대 고위관료만이 탈 수 있었던 수레의 일종이다. 고위관료들이 살던 마을이란 의미이다. 초현(韶軒)의 형태가 외바퀴이기에 춘천의 대표적인 전통놀이인 ‘외바퀴수레싸움’과의 관련성도 있어 보인다.

[유래담] 춘천의 외바퀴 수레싸움과 초현(韶軒) 태우기 놀이

① 춘천에서는 수레싸움을 했다. 마을 대항의 집단 대동놀이였는데, 먼저 두 마을의 원로들이 만나 놀이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정한 다음 놀이가 시작되었다. 놀이에는 마을의 청장년들이 모두 참가하였고, 마을 사람이 모두 나와 응원도 하고 거들기도 하였다.

② 각 마을에서는 외바퀴수레를 만들어, 그것을 서로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상대편의 수레를 밀어낸다. 힘이 모자라 수레가 밀리는 편이 지게 되고, 이 긴 쪽에서는 상대편 수레를 부숴버림으로써 승부가 나게 된다. 지게 되면 그해에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치열한 접전이 벌어져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했다.

③ 그밖에 춘천에서는 ‘초현(韶軒) 태우기’ 놀이도 하였다. 음력 정월 보름이 되면 청년들이 초현(조선시대 종2품 이상 관리들이 타고 다닌 외바퀴수레)을 만들어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을 한참 끌고 다니다가, 그 사람의 절을 받은 다음에 돌려보냈다고 한다.



초현(韶軒)의 모양

다. 이것은 차전을 할 때에 적을 포로로 잡아 항복을 받던 것이 놀이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 ● 춘천서부시장

[별칭] 서부시장, 서부전통시장.

[형태] 시장

[위치] 춘천시 서부대성로 12. 춘천시 소양로2가 172-1.

[유래] 주상복합형인 신동아아파트와 한 건물에 있는 시장이다. 과거에는 춘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이었다. 과거를 느낄 수 있는 오래된 시장의 건물

의 길 건너편으로 더 오랜 시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고려 시대의 칠층석탑을 만나볼 수 있어 과거와 현재가 함께 뒤섞인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시장이다.



춘천서부시장

### ● 칠층석탑

[별칭] 춘천칠층석탑. 칠층석탑공원

[형태] 고적

[위치] 소양로2가 162-2번지. 현재 칠층석탑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7층으로 된 돌탑이다. 이 일대에 고려 시대 이래 많은 사찰이 있었다고 전해오나 이 석탑이 언제 어느 사찰에 속했던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다만 조선 인조 때 충원현감을 지낸 유정립이 낙향하여 이 부근에 집터를 닦다가 충원사(沖圓寺)라는 명문이 있는 불기(佛器)를 발견했다는 기록에 의해 충원사에 속했던 탑으로 추측하고 있다.”라 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춘천 읍서칠중석탑’, ‘춘천요선당리칠층석탑’으로 불렸다. 한국전쟁과 1955년 발생한 화재로 인해 심한 손상을 입어 1969년에 보수하였고, 2000년에 다시 전면적인 보수공사와 함께 근처로 이전하였다가 도로 확장으로 인해 2018년에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1963년 보물 제77호로 지정되었다.



일제강점기 시대 사진(『조선고적도보』 수록)



현재의 모습

### ● 탑거리

[형태] 마을

[위치] 칠층석탑공원 주변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고려시대 칠층석탑이 있는 거리를 탑거리라 한다. 6.25한국전쟁 직후 서부시장 부근이 번창하고 사창고가 아래의 거리 상권이 활발히 움직일 때 탑거리도 크게 번창했었다.”라 하였다. 지금은 춘천e편한세상아파트단지 아래 지역으로 일부 흡수되었다.

[어원풀이] ‘탑(塔, 七層石塔)+거리[街]’로 분석된다. 탑이 있는 거리란 의미이다.

## 소양로3가(昭陽路3街), 소양로4가(昭陽路4街)

### 소양로3가(昭陽路3街)

**위치와 현황** | 소양로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지역의 3번째 구역으로 소양로2가의 남쪽에 위치하며, 소양동 주민센터와 KT 춘천지사, 춘천고등학교가 이곳에 있다. 관할 구역의 중간을 금강로(중앙로~춘천역 간 관통도로)가 지나고, 서쪽으로 옛 미군부대(캠프페이지) 일부가 포함된다.

소양동

**연혁** | 1939년 춘천읍제에 따라 사창리(司倉里)의 일부가 소양통삼정목(昭陽通三丁目)이 되어 『강원도지』에 기록되었다. 사창리(司倉里)는 『여지도서』에 처음 보이기 시작한다.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 『조선지지자료』, 『강원도지지조서』에도 계속 지명이 보인다. 『수춘지』는 소양로3가(昭陽路3街)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춘주지』는 소양동으로 통폐합하였다.

**유래** | 1939년 춘천읍제에 따라 사창리의 일부가 소양통삼정목(昭陽通三丁目)으로 변경 하였고, 1946년에 소양통삼정목을 소양로3가로 개칭하였다.

## 소양로4가(昭陽路4街)

**위치와 현황** | 소양로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지역의 4번째 구역으로, 소양로3가의 남쪽에 위치한다. 명칭은 소양로이지만 실제로는 중앙로 생활권에 더 가까운 곳이다.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었으나, 미군 부대 반환 후 군관사를 포함한 소양뉴타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연혁** | 1939년 춘천읍제에 따라 전평리(前坪里)의 일부가 소양통사정목(昭陽通四丁目)으로 『강원도지』에 기록되었다. 전평리(前坪里)는 『조선지지자료』에 처음 보인다. 이후 『강원도지지조서』에도 전평리가 보인다. 『수춘지』는 소양로4가(昭陽路4街)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춘주지』는 소양동으로 통합하였다.

**유래** | 1939년 춘천읍제에 따라 전평리(前坪里)의 일부가 소양통사정목(昭陽通四丁目)으로, 1946년 소양통사정목을 소양로4가로 개칭하였다.

## ● 꿈자람물정원

[형태] 정원

[위치] 춘천시 소양로3가 128-1. 봄내체육관과 춘천평화생태공원 옆에 있다.



1930년대 춘천시가지 지도에 표기된 미미기고개  
(춘천초등학교 소장)

## ● 미미기고개

[형태] 고개

[위치] 춘천 센트럴호텔 앞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소양로 3가로 가는 고개. 약사고개와 함께 춘천시내에서는 이름이 나 있던 고개였다.”, 『춘천백년사』에 “중앙로에서 소양로 3가 지역으로 나있는 고개길 이름. 이 고개에는 현재 간선도로가 포장되어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소양동지』에는 “소양동 행정복지센터와 춘천 고등학교 사이에서 중앙로로 연결되는 고개를 말한다. 현재 인성병원과 강원저축은행 사이는 4차선의 직선 도로가 뚫려있지만 예전에는 폐 높은 언덕이 있어 낙원동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 길이 형성되었다. 예전 캠프페이지 지역인 전평리는 해마다 장마철이면 소양강의 범람으로 극심한 수해가 발생하였는데 이곳까지 물이 들이쳤다고 한다. 따라서 범람을 막기 위해 이곳의 흙과 돌로 소양강 제방을 쌓으면서 큰 길이 생겼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정확한 유래는 불분명하다. ‘미/물[水]+미/막[防]+’ + 고개[峴]’로 분석해 본다. 물을 막던 제방이 있던 고개란 의미의 ‘물막이고개’의 변형이다. ‘미꾸라지, 메기, 미나리’ 등은 ‘미’가 ‘물[水]’과 관련된 고어(고구려어)임을 보여 준다. 한편 ‘미미기고개’는 온의동 ‘사실기고개’와 지명의 기반을 공유할 수 있다.

## ● 춘천평화생태공원

[별칭] 평화생태공원

[형태] 공원

[위치] 옛 캠프페이지 부지. 인근에 봄내체육관과 꿈자람물정원 등이 있다.

[유래] 옛 미군 기지인 캠프페이지가 2005년에 한국에 반환되면서, 춘천시에서는 춘천시민을 위한 레저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춘천평화생태공원, 봄내체육관, 꿈자람물정원 등이 조성되었고, 닭갈비, 막국수 축제 등이 열리기도 한다.

**위치와 현황** | 강원도청을 중심으로 봉의산 남쪽 자락에 위치하여 중앙로에 비해 높은 곳에 있다. 강원도청, 강원도의회 등이 있어 도 행정의 중심지이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부내(府內)에 아동리(衙洞里)가 있는데, 봉의동(鳳儀洞)은 아동리의 일부이다. 『여지도서』에도 아동리(衙洞里)는 등장한다. 『호구총수』는 아문리(衙門里)로 표기하였다.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 『조선지지자료』, 『강원도지지조서』는 아동리(衙洞里)로 기록하였다. 『강원도지』에 일본식 지명인 봉의정(鳳儀町)이란 명칭이 나오고, 『수춘지』에는 봉의동(鳳儀洞)으로 표기된다.

**유래** | 처음에는 춘천도호부 아동리(衙洞里)의 일부였는데, 1939년 아동리를 갈라서 봉의정(鳳儀町)이라 하였다. 1946년 왜식 동명 변경 때 정을 동으로 고쳐 봉의동(鳳儀洞)이라 하였다. 봉의산 남쪽 자락에 위치하여서 이름을 얻었다.

## ● 강원도청

[별칭] 도청

[형태] 건물

[위치] 봉의동 15번지, 춘천시 중앙로 1.

[유래] 강원도의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조선 고종 33년(1896년) 원주의 감영이 춘천으로 옮겨와 춘천이 관찰부의 소재지가 되었고, 융희4년(1910년) 일제의 강제 침탈로, 춘천부에 관찰부를 없애고 도청을 두었다. 일제강점기 화재와 6·25 전란 등을 거치면서 이궁(離宮)과 관찰부(觀察府) 건물은 사라져버렸다.

[어원풀이] 강원(江原)+도청(道廳)



강원도청

(威鳳門), 동현(東軒), 향사당(鄉射堂), 향청(鄉廳), 장관청(將官廳), 인리청(人吏廳), 대동청(大司廳) 등이 있었다.

## ● 관아터

[별칭] 춘천관아터

[위치]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아래, 거리 주변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관아(官衙)는 옛 관청에서 동현(東軒)을 비롯해서 향사당(鄉射堂), 향청(鄉廳), 장관청(將官廳), 인리청(人吏廳), 대동청(大司廳) 등이 있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관아(春川 官衙)+터[垈]’로 분석된다.

## ● 도청앞광장

[별칭] 도청앞

[형태] 교통

[위치]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문 앞

[유래] 강원도청 앞에 있는 광장으로 각종 행사나 집회가 열린다.

[어원풀이] ‘도청(道廳)+앞[前]+광장(廣場)’

## ● 모수물

[별칭] 오수(梧樹)물, 머슴물, 모심잇물, 묘천(妙泉).

[형태] 샘물

[위치] 봉의산 중턱 현 소양로성당 인근. 지금은 없어졌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봉의산 밑에 있는 샘, 춘천에서 가장 좋다는 샘”, 『소양동지』에 “봉의산 중턱 소양로성당 인근에 있던 샘물이다. 근처 마을주민의 식수는 물론이고 부근 지역 농지의 농업용수로도 사용하였다고 한다. 머수물이라고도 불린다.

모수물이란 명칭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전한다. 먼저 구한말 춘천부지도에 묘천문(妙泉門)이, 『조선지지자료』에 妙水峴(모수물고기)(요선당리 소재)가 표기된 점으로 미루어 좋은 샘물이란 의미로 명명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모를 심을 때 대던 물을 ‘모심잇물’이라고 한 것에서 유래되어 앞두루 들판이나 근처 농지에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샘물이란 의미로 명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소양로2가가 옛날에 양반관료나 부자들이 살던 마을인 점으로 미루어 머슴들이 샘물을 길어다 날랐다고 하여 명명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모수물고개를 오식령(梧植嶺)으로 표기한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사전인 『신증유합』이나 『훈몽자회』에 ‘梧(머귀 오)’, ‘植(시를 식)’으로 풀이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봉황과 관련된 봉의산에 맞춰 명명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모/뫼[山]+수(蔽, 숲의 고어)+물[水, 泉]’로 분석된다. ‘뫼’란 의미이다. ‘모수물’은 ‘오수물’로 보는 견해는 어원 해석에서 모음과는 달리 자음은 어원의 DNA에 해당되기에 ‘오’가 ‘모’로 바뀌는 ‘○->ㅁ’의 자음교체는 비언어학적 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모심잇물’과 ‘머슴물’이란 지명은 해당 지명의 음운 유사성에 의해 후에 이를 유래를 덧붙인 결과일 수도 있다.

## ● 모수물재

[별칭] 오수(梧樹)물재. 오식령(梧植嶺)

[형태] 고개

[위치] 강원도청에서 소양로2가로 내려가는 고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요선당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妙水峴(모수물고기)’가 등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도청 좌측에서 출발하며 산굽이

를 돈 뒤 가파른 비탈길을 굴러 내려 소양강가 신작로에 가닿는데, 다시 우회전해 비석거리를 지나 우두 방향 소양강교를 건넌다.”, 『소양동지』에 “강원도청에서 소양로2가로 내려가는 고개의 이름이다. 현재 이 지역의 도로명 주소도 ‘모수물길’이다. 인성병원 앞으로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사람은 물론 양구나 화천행 버스와 트럭도 이 고개를 넘어 다녔다고 한다.”라 되어 있다.

[어원풀이] ‘모/뫼[山]+수(蔽, 숲의 고어)+물[水, 泉]+재[峴]’로 분석된다. 춘천 시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개이다.

## ● 문소각터[聞韶閣址]

[형태] 건물

[위치] 현 강원도의회 부근

[유래] 문소각은 춘천이궁의 정전이자 침전으로, 춘천이궁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였다. 문소각이 최초로 건축된 해는 1648년으로, 당시 춘천부사로 부임한 엄황이 세웠다. 김득신이 지은 〈수춘문소각서〉에 의하면 춘천의 주산인 봉의산의 ‘봉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름을 ‘문소’로 정하였다고 한다. 1890년 고종의 왕명에 의하여 김기석의 공사 감독하에 민두호가 기존의 건물인 문소각을 활용하여 춘천이궁을 완성하였다. 이궁의 중심 건물인 문소각은 일제강점기에 강원도물산진열관으로 사용되다가 1940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어원풀이] ‘문소(聞韶)+각(閣)+터[址]’로 분석된다. ‘문소’는 순(舜)임금의 음악인 소소(簫韶)를 듣는다는 뜻이다.



일제강점기에 찍힌 문소각의 모습

### ● 봉의루(鳳儀樓)

####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현 강원도청 자리. 객사(客舍) 북쪽에 있던 누정(樓亭)이다.

[유래] 도읍을 다스리던 정2품 벼슬인 유수(留守)가 있는 각 고을마다 관아 안에 객사(客舍)와 더불어 누대(樓臺)가 있었는데 춘천의 누대는 봉의루(鳳儀樓)다.

[어원풀이] ‘봉의(鳳儀)+루(樓)’로 분석된다.

조사가 시행되면서 6세기 후반 또는 7세기 초엽에 해당하는 신라 토기를 비롯해 나말여초~고려 중기의 기와류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2호 건물지에서 출토된 6세기 후반경의 신라 토기들은 봉의산성의 최초 조영 시기가 통일기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고고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려시대 몽골이 침입하였을 때 당시 춘천 거주민이 이 산성에서 농성하다 전원 몰살당한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어원풀이] ‘봉의(鳳儀)+산(山)+성(城)’으로 분석된다.



춘천 봉의산성 성벽 석루

### ● 봉의산성

#### [별칭] 봉산고성(鳳山古城)

#### [형태] 고적

[위치] 봉의산 팔부 능선에 일부가 남아있다.

[유래] 성벽의 길이 약 1,240m. 강원도 기념물 제26호. 전형적인 포곡식 산성이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673년(문무왕 13) 수약주(首若州, 지금의 춘천) 주양성(走壤城) 축성 기사를 근거로 주양성의 실체로 지목되고 있으며, 신라의 춘천지역 진출 시기에는 삑주(朔州, 지금의 춘천)의 중심 치소성으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1993년 정밀 지표조사가 이루어져 18개소의 건물지가 지표에서 확인되었고, 2004년 산성 내 일부 건물지 발굴



춘천 봉의산성

### ● 부영바우

####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봉의산에 있는 바위”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부엉/부엉이’[鶲]+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 ● 선화당(宣化堂)

[형태] 건물

[위치] 도청 구내 북쪽 뒤편에 자리하였으나 지금은 폐가되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고종(高宗) 때 강원감영이 원주에서 춘천으로 이전하고 감사의 사설로 쓰던 집이라고 한다. 선화(宣化), 승유(承諭), 관풍(觀風), 칠속(察俗), 권농(勸農), 연병(鍊兵) 등 감사(監司) 직무중에서 왕지(王旨)를 퍼는 선무(宣務)가 제일 으뜸이라는 뜻에서 선화당(宣化堂)이라고 현관하였다 한다. 현 도청구내 북쪽 뒤편에 자리하였으나 지금은 흔적도 없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선화(宣化)+당(堂)’으로 분석된다. ‘선화당’은 조선시대 관찰사가 정무를 보던 정청(政廳)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임금의 덕을 선양하고 백성을 교화하는[宣上德而化下民] 건물이란 의미이다.

### ● 수춘관(壽春館)터

[형태] 건물

[위치] 강원도청 주차장 자리에 있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수춘관(壽春館)은 춘천도호부(春川都護府)의 객사로서 6·25 전 춘천경찰서, 지금의 강원도청 주차장 자리에 있었으며, 여기는 원래 세곡을 쌓아두던 사창청(司倉廳) 자리였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선조(宣祖) 34년 부사 허상(許鏞)이 객사(客舍)를 건립하고 수춘관(壽春館)으로 현관했다. 구한말에 큰 화재로 소실되어 흔적도 없어졌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수춘(壽春)+관(館)+터[垈]’로 분석된다.

춘천관아의 객사(客舍)로 사용되던 건물이다.

### ● 신영(新營)

[형태] 건물

[위치] 옛 춘천 이궁의 앞쪽. 현 강원도청 부근.

[유래] 춘천 이궁(離宮)의 관리와 보호를 맡았던 조선군과 대한제국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다.

[어원풀이] ‘신(新)+영(營)’으로 분석된다. 신식군대가 주둔하는 건물을 말한다.

### ● 엄성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봉의산에 있는 바위”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엄성(?)+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엄성’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 위봉문(威鳳門)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중앙로 1가 9번지.

[유래] 1646년 춘천부사 엄황(嚴愷)이 문소각(聞韶閣)을 건립할 때 부속건물로 함께 축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문소각이 임금의 침전 역할을 하게 될 이궁의 중심건물로 대폭 증수되자 위봉문은 문소각으로 통하는 내문(內門)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부터 모두 다섯 번 옮겨지는 수난을 거쳐 2013년 현 위치에 이전되었다. 위봉문이란 명칭은 춘천을 상징하는 봉황과 연관되어 명명된 것으로, 현관은 조선후기 정조의 총애를 받았던 명필 조윤형의 필적으로 알려져 있다.

[어원풀이] ‘위봉(威鳳)+문(門)’으로 분석된다. 1971년 강원도유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었다.



2019년 광복절 74주년 기념으로 강원민방 다큐멘터리에서 방영한 〈춘천이궁 – 고종황제의 사라진 궁궐〉에서 재현한 춘천이궁.

### ● 이궁(離宮)

[별칭] 춘천이궁

[형태] 건물

[위치] 강원도청과 세종호텔 일대

[유래] 1888년(고종 25)에 당시 초대 춘천유수이자 춘천도호부사였던 김기석이 고종의 명을 받고 공사를 시작하여, 1890년(고종 27)에 2대 춘천유수인 민두호가 완공하였다. 당시 조양루와 위봉문, 문소각, 조양문, 묘천문, 귀창문 등의 건물을 갖추고 있었다.

[어원풀이] ‘이’(離)+‘궁’(宮)’으로 분석된다.

### ● 잣고개

[별칭] 작고개

[형태] 고개

[위치] 강원도청 우측에서 한림대 후문으로 올라가는 고개.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교동으로 가는 고개. 잣나무가 많았다 하는데, 지금은 성심여대(聖心女大) 터가 되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봉의동에 잣고개가 있었다. 잣나무가 많이 있어 그렇게 불렸다. 교동에서 후평동으로 넘어가는 지금의 한림대 자리가 바로 잣고개였다. 지금은 한림대 후평동 현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완전히 도심이 되었다. 잣고개도 영원히 잊어버린 춘천의 한 지명이 되었다. 지금은 한 그루의 잣나무도 없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잣[栢]+고개[峴]’로 분석된다. 『훈몽자회』와 『신증유함』 등 조선시대 한자사전에 ‘성(城)’의 풀이를 ‘잣 성’이라고 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 예전에는 성(城)을 ‘잣’이라고 불렀다. 춘천 관아에는 읍성이 없었고 대신 봉의산 중턱에 봉의산성이 있었는데 이를 토대로 하면 ‘성곽에 있는 고개’란 의미로 볼 수 있고, 해당 ‘고개’ 지역은 성(城)과는 무관하므로 ‘잣’을 ‘성(城)’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볼 수도 있다.



1930년대 춘천시가지 지도에 표기된 잣고개(춘천초등학교 소장)

[위치] 춘천시 봉의동 산1번지. 도청 뒤 봉의산 중턱

[유래] 춘천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이다. 조선시대 춘천 이궁의 부속건물이 있었던 곳인데, 일제강점기인 1918년 춘천신사(春川神社)가 들어섰고, 1938년 강원신사(江原神社)로 개칭되었다. 해방 후에는 미군정의 부속건물로도 사용되었다.

### ● 조양루(朝陽樓)

[형태] 건물

[위치] 강원도청 좌측 앞

[유래] 1646년 춘천부사 엄황이 건립한 문소각의 문루이다. 1908년 문루인 조양루는 우두산으로 이전하였다가 6.25 전쟁 때 일부가 파손된 것을 1969년 대대적으로 보수하였고, 2013년 4월 본래의 자리인 도청 좌측 앞으로 옮겼다. 팔작지붕 익공계 양식의 겹쳐마 2층 건물로 아래 칸은 출입 용이고 위층은 출입자를 감시 통제하던 공간이다. 외형은 일반 누정과 같으나 문루의 특성상 천장이 낮으며 건축구조가 소박하다. 누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규모이며 건물 앞뒤로 각각 4개씩의 기둥과 양측 면 중앙에 기둥 한 개씩 바깥쪽에 모두 10개의 기둥을 세웠다. 사각으로 된 높은 초석 위에 길고 둥근 나무 기둥을 세워 하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어원풀이] ‘조양(朝陽)+루(樓)’로 분석된다. 강원도 유형문화재 2호로 지정되었다.

### ● 춘천세종호텔

[형태] 건물

**위치와 현황** | 춘천시 안산 봉의산 기슭 아래 한림대학교 공학관에서 춘천시청까지 길게 배치되어 있다. 언덕길, 골목길이 많은 지역이다. 한림대학교 공학관, 일송아트홀, 강원도 교육연구원, 춘천미술관, 춘천시청 등이 위치하고 있다. 한림대학교 구 정문에서 강원도 청사로 가는 언덕길, 골목길을 중심으로 대학생, 시민들이 자취나 하숙을 할 수 있는 원룸 등의 주거촌이 형성되어 있다. 옥천동 골목길은 가파르고 좁아 다니기에 다소 힘든 길이지만 비탈진 골목길은 옥천동만이 지니고 있는 새로운 매력과 정취가 있다.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 부근 봉의산 자락에는 신석기시대 동굴 주거지이며 강원도기념물 제1호인 '춘천 혈거유지'가 있다.

**연혁** | 춘천도호부의 관아가 있었으므로 아콜말 또는 아동(衙洞)이라고 불렸다. 『춘주지』를 보면 부내(府內)에 아동리(衙洞里)가 있고, 『여지도서』에도 부내면(府內面)에 아동리(衙洞里)가 기록되었다. 『호구총수』는 아문리(衙門里)로 표기하였다.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 『조선지지자료』, 『강원도지지조서』 등에서 아동리(衙洞里)로 표기되었다. 『강원도지』에 일본식 지명인 대성정1정목(大成町一丁目), 대성정2정목(大成町二丁目), 봉의정(鳳儀町), 단양정(丹陽町)으로 나뉘었다가, 1946년 단양정을 개칭하여 옥천동이 되었다.

**유래** | ‘옥천동’의 ‘옥천(玉泉)’은 ‘옥 같이 맑은 샘물’이 있던 것에서 붙여진 이름라고 전하는데, 현재 샘물의 자취는 찾을 수 없다. 춘천 관련 기록으로 재구해볼 때 샘물의 위치는 1969년 설립되었다가 2005년에 폐교된 중국화교소학교와 춘천미술관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 단양대(丹陽臺)

[형태] 터

[위치] 현재 춘천 시청이 위치한 곳이다.

[유래] 『수춘지』에 “‘단양대’는 옥천동에 있으며 춘천부 중앙에 위치하여 시군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관민들이 이 장대(場臺)에 모여들어 ‘단양(丹陽)’이라고 명명하였으며, 강원도지사의 관사가 이곳에 있었으며 단양 사람이었던 이범익(李範翊)이 지사 시절에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단양을 취해서 명명하여 잊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낸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단양(丹陽)+대(臺)’로 분석된다. ‘단양’ 출신 인물이 있던 곳이란 의미이다.

### ● 봉내극장

[형태] 건물

[위치] 옥천동 73-2번지. 춘천예술마당, 춘천예총과 함께 있다.

[유래] 춘천예술마당의 한 곳이다. 프로극단뿐 아니라 아마추어동아리와 극단들이 준비한 공연과 전시회가 매년 100회 이상 열린다. 연극, 음악, 무용, 국악,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장르의 복합공연을 담당하고 있다.

### ● 봉의산순의비

[형태] 고적

[위치] 춘천시 봉의산길 45. 춘천시 옥천동 8-10

[유래] 봉의산순의비는 고려 시대 몽골의 침입으로 봉의산성에서 순절한 춘천부민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1983년 6월 2일 제1회 소양제 개최에 맞춰 건립한 것으로, 매년 춘천시민 축제인 소양강문화제의 첫 시작을 알리기 위한 제향행사가 봉행되고 있다.

[어원풀이] ‘봉의산(鳳儀山)+순의(殉義)+비(碑)’로 분석된다.



봉의산순의비

## ● 아골말

[별칭] 아골마을, 옥천동

[형태] 마을

[위치] 현재 옥천동 지역을 말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아동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衙洞里(아찰말)’이 기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 유래』에 “아동리의 현재 위치는 춘천도시공사 아래 지역을 가리키고, 이 지역은 조선 시대에 지방 관아의 아전이 살고 있었으며, 일제 강점기와 1945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라 하였고, 『춘천백년사』에 “아골마을. 아동이 변해서 옥천동이 되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아(衙)+골[洞]+말/마을[里]’로 분석된다. ‘아전들이 사는 마을’, ‘관아의 관리들이 살던 마을’이란 의미이다.

## ● 지장천(地藏泉)

[형태] 샘

[위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수춘지』에 “객사 동쪽에 있다.”라 하였다.

[유래] 『강원도지』에 “객사 동쪽에 있다. 이 물을 먹으면 강하고 맹렬한 성품이 부드럽고 나약하게 바뀐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 지장(地藏)+천(泉)’으로 분석된다. ‘ 지장암’이란 암자에 있던 샘물이란 의미로 보인다.

## ● 춘천미술관

[형태] 건물

[위치] 서부대성로 71. 옥천동 73-2번지. 춘천예술마당, 춘천예총과 함께 있다.

[유래] 춘천미술관은 1995년 삼천동 어린이회관 전시실에서 시작되었으며 지역 화가들의 미술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2000년 옥천동 춘천중앙교

회 자리에 개관하여 각종 전시회 및 다양한 미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예술의 성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개관 20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 ‘시대의 눈’을 개최한 바 있으며,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 및 시민 대상 예술교육사업으로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 ● 춘천시의회

[형태] 관공서

[위치]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111-1번지. 춘천 시청 경계 내부에 있다.

[유래] 춘천시의회는 강원도 춘천시의 조례, 예산, 춘천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맡는 의회. 지방 자치법상 기초의회이다.

## ● 춘천시청

[형태] 관공서

[위치]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111-1번지.

[유래] 강원도 춘천시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이다. 1949년 8월 15일 춘천부가 춘천시로 개편되고 1995년 1월 1일 춘천시와 춘천군을 통합하여 춘천시로 출범하였다. 관할 행정구역은 1읍 9면 15동이다.

## ● 춘천예술마당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서부대성로 71. 옥천동 73-2번지. 춘천예총과 함께 있다.

[유래] 춘천예술마당은 춘천시민들에게 예술문화 참여의 기회를 높이고자 만들어진 공간으로 춘천 시가지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어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춘천예술마당은 연중 상설 전시를 하는 춘천미술관과 사진전 위주의 전시를 볼 수 있

는 아트 플라자 갤러리, 각종 연극과 공연을 관람 할 수 있는 봄내극장,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하는 창작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춘천옥천동고분군(春川玉泉洞古墳群)

[형태] 묘, 고분

[위치] 봉의산 동쪽 한림대학교 뒷산 부근에 있다.

[유래] 춘천시 옥천동에 있는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石槨墓) 유적으로 봉의산 동쪽 한림대학교 뒷산에 서 발견되었다. 1974년 매장문화재가 신고됨으로 써 알려지게 되었으며 당시 신고된 유물로는 다리 있는 항아리(臺附壺) 1점, 손잡이 달린 토기(把手附土器) 2점, 뚜껑 덮인 토기(有蓋土器) 2점, 목 짧은 단지(短頸壺) 1점, 토제 그릇(土製碗) 5점, 뚜껑 있는 고배(有蓋高杯) 13점 등이라고 한다.

###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춘천지회

[별칭] 춘천예총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서부대성로 71. 옥천동 73-2번지. 춘천예술마당 안에 있다.

[유래] 한국예총은 10개 회원협회(건축,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와 전국 167개 연합회(미국 2, 일본 1지회 포함)로 구성되었으며, 한국 예술 문화의 창달과 꾸체 교류 및 예술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예술인의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1961년에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 ● 한림대학교

[별칭] 한림대

[형태] 학교

[위치] 춘천시 한림대학길 1. 봉의산 남쪽 기슭에 있으며,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같은 권역 안에 있다.

[유래] 한림대학교(翰林大學校)는 춘천시에 있는 대한민국의 4년제 사립 대학이다. “미래를 향한 교육, 연구, 봉사를 추구하는 지성의 산실 한림대학교”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림대학교는 의사자 교육자였던 윤덕선이 1982년 1월 학교법인 일송학원을 설립하고 같은 해 3월 한림대학을 개교하여 1989년 종합대학인 한림대학교로 승격되었다.

### ● 혈거유지

[별칭] 혈거주거지

[형태] 유적

[위치] 춘천시 한림대학길 1 (옥천동)에 위치하고 있다.

[유래] 신석기시대 동굴 주거지 유적으로 1962년 성심여자대학(현재 한림대학교)의 신축부지 공사 중 발견되었다. 봉의산 중턱 해발 150m 동쪽 기슭에 경사면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지름 4m, 최고 높이 2.1m이다.

## 요선동(要仙洞)

**위치와 현황** | 중앙로에서 강원도청까지 이어지는 도로의 서쪽에 위치한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90년대까지는 요선동의 중심에 큰 고개가 있었고, 여기를 통과하는 '요선터널'이 있었다. 현재 서부대성로가 지나는 한신휴플러스, e편한세상아파트 정문 주변이 그 자리이다. 서부대성로를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주거지인 반면, 남쪽으로는 요선시장을 비롯해 오래된 상권 시설이 몰려있다. 이는 1975년까지 지금의 인성병원 자리에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했기 때문에 생겨난 배후 상권인데, 지금까지도 상권으로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연혁** | 본래 춘천군 부내면의 지역으로서 요선당(邀仙堂)이 있었으므로 지명이 되었다. 『여지도서』, 『호구총수』에 요선당리(邀仙堂里)가 보인다. 『춘천읍지』는 요선리(邀仙里)로,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요선당리(邀仙堂里), 『조선지지자료』는 요선당리(要仙堂里)로, 『강원도지지조서』는 요선당(要仙堂)으로 표기했다. 1939년 일본식 지명에 따라 화원정1정목(花園町一丁目)으로 불리다가 해방 후 요선동(要仙洞)으로 환원되었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부내면(춘천읍)의 지역으로서 요선당(邀仙堂)이 있었으므로 요선당리(邀仙堂里)라 하였다. 요선당(邀仙堂)은 춘천관아의 부속건물로 1573년에 부사 성의국(成義國)이 처음 창건하였는데 임진왜란 때 불탔고 후에 몇 번 중건하였다.

## ● 모자당현(母慈堂峴)

[별칭] 모자당고개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요선당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母慈堂峴(모자당고기)’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모자당(母慈堂)+고개(峴)’로 분석된다. ‘모자당(母慈堂)’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모친처럼 자애로운 건물’ 정도의 의미가 되어 뭔가 어색하다. ‘돌아가신 모친을 그리워하는 건물’이란 의미의 ‘모자당(慕慈堂)’이 더 일반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모수물’이나 ‘모수물고개’와 관련된 지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다.

## ● 새거리

[형태] 마을

[위치] 요선동 시장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6.25 전쟁 뒤에 새로 생긴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소양동지』에는 “요선동 시장거리를 말한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거주지역으로 여러 상점이 들어선 변화가였는데 한국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한국전쟁 후 시외버스터미널이 1975년까지 지금의 인성병원 자리에 있었기에 터미널의 배후상권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좌판 형태의 5일장이 열리다가 이후 상설시장으로 변모하였다. 도청과 시청 등 관공서가 가까워 현재까지도 춘천의 대표적 상권이라 할 수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새[新]+거리[路]’로 분석된다. 새롭게 조성된 거리란 의미이다.

## ● 소나무공원

[형태] 공원

[위치] 강원도청 앞 중앙로변에 있다.

## ● 요선당리(要仙堂里)

[별칭] 요선동

[형태] 마을

[위치] 현재 요선동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요선당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要仙堂里(요선당리)’가 등재되어 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 “요선당이 있는 마을을 요선당리라고 불렀다. 요선당리가 변해서 요선동이 되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요선당(要仙堂)+리(里)’로 분석된다. 요선당이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조선시대 문현에는 ‘요선당’이 ‘邀仙堂’으로 표기되어 있다. 신선을 맞이하는 건물이란 의미인데, 표기의 편이를 쫓아 좀더 간단한 한자로 바꿔 ‘要仙堂里’라 하였다.

## ● 요선당터

[형태] 건물

[위치] 요선동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문소각 터. 이조 선조(宣祖) 6년(1573)에 부사(府使) 성의국(成義國)이 세웠는데, 유경종(柳慶宗)이 기(記)를 짓고, 박태보(朴泰輔), 오도일(吳道一)이 시(詩)를 지어 찬양하였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요선당(要仙堂)+터[垈]’로 분석된다. 요선당이 있던 자리란 의미이다. 위의 서술에서는 문소각과 같은 건물이라 하였는데, 이민구(李敏求)가 쓴 〈문소각기〉(聞韶閣記)에서 “공관과 요선당 사이에 터를 마련하여 작은 각(閣)을 세우고는 문소(聞韶)라고 명명(命名)하였다.”라 하였으므로, 객사(客舍)로 쓰인 다른 건물로 보아야 한다.

## ● 요선시장

[형태] 시장

[위치] 요선동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요선동이 재건될 때 요선동 시장이 크게 변창했다. 춘천의 제1시장으로 춘천지역 상권을 형성했었다. 1960년대 이후 중앙시장이 건립되면서 시장기능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음식점, 다방, 표구점 등으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요선(要仙)+시장(市場)’으로 분석된다. 요선동에 있는 시장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청룡(青龍)+재[峴]’로 분석된다.

## ● BBS춘천불교방송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중앙로 10. 춘천시 요선동 4-1

[유래] 강원도의 지역 불교방송, 호출부호는 HLQM. 2002년 11월 1일, 국명에서 알 수 있듯이 춘천시를 포함한 강원도 영서 지역과 인근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등을 일원으로 하는 방송으로 개국했으나, 속초, 양양, 강릉에 중계소를 개소하면서 영동지역도 일부나마 뿌리를 내렸다.

## ● 요선터널지

[형태] 교통

[위치] 요선동에서 서부시장으로 넘어가는 곳에 있었다.

[유래] 춘천칠층석탑 부근 서부시장에서 요선동으로 이어지는 곳은 봉의산 산줄기가 구릉을 이루어 구렁고개, 사창고개 등을 넘어야 갈 수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70년 9월 5일 길이 150m 폭 12m 높이 6.8m의 요선터널을 착공, 11개월만인 1971년 7월에 완공했다. 요선터널 글씨는 박정희 대통령이 썼다고 한다. 이후 주변이 개발되면서 터널을 없애고 4차선의 도로가 개설되었다.

[어원풀이] ‘요선(要仙)+터널(tunnel)+지(趾)’로 분석된다.

## ● 청룡현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요선당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青龍峴(청용지)’가 등재되어 있다.

**위치와 현황** | 중앙로의 서쪽에 위치한다. 길 건너편에 있는 중앙로, 조운동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인데, 최근 옛 KBS춘천방송총국이 위치했던 지역 일대가 뉴타운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중이다. 중앙초등학교, 춘천고등학교 옆을 통과하는 도로가 함께 신설되었다. 관할 구역 내에 중앙초등학교, 성수고등학교, 성수여자고등학교가 있다. 북쪽으로는 도로를 건너 인성병원과 그 일대까지 포함된다.

**연혁** | 1939년 읍제에 따라 가연리(佳淵里)의 일부를 갈라서 화원정이정목(花園町二丁目)이라 하다가 1946년 왜식 동명을 고쳐 낙원동(樂園洞)으로 개칭하였다. 가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춘주지』는 견연리(犬淵里), 『여지도서』, 『호구총수』, 『관동읍지』는 가연리(可淵里), 『춘천부지』, 『조선지지자료』, 『강원도지지조서』는 가연리(佳淵里), 『수춘지』는 낙원동(樂園洞)이라고 했다.

**유래** | 1939년 읍제에 따라 가연리(佳淵里)의 일부를 갈라서 화원정이정목(花園町二丁目)이라 했고, 1946년 왜식동명인 화원정이정목(花園町二丁目)을 낙원동(樂園洞)으로 개칭했다.

### ● 가연리(佳淵里)

[별칭] 가연(可淵, 佳淵), 견연(大淵)

[형태] 마을

[위치] 지금의 춘천세무서, 농협중앙회강원지부 어  
름에 걸쳐있던 큰 연못을 개못이라고 불렀다. 지금  
은 매립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만 도로지명  
'가연길'로 남아 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중앙로3가와 이어져  
있는 가연리. 가연리의 일부가 갈라져서 낙원동이  
되었으므로 노년층에서는 지금도 낙원동을 가연  
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가(假)+연(淵)+리(里)’로 분석된다. ‘가  
연’에 대해서는 죽림동 참조.

### ● 송장고개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옛날에 상여가 이 고  
개로만 통과하였다고 한다. 상여가 지나가는 고개  
라 해서 송장고개로 불리어졌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송장[屍身]+고개[峴]’로 분석된다. 일제  
강점기 춘천시가도를 그린 지도에 현 중앙초등학  
교 부근에 일본인 묘지가 있었다고 표시된 것으로  
미루어 이 부근의 고개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 ● 제2문화공원

[별칭] 문화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낙원동 86-1번지. 중앙초등학교 남  
쪽 맞은편에 있다.

**위치와 현황** | 중앙로부터 강원도청까지 이어지는 도로의 동쪽에 위치한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강원일보,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대한결핵협회 강원도지부 등이 연달아 있는 전형적인 중심업무지구이다.

**연혁** | 예전의 허문리(虛門里)가 1939년 읍제 실시에 따라 본정1정목(本町一丁目)이라 하였고, 1946년 왜식 동명을 변경할 때 중앙로라 하였다. 『수춘지』에서 중앙로동부(中央路東部), 중앙로서부(中央路西部)를 볼 수 있다. 조선시대 각종 문헌에는 허문리(虛門里)로, 『조선지지자료』와 『강원도지지조서』에는 허문리(許文里)로 표기되어 있다. 『춘주지』(1984)와 『춘천백년사』(1996)는 중앙동(中央洞)으로 표기하였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부내면(춘천읍)의 지역으로 허문리(虛門里)란 명칭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 1939년 읍제 실시에 따라 본정일정목(本町一丁目)이라 하였다가, 1946년 왜식 동명을 변경할 때 중앙로라 하였다.

### ● 강원일보사

[별칭] 강원일보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중앙로 23. 춘천시 중앙로 1가 53.  
[유래] 1945년 10월 24일 동인제(同人制) 8절 양  
면 등사판 인쇄로 된 <팽오통신(彭吳通신)>으로 출  
발하여 같은 해 11월 27일 제호를 <강원일보>로  
바꾸고 <팽오통신>의 지령을 이어받아 제27호로  
창간하였다. 1950년 6·25전쟁으로 휴간하였다가  
1952년 5월 12일 원주시 개운동(開運洞)에서 복  
간호를 발행하였다. 1953년 7월 강원도청이 춘천  
으로 옮기자 춘천시 중앙로 1가 4번지의 구사옥으  
로 복귀하였다. 1971년 10월부터 강원일보사장이  
춘천문화방송사장을 겸임하고, 1972년 11월부터  
는 춘천문화방송이 강원일보사에 이전하여 실질  
적으로 방송을 공유했으나, 1980년 12월 다시 방  
송이 분리되었다. 1994년 조간 발행으로 전환하  
였고, 1996년 전자신문 ‘유니텔 강원일보’ 서비스  
를 개시하였다. 1997년에 생활정보지 ‘강원메아  
리’를 창간하였고, 1998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  
설하였다.

### ● 대한적십자사강원지사

[형태] 건물

[위치] 중앙로 1가 45.

[유래] 해방 후인 1947년 ‘조선적십자사 춘천지사’  
로 창립하고 1949년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공  
포되면서 ‘대한적십자사 춘천지사’로 개편되었다  
가 1952년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로 개칭되  
었다. 1957년 춘천 적십자병원을 신축하여 개원  
하고, 1989년 지사 및 혈액원 사옥이 새롭게 들어  
섰다.

### ● 중앙로로터리

[형태] 거리

[위치] 춘천시청과 명동, 중앙시장을 끼고 있는 춘  
천 시가의 교통 중심지이다.

[유래] 6·25 전쟁으로 폐허화 된 춘천의 도심 거리  
가 재건되면서 춘천의 가장 번화한 중앙로로터리가  
만들어졌다. 원주·홍천 방향, 서울·가평 방향, 양  
구·화천 방향, 도청 방향, 시청 방향으로 통하는  
모든 도로가 중앙로로터리를 통하게 되어 있다.  
춘천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로터리이다. 중앙로  
1가의 길이 시작되고 또 통과하는 길목이다. 춘천  
에서는 제일 먼저 4차선 도로가 뚫렸다.

[어원풀이] ‘중앙로(中央路)+로터리(rotary)’로 분석  
된다.

### ● 춘천지하도상가

[별칭] 명동지하상가. 춘천지하쇼핑몰. 지하상가

[형태] 상가

[위치] 중앙로로터리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조  
성되어 있다.

[유래] 중앙로로터리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육림극  
장 앞, 남쪽으로 중앙시장, 서쪽으로 인성병원, 북  
쪽으로 한국은행 앞까지 지하에 상가를 조성했다.  
1994년 착공하여 1999년 완공되었다.

### ● 허문리(虛門里)

[별칭] 許文里, 허무니

[형태] 마을

[위치] 현 중앙로 1가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허문리’ 소재 마을 이름으  
로 ‘許文里(허문리)’가 등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  
유래』에 “허문리가 변하여 중앙로 1가가 되었다. 허  
문(虛門), 허문(許文)이라고도 불렀다. 지금은 흔적

도 없어졌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허문(虛門)+리(里)’로 분석된다. 허문(虛門)이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허문(虛門)은 문틀만 있고 가운데 문짝과 문 좌우로 이어진 벽이 없는 빈 문이란 뜻이다. 즉 관아를 문 없이 드나드는 곳을 가리킨다. 조선시대 춘천부에는 읍성(邑城)이 없었고 관아 입구에 홍살문만 세워놓았던 것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볼 수 있다. 엄황이 편찬한 『춘천읍지』, 18세기 후반에 편찬된 『호구총수』에는 ‘虛門里’라 하였는데, 구한말 지도와 문헌, 일제강점기 자료에는 ‘許文里’로 한자가 바뀌었다. 좀더 좋은 의미를 지닌 글자로 바꾼 예가 된다.



## 신사우동(新司牛洞)

신동, 사농동, 우두동

북쪽으로는 얕은 구릉지들이 이어지며 신북면 용산리·율문리와 접경을 이루고, 서쪽에

북한강이 남쪽으로 흐르고, 동남쪽에 소양강이 감돌아 흘러 근화동·소양동, 동면의 장학리와 자연 경계를 이룬다. 동·서·남쪽의 3면이 북한강·소양강으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특히 소양강이 북한강으로 흘러들면서 이루어진 충적평야인 우두벌은 춘천시에서 가장 중요한 농경지이다.

신사우동은 우두동·사농동·신동 등 3개 법정동을 관할하고 있다. 우두동은 우두(牛頭), 우수(牛首)에서 유래하였다. 『삼국사기』 선덕여왕 6년 우수주(牛首州)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온다. 문헌에 기록된 우수와 우두는 지금의 우두동을 지칭한다. 『여지도서』에 우두동은 “북내면(北內面) 우두하리(牛頭下里)이며 관문으로부터 10리, 50호”라고 기록하고 있다. 『호구총수』에 우두하리와 우두상리라는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1914년에는 신북면 관할이 되었다. 『해동지도』에는 우두산·마적(馬跡)·옥산포(玉山浦)라는 지명이 있으며, 『1872년지방지도』에는 북쪽 넓은 지역에 우두촌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사농동(司農洞)은 농업관련 각종 기관이 밀집되어 있다. 사우동(司牛洞)은 우두동의 일부 지역과 사농동을 통합한 이름이다. 신사우동은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 때 사우동·우두동·사농동·신동을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위치와 현황** | 북쪽과 동쪽은 신북읍이 자리 잡고 있고, 서쪽은 서면, 남쪽은 사농동과 우두동을 경계로 하고 있다. 자연마을로는 올미마을 · 구리골 · 한계마을 · 되내 등이 있다. 옛날에 옻나무를 많이 재배하였다 하여 올미(옻미) 또는 옻뫼말로 불리는 마을은 18세기 경 수성 죄씨들이 이주해와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심금솔숲이라고 하는 소나무숲이 유명하다. 조선시대에 구리를 주조하던 가마가 있다 하여 구리골이라 불리는 마을은 한국전쟁 후 안동네라는 별칭을 얻었다 하며, 영암박씨들이 모여 산다. 마을을 가로질러 한계천(寒溪川)이 흐르는 한계마을에는 조선 후기부터 전주 이씨들이 세거하고 있다. 동쪽의 대부분 지역이 논과 밭 등의 충적 평야 지대이다.

**연혁** | 『춘주지』에 북내(北內)의 칠산(漆山)으로 기록된 아래로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에는 북내면(北內面) 칠산리(漆山里)로 기록하였다. 『조선지지자료』에 북내일작면(北內一作面) 지역으로 한계리(寒溪里) · 동포리(銅浦里) · 칠산리(漆山里)가 별개의 마을로 등재되어 있다. 『강원도지』, 『수춘지』는 신북면(新北面)의 신동리(新銅里)로,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춘천시의 신동(新洞)으로 표시하였다. 정약용의 「산행일기(山行日記)」에 “마음은 한계(漢溪)와 곡운(谷雲)에 있었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한계(漢溪)는 한계리(寒溪里)를 뜻한다.

**유래** |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한계리, 동포리, 칠산리를 병합하여 신동리(新洞里)라 하 고 신북면에 편입했다가 1973년 3월 12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춘천시에 편입되었다. 1973년 6월 8일 춘천시 제608호에 의거, 같은 해 7월 1일에 신동(新洞)이라고 하였다.

### ● 골밖

[형태] 마을

[위치] 용산저수지로 들어가는 골짜기 입구로 춘천시 신동 987-7번지 일대이다.

[어원풀이] ‘골밖’은 ‘골[谷, 洞]+밖[外]’으로 분석된다. 골짜기 밖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 구리개

[별칭] 동포(銅浦), 동포리(銅浦里)

[형태] 마을

[위치] 올미마을 북쪽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구리기(銅浦里)’가 기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신동리에서 가장 큰 마을. 우두산 원줄기에서 조그마한 내가 흐른다. 이 냇물에 구리성분이 섞여 있다고 한다. 구리성분이 흐르는 냇물이 흐르는 마을이라서 구리개라는 이름이 생겼고 한자로 동포라 표기했다. 구리개 뒤에 있는 골짜기를 구리골, 구리골 위에 있는 골짜기를 구리고개라 부른다. 6.25 한국전쟁 후부터는 안동네라고 불러오고 있다. 이 마을은 영암 박씨 가문의 집성촌이며 춘천시장 3명을 내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구리[銅]+개[浦]’로 분석된다. 구리 성분이 섞여 붉은색을 띠는 개천에서 유래한 지명이라 하는데 이 지역에 구리광산이 있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구리’는 우두동 들판으로 얕은 산자락이 늘어져 있는 지형적인 면을 고려할 때 ‘곶[串]’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곶’이 ‘고지’나 ‘구지’로 변형되고 다시 활음화 현상에 의해 ‘구리’로 바뀐 것이다.

### ● 구리골

[별칭] 구리개고개골, 동현곡(銅峴谷)

[형태] 골짜기

[위치] 구리개 마을 뒤편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구리개 뒤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구리개’ 참조.

### ● 구릿고개

[별칭] 동현(銅峴), 구릿고개

[형태] 고개

[위치] 신북읍 산천리에서 신동의 구리개로 가는 고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한계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구리기(銅峴)’가 기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신동리의 구리개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구리개’ 참조.

### ● 국군춘천병원

[별칭] 국직 국직부대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춘천병원

[형태] 건물

[위치] 방고개길에서 구리고개길로 접어드는 곳으로, 신동 546-1번지이다.



국군춘천병원

[유래] 1953년 11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제1야전 병원으로 창설, 1984년 9월 1일 국군의무사령부에서 제2군단으로 배속되며 부대 명칭을 국군춘천

병원으로 변경하였다. 1996년 11월 25일 현재 위치인 강원도 춘천시 신사우동으로 이전하였다. 제2군단 지원병원으로서 7사단, 15사단, 27사단 등 2군단 예하부대와 제3군단 예하 2사단, 21사단 및 지상작전사령부 직할부대 의무지원을 하고 있다.

### ● 되내

[별칭] 마을

[위치] 한계천 북쪽

[어원풀이] ‘되[堆]+내[川]’로 분석된다. ‘되’의 의미는 불분명한데 한계천 북쪽에 있다는 지형적인 면을 고려할 때 ‘북쪽’을 의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된섬’으로 불리는 ‘위도’가 근처에 있다.

### ● 방고개

[별칭] 방현(舫峴)

[형태] 고개

[위치] 신북읍 울문리와 신동 구리개 사이에 있는 고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한계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방고개’(舫峴)가 기재되어 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 신동리에 있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방(舫)+고개[峴]’로 분석된다. 고유어 ‘고개’ 앞에 한자어 ‘舫’보다는 ‘밤[栗]’과 결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밤골->뱅골’처럼 ‘밤고개->방고개’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유력하다. 신북읍 울문리의 옛 지명이 ‘밤골’인 것도 근거가 될 수 있다.

### ● 분토골

[별칭]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한계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분토골(粉土谷)’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분(粉)+토(土)+골(谷)’로 분석된다. ‘분토’는 희고 고운 흙가루를 말하므로 마을 근처에 고운 흙이 나온 데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 ● 산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구리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 하였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 수리봉

[형태] 산

[위치] 올미마을 뒤편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산이 독수리처럼 생겼다.”라 하였다.

### ● 심금솔(숲)

[별칭] 심금솔, 재송정(裁松亭)

[형태] 숲

[위치] 올미마을 앞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칠산리 소재 정자이름으로 ‘심금솔(裁松亭)’이 기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구리개 앞에 있는 숲이라 하였다. 1516년에 선비 최도건이 수만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문헌에 전한다. 올미마을의 방풍림 역할을 하는 소나무숲이다.

[어원풀이] ‘심금/심은[栽]+솔[松]’로 분석된다. 직접 심은 소나무란 의미이다.

### ● 여우고개

[별칭] 호산현(狐山峴), 여의현(如意峴), 여울고개

[형태] 고개



심금솔 전경

[위치] 신동, 우두동, 신북읍 율문리 사이에 있는 고개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칠산리 소재 고개이름으로 ‘여우고개’(狐山峴)가 기재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 우두동으로 가는 고개라 하였다.

[어원풀이] ‘여우[狐]+고개[峴]’로 분석된다. 별칭 여의현(如意峴)의 ‘如意’는 음차자(音借字)이다. 여우와 관련된 전설이 있어 생겨난 지명인데, 육군에서 제작한 문헌에는 ‘여울고개’라 표기되어 있다.

율문천과 소양강이 만나는 지점에 여울이 있었기에 여울이 있는 고개란 의미도 가능해 보인다.

[유래답] 옛날에 이 고개에서 여우가 젊은 여자로 둔갑하여 고개를 넘어다니는 서당 아이를 홀렸다 함. 한편으로는 고려 시대 박항(朴恒)이 낙향하여 살 때 여기를 지나던 사람들이 건강이 여의(如意)한가 하고 문안을 드렸다 해서 여의고개라 했다고 전한다.

### ● 올미

[별칭] 웃미, 올뫼, 칠산(漆山), 칠산리(漆山里)

[형태] 마을

[위치] 심금솔 동쪽 산자락을 따라 형성된 마을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칠산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올미(漆山里)’가 기재되어 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 “구리개 동남쪽에 있는 마을. 옻나무가 많았다. 칼새봉, 수리봉, 황새봉 등이 마을을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다. 옻나무가 많다고 옻미로 불리던 것이 한자로 표기하여 칠산(漆山)마을로도 불렸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옻/옻/옻[漆]+미/뫼/산(山)’으로 분석된다. 옻나무가 많은 산이나 마을이란 의미인데, 지역민의 증언으로는 옻나무가 흔하지 않다고 한다. 동쪽과 북쪽으로 산자락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지형적인 면을 고려할 때 산이 마치 옻을 입은 것처럼 감싸주는 마을이란 의미도 가능해 보인다.

### ● 칼사봉

[형태] 산

[위치] 올미마을 뒤편 산자락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칼날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산”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칼[刀]+사(斜)+봉(峰)’으로 분석된다.

### ● 한개울

[별칭] 대포곡(大浦谷), 한계(寒溪), 한계울, 한계리  
(寒溪里)

[형태] 마을

[위치] 지내리저수지 앞쪽 마을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한계리 소재 하천이름으로 ‘한기울(寒溪)’과 한계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한계리(寒溪里)’가 기재되어 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 “대포곡(大浦谷), 한계(寒溪). 구리가 북쪽에 있는 마을. 큰 개울이 있다. 마을 한가운데로 흐르는 한 개울(한개천)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으나 하나로 합쳐져 한개울이 되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한[大]+개울[浦谷]’로 분석된다. ‘대포곡(大浦谷)’이라고도 불렀다는 것으로 미루어 ‘寒溪’의 ‘寒’은 ‘크다[大]’는 의미를 지닌 음차자(音借字)이다.

### ● 한계천

[형태] 하천

[위치] 신북읍 용산리와 사북읍 고탄리 경계에 있는 삿갓봉에서 발원하여 신북읍 지내리를 관통하여 북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 ● 황새봉

[형태] 산

[위치] 올미마을 뒤편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황새처럼 생긴 산이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황새+봉(峰)’으로 분석된다. ‘황새’는 ‘수리’와 마찬가지로 덩치가 큰 조류이므로 크고 높은 산봉우리란 의미로 보인다.

## 사농동(司農洞)

**위치와 현황** | 북으로 신동(新洞)이, 동으로는 우두동이 있고, 서쪽으로는 의암호가 있다. 자연마을로는 가래목(추항 淑項) · 괸돌(지석리 支石里) · 웃가래목(상추항 上湫項) · 우두별(우듯별 또는 우두평 牛頭坪) · 옥산포(푸른데미) · 마산리 등이 있다. 사농동에는 강원도교육청 · 강원도청소년수련관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의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강원도립화목원과 놀이공원 겸 동물원인 육림랜드, 춘천인형극장 등의 문화 · 휴식 공간이 있다.

**연혁** |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의 북내면(北內面) 옥산포리(玉山浦里)가 사농동에 해당된다. 『조선지지자료』에 북내일작면(北內一作面)의 옥산포리(玉山浦里)와 마적리(馬跡里), 『강원도지지조서』의 신북면(新北面) 마산리(馬山里), 『강원도지』의 신북면(新北面) 마산리(馬山里)가 해당된다. 『수춘지』에는 춘천시의 사농동1구(司農洞一區), 사농동2구(司農洞二區)로 분리했다.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사우동(司牛洞), 사농동(司農洞)으로 분리되었다.

**유래** | 본래 마적리와 옥산포리에서 따와 마산리(馬山里)라고 불리는 지역이었는데, 1936년 춘천읍에 편입되었고 이후 1946년에 농사일을 맡아보는 농업기관이 많아 사농동(司農洞)이라 개칭하였다. 사농(司農)이란 조선시대 농사일을 맡았던 벼슬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우동(司牛洞)** | 우두동 일부 지역과 사농동 일부 지역을 합쳐 사2·우2동이라 칭하다  
가 1973년 12월 7일 춘천시 조례 제621호에 의거, 1974년 1월 1일부터 현재의 행정동  
명칭인 사우동으로 불리고 있다. 화천에서 흘러오는 자양강 물과 양구에서 흘러오는 소양  
강물이 합류되는 지역에 위치한다.

### ● 가라목(加羅頂)

[별칭] 가라목. 가래모기. 추항(楸項)

[형태] 마을

[위치] 마장천 북쪽 의암호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 ‘마적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楸項里(가리무기)’가 등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 유래』에 “우두동에 있는 마을. 추항이라고도 부른다. 자양강(북한강)가에 있는 마을”, 『우리의 소슬뫼를 찾아서』에 “지형이 가래(농기구)목처럼 생겨 ‘가라-메기’라 한다. 가래나무가 많아 가라-메기라 부른다고 했다. ‘가라’는 또 가야처럼 고대의 나라를 뜻하는 명칭이었다고 했다. 이것이 나중에 한자로 바뀌면서 가라항(加羅項) 또는 추항(楸項)이라 했고, 지금은 없어지고, 위치는 사농동과 우두동 일대라고 한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가래[가래나무 楸]+목[項]’으로 분석된다. 지명에 쓰이는 ‘가래’는 일반적으로 ‘농기구 가래’, ‘가래나무’, ‘갈라지다[岐, 枝]’, ‘강(江)의 고대어 가람’ 등의 의미로 풀 수 있다. 지명접미사 ‘목’은 ‘통로의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의 의미를 가진다. ‘加羅’는 음차자(音借字)이다. ‘가래처럼 생긴 곳’, ‘가래나무가 있는 곳’, ‘양 갈래로 갈라지는 곳’, ‘강으로 들어가는 입구’ 등의 의미로 볼 수 있다.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별칭] 산림과학연구원. 산림연구원.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사농동 218-5

[유래] 일제강점기인 1940년 강원도임업시험장으로 설립되었다가 이후 강원도산림환경연구소(1993년),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1996년)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6년에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으로 개칭되었다. 지방자치법 제114조에 따라 임업에 관한 시험연구와 우량 헍목의 생산, 산림환경의 종합적 이용과 체계적 개발을 통한 소득화 연계, 임업 기술 보급을 위해 설치된 강원도청 소속 기관이다.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

### ●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별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지원센터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옥산포길 17-8(사농동)

[유래]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위해 중앙장애인·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2013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강원도 지역센터이다.

## ● 강원도립화목원

[별칭] 춘천화목원

[형태] 식물원, 강원수목원

[위치] 춘천시 사농동 218-5

[유래]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으로서 1996년 조성을 시작하여 1999년에 완공되어 개장하였다. 사계식물원, 암석원, 토피어리원 등 30개 주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827종 8만5천여본과 환경부에서 지정한 멸종위기 식물 20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립수목원으로부터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002년에는 산림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강원도립화목원

## ● 강원도산림박물관

[별칭] 산림박물관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사농동 643

[유래] 도심 속의 산림 휴양과 자연학습 공간 제공으로 산림을 보다 친숙한 공간으로 인식시키는 등 새로운 산림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2002년 강원도립화목원 내에 개관하였다. 5개 전시실, 영상실, 3D영상관 및 식물유전자원 연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원도산림박물관

##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별칭]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사농동 105-5

[유래] 1988년 공표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1989년 개관하였다. 강원도가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문 기관이다.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 ● 개미뛰리기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자양강(북한강) 가에 있는 들”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개미(崇?)+뛰리(?)+기(접미사)’로 분석된다.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하다. ‘개미’는 ‘가미/개미/개마/금마/고마/감/검/금/굼’[崇, 神]과 연관된다. ‘뛰리기’는 우두동 소재 ‘배뛰리기’가 참조된다. ‘배뛰리기’의 ‘뛰리기’를 ‘뛰우기’로 보면 ‘배뛰우기’하는 곳, 즉 ‘뱃터’가 된다. ‘뛰다’에 사동(使動)의 ‘리’가 개재되면 ‘뛰리기’이고, 사동의 ‘우’가 개재되면 ‘뛰우기’가 된다.

### ● 고구마섬

[형태] 섬

[위치] 춘천시 사농동 388. 상중도 위에 있으며, 육 림랜드 쪽에서 교량을 통해 진입할 수 있다.

[유래] 상중도 옆에 있는 작은 섬이다. 섬의 모양이 고구마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야구장이 있어 야구 동호인들이 캠핑과 더불어 즐겨 찾는다.

[어원풀이] ‘고구마[甘藷]+섬[島]’으로 분석된다.

### ● 고구마섬야구장

[형태] 야구연습장

[위치] 춘천시 사농동 388 고구마섬에 있다.

[유래] 고구마섬에 있는 야구장으로, 2022년 4월에 인조잔디로 단장한 정식 규격 야구장 3곳이 개장되었다. 전국사회인야구대회가 열리는 등 야구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어원풀이] 고구마[甘藷]+섬[島]+야구장[野球場]

### ● 관돌

[별칭] 관돌말, 지석리(支石里)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관돌, 지석묘가 있는 마을. 지석리(支石里)라고도 부른다. 춘천분지에는

관돌(고인돌) 지석이 많이 있다. 청동기시대의 대표적 유물로서 웅샘밭의 고인돌이 유명하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관/고인[支]+돌(石)’로 분석된다.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종자연구소

[별칭] 산림과학원산림종자연구소, 산림종자연구소.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사농동 663-1

[유래]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심판, 산림유전자원의 보존·관리,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수포(採穗圃)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산림청의 소속기관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종자연구소

### ● 마산리(馬山里)

[형태] 마을

[위치] 옥산포 부근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마적리와 옥산포의 마자와 산지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춘천백년사』에 “옥산포 안쪽에 있던 마을 이름. 마산리라는 지명도 ‘랄무덤’ 같은 적석(積石)에서 유래한 것 같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마(馬)+산(山)+리(里)’로 분석된다. 마적

리(馬跡里)의 ‘馬’와 옥산포(玉山浦)의 ‘山’을 합쳐 만든 지명이다.

### ● 마장천(馬場川)

[형태] 하천

[위치] 신동에서 우두벌판을 관통하여 남쪽으로 흐르다 의암호로 유입되는 개울이다.

[유래] 1895년 일본인에 의해 제작된 최초의 근대식 지도에 ‘마장리(馬場里)’란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2018년 마장천 생태계 복원사업이 시행되어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어원풀이] ‘마장(馬場)+천(川)’으로 분석된다. ‘마장리’에 있는 하천이란 의미이다.

### ● 마적리(馬跡里)

[별칭] 마장리(馬場里), 마장부락

[형태] 마을

[위치] 소양고등학교 동쪽으로 벌판에 있는 마을.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마적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馬跡里(마적리)’가 등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안말. 옥산포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마장리(馬場里)라 표기한 지도도 있고, 지역민들도 마장리란 지명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원풀이] ‘마적(馬跡)+리(里)’로 분석된다. ‘마적(馬跡)’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넓은 들판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논밭의 넓이를 나타내는 ‘마지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두산에서 달맞이를 하였다는 기록을 근거로 ‘달을 맞이하는 곳’이란 의미의 ‘마지[맞이하다]+기(基)’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 시대에 말을 키우던 목장이 있어서 ‘마장(馬場)’이라 불리던 지명이 변형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 ● 무른데미

[별칭] 옥산포(玉山浦)

[형태] 고적

[위치] 신매대교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옥산포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玉山浦里(물은담리)’가 등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들 가운데 있는 돌무더기. 적석총과 흰돌이 많았다. 무른데미는 옥산포를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하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무른[푸른]+[돌]데미/데미’로 분석된다. ‘무른’은 ‘푸른’의 변음이다. 적석총이 있는 물가란 의미이다.

### ● 상추항(上湫項)

[별칭] 웃가라목

[형태] 마을

[위치] 강원도교육청 부근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가래목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상(上)+추항(湫項)’으로 분석된다. ‘추항(湫項)’은 ‘가라목’ 참조

### ● 싸근다리

[별칭] 썩은다리

[형태] 들

[위치] 마장천이 의암호로 유입되는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북한강 가에 있는 들. 우듯별의 한 부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싸근/사근/서근[三斤]+다리[들 坪]’로 분석된다. ‘싸근다리/사근다리/사근드리/사근들이/사근-들’의 변이형이 성립하면, ‘사근들’은 ‘새로 개간된 지역(들판)’을 의미한다. 또는 ‘서근’을 글자 그대로 ‘세 근[三斤]’으로 볼 때 종자 세 근

정도를 뿐만 아니라 ‘넓지 않은 들판’이란 의미로 볼 수도 있다.

### ● 오미배터

[별칭] 오미나루

[형태] 교통

[위치] 신매대교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옥산포리’ 소재 나루 이름으로 ‘梧梅津(오미진)’이 등재되어 있고, 『대동지지』에 ‘오무진(五舞津)’이 보인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사농동에서 서면 신매리의 오미로 통하는 나루터”라 소개되어 있고, 『우리의 소슬뫼를 찾아서』에는 “오미[孤山]는 사농동에서 신매리로 건너는 배터 이름이 ‘오미뱃터’, ‘오미강’인데 그 배터 옆에 ‘고산(孤山)’이라는 산이 있으며 ‘외로운 산’의 뜻인 외뫼가 ‘오미’로 음전된 이름이다. 또 그 배터에서 강을 따라 1km쯤 올라가면 ‘울미’뱃터가 있고, 거기서 2km쯤 더 올라가면 ‘골미’라는 배터가 나온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오미+배[船]+터[垈]’로 분석된다. ‘오미’는 강가에 쌓인 모래톱에 풀과 나무들이 자라는 곳을 일컫는 말이다. 별칭인 ‘梧梅’와 ‘五舞’는 음차 자이다. 이 지역은 유난히 장양강(북한강)의 범람이 심했다.

### ● 옥산포

[별칭] 푸른데미, 무른데미/무른더미

[형태] 마을

[위치] 춘천인형극장과 고구마섬(고슴도치섬, 위도 인근으로, 지금도 배터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푸른데미, 푸른더미라는 돌더미가 있었다.”, 『춘천백년사』에 “조선시대 이래 춘천의 유명한 나루터이다. 북한강변 위도(謂

島) 건너편에 있으며, 현재도 배터로 이용되고 있다. 1960년대까지 이곳에 전통적으로 도선(導船) 등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옥산(玉山)+포(浦)’로 분석된다. ‘무른/푸른(玉)+데미/더미(山)’와 연관된다. ‘옥산(玉山)’은 고유어 지명인 ‘오미’와 대응하여 쓰이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확인된다. 옥산포 맞은편 서면에 ‘오미’라는 지명이 있는데, 상중도 고산(孤山)의 고유어 지명인 ‘외뫼’가 ‘오미’로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고산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볼 수도 있다.

### ● 육림랜드

[형태] 유원지

[위치] 춘천시 사농동 316-1

[유래] 1975년 5월 사농동에 개장한 2만평 규모의 테마파크. 소양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놀이동산, 동물원, 체험학습장, 야외수영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등으로 구성된다. 2022년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개장 전까지 춘천시의 유일한 놀이공원이었다.

### ● 춘천시농수산물시장도매시장

[별칭] 춘천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형태] 시장

[위치] 춘천시 사농동 133-1

[유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목적으로 개설된 시장으로, 31,150m<sup>2</sup>(9,423평) 부지에 조성되었다.



춘천시농수산물시장도매시장

### ● 춘천인형극장

[별칭] 인형극장

[형태] 공연장

[위치] 춘천시 사농동 277-3

[유래] 1989년부터 시작된 춘천인형극제의 성공을 계기로 건립하여 2001년 5월 4일에 개관하였다. 연간 780여 회의 공연을 올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형극 전용극장이다. (재)춘천인형극제가 운영한다. 해마다 8월이면 국내외 인형극단들이 참가하는 춘천인형극제가 열리고, 춘천마임축제의 행사장으로도 활용된다.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대극장 497석, 야외무대 200석을 갖추었다.



춘천인형극장

### ● 춘천인형극장박물관

[별칭] 인형극장박물관, 춘천인형박물관, 인형박물관.

[형태] 박물관

[위치] 춘천시 사농동 277-3

[유래] 춘천인형극장 안에 있으며, 200여 점의 인형과 각종 인형극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춘천인형극장박물관

### ● 하추항(下檄項)

[별칭] 아래가라목

[형태] 마을

[위치] 마장천이 의암호로 유입되는 부근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가래목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하(下)+추항(檄項)’으로 분석된다. ‘추항(檄項)’은 ‘가라목’ 참조.

# 우두동(牛頭洞)

3절

**위치와 현황** | 동남쪽으로는 소양강이 휘감아 흐르고 북쪽으로는 우두산(牛頭山)이 있다. 소양강을 가로질러 놓인 우두교를 통해 춘천시 동면 장학리와, 소양1교를 통해 소양로와 연결된다. 우두동의 상징인 우두산은 갖가지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산으로, 한국전쟁 초기의 승전지이기도 하다. 우두산에는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충렬탑이 있다. 춘천기상대와 소양초등학교, 강원도농업기술원,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등이 우두동에 있다. 동북쪽에는 우두온수지가 있는데, 소양호에서 내려오는 물을 헷빛으로 데워서 농업 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연혁** | 『춘주지』의 북내(北內)에 우두(牛頭)로 표기된 곳이 우두동(牛頭洞) 일대이다. 『여지 도서』는 북내면(北內面) 우두하리(牛頭下里), 상리(上里)로 기록하였다. 『호구총수』는 우두 하리(牛頭下里), 우두상리(牛頭上里)로, 『춘천읍지』는 북내면(北內面) 우두하리(牛頭下里), 우 두상리(牛頭上里)로,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북내면 우두하리(牛頭下里), 상리(上里)로 표 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북내일작면(北內一作面)의 우두상리(牛頭上里), 우두하리(牛頭下里)로 구분하였다. 『강원도지』는 신북면(新北面)의 우두리(牛頭里)로, 『수춘지』는 춘천시 의 우두동1구(牛頭洞一區), 우두동2구(牛頭洞二區), 우두동3구(牛頭洞三區)로 세분되었다.

신사우동

**유래** | 소머리 모양의 우두산이 있어서 우두리(牛頭里)라고 부르다가 이후 춘천시에 편입되어 우두동(牛頭洞)으로 고쳤다. 신라에서 춘천 지역을 우수주(우두주)라고 부른 역사도 있어 그 연혁이 꽤 오래된 명칭이다.

## ● 가마소

[형태] 소(沼)

[위치] 우두산 앞 소양강 부근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소양강에 있는 소. 우두산 아래에는 물굽이가 빙빙 도는 소(沼)가 있어 나룻배가 뒤집히는 위험한 곳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가마(鼎)+소(沼)’로 분석된다. 강물이 빙빙 돌아 둑근 가마솥처럼 생긴 소(沼)란 의미이다. 의암댐 건설과 제방 공사로 현재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 ● 강원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별칭]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여성장애인센터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우두동 5-1

[유래] 여성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0년 장애 여성을 위한 전문복지기관으로 개소하였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도 진행되고 있다.



강원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 ● 내라리여울

[형태] 소(沼)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우두동에 있는 여울.

우두동 앞 소양강에는 돌이 수면으로 돌출한 여울이 있어 소금배가 거슬러 오르거나 뗏목이 내려올 때 좌초되는 위험이 있다. 독바지여울도 물살이 세어 위험하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내(內)+라리/나리[川]+여울[灘]’로 분석된다.

## ● 달마지봉

[형태] 산

[위치] 우두산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우두산 북쪽에 있는 산봉우리. 꼭대기가 평평하다. 매년 대보름에 달맞이를 한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달[月]+마지/맞이[望]+봉(峰)’으로 분석된다. 달맞이를 하는 봉우리란 의미이다.

## ● 독바우여울

[형태] 수리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소양강에 있는 여울”이라 소개되어 있고, 『춘천의 지명유래』에는 ‘독바지여울’이란 지명이 보인다.

[어원풀이] ‘독/돌[石]+바우[岩]+여울[灘]’로 분석된다. 강 중간에 있는 바위로 인해 생긴 여울이란 의미이다.

## ● 드림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우두동 1050

[어원풀이] 드림(Dream)+공원(公園)



드림공원

[위치] 춘천시 우두동 1064-1



상록공원

### ● 물고개

[별칭] 수현(水峴)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우두상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물고기’(水峴)’가 등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소양강의 물을 우두평야로 끌어들이는 고개”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물[水]+고개[峴]’로 분석된다.

### ● 배뛰리기

[형태] 수리

[위치] 미상. 현 소양1교와 우두교 부근에 나루터가 있었으므로 두 곳 가운데 한 곳으로 보인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소양강 가에 있다. 소금배가 닿던 곳. 서울 마포나루나 뚝섬에서 실어온 소금을 배뛰리기에서 내렸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배[船]+뛰리(?)+기[垈]’로 분석된다. ‘배뛰리기’의 ‘뛰리기’를 ‘뛰우기’로 보면 ‘배뛰우기’하는 곳, 즉 ‘뱃터’가 된다. ‘뛰다’에 사동(使動)의 ‘리’가 개재되면 ‘뛰리기’이고, 사동의 ‘우’가 개재되면 ‘뛰우기’가 된다.

### ● 상록공원

[형태] 공원

### ● 새서낭거리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서낭이 있었던 길”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새[新]+서낭[서낭당]+거리[街]’로 분석된다.

### ● 새청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우두동 339-15



새청공원

## ● 새청벌

[별칭] 새청들

[형태] 들

[위치] 우두동 강변코아루아파트 부근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소양강 쪽의 벌판을 통틀어서 새청벌이라 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새[新]+청(青)+벌[坪]’로 분석된다. 소양강의 ‘소’가 ‘쇠머리[牛頭]’와 관련이 있기에 ‘쇠’가 ‘새’로 변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青)’은 사농동의 ‘푸른데미’, ‘옥산포(玉山浦)’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지라고 하며 한국인은 그 후예라는 동근동조론(同根同祖論)을 강조하였다.



소슬뫼

## ● 소슬뫼

[형태] 豆(墓) 또는 산

[위치] 우두산 정상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우두산 꼭대기에 있는 옛 무덤. 소가 봉분을 뿐로 파헤쳐놓거나 발로 밟아놓아도 하룻밤만 지나면 도로 솟아나서 자국이 없어진다고 한다. 아들이 없는 사람이 별초를 하고 지성으로 빌면 아들을 얻는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내선일체(內鮮一體)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저들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스사노오노미꼬도(素戔鳴命)의 소시모리(曾尸茂梨)의 소슬뫼에 와서 살았다고 선전했다. 일본의 신사(神社)까지 지은 일이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소슬/솟을[聳出]+뫼/묘[墓]’로 분석된다. 좁게는 우두산 정상의 무덤을, 넓게는 우두산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유래담] 우두산 소슬뫼는 일제가 자신들의 건국신화와 관련이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제는 자신들의 신화와 관련성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 ‘소슬뫼’가 ‘소시모리’고 하여 일본신화에 나오는 스나노 오노미꼬도(素戔鳴尊)가 왔었다는

## ● 언덕소

[형태] 소(沼)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소양강에 있는 소(沼)”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언덕+소(沼)’로 분석된다. 소양강에서 언덕진 곳에 있는 소(沼)란 의미이다.

## ● 우두강(牛頭江)

[형태] 하천

[위치] 우두동 부근 소양강

[유래] 우두동 부근을 흐르는 소양강을 일컫는 말이다.

[어원풀이] ‘우두(牛頭)+강(江)’으로 분석된다.

## ● 우두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우두동 1120



우두공원

### ● 우두나루

[별칭] 우두진(牛頭津)

[형태] 교통

[위치] 우두산 남단 폴리텍대학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우두상리’ 소재 나루터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우두(牛頭)+나루[津]’로 분석된다.

### ● 우두리(牛頭里)

[별칭] 우두동(牛頭洞)

[형태] 마을

[위치] 지금의 우두동

[유래] 지금 우두동의 예전 이름. 우두산으로 인해 소머리 또는 우두촌이라 불리다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우두상리·우두중리·우두하리 일부를 병합하여 우두리(牛頭里)라 하고 신북면에 편입되었다. 1946년 우두동으로 개칭되었으며, 1998년 행정동 신사우동의 법정동이 되었다.

[어원풀이] ‘우두(牛頭)+리(里)’로 분석된다.

### ● 우두사(牛頭寺)

[형태] 고적

### [위치] 우두산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우두사(牛頭寺)는 신라 말기에 창건된 사찰로 알려져 있다. 여말선초 인물인 이첨(李詹)과 김시습의 시에 우두사가 보이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등재되어 있고 조선 정조 때 편찬된 〈범우고(梵宇攷)〉에도 우두사가 존속한 것으로 나온다. 우두사 창건 전설이 전해 내려온다. 돌부처의 신비한 가르침을 받고 절을 창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선 명종 13년(1558년) 우두사의 스님 지조(知照)가 석파령(席破嶺)의 길을 닦았다고 하는 것을 보면 경제력이 있는 절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우두사지에는 초석과 장대석이 남아있고 기와조각이 흩어져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우두(牛頭)+사(寺)’로 분석된다.

### ● 우두성당

[별칭] 천주교성마르티노우두성당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충열로67번길 19. 강원 춘천시 우두동 706-9

[유래] 2001년부터 낡은 조립식 성전과 컨테이너에서 공동체 생활하다가 2019년 대지면적 약 6000m<sup>2</sup>, 건축면적 2430m<sup>2</sup>에 지상 2층 규모 본관과 지상 3층 규모 부속 건물 등 2개 동으로 새로 지어졌다. 본관에는 대성전과 성체조배실, 교리실, 카페 등이, 부속 건물에는 식당과 교리실, 사제관, 수녀원이 들어섰다. 새 성전 내부는 심순화(가타리나) 화백이 따스한 색감과 전통미를 살린 분위기로 조성했다. 성전 유리회는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과 임종로(프란치스코) 유리화 작가의 ‘예수님의 세례’, ‘성모님과 열두 사도의 성령강림’ 등 다양한 작품들이 안팎에 설치됐다.



우두성당

### ● 우두제4어린이공원

[별칭] 4어린이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우두동 291



우두제4어린이공원

### ● 우두평(牛頭坪)

[별칭] 우듯벌. 우두들.

[형태] 들

[위치] 우두동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우두동 앞에 있는 큰 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우두(牛頭)+평(坪)’으로 분석된다.

### ● 우두뒷산

[별칭] 우두뒷산

[형태] 산

### [위치] 우두산 북쪽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우두산 뒤(북쪽)에 있는 산”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우둠/우두(牛頭)+ㅅ+뒤[後]+ㅅ+산(山)’으로 분석된다. ‘우둠’은 사이시옷이 개재된 ‘우둣’ 뒷산’의 변이음이다.

### ● 우뒷소

[형태] 소(沼)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우두산 동쪽 소양강에 있는 소(沼)”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우두(牛頭)+뒤[後]+ㅅ+소(沼)’로 분석된다. ‘우두’의 ‘두’와 ‘뒤’의 ‘두’가 동음 축약되어 ‘우뒤’가 되었다. 즉 ‘우뒤+ㅅ+소(沼)’로 분석된다.

### ● 장승배기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장승이 있던 들”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장승+배기’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배기’는 ‘무엇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가진 ‘-박이’의 방언형(-배기)이 지명으로 접미사화 한 것이다. 장승은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또는 절 어귀나 길가에 세운 풋말이다. 10리나 5리 간격으로 이수(里數)를 나타내 이정표 구설을 하거나,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 대개 남녀로 쌍을 이루어 한 기둥에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또 한 기둥에는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이라고 새긴다.

### ● 절구렁이

[별칭] 절귀미. 절터겟바닥.

[형태] 골짜기

[위치] 우두산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옛날 우두사(牛頭寺)가 있었던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절구렁이/절텅겟바닥’과 ‘절귀미/절구렁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키는 지명들이다. 모두 ‘절텅겟바닥’에서 보듯 우두사(牛頭寺) 골짜기에 있었다.

[어원풀이] ‘절[寺]+구렁[구렁지/-/구렁]+이’(명사파 생접미사)로 분석된다. 별칭 ‘절터겟바닥’은 ‘절[寺]+터[垈]+ㅅ+개[浦]+ㅅ+바닥[低垈]’으로 분석되며, 또 다른 별칭인 ‘절귀미’는 ‘절[寺]+귀미(지명 접미사)’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귀미’는 ‘바다나 강가 주변에서 음푹 들어간 곳이나 후미진 곳’을 뜻한다. 그 이형태는 ‘구미/귀미/후미’가 있고, 유사 의미로 ‘-소’와 ‘-안’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절구렁이’와 ‘절텅겟바닥’과 ‘절구미’에서 ‘구렁이, 갯바닥, 귀미’는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진다.

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기술대학이며, 4차 산업혁명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걸맞은 융합형 미래기술인재를 양성한다. “생애 전주기 직업교육의 플랫폼”을 구축해 청년 미취업자부터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까지, 전 연령·전 계층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 ● 한의무덤

[별칭] 한총(漢塚)

[형태] 묘

[위치] 우두산 정상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우두상리’ 소재 고적명소로 ‘漢塚(한총)’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한(漢)+의(속격)+무덤[塚]’으로 분석된다. ‘의’는 속격조사이고, ‘漢’은 ‘크다’는 의미를 지닌 음차자이다. ‘한총’은 ‘큰무덤’이란 의미이다.

[유래답] 우두산 ‘한총’은 중국 청(青)나라 임금의 무덤이란 전설이 전한다.

### ● 우두온수지(牛頭溫水池)

[형태] 수리

[위치] 우두산(133m) 우측 가까이에 있다.

[유래] 소양강의 차가운 물을 농업용수로 직접 사용할 수 없기에 이를 햇빛으로 데우기 위해 설치한 저수지이다.

### ● 한국폴리텍3대학춘천2캠퍼스

[별칭] 폴리텍3대학춘천2캠퍼스. 폴리텍대학춘천2캠퍼스

[형태] 학교

[위치] 춘천시 우두상리길 68. 우두동 72

[유래]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는 국가에서 운



## 약사명동(藥司明洞)

약사동, 죽림동,  
중앙로2가, 중앙로3가

춘천시 중심부에 위치한 동이다. 중앙시장, 명동, 춘천평생정보관이 있다. 본래 춘천군 부내면(府內面) 지역이었다. 『호구총수』에 의하면 부내면은 아문리·허문리·요선당리·사창리·대판리·약사원리 등 12개 리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 중 약사명동은 특히 약사원리(藥司院里)와 일치하는 지역이다. 조선시대 때 약방들이 길가에 즐비하고, 약사원(藥司院)이 소재했으므로 약사원이라 하였다고 전해진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동내면(東內面) 석사리(碩士里) 일부와 남부내면(南府內面) 상퇴계리(上退溪里)의 일부를 폐합하여 약사리라 하였다. 1939년 춘천 읍제 실시에 따라 옥정(旭町)이라고 하였다가 해방 후 약사동(藥司洞)으로 개칭하였다. 1998년에 약사동과 죽림동을 합쳐 약사명동(藥司明洞)으로 정하였다.

약사명동은 법정동인 약사동, 중앙로2가, 중앙로3가, 죽림동을 관할하고 있다. 춘천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지역 상권 및 문화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춘천의 근현대사를 함께한 망대를 비롯하여 겨울연가 촬영지인 명동거리와 지하상가, 브라운5번가, M백화점, 중앙시장 및 은행, 병원, 세무서, 도서관, 학교 등 다양한 기관 및 상가들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지역이며 접근성이 용이하여 유동인구도 가장 많은 곳이다.

**위치와 현황** | 약사동과 죽림동 사이의 약사고개 아래 동서로 뻗은 구릉 지역으로, 동쪽에 효자동 · 조양동, 북쪽에 죽림동, 서쪽에 근화동이 인접해 있고, 서남쪽에 공지천이 흘러 부근의 경관이 아름답다.

춘천시의 중심부에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춘천교도소가 이전하고 1984년 대한주택공사가 그 자리에 중형 아파트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입지 환경이 개선되었다. 예전에 풍물시장이 있었으나 약사천 복원공사 등으로 인해 현재 롯데마트 부근인 온의동으로 이전했다. 봉의초등학교와 춘천교육지원청이 있다.

**연혁** |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춘천의 역원(驛院)을 소개하는 글에 약사원(藥師院)이 “부의 남쪽 5리에 있다.”고 하였다. 『춘주지』에 약사원(藥司院),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 『조선지지자료』에는 약사원리(藥司院里)로 표기되었다. 『강원도지지조서』는 약사리(藥司里), 『강원도지』에는 춘천읍(春川邑) 육정(旭町)으로 표기하였다. 『수춘지』는 약사동1구(藥司洞一區), 약사동2구(藥司洞二區)로, 『춘주지』와 『춘천백년사』는 약사동(藥司洞)으로 표기하였다.

**유래** | 조선시대 약사원(藥師院)이 있어서 지명이 생겼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약사원(藥師院)이 “부의 남쪽 5리에 있다”고 하였다.

### ● 보령암(寶鈴庵)

[형태] 절

[위치] 춘천시 춘천로81번길 47. 춘천시 약사동 155-15번지. 춘천초등학교 인근에 있다.

### ● 보문사

[형태] 절

[위치] 춘천시 약사동 86-1. 약사천에서 꼬불꼬불 난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면 여느 가정집 대문보다 도 초라한 문이 일주문을 대신한다.

[유래] 스물댓 명이 들어서면 꽉 차버릴 작은 법당(대웅전)과 방 두 개에 부엌 하나를 갖춘 조그만 요사채가 전부인 아주 작은 절이다.

### ● 불당골(佛堂谷)

[형태] 마을

[위치] 약사동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약사원리(藥司院里)’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佛堂谷(불당골)’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불당(佛堂)+골[谷, 村]’로 분석된다. 불당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행정지명인 ‘약사동’의 근원이 되는 ‘약사원리’의 유래가 되는 것으로 추론된다.

### ● 산약골(山藥洞)

[별칭] 산약동(山藥洞)

[형태] 마을

[위치] 약사동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약사원리’ 소재 마을 이름으로 ‘山藥洞(산약골)’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산약(山藥)+골[洞]’로 분석된다.

### ● 상보(上洑)

[형태] 수리

[위치] 약사천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약사원리’ 소재 보(洑) 이름으로 ‘上洑(상보)’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상(上)+보(洑)’로 분석된다. 보(洑)는 논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시설의 하나. 둑을 쌓아 흐르는 냇물을 막고 그 물을 담아 두는 곳이다. 또는 보에 편 물이 흘러내리는 물이다. 약사천에 설치했던 것으로 보인다.

### ● 신촌(新村)

[별칭] 새말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약사원리’ 소재 마을 이름으로 ‘新村(새말)’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시>새[新]+말/마을[村]’로 분석된다. 사이에 있는 마을, 또는 동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 약사교(藥司橋)

[형태] 교량

[위치] 약사천을 복원하여 효자1동과 약사동을 연결하는 약사천 아래 건널목이 있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약사동 앞에 있는 다리. 운교, 효자동의 어름이 되는 곳에 1960년 3월 10일 준공을 한 다리. 약사교는 원래 나무다리로 길게 놓여 있었다. 지금은 개발로 없어졌다.”라 하였다.

### ● 약사리고개

[별칭] 약사원(藥司院峴)

### [형태] 고개

[위치] 약사동에서 죽림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약사동에서 죽림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지금은 2차선 도로가 나 있다. 조양동의 미가리고개, 소양로의 사창고개와 함께 춘천의 유명고개였다.”라 소개되어 있다. 현재는 4차선으로 확장되었다.

[어원풀이] ‘약사리(藥司里)+고개(峴)’로 분석된다. 약사리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 약사원리(藥司院里)

[형태] 마을

[위치] 약사동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약사원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藥司院里(약사원리)’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약사원(藥司院)+리(里)’로 분석된다. ‘약사원(藥司院)’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역원(驛院)의 일종, 약재상이 즐비한 거리, 약사암(藥師庵)이란 암자 등의 유래가 전한다.

### ● 죽림동성당

[별칭] 춘천죽림동성당.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약사고개길 23. 강원 춘천시 약사동 30.

[유래] 1920년 풍수원 본당에서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곰실본당이었다가 춘천 약사리, 춘천으로 본당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60년경부터 죽림동 본당으로 불려졌다. 초대 신부로 김유룡 필립보 신부가 부임하였다. 풍수원 본당 소속의 곰실 공소는 고온리 윗너부랭이라는 곳에 사는 신자 염주언에 의해 신양 공동체로 형성되었다. 염주언 공소회장이 서울 명동 성당에 사제 파견을 여러

번 간청하여 1920년 9월 곰실 공소에서 죽림동 본당으로 승격되었다. 6대 주임 퀸란 신부가 사두었던 성당 부지에 성당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6.25전쟁의 빨발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1953년 미군과 교황청의 지원으로 공사를 완공하고 1956년 6월 8일 성당 봉헌식을 거행하였다. 이후 1998년 4월 노후된 성당에 돌 벽체를 제외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시작하여, 1998년 9월 공사가 완료되었다. 2003년 6월 25일 근대 건축 유산 문화재 제54호로 등록되었다.

### ● 춘천교육지원청

[별칭] 교육지원청. 교육청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춘천로145번길 18. 춘천시 약사동 2-2

[유래] 춘천교육지원청은 강원도 수부 교육청으로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 육성이라는 강원교육 지표 구현을 위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꿈을 키우는 교육, 함께 가꾸는 학교 육성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다.

### ● 춘천형무소터

[형태] 터

[위치] 지금은 약사지구 모아엘가아파트가 들어섰다.

[유래] 약사동에는 일제강점기부터 춘천형무소가 자리잡고 있었다. 형무소가 동내면 신촌리 지역으로 옮겨간 후에 형무소건물을 허물고 이곳에 약사 아파트를 지었다. 지금은 아파트촌으로 변했다. 다시 5층 약사아파트를 허물고, 그 자리에 약사지구 모아엘가아파트가 들어섰다. 34층 5개 동 567세대로 지어졌다.



죽림동성당

**위치와 현황** | 춘천시 시가지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이자 봉의산과 공지천의 중간지대로, 동쪽으로 조운동, 남쪽으로 약사동, 서쪽으로 근화동·소양동, 북쪽으로 소양동과 인접해 있는 상권의 중심지이다. 죽림동 가운데에 춘천 죽림동 주교좌성당(主教座聖堂)이 있다. 2003년 6월 30일 대한민국의 국가등록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되었다. 1949년 기공하였으나 한국 전쟁의 와중에 짓던 건물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 전쟁 후 다시 건축하여 1956년 6월 8일 준공하였다.

**연혁** | 『춘주지』에 부내(府內)의 견연리(犬淵里)가 표기되어 있다. 『여지도서』와 『호구총수』는 부내면(府內面) 가연리(可淵里), 『춘천부지』는 가연리(佳淵里), 『관동읍지』는 가연리(可淵里)라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는 가연리(佳淵里)와 죽전리(竹田里)로 표기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는 가연리(佳淵里), 『강원도지』는 대화정2정목(大和町二丁目)으로, 『수춘지』,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죽림동(竹林洞)으로 표기하였다.

**유래** | 개못의 안쪽이 되므로 개못안이라 했고, 연못이 있는 마을이라 해서 가연리라 했다. 연못 주변에는 신우대나무가 많이 자랐고 부근 일대가 숲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수평말이라고 불렸다. 개못안이 견연리(犬淵里)에서 가연리(可淵里)로, 가연리는 다시 죽림동(竹林洞)이 되었다.

1946년 일본식 지명을 폐기하고 새로운 지명을 명명하려 할 때 춘천이 앞으로 발전하려면 진산인 봉의산(鳳義山)을 상징하는 봉황새가 흥해야 한다는 생각에 봉황새의 먹이가 지역에 필요할 것이라는 여론이 제기되었고, 봉황새의 먹이라고 생각되는 대나무숲을 만 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지역을 죽림동(竹林洞)이라 개칭하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 ● 개못안

[별칭] 가연(可淵, 佳淵), 가연리(佳淵里), 견연(犬淵), 청연(晴淵)

[형태] 마을

[위치] 지금의 춘천세무서, 농협중앙회강원지부 어름에 걸쳐있던 큰 연못을 개못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매립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다만 도로지명 '가연길'로 남아 있다.

[유래] 김영하의 『수춘지』에 “일명 청연(晴淵)이라 고 한다. 처음에 김환이 춘천은 삼학산이 정면에서 비추고 있으므로 화변(火變)이 많다고 여겨서 부의 입구에 큰 연못을 팜으로써 화기(火氣)를 누르게 하였다. … ‘신가연’이 있는데, 이는 1940년 춘천 역 아래에 ‘신가연’을 팠다고 했다.”라 하였고, 『춘천의 지명유래』에 “개못이라는 못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연못이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한자로 표기해서 개못은 가연(佳淵), 가연(可淵)이 되었다. 혹은 견연(犬淵)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지금의 춘천세무서, 농협중앙회강원지부 어름에 걸쳐있던 큰 연못을 개못이라고 불렀다. 지금은 매립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개[갯벌]+못[淵]+안[內]’으로 분석된다. ‘개-’의 音借 ‘介, 改, 皆’ 따위가 아니고, ’가-‘에서 취해 可淵/佳淵/假淵’ 따위로 표기했다. 한편 ‘犬淵’은 ‘개흙, 개펄’의 ‘개’의 동음이의어 ‘개[犬]’와 ‘못’의 훈독 표기이다. ‘犬淵’은 한자에 경도된 지나친 작의적 지명이다. ‘개못(안)’을 ‘假託한 연못’으로 보면 그 한자 표기는 ‘假淵 <可淵<佳淵’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 수평말

[형태] 마을

[위치] 죽림동성당 부근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숲을 이루고 있었으므로 수평마을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지금도 천주교성당 부근에 숲이 있고 고목이 남아 있다. 수평마을의 모습 일부를 간직하고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수/숲(叢)+평(坪)+말[村]’로 분석된다. ‘숲’의 고어는 ‘수(叢)’이다. ‘수안들’은 ‘숲안들’이다.

## ● 제일종합시장

[별칭] 제일백화점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약사고개길 13. 춘천시 죽림동 32. 명동에서 공지천 방향으로 이동하는 길에 원편으로 위치한 시장으로 많은 춘천의 시장들처럼 상가형의 종합 시장이다

[유래] 1970년대부터 춘천을 대표해온 시장 중 하나로, 1984년 개설된 상가건물형의 중형시장이다. 시장 활성화 사업 이후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어 깔끔한 분위기를 갖추고 있다. 매장면적은 4,028m<sup>2</sup>이고 점포 수는 189개이다.



제일종합시장

## ● 춘천낭만시장

[별칭] 중앙시장

[형태] 시장



춘천낭만시장

[위치] 춘천시 죽림동 13-2.

[유래] 춘천낭만시장은 조선 시대 춘천 읍내장을 계승한 전통시장으로 1960년부터 오랫동안 춘천 중앙시장으로 불리다가 시장 현대화와 함께 2010년 춘천낭만시장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 ●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죽림동 189

[유래]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자치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 활동, 동아리 활동, 청소년의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네트워크의 장이며 다양한 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다.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 중앙로2가(中央路2街), 중앙로3가(中央路3街)

### 중앙로2가(中央路2街)

**위치와 현황** | 조운동과 약사동, 소양동이 에워싸고 있다. 실질적으로 춘천의 '시내'라고 불리는 곳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곳이다. 중앙로2가의 경우 거의 상업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연혁** | 1939년 춘천 읍제에 따라 가연리(佳淵里)의 일부가 본정이정목(本町二丁目)이 되었다. 『수춘지』는 중앙로동부(中央路東部), 중앙로서부(中央路西部)로 표기하였고, 『춘주지』, 『춘천백년사』도 중앙동(中央洞)으로 표기하였다.

**유래** | 1939년 춘천 읍제에 따라 가연리(可淵里)의 일부가 본정이정목(本町二丁目)으로, 1946년 왜식 동명을 우리 이름으로 고칠 때 중앙로2가로 정하였다.

## 중앙로3가(中央路3街)

**위치와 현황** | 중앙로3가는 중앙로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세무서, 보건소 등의 관공서나 춘천초등학교, 춘천중학교, 춘천교육문화관 등의 교육시설이 들어서 있다.

**연혁** | 1939년 춘천 읍제에 따라 가연리(可淵里)의 일부가 본정삼정목(本町三丁目)이 되었다. 『수춘지』는 중앙로동부(中央路東部), 중앙로서부(中央路西部)로 표기하였다.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중앙동(中央洞)으로 표기하였다.

**유래** | 1939년 춘천 읍제에 따라 가연리(可淵里)의 일부가 본정삼정목(本町三丁目)으로, 1946년 웨식동명을 우리 이름으로 고칠 때 중앙로3가로 정하였다.

### ● 강원도문우회(江原道文友會)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중앙로3가 72-3

[유래] 사단법인 문우회의 강원도 조직. 문우회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 등 교육행정기관에 재직하였던 공무원들이 퇴직 후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나아가 교육행정 경험과 지식을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1986년 12월 19일 창립한 비영리법인이다.



강원도문우회

### ● 네목이고개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가연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네목이고개’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네목이(?)+고개(?)’로 분석될 수 있다. 지명접미사 ‘목(項)’은 ‘목/목이/메기/매기/모기’ 등의 이형태를 가지며 ‘좁다란 산협이나 물 속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뜻한다. 특히 ‘통로의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

### ● 시장고개

[별칭] 중앙시장고개

[형태] 고개

[위치] 중앙시장(->낭만시장)으로 통하는 고개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중앙시장(->낭만시장)으로 통하는 고개를 시장고개라고 부른다. 춘천에서는 중앙시장(->낭만시장)을 그냥 시장이라고 부른다. 중앙시장(->낭만시장)이 고유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므로 그냥 시장고개라는 이름이 생겼다. 그러나 지금은 서부시장, 동부시장, 남부시장 등이 생겼으므로 중앙시장(->낭만시장)도 시장으로만 불러서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 시장고개라는 이름도 자연히 사라지고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시장[中央->낭만-市場]+고개[峴]’로 분석된다.

### ● 중앙시장교차로

[별칭] 중앙시장사거리, 낭만시장교차로, 낭만시장 사거리

[형태] 교통

[위치] 춘천시 중앙로2가.

[유래] 4차선 약사고개길과 중앙로가 중앙시장(->낭만시장) 앞에서 교차한다.

[어원풀이] ‘중앙(中央)+시장(市場)+교차로(交叉路)’로 분석된다.

### ● 춘천교육문화관

[별칭] 춘천평생교육원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중앙로107번길 14. 춘천시 중앙로3가 26-1

[유래] 1985년 개관하여 주민에게 교육과 문화 창달을 위한 전시와 행사 도서 대여 사업 등을 펼치

고 있다. 도서 362,469권을 소장하고 있다.

연계, 노인 권익 증진 사업 등을 도모한다.



춘천교육문화관



춘천시민복지회관

### ● 춘천세무서

####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중앙로 115, 중앙로3가 73.

[유래] 1949년 지방세무관서 설치법에 따라 춘천 세무서를 설치하였고 1998년 대지 3,413㎡부지에 건물 2,694㎡ 규모의 현 청사를 준공하였다. 2020년 체납징세과, 부가소득세과, 재산법인세과, 조사과,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5개과 12팀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 ● 춘천시보건소

#### [별칭] 춘천보건소

####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중앙로 135, 중앙로3가 67.

[유래] 춘천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교육, 식품·공중 위생, 방문 보건 사업 등 보다 나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 ● 춘천시민복지회관

#### [별칭] 춘천복지회관, 춘천시민회관

####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중앙로 135, 강원 춘천시 중앙로3가 67.

[유래] 춘천시민을 위하여 사회 교육 사업, 건강 교육, 교양 교육, 예능 교육, 취미 교육 등과 정보화 교육, 컴퓨터 기본 및 활용, 블로그 활용 등과, 건강 증진 사업 체력 단련실, 건강 증진 지원, 무료 급식, 식사 배달 등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공헌형(복지형, 공익형) 사업, 시장형 사업 등과, 지역 자원 개발

### ● 춘천신용협동조합

#### [별칭] 신용협동조합, 춘천신협

####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중앙로 57, 강원 춘천시 중앙로2가.

[유래]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조운동(朝雲洞)

조양동, 운교동

춘천시의 중앙부에 위치한 행정동으로, 조양동(朝陽洞)과 운교동(雲橋洞) 2개를 관할한다. 이 지역은 금융 및 의료기관·명동·동부시장·육립상가 등 주요 시장과 상가가 분포된 상업지역이다. 주변에 교동·약사명동 등이 있다.

조선시대에 변화했던 곳으로 현재도 춘천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조양동은 원래 춘천군 부내면 대판리(大板里) 지역이다. 『호구총수』에 의하면 부내면은 아문리·허문리·요선당리·사창리·대판리 등 12개 리로 편성되어 있었다. 『여지도서』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이고 있다. 1939년 춘천 읍제 실시에 따라 가연리(可淵里)와 낙원동(樂園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대화정일정목(大和町一丁目)으로 개칭하였다가 1946년 일본식 동명을 고쳐 조양동으로 하였다. 조양(朝陽)이란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운교동 동명은 운교천·운교교에서 유래되었는데, 강원대학교 후문에서 시작되어 약사풍물시장을 경유 공지천으로 흐르던 운교천을 건너는 다리를 가리킨다. 후에 한자로 고쳐 1946년부터 운교동으로 불렸다. 조양동과 운교동을 합쳐 조양운교동으로 불리다가 1974년 1월 1일 조례 제621호에 의해 조운동으로 개칭하였다.

## 1절

## 조양동(朝陽洞)

**위치와 현황** | 교동과 요선동, 중앙로와 함께 시청 인근에 있는 동(洞)으로 상가가 발달되어 있는데 상가 밀집지역은 새명동(新明洞)으로 불린다. 춘천의 유명 음식인 닭갈비를 주요 메뉴로 하는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일명 명동닭갈비골목이 1970년대부터 형성되어 있다. 조양동은 도심부에 위치한 주택, 상가, 금융, 의료기관이 밀집된 복합지역으로 시장, 백화점 등 상업이나 서비스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혁** | 조양동은 원래 춘천군 부내면(府內面)의 대판리(大板里) 지역이었다. 『여지도서』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문헌에서 대판리(大板里)로 표기되었는데, 『강원도지지조서』는 대판리(大坂里)로 표기하였다. 1939년 춘천 읍제 실시에 따라 가연리(佳淵里)와 낙원동(樂園洞)의 일부를 병합하여 대화정일정목(大和町一丁目)으로 고쳤다가 1946년 웨식 동명을 우리 이름으로 고칠 때 조양동(朝陽洞)으로 정했다.

**유래** | 조양동(朝陽洞)은 아침 햇살이 비치고 저녁 석양이 비치는 마을, 즉 아침을 찬란하게 맞고 석양을 평화롭게 맞는 희망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 관덕당(觀德堂)

[형태] 고적

[위치] 미상이다. 『조선지지자료』에 대판리에 있다  
고 하였다.

[유래] 『조선지지자료』 ‘대판리’ 소재 고적명소(古  
蹟名所)로 ‘관덕당(觀德堂)’이 등재되어 있다. 『조운  
동지』에 “관덕당(觀德堂) 또는 관덕정(觀德亭)은 조  
선시대 지방 관아에서 병사의 훈련과 무예수련을  
감독하거나 지휘할 목적으로 세운 건물에 일반적  
으로 붙이는 이름이다. 『조선지지자료』 대판리 소  
재 골짜기 이름[谷名]에 ‘활터거리’가 함께 표기되  
어 있어 관덕당(觀德堂)과 활터가 함께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어원풀이] ‘관덕(觀德)+당(堂)’으로 분석된다.

## ● 대파니

[별칭] 대판이. 대판리(大板里, 大坂里)

[형태] 마을

[위치] 현 조운동과 팔호광장 주변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대파니가 대판리로  
변하고 다시 조양동으로 변했다.”라 소개되어 있  
다. 『조운동지』에는 “한자 표기에 근거하여 ‘넓은  
판자로 만든 다리[大板]’가 있던 곳으로 보기도 하  
고, 판소리, 난장판 등에 쓰이는 ‘판’에 근거하여  
'큰 저자거리가 있는 동네'란 의미로 보기도 한다.  
봉의산 산자락이 비스듬하게 펼쳐진 곳에 위치한  
다는 지형적 측면과 ‘坂’으로도 표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면 ‘넓고 완만한 비탈이 펼쳐진 곳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 볼 수도 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대판(大판)+이(첩미사)’로 분석된다. ‘판’  
은 고유어이다. ‘판소리, 난장판’의 ‘판’도 이와 같다.  
'대판'은 대판거리, 대판거리는 크게 차리거나 벌어

진 판국이며, 예전부터 시정에 익숙한 이름이다.

## ● 도장재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대판리’ 소재 고개 이름  
으로 ‘도장지’가 표기되어 있다.

[어원풀이] ‘도장[閭]+지>재[峴]’로 분석된다. 도장  
은 ‘안방/규방(閭)’의 고어로, 지명에 쓰이는 ‘도장  
골’은 사방이 둘러싸여 아득한 골짜기를 말한다.  
도장골에 있는 고개를 도장재라 불렀을 것으로 추  
정되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알 수 없다.

## ● 미가리고개

[별칭] 미가현(美可峴)

[형태] 고개

[위치] 구 육립극장 앞 길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대판리’ 소재 고개 이름  
으로 ‘美可峴(미가리고개)’이 등재되어 있다. 『춘천  
의 지명유래』에 “조양동에서 홍천 원주방면으로  
가는 고개를 미가리고개라고 불렀다. 지금은 4차  
선 도로가 뚫려있다. 육립극장 앞으로 통하는 4차  
선도로가 홍천으로 가는 고개길이 되어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미/뫼[山]+가리[岐]+고개[峴]’로 분석  
된다. 고유어 ‘미’는 한계언어(韓系言語-중세국어)에  
서는 ‘미/미 흥/뫼/매[山, 土]’로 쓰인다. ‘가리/가  
래/갈’은 ‘갈라지다(岐, 分, 枝)’를 변형한 지명에서  
자주 보이는 변이형들이다. 산처럼 높은 언덕에 두  
갈래로 갈라진 형태로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 새명동

[별칭] 새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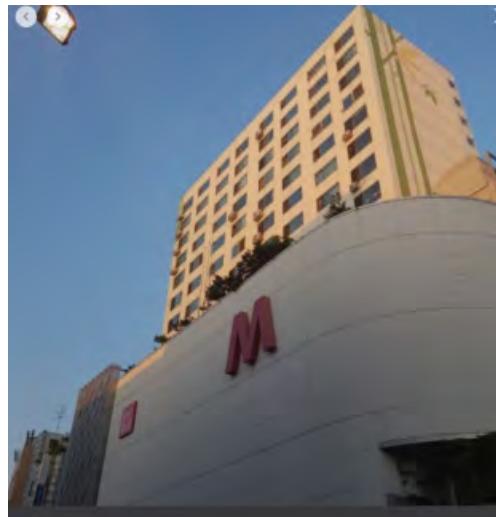
[형태] 마을

[위치] 춘천시청 앞 일대

[유래] 『조운동지』에 “1990년대를 거치면서 조양동의 뒷골목에 음식점, 옷가게, 유흥주점 등이 들어서 성업하면서 새명동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새명동이라는 이름은 1990년대 중반에 지역 상인들이 금강로 건너편의 명동지역이 번창하는 것을 모방하여 스스로 새명동으로 부르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로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새[新]+명동(明洞)’으로 분석된다.

본관과 지상7층의 별관으로 리모델링하고 2008년 회사 영문이니셜을 따 M백화점으로 재탄생하였다.”라 소개되어 있다.



엠(M)백화점춘천점

## ● 안으물거리

[별칭] 안우물거리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대판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안으물거리’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안[内]+으물/우물[井]+거리[路]’로 분석된다. 우물 안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 옥거리터

[별칭] 옥가리(獄街里)

[형태] 교통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대판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獄街里(옥거리)’가 등재되어 있고, 구한말 지도에는 ‘대판리’에 연못과 옥(獄)이 그려져 있다.

[어원풀이] ‘옥(獄)+가리/거리[路, 街]+터[垈]’로 분석된다. ‘街里’는 ‘거리’의 훈차인 ‘街’와 ‘거리’의 ‘리’의 음차인 ‘里’가 결합한 것이다. 옥(獄)이 있었던 거리란 의미이다.

## ● 엠(M)백화점춘천점

[별칭] 엠(M)백화점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금강로 68-9 미도파 아파트, 춘천시 조양동 34

[유래] 『조운동지』에 “1996년 개점한 미도파백화점은 강원도 내 최초의 백화점이었다.”, “모기업이 부도위기를 겪자 2003년 강원도 내 순수 자본으로 춘천미도파를 인수한 동서종합건설(주)에 의해 동서백화점으로 재탄생했다.”, “동서백화점을 놓심 그룹의 메가마트가 인수하여 지하3층, 지상4층의



구한말 춘천부 채색지도에 표시된 옥(獄) (장서각 소장본 『춘천읍지』)

### ● 춘천명동닭갈비골목

[별칭] 명동닭갈비골목

[형태] 거리

[위치] 춘천시 금강로62번길 9-1, 조양동 138-14.

[유래] 1968년부터 명동 금강로 골목길을 따라 길 양편으로 15개 닭갈비식당이 늘어서 있다.

### ● 활터거리터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대판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활터거리’가 표기되어 있다.

[어원풀이] ‘활[弓]+터[垈]+거리[路]+터[垈]’로 분석된다. 활터가 있던 거리란 의미이다.

## 2절

## 운교동(雲橋洞)

**위치와 현황** | 북으로 교동과 조운동, 동으로 효자동, 남으로 죽림동 효자동이 인접해 있다. 조운동 주민센터, 금융감독원 춘천사무소, 동부시장, M백화점 등이 있다.

**연혁** | 본래 춘천군 부내면(府內面) 대판리(大板里) 지역이다. 1939년 춘천 읍제 실시에 따라 대성정이정목(大成町二丁目)이라고 칭하였다가 1946년 웨식 동명을 우리 이름으로 고칠 때 대판리(大板里) 안에 구운교(九雲橋)가 있어서 ‘굴운다리’ ‘구름다리’라 불렸는데, 후에 한자로 운교동(雲橋洞)으로 불렀다.

**유래** | 운교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야트막하게 놓여 있어 구렁진다리로 불렸는데, 이것 이 구렁다리, 구룡다리, 구름다리 등으로 전이되었고 이를 한자로 표기하여 운교(雲橋)라 하였으므로 운교동이란 지명이 생겨났다.

## ● 구령다리

[별칭] 九雲橋(굴운다리), 구룡다리, 구름다리.

[형태] 교통

[위치] 운교동과 효자동 사이에 있는 다리. 지금은 없어졌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대판리’ 소재 다리 이름

[橋名]으로 ‘九雲橋(굴운다리)’가 표기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구룡다리, 구름다리라고도 부른다. 운교동과 효자동 사이를 흐르는 운교천에 다리가 놓여 있었다. 지금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개울도 보이지 않고 다리도 없어졌다. 구룡다리, 구령다리는 구름다리가 변해서 그렇게 불리어진 것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구령[구령지다]+다리[橋]’로 분석된다. ‘구름(雲)’의 古形(구르-) + (-움) 또는 방언형은 ‘구룸’ 정도이고, ‘구령, 구룡’ 따위는 없다. ‘구령-’이 변음되면서 ‘구름(雲)’을 거쳐 ‘구룡(九龍)’으로 한 자어 격상이 되었다. 그렇게 변이형의 하나인 ‘구름다리(雲橋)’에서 행정동 지명이 되었다. 비교적 좁은 개천 양쪽 땅의 모양이 높고, 물이 흐르는 부분만 낮게 다리를 놓으면 ‘구령진 다리’ 모습이 된다. ‘구령’은 ‘옴푹하게 파인 땅’이다. ‘구령(구령진) 다리’가 ‘구름다리(雲橋)’로 전의(轉意)되고, 다시 ‘구룡다리(九龍橋)’로 전의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 도수장거리

[별칭] 도수장길, 도수장골

[형태] 마을

[위치] 구 육립극장 맞은편 뒷골목

[유래] 일제강점기 지도에 ‘도수장(屠獸場)’이 표기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도살장이 있었던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도수(屠獸)+장(場)+거리[街]’로 분석된다. 우시장에서 도축용으로 팔린 소를 처분하기 위한 목적의 도살장(屠殺場)이 들어섰는데, 도수장(屠獸場)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소 이외에 돼지 등 다른 가축도 함께 처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 ● 동부시장

[형태] 시장

[위치] 춘천시 동부시장길 8. 운교동 183.

[유래] 『조운동지』에 “원래 동부시장이라는 상호는 상가건물을 말했지만 2019년 골목시장과 함께 동부시장이 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현 동부시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동부시장도 조성되었다. 1988년 5월 1일 현대건설이 건립한 동부시장 상가는 춘천시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이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동부(東部)+시장(市場)’으로 분석된다.



동부시장

## ● 미역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대판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미역골’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미역(미역감다?)+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지명에 쓰이는 ‘미역’은 흔히 ‘미역감다’로 해석하며, 그 뜻은 ‘냇물이나 강물 등에 들어가 봄을 셧거나 놀다’이다. 따라서 약사천 부근에 있는 골짜기로 추정된다.

### ● 삼거리

[별칭] 운교사거리, 운교로터리

[형태] 마을

[위치] 현 운교사거리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길이 세 갈래로 갈라진 마을”, 『조운동지』에 “현 운교사거리를 일컫던 지명이다. 현재는 사거리이지만 예전에는 중앙로 방면, 팔호광장 방면, 봉의초등학교 방면 등 세 개의 길이 만나던 지점이었다. 예전 운교동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데, 교차로명인 운교사거리보다 운교로터리란 지명으로 더 많이 불린다.”라 소개되어 있다. 현재는 효자동 방면으로 가는 길이 추가되어 삼거리보다 발전한 사거리 형태로, 서울·원주방면으로 나가는 중요한 길목이 되었다.

[어원풀이] ‘삼(三)+거리[路]’로 분석된다.

### ● 우시장

[형태] 시장

[위치] 구 육립극장 맞은편 뒷골목

[유래] 『조운동지』에 “운교사거리 북쪽 부근에 우시장이 있어서 생겨난 지명이다. 조선시대에 춘천의 우시장은 신북읍에 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운교동에 새롭게 우시장이 조성되었다. 일제강점기 신문 기사를 통해 1929년 운교동에 우시장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도심이 확장되면서 비교육적이고 비위생적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여 한국전쟁 이후 도심 외곽으로 이전하였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우(牛)+시장(市場)’으로 분석된다.



1930년대 춘천시가도에 표시된 운교동 ‘우시장’과 ‘도수장’  
(소장처 춘천초등학교)

### ● 운교노인복지센터

[별칭] 운교노인복지센터, 운교노인센터, 노인복지센터.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동부시장길13번길 3. 춘천시 운교동 42.

[유래]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이다.

### ● 운교동성당

[별칭] 천주교 춘천교구 운교동성당, 운교성당.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동부시장길13번길 3. 운교동 42.

[유래] 운교동성당은 1965년 설립된 성당으로 한국 순교자를 주보로 모시고 있다. 특히 한국인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유해 일부를 모신 성당이기도 하다. 제대의 난간을 십자가 모양으로 설치하고 성당 문은 두 명의 순교자가 팔을 벌리고 고개를 멀구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였으며 한국 순교 성인 103위의 얼굴이 담긴 현양비를 건립하였다.



## 퇴계동(退溪洞)

**위치와 현황** | 춘천시 남부에 위치한 동으로, 강원도 전체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동이다. 퇴계동은 북동쪽에 공자천이 감돌아 흐르면서 자연 경계를 이루어 효자동·석사동과 마주하고, 서쪽으로 온의동·칠송동과 접경을 이루며, 남쪽에 국사봉이 솟아 있어 신동면과 경계를 이룬다. 중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와 인접하고 내부 호반순환도로와 남춘천역이 소재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역으로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춘천의 새로운 주거, 상업, 교육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주로 아파트 등 주거 시설이 많아 춘천에서 석사동과 함께 인구 또한 많은 지역 중 하나이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남부내(南府內)에 퇴계(退溪)가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남부내면(南府內面)에 퇴계리(退溪里)를 포함시켰다. 『조선지지자료』는 남부내면(南府內面)에 상퇴계리(上退溪里)와 하퇴계리(下退溪里)로 구분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 『강원도지』는 신남면(新南面)에 퇴계리(退溪里)를 포함시켰다. 『수춘지』는 춘천시에 퇴계동(退溪洞)을 포함시켰고, 『춘주지』와 『춘천백년사』도 퇴계동이라 하였다.

**유래** | 곰지내(공지천)가 동북쪽으로 물러가서 흐르게 되었다고 하여 무린개 · 물린개 · 무릉계(武陵溪) 또는 퇴계(退溪)라고 하다가, 위 아래로 나뉘어 상퇴계리(上退溪里) · 하퇴계리(下退溪里)라고 하였다. 조선 중기의 학자 퇴계 이황의 외갓집이 있어서 이황이 이곳에 와서 지냈으므로 퇴계동이라고 한다는 전설이 있으나, 이황의 호 퇴계와 동의 명칭이 같은 데서 생긴 전설이다. 『해동지도』에 무릉계(武陵溪)가 표기되어 있는데 무릉계 · 무린개로 불리다가 이것을 한자어 퇴계동으로 표기하였다. 『조선지지자료』에 따르면 상퇴계리(上退溪里)를 '무릉계'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퇴계동은 옛적에 신선(神仙)이 산다는 무릉계(武陵溪)라 불렸다. 무릉계곡 한편으로 백사장이 있고 그 주변에는 복숭아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꽃이 활짝 피는 봄이면 자욱한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안개 사이로 드러나는 계곡 속의 만발한 도화꽃 밭은 바로 선경(仙境)이요 무릉도원이었다. 이곳에 효자 반희언이 살고 있었는데, 효자동의 유래가 되는 전설의 주인공이다. 퇴계동의 유래와 관련된 또 다른 전설이 전하는데, 반희언의 어머니는 복사꽃을 좋아했다. 효자의 정성으로 완쾌된 어머니와 복숭아나무를 심고 가꾸며 살아가던 중 하루는 홍수로 대룡산의 계곡물과 학곡천의 범람한 물이 복숭아밭으로 밀려왔다. 효자 반희언은 옥황상제님을 부르며 온몸으로 물길을 막아내자 하늘도 효자의 마음을 헤아려 물길을 돌렸다. 계곡의 하천이 방향을 돌려 물려갔다 하여 물러갈 퇴(退), 시내 계(溪) 자를 써서 퇴계동이란 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전설이다.

###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별칭] 강원지방중소면허기업청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안마산로 262, 퇴계동 856-10

[유래] 강원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공지교(孔之橋)

[형태] 교통

[위치] 춘천경찰서와 KBS춘천방송국 사이, 공지천 위에 놓인 다리이다.

[유래] 춘천경찰서와 KBS춘천방송국 사이 공지천 위에 설치된 다리이다. 1980년 개통된 경춘국도의 도심 진입 교량으로 건설되었다.



공지교

### ● 공동묘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퇴계동 안화산 주변과 정족리 주변은 공동묘지가 되어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정족리에는 현재도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묘지와 납골당이 조성되어 있다.

[어원풀이] ‘공동(共同)+묘지(墓地)+골[谷]’로 분석된다.

### ● 궁꼴

[별칭] 궁꼴, 권꼴, 권꼴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안화산(안마산, 303m)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궁/권/궁[窮僻-]+ㅅ+골[谷]’로 분석된다. ‘궁’은 ‘매우 후미지고 으슥하다’를 뜻하는 ‘궁벽(窮僻)하다’란 의미이다. ‘권골’은 ‘궁골’에 사이시옷이 개재된 발음에 따른 변이형이고, ‘권골’은 한자음에 가깝게 변이된 결과이다.

### ● 긴재(長峴)

[별칭] 긴지>긴재, 장현(長峴).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퇴계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長峴(긴지)’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긴[長]+지>재[峴]’로 분석된다.



남춘천역

### ● 날근집터골(舊塈谷)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퇴계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舊塈谷(날근집터골)’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날근[舊]+집[家]+터[塈]+골[谷]’로 분석된다. 옛 가옥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 남춘천역

[형태] 교통

[위치] 춘천시 영서로 2260, 퇴계동 633-2

[유래] 수도권 전철 경춘선의 역 가운데 하나이다. 1939년 ‘성산역’이라는 이름의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뒤 1940년 4월에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하였다. 경춘선 복선화 공사가 시작되면서 춘천 역을 대신하여 5년간 경춘선의 시종착역을 맡기도 했다. 2010년 현재의 위치로 역사가 이전되었다. 부역명은 ‘강원대역’이다.

### ● 대룡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퇴계동 1037



대룡공원

퇴계동

### ● 대추나무거리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퇴계리’ 소재 주막 이름으로 ‘棗木巨里酒幕(디초나무거리쥬막)’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디초/대초/대추[棗]+나무[木]+거리[路]+쥬막(酒幕)’으로 분석된다. ‘거리’를 ‘巨

里’로 표기한 것은 음차자(音借字)이다.

### ● 명녕궁보

[형태] 수리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퇴계동에 있는 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명녕(?)+궁/구멍[穴]+보(涙)’로 분석할 수 있다. ‘궁’의 ‘구멍’의 방언이고, ‘명녕’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 뜻축개

[형태] 저수지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퇴계리’ 소재 못 이름 [池名]으로 ‘防旱池(못축개)’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못[연못]+축/죽[방죽]+계/개[池]’로 분석된다. 한자지명 ‘防旱池’는 가뭄을 대비하여 ‘연못에 제방(방죽)을 쌓았다’는 의미이다.

### ● 무릉2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퇴계동 984

### ● 무릉계(武陵溪)

[별칭] 무리개, 무린개, 퇴계천(退溪川)

[형태] 마을

[위치] 퇴계동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퇴계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上退溪里(무릉계)’가 등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무릉계가 퇴계동으로 변했다.”, 『우리의 소슬뫼를 찾아서』에 “퇴계천은 처음 마을 앞까지 냇물이 들어와 있었는데, 어느 때 둑을 막아 그

냇물을 동북쪽으로 밀어냈다 하여 <물린개>라 하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무리개> <무릉계(武陵溪)>로 변하고 현재에 이르러 퇴계리(退溪里)로 정착되었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무릉(武陵)+계(溪)’로 분석되고, 고유지명 ‘무린개’는 ‘무리/무린/물린[退]-개[溪]’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의 강, 하천은 대부분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그런데 이곳의 하천[퇴계천]은 ‘거꾸로(뒤로 물려나서)’ 남쪽(정족리)에서 북쪽(공자천)으로 흐른다. ‘거꾸로(뒤로 물려나서)’ 흐르는 개천이란 의미로 ‘물린개’로 불렸다. ‘무릉계(武陵溪)’는 ‘물린개’의 ‘물린’의 변이형 ‘무린/무른/무릉’을 상정하고, 다시 ‘무릉’도원(武陵桃源)에 빗대어 발췌한 한자 표기이다. ‘물린개’의 훈차 표기 ‘退溪’에서 ‘퇴계동(退溪洞)’이 되었다.

### ● 무릉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퇴계동 990



무릉공원

### ● 문앞보

[형태] 수리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퇴계동 앞에 있는 보. 문앞의 가까운 곳에 있는 보(洑)라고 해서 문앞보

라는 이름이 생겼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문(門)+앞[前]+보(深)’로 분석된다. 대문 앞에 있는 보란 의미이다.

### ● 밤작골(栗作谷)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퇴계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栗作谷(밤작골)’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밤(栗)+작[作]+골[谷]’ 또는 ‘밤(栗)+작[柏]+골[谷]’로 분석할 수 있다. 밤나무를 심은 골짜기 또는 밤나무와 잣나무가 많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 ● 백석동(白石洞)

[별칭] 백석뜰, 백석평, 한두루골.

[형태] 골짜기

[위치] 국사봉 입구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퇴계리’ 소재 들판 이름으로 ‘白石坪(백석뜰)’이 등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큰 돌이 있는 골이라는 뜻이다. 동사무소 뒤편 국사봉 골짜기 산 중턱에 하얀 바위가 100층을 이루고 있으므로 백석동이라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흰 차돌의 층이 얇아졌으며 1939년 큰 비로 물리앉았다고 한다. 지금도 흰 차돌이 많이 나온다. 백석동이 ‘한두루골’로 변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백(白)+석(石)+동(洞)’으로 분석된다. 흰 돌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 뱀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국사봉 밑에 있던 바위”,

『춘천의 지명유래』에 “대룡산과 전병산을 타고 내려온 범이 밤에 나타났다고 한다. 소양로1가 봉의 산의 범바우골과 비슷한 지명유래를 가졌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뱀/범[虎]+바우[岩]’로 분석된다. ‘범바우’가 ‘뱀바우/뱀바우’로 변이되었다.

### ● 뱀장등이

[형태] 산

[위치] 남부초등학교 좌우 일대의 굽은 긴 능선길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뱀 등같이 생긴 등성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뱀[蛇]+장등이/잔등이’로 분석된다. ‘잔등이’는 ‘고개’의 방언이며, ‘등’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잔등이’는 ‘장등이/장둥이’로 변이 되기도 한다.

### ● 범바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뱀바우(범바우)가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뱀[虎]+바우[岩]+ㅅ+골[谷]’로 분석된다. ‘범바위’는 ‘뱀바우’ 참조.

### ● 보아귀

[형태] 수리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문앞보의 어귀가 되는 개. 봇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어귀”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보(深)+이귀/어귀’로 분석된다. ‘어귀’는 ‘나드는 목[項]의 젖머리’이다.

### ● 삼포짓보

[별칭] 삼포짓보

[형태] 수리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삼[麻] 푸지(푸새)하는 곳의 보(洑). 삼밭에 삼을 심어 베찌는 원료를 생산해내고 풀을 꺾어 거름을 장만하던 작업장이 있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삼[麻]+포지/푸지(푸새)+ㅅ+보(洑)’로 분석된다. 삼[麻]밭을 가꾸기 위해 푸지(푸새)하는 곳의 보(洑)였다.

山)이고 남춘천역의 처음 이름도 성산역(星山驛)이었다.

[어원풀이] ‘성(星)+미/뫼[山]’로 분석되며, ‘성미’는 지금 ‘성산(星山)’이다. ‘성미’의 ‘성(星)’은 남춘천초등학교 인근에 ‘성지못(星池연못)’이 있어 그 근거가 되었다.

### ● 소금텃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성미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소금[鹽]+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의미는 불분명하다.

### ● 상동골

[별칭] 상동곡(尙洞谷)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퇴계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尙洞谷(상동골)’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상(上)+동(洞)+골[谷]’로 분석된다. ‘윗동네 골짜기’란 의미이다. ‘尚’은 음차자이다.

### ● 스무숲2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퇴계동 1022

### ● 앵두나무배미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앵두나무가 서 있던 논. 옛날의 지명은 바위, 나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앵두나무배미는 앵두나무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앵두나무[櫻]+배미’로 분석된다. 지명 접미사 ‘-배미’는 ‘논배미’에서 온 것으로 주로 ‘논[畠]’의 의미를 띠며 지명 접미사화한 것이다. 앵두나무가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 성미

[별칭] 성미골, 성산(星山)

[형태] 마을

[위치] 남춘천역과 남춘천초등학교 사이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퇴계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下退溪里(성미)’가 등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안화산에 있는 마을. 남춘천역에서 남춘천초등학교 어간이 되는 지역”이라 소개되어 있다. 남춘천초등학교와 인접한 산이 성산(星

### ● 연못골짜기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퇴계동에 있는 연못의 보통명사를 그대로 사용해서 연못골짜기가 되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연못[淵]+골짜기[谷]’로 분석된다. 특정 연못의 이름이 생략된 채(‘00연못’) 보통명사인 ‘연못’만을 그대로 사용한 지명이다.



우목들2공원

### ● 영월지(暎月池)

[별칭] 영월지(迎月池)

[형태] 연못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퇴계리’ 소재 연못 이름으로 ‘暎月池(영월지)’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영월(暎月)+지(池)’로 분석할 수 있다. 달이 비치는 연못이란 의미이다. 달맞이하는 건물을 영월대(迎月臺)라 하는 것처럼, ‘暎月池’보다는 ‘迎月池’로 표기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暎’은 일본식 한자표기일 수 있다.

### ● 우목들1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퇴계동 1157

[어원풀이] 우목(우목하다)+들(坪)+1+공원(公園)

### ● 우목들2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퇴계동 1154

[어원풀이] 우목(우목하다)+들(坪)+2+공원(公園)

### ● 우못들

[별칭] 우목들, 유못들

[형태] 들

[위치] 남춘천역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하퇴계리’ 소재 들판 이름으로 ‘柳茂坪(류무뜰)’과 보(洑) 이름으로 ‘柳茂坪洑(류무평보)’가 등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퇴계동에 있는 들. 지형이 우목하다 해서 우못들, 우목들이라 했다. 유못들이라 하기도 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우목(우목하다)+ㅅ+들[坪]’로 분석된다. 지형이 우목한 곳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 우미나리

[별칭] 우미곡(尤美谷)

[형태] 골짜기

[위치] 안마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퇴계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尤美谷(우미나리)’가 등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안화산에 있는 골짜기. 안화산은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골짜기를 만들고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우[上]+미나리[水芹菜]’로 분석된다.

남부초등학교 오른편에 예전에 ‘미나리골’이 있어, 현재 도로지명으로 ‘미나리길’로 명명되었다. ‘미나리골’ 위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별칭 우미곡(优美谷)의 ‘优美’는 음차자(音借字)이다.

### ● 이삭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뱀장등이 밑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이삭+골[谷]’로 분석된다. ‘이삭’은 벼, 보리 따위 곡식에서 꽂이 피고 꽂대의 끝에 열매가 더부룩하게 많이 열리는 부분을 말하며, ‘조이삭(‘조’의 이삭)’의 강원 방언이기도 하다.

### ● 장사나무

[형태] 나무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퇴계동에 서 있는 큰 느릅나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장사나무’는 위의 [유래]에 따르면 ‘장사(壯士, 큰)+나무(느릅나무)’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장사나무’는 식물도감에 개재되지 않는 나무이다. ‘큰 느릅나무’가 마치 장사(壯士)처럼 마을 수호목(守護木)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 ● 제당물

[형태] 샘물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퇴계동 산제당이 있었고 산제당에 샘물이 있었다. 이 샘물을 제당물이라고 불렀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제당(山-祭堂)+물[泉]’로 분석된다.

### ● 종방들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종방(鍾鋤)이 있는 들”로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종방(鍾鋤)+들[坪]’로 분석된다. 종방(鍾鋤)은 쇠북과 쇠솥이다. 종방(鍾鋤)이 있는 들이란 의미로, 절이나 암자가 있던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 ● 중두루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퇴계동 앞에 있는 들 중두릇보가 있을 정도로 퇴계동 농사에 중요한 들이었다. 중두루에 딸린 보를 호줏보라 한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중(中)+두루/들[坪]’로 분석된다. 중심이 되는 곳에 위치한 들판이란 의미이다.

### ● 지석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퇴계동 997

[유래] 옛 지명인 지석리(支石里)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 ● 철길따라공원

[별칭] 철길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퇴계동 981



철길따라공원

### ● 춘천시보훈회관

[별칭] 보훈회관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퇴계로69번길 13. 퇴계동 1145-2

[유래] 춘천시민의 보훈 가족, 국가유공자들이 이용하는 곳이다.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참전유공자회, 건국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등 10여 개의 단위 보훈단체 강원도지부가 입주해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 및 독립 유공 애국지사의 유지를 계승하고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위해 각 단체별로 노력하고 있다.

### ● 춘천중앙교회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영서로2151번길 30. 퇴계동 202

[유래] 1898년 퇴계동에 설립된 개신교 교회로 미국 남감리교 강원도 선교의 중심 거점 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1902년 봉의동, 1908년 조양동, 1925년 요선동으로 옮겼다. 한국전쟁으로 건물이 소실되자 1955년 옥천동 남 선교부 병원 건물(현

제 춘천미술관)을 인수하여 교회를 재건했다. 2001년 퇴계동에 현 교회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춘천중앙교회사』 참조)

### ● 충훈근린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퇴계동 877, 남춘천역과 남춘천 초등학교 사이인 성산 위에 있다.

[유래] 6.25 당시 조국을 위하여 몸 바친 호국영령 1,287위의 위패를 모시고 충훈을 기리는 탑을 세우면서 그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충훈근린공원

### ● 충훈탑

[형태] 탑

[위치] 춘천시 퇴계동 산 60-1. 성산 충훈근린공원 안에 있다.

[유래] 6.25 당시 조국을 위하여 몸 바친 호국영령 1,287위의 위패를 모시고 충훈을 기리는 탑이다.

[어원풀이] 충훈(忠魂)+탑(塔)



충혼탑

[위치] 춘천시 퇴계동 1044



퇴계동어린이공원

### ● 퇴계교

[별칭] 무릉교

[형태] 교통

[위치] 퇴계천이 공자천으로 합류하는 곳 바로 전에 놓인 4차선 다리이다. 도심교통량 분산을 위해 2006년 건설되었다.



퇴계교

### ● 퇴계농공단지

[형태] 건물

[위치] 안마산 서쪽

[유래] 안마산 서쪽 산자락을 개간하여 1991년 준공되었고 산쪽으로 퇴계제2농공단지가 들어섰다.

### ● 퇴계동어린이공원

[형태] 공원

### ● 평장들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상퇴계리’ 소재 들판 이름으로 ‘平章坪(평장뜰)’과 보(洑) 이름으로 ‘平章坪洑(평장평보)’가 등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중두루 위쪽에 있는 들”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평장(平章)+들[坪]’로 분석할 수 있다. 평장(平章)은 한자풀이로는 ‘공평하게 구별함’의 뜻을 가진다. 지명유래는 불분명하다.

### ● 한두루골

[별칭] 백석동(백석(白石洞)

[형태] 골짜기

[유래] 큰 골짜기가 있는 들. 백석동이라 부르기도 한다.

[어원풀이] ‘한두루골’은 ‘한(大)+두루/들(坪)+골(谷)’로 분석된다.

### ● 한들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퇴계동 1056

[어원풀이] 한[大]+들[坪]+공원(公園)

### ● 호줏보

[형태] 수리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중두루에 떨린 보(洑)”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호주(?)+ㅅ+보(渙)’로 분석된다. 호주의 의미로 ‘戶主’를 상정할 수 있다.

### ● 효자교

[형태] 교통

[위치] 효자동과 퇴계동을 오가는 공지천에 놓인 다리이다. 도심교통량 분산을 위해 2001년 건설 되었다.



효자교

### ● 황새배미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황새처럼 생긴 논”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황새+배미’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배미’는 ‘논배미’에서 온 것으로 주로 ‘논[畠]’의 의미를 띠며 지명 접미사화한 것이다. 황새가 서식하는 논이란 의미로 보인다.

### ● 황새보

[형태] 수리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황새배미에 떨린 보(洑)”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황새+보(渙)’로 분석된다.

### ● CGV춘천

[별칭] CGV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지석로 80. 퇴계동 1017 투탑시티 3 층

[유래] CJ그룹 계열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체인으로, 강원도 내 최대 규모의 영화관이다.



## 효자동(孝子洞)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춘천시 동남쪽 지역으로 팔호광장을 중심으로 한 춘천 부도심권에 인접하여 북쪽으로 교동·조운동·후평동, 남쪽으로 공지천을 사이에 두고 퇴계동·온의동, 서쪽으로 약사동·죽림동, 동쪽으로 석사동에 이어져 있으며, 춘천시 시가지의 남부 중심권을 이룬다. 춘천 문화예술회관·춘천지방법원·강원대학교 등이 소재한다.

효자동은 1608년(선조 41) 반희언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효자정문’을 세워 ‘효자문거리’가 되었는데 이것이 동명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조선지지자료』에 ‘효자문가리(孝子門街里)’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글로는 ‘효지문거리’로 기록되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약사리에 편입되었다가 1946년 효자동이 되었다.

**유래** | 효자동은 효자1동에 효자 반희언(潘希彦)을 기리는 효자문이 있었던 것이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어 근심에 빠져있는 반희언에게 어느 날 산신령이

나타나 “대룡산에 가면 시체 세 구가 있는데 그 중 가운데 머리를 가져와 고아 드리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산신령의 말대로 했더니 거짓말처럼 어머니의 병이 나았는데, 알고 보니 시체의 머리는 산삼이었다. 이러한 반희언의 효행이 널리 퍼져 효자문이 세워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효자문은 터만 남고, 2015년 11월 이곳에 다시 효자문을 건립했다.

효자 반희언(潘希彦)의 효행(孝行)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졌으나 문헌 자료에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해져 내려오면서 화소가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 효자1동(孝子一洞)

**위치와 현황** | 효자1동은 춘천문화예술회관, 축제극장 몸짓, 담작은도서관, 낭만골목 등 춘천의 낭만과 문화·예술이 담겨있는 지역이다. 춘천문화예술회관의 경우 각종 전시회, 공연을 도맡아 하고, ‘축제극장 몸짓’ 역시 공연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소공연 전문공간이다. 낭만골목에는 벽화가 펼쳐져 있고, 옛날 맛 그대로를 맛볼 수 있는 막국수 식당도 자리매김하고 있다. 벽화를 따라가다 보면 지역 주민들만을 위한 담작은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연혁** | 『조선지지자료』에 부내면(府內面) 소재 효자문가리(孝子門街里)가 등장하고, 1939년 수정(壽町)이라는 왜식 동명을 사용하였다. 『수춘지』에 효자동1구(孝子洞一區), 효자동2구(孝子洞二區), 효자동3구(孝子洞三區)로 구분하였고, 1970년 7월 1일 시조례 제365호에 의거 효자1구, 효자2구, 효자3구로 나뉘었고, 1974년 1월 1일부터 시조례 제621호에 의해 현재의 효자1동 이름을 갖게 되었다.

## 효자2동(孝子二洞)

**위치와 현황** | 효자2동은 강원대학교와 춘천지방법원과 검찰청, 천주교 교구청과 청소년수련관이 소재하고 있어 교육과 사법, 종교적 위상을 빼놓을 수 없다. 강원대 중앙박물관에는 선사시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상시 공개함으로써 학생과 일반인들의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더하여 춘천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을 위한 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효자2동에는 원룸들이 밀집해 원룸촌을 이루고 있다.

**연혁** | 1974년 1월 1일부터 시조례 제621호에 의해 현재의 효자2동 이름을 갖게 되었다.

## 효자3동(孝子三洞)

**위치와 현황** | 효자3동에는 대표적으로 강원대병원과 5개의 큰 도로가 교차하는 팔호광장이 있다. 효자3동은 강대후문 상권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연혁** | 1974년 1월 1일부터 시조례 제621호에 의해 현재의 효자3동 이름을 갖게 되었다.

## ● 강원대학교

[별칭] 강원대. 강대

[형태] 학교

[위치]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춘천시 효자동 192-1

[유래] 1947년 강원지방의 농업교육 진흥과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도립 춘천농업대학으로 설립되었다. 1952년 춘천농과대학으로 개칭하였으며, 1953년 국립으로 이관, 1968년 대학원을 신설하였다. 1969년 교명을 강원대학으로 변경하고, 1978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97년 의과대학을 신설하였다.

[어원풀이] ‘강원(江原)+대학교(大學校)’로 분석된다.

## ● 강원대학교병원

[별칭] 강대병원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백령로 156. 춘천시 효자동 17-1

[유래] 교육·연구·진료를 통한 의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기존 춘천의료원을 인수하여 2000년 5월 18일 설립되었다. 개원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도내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 ● 강원도재향군인회

[별칭] 강원재향군인회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춘천로 249(효자동 756-6) 향군회관 내

[유래] 예비역, 보충역 혹은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마친 퇴역 육·해·공군 출신자들의 친목단체인 재향군인회의 강원도지회이다.

## ● 강원인재개발원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춘천로 209. 춘천시 효자동 640-8

[유래] 취업을 원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설, 미용, 바리스타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직업기술학원이다. 공공기관인 강원도인재개발원과는 관련이 없다.

## ● 강원지방병무청

[별칭] 춘천병무청. 강원병무청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백령로 15. 춘천시 효자동 349-2

[유래] 강원도 영서지역 병역지원의 획득 관리 및 병역의무자의 징집·소집, 전시 병력동원 등 병무 행정을 총괄하는 병무청 소속기관이다. 1949년 육군본부 예하 강원지구 병사구사령부로 발족했다. 1962년 국방부 예속 강원도병무청이 설치되었고, 1970년 병무청 소속 강원도지방병무청이 창설되었다. 1981년 춘천지방병무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98년 다시 강원지방병무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강원지방병무청

## ● 강원향군회관

[별칭] 향군회관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춘천로 249. 춘천시 효자동 756-6

**[유래]** 강원도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강원도 재향군인들의 모임 장소이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설립 목적은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회원의 권익 향상,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강원향군회관

### ● 과수원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과수원이 있는 골짜기. 효자동에는 이 골짜기 저 골짜기 과수원이 많았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과수원(果樹園)+골[谷]’로 분석된다. 과수원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 과학꿈나무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효자동 775



과학꿈나무공원

### ● 꿈마루춘천시청소년수련관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효자동 775

**[유래]** 구 과학관 부지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춘천시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심리, 적성, 진로 등을 상담해주는 기관이다.

### ● 남춘천교

**[형태]** 교통

**[위치]** 춘천지방법원과 퇴계동을 오가는 공지천에 놓인 다리이다. 1991년 수해로 파손되어 1992년 재건설하였다.



꿈마루춘천시청소년수련관

### ● 대추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대추나무가 있는 골짜기. 춘천지방은 비교적 대추나무가 잘 자라고 대추도 잘 열린다. 지금은 집집마다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대추나무[棗]+골[谷]’로 분석된다.

### ● 두하리

[별칭] 도와리(陶瓦里), 도화리(桃花里), 도화골, 두하리(科下里), 두아리

[형태] 마을

[위치] 팔호광장에서 강원대 후문 방향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대판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桃花谷(도화리골)’이 표기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지도와 문헌을 통해 볼 때 ‘대판리’의 범위는 현 조양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팔호광장에서 강원대 후문까지를 모두 아우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지명총람』에 “효자동에 있는 마을. 지형이 또 아리처럼 생기었다 함”, 『춘천의 지명유래』에 “옛 날에 도자기를 굽던 마을. 옹기굽던 마을. 복숭아꽃이 피는 마을. 효자동에 있는 마을. 지형이 또 아리처럼 생겼다. 도와리, 도화리, 두아리 등의 이름이 변하면서 두하리가 되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도와/두아/두하/도화(桃花)+리(里)’로 분석된다. ‘도와(陶瓦)’는 변이된 훈차지명이고, ‘두하(科下)’는 변이된 음차표기이고, ‘두아’는 ‘두하(科下)’에서 ‘하’의 목음(默音)된 표기이다. 음운론상에서는 ‘도화리’에서 ‘도아리/또아리/두하리/두아리’로의 변이가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도화’의 유성음화(또는 ㅎ목음화) [도아]는 가능하나, ‘도아’가 ‘도하’로 ‘ㅎ’이 첨가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복숭

아밭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체적으로 약간 우뚝한 곳에 있는 마을의 모양이 마치 ‘똬리’와 비슷하여 생겨난 지명으로 보기도 한다.

### ● 둘째서낭

[형태] 민속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효자동에 있던 둘째서낭”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둘째(두 번째)+서낭[서낭당]’으로 분석된다.

### ● 말무덤

[별칭] 고총(古塚)

[형태] 유적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효자동에 있던 큰 무덤. 큰 무덤은 흔히 고총이었는데 이 고총에 말무덤이라는 이름이 후세에 붙은 것이 보통이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말[大]+무덤[墓, 古塚]’으로 분석된다. 큰 무덤이란 뜻이다.

### ● 매봉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매로 사냥하던 곳. 효자동 언덕에서 매를 훈련하고 매로 사냥하였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매[鷹]+봉(峰)’으로 분석된다.

## ● 면산(面山)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면 소유의 산. 부내면 소유의 산이었으므로 공공의 재산이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면(面)+산(山)’으로 분석된다.

## ● 무줏골

[별칭] 무짓골, 무릇골, 두짓골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효자동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무주(?)/무지+ㅅ+골[谷]’로 분석된다. ‘두짓골’과 ‘무릇골’은 변이형이라기보다는 사뭇 다른 지명로 보이지만, 예전 문현에 별칭으로 기록되었다. ‘돌무지’가 있는 골짜기, 또는 물이 풍부한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 미역골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대판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미역골’이 표기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는 ‘미역골’이 ‘효자동에 있는 마을’이라고 소개되어 있고, ‘미역골에 있는 작은 동네’를 ‘작은 미역골’, ‘미역골에 있는 큰 동네’를 ‘큰 미역골’로 부른다고 함께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미역(미역감다)+골[谷]’로 분석된다. ‘미역’은 흔히 ‘미역감다’로 해석한다. 약사천 주변 골짜기로 추정된다. 이외에 ‘미륵골’이 ‘미역골’, ‘미려골’로 불리다 ‘미역골’로 와전되어 쓰이는 경우

도 있기에 절이나 암자가 있던 골짜기란 의미도 가능하다.

## ● 바우물

[별칭] 바우물이, 밤물, 밤풀이

[형태] 샘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바위틈에서 물이 나오던 우물. 물이 많고 양이 많아서 그 밑에는 빨래터가 있었다. 바우물이 있는 마을을 바우물이, 밤풀이라고 불렸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바우/밤/바위[岩]+풀/우물[泉, 井]’으로 분석된다.

## ● 바우물이

[별칭] 밤풀이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바우물이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바우/밤/바위[岩]+풀/우물[泉, 井]+이(파생접미사)’로 분석된다. ‘바우풀’의 변이형이다.

## ● 뱜굴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효자동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도 뱜처럼 굽이굽이 돌아 들어갔지만 실제로 뱜이 많았다. 뱜의 소굴, 뱜굴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뱀[蛇]+굴[窟]/골[谷]’로 분석된다. 뱜이 많은 골짜기, 또는 뱜처럼 구불구불한 골짜기란 의미이다.

## ● 불당골

[별칭] 불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효자동에 있는 골짜기. 불당(佛堂)이 있었다. 불당이 언덕에 있어 골짜기로 들어가 불당에 오르게 되어 있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불당(佛堂)+굴/골[谷]’로 분석된다. 불당(절, 암자)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 새마을

[형태] 마을

[위치] 효자문교차로와 효제길 주변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효자문거리 위에 새로 생긴 마을. 새로 생겼다 해서 새마을이라 불렸다. 약사동에 소속되었다가 효자동으로 편입되어 효자동 새마을이 되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새[新]+마을[村, 洞]’로 분석된다.

## ● 약사천수변공원

[별칭] 약사천공원. 약사수변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효자동 678-6. 약사천을 끼고 있다.



약사천수변공원

## ● 오동나무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효자동 617-1

[어원풀이] 오동나무(梧)+공원(公園)



오동나무공원

## ● 왕덕개산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대판리’ 소재 고개 이름으로 ‘德峴(덕고기)’이 등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효자동에 있는 산. 효자동은 산이 이어지고 골짜기가 또한 이어져 있어서 산마을을 형성했다. 왕덕개도 그 하나였다.”라 소개되어 있다. 강원대학교와 효자2동 부근에 얼마간 예전 산줄기의 모습이 남아있으나 계속되는 도시 개발로 크고 작은 구릉이 모두 사라졌다. 대판리 소재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강원대학교 병원 맞은편 언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왕(王)+덕[언덕, 둔덕]+기>개[고개]+산[山]’으로 분석된다. 고유어 ‘덕’은 ‘언덕/둔덕’에 남아 있으며, ‘기’은 ‘높고 큰 언덕’으로 전의(轉義)되어 쓰인다. ‘덕고개(德峴)’에서 德은 음차자(音借字)이다. ‘왕덕고개’는 ‘덕고개’를 높여 불렀다.



지성공원

### ● 작은미역골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미역골의 작은 마을을 작은미역골이라 불렀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작은[小]+미역(?)+골[谷]’로 분석된다. ‘미역’의 의미는 ‘미역골’ 참조.

이. 긴 등성이라는 뜻이다. 우리 고장의 사투리로 ‘길다’의 ‘긴-’을 ‘진’으로 발음한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진/긴[長]+등[등성이]’로 분석된다. 길게 뻗은 등성이란 의미이다. ‘진고개’라 불리는 지명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 ● 지성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효자동 175-40

### ● 진고개

[형태] 고개

[위치] 도화골사거리에서 강원대 정문으로 가는 고개

[유래] 고개가 길어서 생겨난 지명이다.

[어원풀이] ‘진/긴[長]+고개’로 분석된다.

### ● 진서리

[별칭] 진고개

[형태] 등성

[위치] 도화골 사거리에서 일명 강대쪽문 방향으로 봄내중학교로 이어지는 등성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산의 능선을 따라서 난, 20리나 되는 긴 길”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진/긴[長]+서리[사이, 間?]’로 분석할 수 있다. ‘서리’는 ‘사이[間]’의 고어이다.

### ● 진등

[형태] 산

[위치] 강대후문에서 팔호광장 방향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두하리에 있던 등성

### ● 천주교춘천교구청

[별칭] 천주교춘천교구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공지로 300, 효자동 400

[유래] 강원도의 북부 지역과 평창군, 동해시의 일부(북부) 지역[4], 경기도의 포천시·가평군을 관장

하는 가톨릭 자치교구이다. 1939년 경성대목구(현 서울대교구)에서 강원도 지역을 관할하는 지목구로 분리 설정되었다. 1955년 대목구로, 1962년 정식 교구로 승격되었다. 초대 교구장은 구 토마스 주교이다.



천주교 춘천교구청

### ● 천주교 효자동 성당

[별칭] 효자동 성당, 효자 성당, 효자동 천주교회.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공지로 310, 춘천시 효자2동 401번지

[유래] 춘천교구 소속의 천주교회이다. 1969년 죽림동 본당에서 분리하여 설립되었다. 초대 주임으로 해리스 테릭 신부가 부임하였다.

### ● 춘천지방검찰청

[별칭] 춘천검찰청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공지로 284(효자2동 356), 춘천지방법원과 나란히 있다.

[유래] 강원 춘천시·화천군·양구군·인제군·홍천군을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이다. 1948년 춘천시 죽림동에서 개청하였다가 1973년에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 ● 춘천지방법원

[별칭] 춘천법원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공지로 284(효자2동 356), 춘천지방검찰청과 나란히 양편에 있다.

[유래] 철원군을 제외한 강원도 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춘천에 위치한 본원과 강릉, 영월, 속초, 원주의 4개 지원과 12개의 시군법원 및 등기소로 구성되어 있다.

### ● 첫서낭

[형태] 민속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첫 번째 서낭. 효자동에는 불당이 있었고 서낭이 있었으므로 민간신앙처가 되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첫[初, 첫 번째]+서낭[서낭당]’으로 분석된다.

### ● 콩죽배미

[형태] 들

[위치] 법원 앞쪽 공지천 부근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효자2동에 있는 논. 옛날에 콩죽과 이 논을 바꾸었다. 콩죽과 바꾼 논이라 해서 콩죽배미라 불렀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콩죽+배미’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배미’는 ‘논배미’에서 온 것으로 주로 ‘논[畠]’의 의미를 띠며 지명 접미사화한 것이다.

### ● 큰미역골

[별칭] 미역골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미역골의 큰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큰[大]+미역+골[谷]’로 분석된다. ‘미역’의 의미는 ‘미역골’ 참조.

### ● 투구봉

[형태] 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공동묘지 들머리에 있는 산. 투구처럼 생겼음”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투구+봉(峰)’으로 분석된다. ‘투구’는 예전에 군인이 전투할 때에 적의 화살이나 칼날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쓰던 쇠로 만든 모자이다.

### ● 춘천경찰서(春川警察署)

[별칭] 경찰서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춘천로 61(효자동)

[유래] 강원도경찰청이 관할하는 경찰서 중 하나이다.

[어원풀이] 춘천(春川)+경찰(警察)+서(署)

[유래담] 1945년 춘천경찰서가 개소하였다. 1981년 춘천시 효자1동에 청사를 신축하였고, 2006년에 현 청사를 신축하였다.



춘천경찰서

### ● 춘천남부시장종합상가-남부종합시장

[별칭] 춘천남부종합시장. 남부종합시장.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공지로 367. 춘천시 효자동 684-11

[유래] 1970년대 가건물 노점 형태로 자연스레 형성된 전통시장인데, 1982년 건물을 신축하여 종합시장으로 새롭게 개설된 상가 건물형의 시장이다.



춘천남부시장종합상가-남부종합시장

### ● 한사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음풍영월(吟風詠月)로 소일거리하는 한가한 선비가 살았던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한(閑)+사(士)+골[谷]’로 분석된다. 정확한 의미는 불분명하다.

### ● 효자상

[형태] 고적

[위치] 춘천시 효자동 471-15

[유래] 효자 반희언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효자동에 세운 정문이 효자문이다. 지금은 효자문을 흥살문으로 재건하고 효자상을 세웠다. 그 일대는 효자

반씨 일생 등 효와 마을 설화를 주제로 한 작품과 어린이에게 인기있는 날개벽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으로 벽화를 꾸미고 ‘효자마을 낭만골목’으로 조성했다.

[어원풀이] ‘효자(孝子)+상(像)’으로 분석된다.

[유래담] 1554년에 출생한 반희언이 어머님의 병 간호를 극진히 하던 중, 산신령이 나타나 대룡산에서 가면 시체 3구가 있는데 그 중 가운데 목을 가져와 고와 드리면 어머님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에 산신령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어머님의 병환이 나았다. 바로 산삼이었다. 어머니가 94세 된 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구해드렸다. 95세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다시 3년 동안 묘각에서 시묘살이를 했다. 1608년 선조 41년에 표창을 받고, 지방 유림들이 효자문을 세워 그 후부터 춘천 효자동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효자상

### ● 효자문거리

[별칭] 효자마을 낭만골목

[형태] 마을

[위치] 춘천시 효자동 471-15.

[유래] 효자문과 효자상이 있는 마을을 말한다. 효자 반씨 일생 등, 효와 마을 설화를 주제로 한 작품과 어린이에게 인기있는 날개벽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으로 총 1.2km 구간에 벽화 거리를 조성했다.

[어원풀이] ‘효자(孝子)+문(門)+거리[路]’로 분석 된다.



## 후평동(後坪洞)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춘천시의 동쪽에 위치한 동이다. 강원도민일보·하이테크벤처타운 등이 있다. 본래 춘천군 부내면(府內面) 지역이었다. 『호구총수』에 의하면 부내면은 아문리·허문리·요선당리·사창리·후평리·대판리·약사원리 등 12개 리로 편성되어 있다. 여기서의 후평리(後坪里) 지역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보안리(保安里)를 통합하여 후평리라고 하였다. 『해동지도』에 보안역이 표시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이 역은 관문에서 동쪽으로 5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되어 있다. 보안리는 보안역에서 유래하였다. 보안역·보안마을이 변하여 부안마을이 되었다. 부안초등학교를 설립할 때 한자를 잘못 표기하여 부안(扶安)이 되었다. 지금은 ‘보안’보다는 ‘부안’이라는 이름이 일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1939년 일본식 이름으로 일출정(日出町)이라 하였으나 1946년 다시 후평동(後坪洞)으로 고쳤다. 『조선지지자료』에 후평리는 ‘뒤뚜루’로 기록되어 있는데, 후평천이 형성한 봉의산 뒤쪽 들이라는 뜻이다.

## 후평1동(後坪一洞)

**위치와 현황** | 후평동은 봉의산 뒤쪽이 되고, 또 읍내에서 뒤쪽이 되므로 뒷두루, 뒷뜰, 후평(後坪)이라고 불렸다.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보안리(保安里)를 병합하여 후평리가 되었다. 1986년 1월에 후평2동이 후평1동에서 분리되었고, 1994년 8월에 후평3동이 후평2동에서 분리되어 지금에 이른다. 후평1동은 소양강과 봉의산을 접하고 있으며, 뒷뜰, 동광, 우사리, 몰개울 등 자연부락이 형성된 주거 및 상가 밀집지역이다. 한림대학교 동쪽 일대부터 하이테크벤처타운, 바이오 벤처프라자, 일반산업단지 등이 입지한 산업시설 중심지이다.

**연혁** | 『여지도서』에서는 보안리(保安里)로 등장한다. 『호구총수』, 『춘천읍지』는 보안리(保安里)와 함께 후평리(後坪里)가 등장한다. 다시 『춘천부지』, 『관동읍지』에는 보안리(保安里)만 보인다. 『조선지지자료』는 보안리(保安里)와 후평리(後坪里), 『강원도지지조서』와 『강원도지』는 후평리만 보인다. 1939년 일출정(日出町)이란 일본식 이름으로 바뀌었다가 『수춘지』는 후평동1구(後坪洞一區), 후평동2구(後坪洞二區)로 나뉜다. 『춘주지』는 후평동으로, 1986년 1월 1일부터 조례 1337호 따라 후평1동 후평2동으로 분리되었다. 『춘천백년사』는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으로 나뉜다. 현재 후평동은 법정동이며 행정동은 후평1~3동으로 분리되었다.

**유래** | 원래는 춘천군 부내면(府內面) 후평리로, 봉의산 뒤쪽이 되고 또 읍내에서 뒤쪽이 되므로 뒷두루, 뒷뜰, 후평(後坪)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후평2동(後坪二洞)

**위치와 현황** | 후평동의 남서쪽이며, 1976년 춘천 최초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었던 지역이다. 더샵아파트 일대와 후평중학교,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까지 포함한다.

**연혁** | 1986년 1월 1일부터 조례 1337호 따라 후평동이 후평1동 후평2동으로 분리되었다.

**유래** | 원래는 춘천군 부내면(府內面) 후평리로, 봉의산 뒤쪽이 되고 또 읍내에서 뒤쪽이 되므로 뒷두루, 뒷뜰, 후평(後坪)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후평3동(後坪三洞)

**위치와 현황** | 후평동의 남동쪽이며, 1986년 후평지구 택지개발로 당시 과수원, 임야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주택지역으로 개발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6개의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거 형태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82%로 서민주택 보급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후평주공3, 4단지 일대와 봉의고등학교 주변까지 포함하고 있다.

**연혁** | 1986년 1월 1일부터 조례 1337호 따라 후평1동 후평2동으로 분리되었고, 1994년 8월 조례에 의해 후평3동이 분리되었다.

**유래** | 원래는 춘천군 부내면(府內面) 후평리로, 봉의산 뒤쪽이 되고 또 읍내에서 뒤쪽이 되므로 뒷두루, 뒷뜰, 후평(後坪)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 가재동(佳在洞)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보안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佳在洞(가지동)’이 등재되어 있다. 1969년 후평 일반산업단지(후평공단)를 조성하면서 뒷두루(후평동)의 논밭을 모두 매립하여 건짓모리, 가재동, 논꼴, 관꼴, 보안, 물개울, 물개울다리, 월계동, 섬베미 등 모든 옛 자연과 자연부락이 사라졌다.

[어원풀이] ‘가지>가재/가좌/가지[枝]+동(洞)’으로 분석된다. 산자락의 가장자리, 끝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섰다.



강원디자인센터

## ● 강원도민일보

[형태] 신문사

[위치] 춘천시 후석로462번길 22(후평동 257-27)

[유래] 예전 강원일보 상무 안형순 등이 1992년 7월 법인을 설립하여 같은 해 11월 26일에 20면으로 창간한 강원지역 종합일간지이다. 1993년 7월 현재의 위치에 사옥을 신축하여 이전했고 1995년 출판국을 개설했다. 강원도를 연고로 하는 지방 일간지이며, 한국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원이며, 제민일보에 이어 두 번째 도민주 창간 신문이다.

## ● 강원디자인센터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후평동 244-40

[유래] 2019년 12월에 춘천시 후평동 후평일반산업단지 일원 1,500여평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건축되었다. 지상 3층으로 1층에는 어린이체험시설과 디자인스토어, 2층에는 기획전시장과 연구지원실, 3층에는 운영사무실과 디자인교육실이 들어

## ● 강원지방통계지청

[별칭] 강원통계청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춘천시 후평1동 240-3). 고용노동부노동지청, 춘천지방종합청사와 같이 있다.

[유래] 강원 지역의 통계중심센터로 국가통계 생산과 지역 정책에 필요한 통계 개발 및 기술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강원 지역의 통계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통계청의 소속기관이다.

## ● 고용노동부강원고용노동지청

[별칭] 춘천지방노동사무소, 서울지방노동청춘천지점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후평1동 240-3). 강원지방통계지청, 춘천지방종합청사와 같이 있다.

[유래] 강원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재해예방, 고용창출을 위한 각종 고용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1965년 춘천산업재해보험사무소가 신설되었고, 노동

부춘천지방사무소(1981), 춘천지방노동사무소(1987)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3년에 현 위치인 춘천지방합동청사 2층으로 이전하였고, 2011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원지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 관꼴

[별칭] 관곡(觀谷)

[형태] 골짜기

[위치] 후평사거리 교차로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보안리’ 소재 마을 이름으로 ‘觀谷(관縠)’이 등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후평동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관(官)+人+골[谷]’로 분석된다. ‘觀谷’의 ‘觀’은 음차자(音借字)이다. 조선시대 역원인 보안역(保安驛)으로 인해 생겨난 지명이다.



근린공원

### ● 극개(極浦)

[별칭] 극포(極浦), 극기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후평리’ 소재 들판 이름으로 ‘極浦(극기)’가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극/급(끝)+기>개[浦]’로 분석된다. ‘끝’의 고어 ‘급’은 ‘극’으로 변음이 가능하다. ‘툇끝’은 ‘산기슭’의 옛말이다. 후평동 소양강 주변에 있는 들판으로 추정된다.

### ● 근린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후평동 884. 후평3동 호반초등학교 서쪽 인근

### ● 논꼴

[별칭] 담동(沓洞), 논꼴

[형태] 골짜기

[위치] 후평사거리 교차로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보안리’ 소재 골짜기 이름으로 ‘沓洞(논꼴)’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논[沓]+人+골[洞]’로 분석된다. 논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예전에는 후평사거리 부근에 저수지가 있었고 주위가 논밭이었다고 하므로 그 부근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 댕댕이

[별칭] 대황당(大皇堂)

[형태] 골짜기

[위치] 후평사거리 교차로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보안리’ 소재 고적명소로 ‘大皇堂(디황당)’이 등재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보안 마을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댕/대(大)+댕/당(堂)+이(첩미사)’로 분석할 수 있다. ‘대댕이->대댕이->댕댕이’가 된다. 큰 성황당[大皇堂]이 있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 동광(東光)

[형태] 마을

[위치] 한림대학교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후평리에 있는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해가 뜨는 동쪽 밝은 마을을 말한다.



동부공원

## ● 동전리(東田里)

[별칭] 물개울, 물개울

[형태] 마을

[위치] 한림대학교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후평리’ 소재 마을 이름으로 ‘東田里(물기울)’가 등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물개울. 동쪽에 밭이 많다 하여 생긴 이름. 물개울에 다리가 있었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동(東)+전(田)+리(里)’로 분석된다. 봉의산 동쪽 밭에 조성된 마을이란 의미이다. 고유 지명 ‘물개울’은 ‘물/물[水]+개울[川]’ 또는 ‘물개[ 모래]+울[谷]’로 분석된다. ‘물개’가 ‘모래’의 옛 말이기에 ‘모래가 많은 마을’이란 의미도 가능해 보인다. 실제로 예전에 과수원과 밭이 많았던 곳이다.

한자 지명 ‘東田里’와의 관련성은 불분명하다.

## ● 뒷두루

[별칭] 뒤뚜루/뒷돌/뒷들, 후평(後坪)

[형태] 마을

[위치] 후평동 일대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뒷들, 후평리라고도 했다. 읍내의 뒤쪽들, 봉의산 뒤의 들”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뒤(後)+ㅅ+두루/돌/들[坪]’로 분석된다. 봉의산에서 소양강, 의암호 쪽의 들판을 ‘앞두루(前坪)’라 하고, 그 반대편을 뒷두루(後坪)라 했다. 봉의산 뒤쪽에 있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 뒤뜰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후평동 753-7



뒤뜰공원

## ● 말탕개미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후평동 858-3

[유래] ‘말탕개미’는 춘천시 교동에 있는 옛 고개 이름인 ‘말탕개미(말탕개미고개)’에서 유래한다. ‘말탕개미고개’는 교동에서 후평동을 넘어가는 고갯길이어서, 후평1동 옛 말탕고개길 인근에 공원(公園)이 들어서면서, 그 옛 지명 ‘말탕개미’를 따서 ‘말탕개미공원’이라 명명한 것이다. 지금은 팔호광장에서 후평동 사거리까지 4차선대로가 직선화되었고, 옛 말탕개미고개는 대부분 대로에 흡수되거나 주택지 등으로 흡수되었다.

[어원풀이] ‘말[馬]+탕/탄[昇]+개미/가미/감(監)+이(과생점미사)+공원(公園)’으로 분석된다. ‘말탕개미’는 ‘마승감(馬乘監)’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 의미는 ‘말은 탄 벼슬아치’가 된다. 하지만 ‘말(馬)을 탄(乘) 개미>감(監)’에서 보듯 차훈(借訓)과 유사음(類似音) 차음(借音)을 섞어 전체의미에 끼어맞춘 한자 표기일 수 있다. ‘말탕개미’가 향교(鄉校)가 있는 교동(校洞)에 있어 훗날 앞의 지명 유래가 덧붙여졌을 수 있다.



말탕개미공원

## ● 보안(保安)

[별칭] 보안리, 부안

[형태] 마을

[위치] 후평동 인공폭포 부근 일대

[유래] 『여지도서』에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5리 떨어져 있고 57호가 산다”는 설명과 함께 ‘보안리(保安里)’가 등재되어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보안역(保安驛)이 있던 마을을 보안이라 했다. 보안역, 보안말이 변하여 부안마을이 되었다. 후에 부안초등학교를 설립할 때 한자를 잘못 표기하여 부안(扶安)이 되었다. 지금은 보안보다는 부안이라는 이름이 일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 소개되어 있다. 후평2동은 보안역과 보안마을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여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주변 도로 상가와 함께 크게 변모하여, 보안마을의 옛 모습은 전혀 찾을 수 없다.

[어원풀이] ‘보안(保安)+(마을)’로 분석된다. 조선시대에 보안역(保安驛)이 있던 마을이다. 보안(保安)이란 지명은 ‘보(洑) 안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 알려져 있다.

## ● 복골

[형태] 골짜기

[위치] 후평동 인공폭포 부근

[유래] 폭포근린공원과 후평주공4단지 서쪽에 도로지명 ‘복골길’이 산재한다.

[어원풀이] ‘복(福)+골[谷]’로 분석된다. ‘복골’은 전국에 산재하는 지명인데, 대부분 ‘복을 받은 골짜기’ 정도의 의미로 불린다. 그런데 근처에 ‘보안(保安)’이란 지명이 쓰이고 있기에 ‘복골’에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보(洑)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 섬배미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한 섬지기 논인  
데 흉년이 들어서 이 논을 콩죽 한 그릇과 바꾸었  
다고 한다.”라 소개되어 있다. 1969년 후평일반산  
업단지(후평공단)을 조성하면서 뒷두루(후평동)의  
논밭을 모두 매립하여 모든 옛 자연과 자연부락이  
사라졌다.

[어원풀이] ‘섬(부피 단위)+배미’로 분석된다. ‘섬’은  
곡식, 가루, 액체 따위의 부피를 쟁 때 쓴다. ‘한 섬’  
은 한 말의 열 배로 약 180리터에 해당한다. ‘-배  
미/배’는 ‘논배미’에서 온 것으로 ‘논[畠]’의 의미를  
가지며 지명접미사화한 것이다. 이곳 ‘섬배미’는  
‘한 섬지기 논배미(논)’이다. ‘논배미’는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의 하나하나의 구역이다.

### ● 세실어린이공원

[별칭] 세실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후평동 868

[유래] 동면 만천리 세실거리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 ● 소양도서관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산주로145번길 69-8(춘천시 후평동  
198-58)

[유래] 2021년 1월 기준 37,959권의 도서와  
11,725권의 비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개관 당시  
명칭은 소양정보도서관이었으나 2013년 현재 명  
칭으로 변경하였다. 총 규모 1,929㎡·연면적 937  
㎡이고,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이다. 첨단 시설과  
최신 장비를 갖춘 애니메이션과 생물산업분야의  
특화 전문도서관으로 국내외 지식산업 관련 정보  
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특화분야 관련 뉴스와 신기  
술정보를 서비스한다.

### ● 얼개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얼개빗 모양으로 생겼  
다 해서 얼개골이라고 불렀다.”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얼개/얼계/얼례+빗+골[谷]’로 분석된  
다. ‘살이 굵고 성진 큰 빗’인 ‘얼개빗/얼계빗’은 ‘얼  
례빗’의 방언이다.

### ● 역말(驛村)

[형태] 마을

[위치] 후평사거리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보안리’ 소재 마을이름으  
로 ‘驛村(역말)’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역(驛)+말[村]’로 분석된다. 보안역이  
있던 마을이란 의미이다.

### ● 우사리(隅沙里)

[별칭] 위사리, 위천리(渭川里)

[형태] 마을

[위치] 한림대학교 옆 동산아파트 부근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후평리’ 소재 마을이름으  
로 ‘渭川里(우사리)’가 등재되어 있고, 일제강점기  
지도에는 ‘隅仕里’ ‘渭沙里’ ‘隅沙里’ ‘渭川里’ 등으  
로 표기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동전리 서쪽  
모퉁이에 있던 마을”이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위/우(隅)+사(舍?)+리(里)’로 분석할 수  
있다. ‘모퉁이에 있던 마을’이 참조된 분석이다.沙  
와 仕는 모두 음차자(音借字)이다. 渭川里의 ‘渭川’  
은 한자 변이형 지명이다.

### ● 원평골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보안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坪洞(원평골)’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원(院)+평(坪)+谷+골[谷, 洞]’로 분석된다. 보안역이 있는 들판 마을이란 의미이다.



인공폭포

### ● 월계동(月桂洞)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보안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月桂洞(월계동)’이 등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월(月)+계/계(桂)+동(洞)’으로 분석된다. 위치와 유래는 불분명하다.

### ● 진선1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후평동 898

[유래] 1988년도 개설된 어린이공원

[어원풀이] ‘진선(진선이장동이)+1+공원(公園)’으로 분석된다. ‘진선’은 석사동과 후평3동에 걸쳐 있는 고개인 ‘진선이장동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테, 현재는 4차선도로가 개설되었다.



진선1공원

### ● 진선2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후평동 897

[유래] 1988년도 개설된 어린이공원

##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소양강로 32(후평동 198-53)

[유래]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센터와 바이오벤처프라자를 통합하여 2003년 출범한 재단법인이다. 자본력이 미약한 벤처기업들의 연구, 개발, 생산 등 일련의 산업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 ● 춘천서부보훈지청

[별칭] 춘천보훈지청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후평동 240-3)

[유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처의 지청 가운데 하나로, 강원도 영서지역 중 2개시 6개군(춘천시, 원주시, 화천군, 양구군, 홍천군, 인제군, 철원군, 횡성군)을 관할하고 있다.

## ● 춘천소방서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후석로 446(춘천시 후평동 257-31)

[유래] 춘천관내의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강원소방본부 산하의 소방서이다. 1946년 처음 개서하였고 1998년 현 위치에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 ● 춘천지방합동청사

[별칭] 정부춘천지방합동청사, 춘천지방청사, 춘천합동청사.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후석로 440번길 64(춘천시 후평1동 240-3) 강원지방통계지청, 고용노동부노동지청,

춘천지방합동청사와 같이 있다.

[유래] 대한민국 각 부처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하는 행정기관의 사무공간을 통합하여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건축물이다. 지방합동청사 중 첫 번째 (2003년)로 지어진 건축물로 춘천지역에 소재하는 소규모 중앙정부 특별시방행정기관을 하나로 모았다. 강원지역 정부지방합동청사이다.

## ● 춘천향군회관

[별칭] 향군회관

[형태] 건물

[위치] 천시 춘천로 312(후평동 694-3)

[유래] 춘천시 제대군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춘천재향군인들의 모임 장소이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설립 목적은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회원의 권익 향상,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 ● 폭포근린공원

[별칭] 폭포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후평동 824-1

## ● 푸른언덕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후평동 67-15



푸른언덕공원

### ● 한국전력공사강원본부

[별칭] 한전강원본부. 한전.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수풍골길 7(춘천시 후평동 95)

[유래] 1961년 한국전력주식회사가 발족하였고 1982년 한국전력공사로 변경되었다.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 법인으로서 전력 자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 호반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후평동 879-3. 동쪽 인근에 호반초등학교가 있다.

### ● 후평동성당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춘천로309번길 8(춘천시 후평동 705-3)

[유래] 1980년 7월 1일 운교동 본당으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되었다. 초대 주임으로 외방전교회 소속의 나이한 요한 신부가 부임하였다. 1980년대 후평동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많은 인구가 한꺼번에 유입되었고, 이에 춘천교구에서는 성당 설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후평동 본당 설립을 설정하였다. 새로운 성당이 신축되고 1981년 7월 3일 봉헌식이 거행되었다.



후평동성당

### ● 후평사거리교차로

[형태] 교통

[위치] 후평1동, 2동, 3동 사이 교차 지점

[유래] 춘천의 중앙로터리, 8호광장로터리, 남부로터리와 함께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소양강 방면, 동면 방면, 만천리 방면, 8호광장 방면, 후평2, 3동 방면으로 도로망이 뻗쳐있다.

리에는 일성더포스트( The 1st)아파트가 들어섰다.

후평1단지시장은 '후평시장'으로도 불린다. 최근

에는 주말 야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후평1단지시장

### ● 후평새싹공원

[형태] 공원

[위치] 춘천시 후평동 849-5

### ● 후평일반산업단지

[별칭] 후평공단

[형태] 시설

[위치] 춘천시 후평동 622-1번지 일대

[유래] 1969년 12월 31일 준공된 산업단지로 소양강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민들의 일자리 마련과 보상책, 지방 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규모 제조업 위주의 일반산업단지이다. 강원도내에서는 원주공단과 함께 처음으로 건설된 공단으로 섬유, 기계, 농수산물가공, 주물 등 다양한 기업체가 들어섰다. 대일도시가스와 춘천우유, 대한통운, 라텍스 공장등이 가동되어 명맥을 유지하였다.

### ● 후평1단지시장

[별칭] 1단지시장, 후평시장

[형태] 시장

[위치] 춘천시 효평길 104(후평동 691-22)

[유래] 후평주공1단지아파트가 있었던 때 붙여진 이름이다. 지금은 주변이 크게 재개발되어, 1단지 아파트가 있던 자리에는 더샵(The #)아파트가 들어섰고, 그 위쪽으로 주공2단지아파트가 있던 자



## 신북읍

발산리, 산천리, 용산리,  
유포리, 율문리, 지내리,  
천전리

동쪽으로 북산면(北山面)과 동면(東面), 남쪽으로 동면(東面), 서쪽으로 서면(西面), 북쪽으로 사북면(史北面)과 화천군 간동면(看東面)과 접한다. 북·동부는 산지로 둘러싸이고, 남서부의 소양강 연안에 평야가 펼쳐진다. 밭이 많으며, 무·배추·오이·토마토·사과·포도·재배와 돼지·한우·닭·사슴·산양 사육이 활발하다. 춘천댐과 소양강댐 등 관광지가 있다.

『춘주지』는 북중(北中)에 있는 마을로 율목기(栗木基), 금광기(金光基), 산본(山本), 발산(鉢山), 장본(獐本), 유포(柳浦), 칠정(漆井), 천전리(泉田里)를 들고 있다. 『여지도서』는 율대리(栗垈里), 천구리(泉丘里), 산본리(山本里), 발산리(鉢山里), 장본리(獐本里), 유포리(柳浦里), 천전리(泉田里)를 포함시켰다. 1914년 북내일작면(北內一作面)은 14개 리를 병합하여 신북면으로 개칭하였다. 『해동지도』에는 북중면 주위에 고맥도(古貊都)와 우두산(牛頭山)이 표현되어 있다. 이 사료는 신북읍 일대가 고대 맥국의 수도였음을 보여준다. 한편, 『1872년 지방지도』에는 고맥도가 맥국허(貊國墟) 우두산이 우두촌(牛頭村)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鉢山)도 수록되어 있다. 1939년 우두(牛頭)·마산(馬山) 2개 리가 춘천읍에, 1973년 신동리(新銅里)가 춘천시에 편입되었고, 1995년 신북읍으로 승격되었다.

**위치와 현황** | 수리봉과 오봉산 사이에 있으며 골짜기가 많다. 자연마을에는 옹기점말, 골텃말, 동녁벌, 벌바리미말, 장본 등이 있다. 발산리 입구에는 ‘맥국(貊國) 터’라는 표석이 있다. 표석에는 삼국시대 이전 이곳이 맥국의 중심지라는 내용을 적어 놓았다. 이곳에서 마을 산세를 살피면 뒤로는 산들이 병풍처럼 서 있고, 앞으로 율문천이 흐르며, 가운데는 넓고 평탄한 평야가 있고, 외곽으로는 소양강과 북한강이 흘러 외부와 통하는 길이 확보돼 있다. 발산리로 들어가면 맥국과 관련된 여러 흔적들을 볼 수 있다. 우선 마을 뒷산 이름이 발산(鉢山)이다. 산의 모습이 중의 바리(밥그릇)처럼 둥글게 생겨 붙여진 것이다. 이 산을 마을 사람들은 맥국산 또는 왕대산이라고도 부른다. 발산 아래는 월터라고 부르는데 왕궁이 있었다고 한다. 삼한골에서 율문천까지 길게 뻗은 맥뚝 제방은 왕궁을 둘러싼 성터였다. 월터마을 남서쪽에 있는 지석묘는 맥국 지배자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남쪽 우두산은 맥국으로 들어오는 초입으로 정상에 토성을 쌓고 왕궁을 방어한 흔적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북중(北中)에 산본(山本), 발산(鉢山), 장본(獐本) 세 지역이 나온다. 『여지도서』는 북중면(北中面)에 산본리(山本里), 발산리(鉢山里), 장본리(獐本里)를 거론하고, 『호구총수』, 『춘천읍지』도 마찬가지인데 『춘천읍지』는 장본리 대신에 장목리(樟木里)라 한 것이 특이하다.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북중면(北中面)에 다시 산본리(山本里), 발산리(鉢山里), 장본리(獐本里)를 들고 있다. 『조선지지자료』는 북중면(北中面)에 산본리(山本

里), 발산리(鉢山里), 장본리(章本里)를 들고 있는데 장본리의 한자가 다르다. 『강원도지지조서』는 신북면(新北面)의 발산리만 들고 있다. 『강원도지』, 『수춘지』도 마찬가지로 발산리(鉢山里)다. 『춘주지』, 『춘천백년사』는 신북면(新北面)의 발산1리, 발산2리, 발산3리로 세분화하였다. 1995년 1월 1일 춘천시와 춘천군 통합으로 신북읍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행정리는 발산리고 법정리는 발산1리, 발산2리, 발산3리이다.

**유래** | 마을 뒷산 모습이 중의 바리(밥그릇)처럼 둥글게 생겨 바리미 또는 발산(鉢山)이라 하였다. 행정구역 폐합으로 장본리(章本里)와 산본리(山本里)를 병합하여 발산리(鉢山里)가 되었다.

## ● 가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 고치장골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삼한골에 떨린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삼한골에 있는 골짜기로 고치장골 우측에 있는 골짜기로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가마[鼎]+골[谷]’로 분석된다.

## ● 개간지(開墾地)

[별칭] 뒷벼당

[형태] 마을

[위치] 발산3리 벌통골 아래쪽 마을이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벌통골 아래쪽 마을로 산을 농지로 개간하여 개간지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골짜기를 개간하여 농지로 만든 곳으로 벌통골 아래 발산3리의 자연마을을 명칭이다.  
[어원풀이] ‘개(開)+간(墾)+지(地)’로 분석된다. ‘농지로 개간한 땅’이라는 의미이다.

## ● 고치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의 탑상골 위쪽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삼한골에 떨린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삼한골 서쪽으로 난 골짜기로 탑상골 위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 ● 구담(臼潭)

[형태] 소(沼)

[위치] 삼한골 있는 절구 모양의 ‘소(沼)’로 폭포 아래 있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삼한골 폭포

아래에 있는 ‘소(沼)’로 모양이 절구처럼 생겨서 ‘구담’이라고 불렸으며 폭포가 떨어지면서 등글게 패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구(臼)+담(潭)’으로 분석된다. 절구 모양의 ‘소(沼)’이다.

## ● 구첩대(九疊臺)

[형태] 바위

[위치] 삼한골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삼한골에 있는 바위로 첨첩이 쌓아 올린 모양으로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구(九)+첩(疊)+대(臺)’로 분석된다. 여기서 ‘구(九)’는 ‘아홉 개’를 나타내는 숫자의 개념보다는 ‘큰 수’를 나타내며, ‘구첩대’는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 바위’ 정도의 의미가 된다.

## ● 국립춘천숲체원

[형태] 레저

[위치] 발산2리 마을회관에서 ‘장본2길’을 따라 삼한골로 4km 정도 지점에 있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산32-1번지가 된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삼한골 중간 지점에 있으며 원래는 삼한골 유원지이었으나 최근 ‘국립춘천숲체원’으로 바뀌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발산2리 ‘장본’마을에서 삼한골로 3km 정도 올라가면 있다. ‘삼한골 유원지’로 운영되던 곳으로 최근 산림 레포츠 시설 특화하여 ‘국립춘천숲체원’으로 새롭게 개장·운영되고 있다.



국립춘천숲체원

### ● 궐터

[별칭] 벌터, 벌터말, 벌터모뎅이

[형태] 마을

[위치] 발산1리의 ‘맥국터’에 있는 마을로 발산1리와 발산3리 경계에 있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궐터’는 발산1리 맥국터에 있는 마을로 기록되어 있다. ‘벌터’, ‘벌터말’, ‘벌터모뎅이’라고도 부르는데 현재는 ‘벌터모뎅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궐/궁궐(맥국의 굴궐)+터[垈]’로 분석된다. ‘맥국 궁궐터’라는 의미이다. ‘벌터’, ‘벌터말’, ‘벌터모뎅이’의 이형태가 있다.

### ● 글쓴바우

[형태] 바위

[위치] 배후령 인근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글을 새겨 놓은 바위로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배후령이 개통되기 이전 ‘샘밭’에서 ‘화천’으로 가려면 ‘삼한골’을 넘어가야 했는데 삼한골을 넘나들던 사람들이 바위에 낙서를 해서 ‘글쓴바우’로 부르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어원풀이] ‘글[文]+쓴[書]+바우[岩]’로 분석된다. 협한 삼한골을 넘는 사람들이 하나둘 바위에 글을 쓰면서 ‘글쓴바우’라 명명하게 되었다.

### ● 기도처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 첫째내’에서 ‘둘째내’ 사이 ‘삼한골유원지’가 있는 골짜기에 있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첫째내와 둘째내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무속인들이 소를 잡아서 제물로 올리며 기도를 많이 하던 곳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기도(祈禱)+처(處)’로 분석된다. 무속인들이 기도를 하며 치성을 드리는 장소가 있어 ‘기도처’라 하였다.

### ● 너라웃골

[별칭] 널아홉골, 늘아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의 가마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너라웃골’은 삼한골에 딸린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산과 골짜기가 깊어 나무가 잘 자라 그곳에서 자란 나무를 베었더니 ‘관’이 아홉 개 정도의 널을 짤 수 있는 나무가 서식하는 골짜기’라는 의미로 보인다.

[어원풀이] ‘너라웃골’의 원형은 ‘널아홉골’이며, ‘널아홉골’은 ‘널(널판지, 檻)+아홉(九)+골(谷)’로 분석된다. ‘널’이란 ‘널빤지’ 또는 ‘관(棺)이나 곽(櫬)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널아홉골’은 ‘아홉 개의 널을 짤 수 있는 나무가 서식하고 있는 골짜기’가 된다.

### ● 더티골

[별칭] 더치골, 더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의 송골과 채동막골 사이에 위치한 작은 골짜기이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송골 다음에 있는 골짜기가 더티골이며, 옛날에 사람들이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았다고 해서 덫치골이라 했는데 덫치골이 변해서 더티골로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덫+이+골[谷]’로 분석된다. ‘덫’은 짐승을 꿰어 잡는 기구로 산짐승을 잡기 위해 ‘덫’을 놓았던 것에서 유래된 골짜기명으로 보인다. ‘더치골>더티골’로 변화하였다.

### ● 도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승지골 우측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삼한골에 떨린 골짜기로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승지골 우측에 위치한 골짜기로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도장골’은 ‘도장+골(谷)’로 분석된다. 지명에서 ‘도장’은 ‘안방’의 고어로 ‘사방이 산이나 둔덕으로 둘러쌓여 안방’처럼 아늑한 곳에 명명된다.

### ● 도치골

[별칭] 도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발산리와 유포리 접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도치골은 배후령으로 올라가는 골짜기에 있으며 올라가는 경사가 심하여 맷돼지가 다니다가 굴러떨어져 죽었다. ‘돼지’, ‘도야지’가 죽은 골이라 하여 도티골이

라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도치골’이 삼한골 최북단에 있으며 배후령으로 난 골짜기라면 ‘발산리와 유포리 접경’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돛[豚, 산돼지]+골[谷]’로 분석된다. 지명에서 ‘돛’은 주로 ‘산돼지/멧돼지’를 가리킨다. 산돼지가 출몰하는 높고 깊은, 경사가 가파른 골짜기를 말한다. ‘도치골>도티골’로 음운변이하기도 한다.

### ● 독치골

[별칭] 득칫골, 독지골, 독치골, 독주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발산2리 삼한골의 황골 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발산2리 황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기록되어 있다. ‘독치골’은 발산2리 삼한골의 황골 위에 있는 골짜기로, 나무가 많지 않은 민둥 고개에 떨린 골짜기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독(禿)+치(峙)+골[谷]’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독’은 ‘대머리 독(禿), 불모(不毛)’를 어원으로 한다. ‘대머리’의 ‘대’가 ‘독(禿)’을 의미하며 ‘독수리’의 ‘독’도 ‘불모(不毛)’의 의미를 나타낸다. ‘독치골’은 나무가 많지 않은 민둥 고개에 떨린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 ● 동평(東坪)

[별칭] 동녘벌

[형태] 마을

[위치] 발산3리 마을에서 발산1리 마을과 경계를 이루는 밤울산 사이 평평한 지대를 말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동쪽 평평한 지대에 있는 마을로 ‘동녘벌’으로 기록되어 있다. 발산3리와 발

산1리의 경계가 되는 밤울산의 동쪽 평평한 지대에 위치한 마을이 된다.

[어원풀이] ‘동(東)+평(坪)’으로 분석된다. 동쪽에 있는 벌판이란 의미로 ‘동녁벌’로 부르기도 한다.

### ● 동녘잿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터가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삼한골에 팔린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삼한골 초입의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절터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동(東)+녘+재[峴]+ㅅ+골[谷]’로 분석된다. 삼한골 골짜기 가운데 동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 둘쨋내

[형태] 개울

[위치] 삼한골 ‘둘쨋내’에는 현재 ‘국립춘천숲체원’이 위치하고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바리미에서 첫내 다음에 있는 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삼한골로 올라갈 때 건너는 두 번째 개울로 예전에는 군 특수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갈 수 없었지만 군부대가 이전하여 현재는 ‘국립춘천숲체원’이 들어서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둘째+ㅅ+내[川]’로 분석된다. 삼한골 산자락을 두 번 돌아가서 있는 개울, 삼한골의 두 번째 개울이라는 의미이다.

### ● 맥국터

[별칭] 맥국성허(貊國城墟), 맥왕고도(貊王古都), 맥국성터, 왕터

### [형태] 터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맥국성허(貊國城墟)’, ‘맥왕고도(貊王古都)’를 ‘맥국터’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지명총람』에 ‘왕위’ 밑에 있는 ‘맥국(貊國)의 터’에 다섯 개의 궁궐을 지었다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논으로 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에 맥국의 옛 도읍지였던 ‘맥국고도(貊國古都)’가 관아 북쪽 20리에 있었으나 도읍이 있던 터는 찾을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남녀왕’이 발산리에 다섯 개의 궁궐을 짓고 맥국의 도읍지로 삼아 삼악산과 용화산까지를 아울렸으며 맥국의 자취가 발산리, 천전리 일대의 지명과 유적에 표식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선사시대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를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었던 맥국의 역사적 자취는 현재 ‘궐터’, ‘맥국토성’, ‘바리산’, ‘왕뒤’, ‘왕대산’, ‘지석묘’, ‘맥뚝’, ‘맥뚝보’ 등의 지명에 남아 있다.

[어원풀이] ‘맥(貊)+국(國)+터[垈]’로 분석된다. 춘천의 고지도에 맥국고성(貊國古城)이 표시되어 있어 맥국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맥국터

### ● 맥뚝

[형태] 제방

[위치] 발산1리 마을회관 옆으로 흐르는 작은 도랑이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맥뚝’은 맥국 왕궁을 보호하는 맥국의 성뚝이었으나 세월이 흘러 경지정리를 하면서 성뚝은 없어지고 논에 물을 대는 논둑의 수로로 남아 있다는 일설과 논둑이 터져 ‘매’를 둑을 막았다는 ‘맷뚝’이 ‘맥뚝’이 되었다는 일설이 있다. ‘매’는 곡식 섬을 묶는 테 쓰는 새끼나 끈을 말한다. 지금은 하천 옆의 둑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았다. 발산1리 마을회관과 발산청년회 건물이 있는 옆을 흐르는 아주 작은 도랑으로 현재 맥뚝은 장수물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모아 물을 대기도 흘러내리기도 하는 용수로, 배수로 역할을 하고 있다.

[어원풀이] ‘맥+뚝’으로 분석된다. 맥국의 제방이란 의미이다.



맥뚝

## ● 먼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발산2리 장본 마을 북쪽 골짜기로 ‘첫내’를 지나 첫 번째 골짜기가 된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발산2리 뒤에 있는 골짜기로 발산1리에서 가려면 멀다고 하여 ‘먼골’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발산2리 뒤에 있는 지역은 ‘장본’이며, ‘장본’의 북쪽 골짜기로

‘첫내’를 지나 첫 번째 골짜기가 된다. 발산1리에서 발산2리 삼한골까지 간다면 거리상으로 상당히 멀기에 ‘먼골’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먼[遠]+골[谷]’로 분석된다.

## ● 바리미

[별칭] 발산, 발산리 발리매, 발림미, 바르매, 바리뫼

[형태] 마을

[위치] 발산(30.6m) 동편, 발산1리 마을회관이 있는 마을이 ‘바리미’마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鉢山’은 ‘발리미’, ‘鉢山里’는 ‘발림미’로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지명총람』에 ‘발산리’는 본래 북중면(北中面) 지역으로 바리(鉢)처럼 생긴 작은 산이 있어 ‘바리미’ 또는 발산(鉢山)이라고 하였으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장본리(章本里)와 산본리(山本里)를 합쳐 발산리로 하여 신북면에 편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발산/바리산/바리미’는 발산리 마을에 있는 산으로 스님들의 밥그릇인 ‘바리때’처럼 생겼다고 해서 불린 이름이며 ‘바리산’으로 40m 정도 올라가면 오래된 무덤이 있으며 그곳에서 동서쪽으로 약 800m 정도 가면 고총(古塚)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바리미, 발산’은 전국적 산재되어 있는 지명으로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발산(鉢山)’을 주목하는 이유는 ‘맥국(貊國)’과의 관련성에 있다. 『여지도서』, 『춘천읍지』, 『관동지』 등에 ‘발산(鉢山)’에 대하여 맥국 도읍지 주산으로 천제를 지내던 신성한 장소로 기술되어 있으며 춘천의 고지도에 ‘맥국고성(貊國古城)’, ‘우두산(牛頭山)’이 표기되어 있어 ‘발산(鉢山)’, 맥국고성(貊國古城), ‘우두산(牛頭山)’ 등 맥국 도읍지의 가능성을 실증하고 있다. 산이름 ‘발산(鉢山)’은 ‘바리미(마을명)’, ‘발산리(행정지명)’에 반영되고 있다.

[어원풀이] ‘바리[鉢]+미/메/뫼[山]’로 분석된다. ‘바리미’는 고유어 지명이며 한자지명은 ‘발산(鉢山里)’이다. ‘발림미’, ‘발리매’, ‘바르매’, ‘바리뫼’는 변이형이다. ‘발산리(鉢山里)’의 ‘발(鉢)’은 ‘바리 鉢’자로, ‘바리’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어(梵語) ‘/patra/’, 食器’의 첫 음절 ‘/pat/’이다. 인도의 불교 언어와 문화가 중국 불교에 전해지면서 ‘불경(佛經)’을 중국의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음차(音借)’ 표기가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patra/’는 ‘鉢多羅’로 표기되었다. ‘鉢’의 중국어 발음을 입성음(入聲音) ‘반 /pat/’이 되는데 이것이 한국 불교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비입성음((入聲音) ‘발/pal/’, ‘鉢多羅(발다라)’로 표기된 것이다. ‘발(鉢)’은 스님의 밥그릇인 ‘바리/바리때’로 해석할 수 있다. 스님의 밥그릇인 ‘바리(鉢)’는 스님들의 ‘발우공양(鉢盂供養)’ 때 사용하는 식기의 명칭으로 ‘바리때’와 연결된다.



바리미

### ● 바리미말벌

[형태] 들

[위치] 발산 1리 바리미 마을 ‘발산(30.6m)’ 앞에 있는 들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바리미 앞 벌판에 있는 마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바리미 앞 벌판에 있는 마을로 ‘왕뒤’ 바로 밑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발산1리 바리미 마

을 들녘이 된다.

[어원풀이] ‘바리[鉢]+미[山]+마을/말[村]+벌[벌판坪]’로 분석된다. 바리미 마을에 있는 들이란 의미이다.

### ● 발산(鉢山)

[별칭] 바리산, 바리미, 바리미산

[형태] 산

[위치]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에 있는 산(30.6m)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鉢山’은 ‘발리미’로 기록되었으며 『한국지명총람』에 ‘바리(鉢)’처럼 생긴 작은 산이 있어 ‘바리미’, 발산(鉢山)으로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지도서』, 『춘천읍지』, 『관동지』 등에 ‘발산’은 ‘바리때(鉢) 모양으로 생겨 ‘바리미 산’으로 불렸으며 맥국 도읍지의 주산으로 천제를 지내던 신성한 장소라고 기술되어 있다. 즉, 발산은 발산리 마을에 있는 산으로 스님의 밥그릇인 ‘바리’, ‘바리때’ 모양을 하고 있으며 맥국 도읍지의 역할을 했던 곳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발(鉢)+산(山)’로 분석된다. ‘바리미’ 참조.

### ● 밤동산

[형태] 산

[위치] 발산3리에 있는 산이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발산3리에 위치해 있으며 밤이 많이 나서 붙여진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밤[栗]’+동(洞)+산(山)‘으로 분석된다. 밤이 나는 동네에 있는 산이란 의미이다.

### ● 밤울산

[별칭] 바물산

[형태] 산



발산

[위치] 발산 1리와 3리 경계인 밤울못 옆에 있는 산이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발산 1리와 3리 경계 밤울못 옆에 있는 산으로 기술되어 있다. ‘밤울산’ 남북 능선과 밤울산 남쪽 끝에 있는 ‘발산’이 발산1리와 발산3리를 나누는 경계선이 된 다. 주변에 밤울뜰, 밤울못이 있다.

[어원풀이] ‘밤[栗]+울(鬱)+산(山)’으로 분석된다. 밤나무가 울창한 산이란 의미이다.

### ● 부처바위

[별칭] 하얀 너럭바위

[형태] 바위

[위치] 삼한골 계곡에 위치하고 있는 바위이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삼한골 계곡에 있는 하얀 너럭바위로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부처+바위(岩)’로 분석된다. 삼한골 계곡에 있는 흰색 너럭 바위의 형상이 부처님의 모

습을 닮았다고 하여 부처바위로 불리고 있다.

### ● 불탄절터

[형태] 터

[위치] 삼한골 사냥매기 위측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삼한골에 있는 절터로 누군가 사찰에 불을 놓아 절이 타고 터만 남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한골 사냥매기 위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절이 있었으나 화재로 절이 타버려 ‘불탄절터’라고 부르게 되었다.

[어원풀이] ‘불탄+절+터’로 분석된다. 삼한골에 있는 절터이다.

### ● 붉은더기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의 송골 우측 산능선이 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붉은더기’는 삼한골에 딸린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

사보고서>에 송골 우측 장등 능선으로 기록되어 있다. ‘장등’은 산마루의 방언이며 ‘능선’은 산등성이를 따라 죽 이어진 선으로 삼한골의 송골 우측 산능선이 ‘붉은더기’가 된다.

[어원풀이] ‘붉은[赤]+덕[둔덕, 언덕]+이[접미사]’로 분석된다.

### ● 사냥매기

[별칭] 사냥매기, 사냥목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의 너라웃골 아래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사냥매기는 삼한골에 딸린 골짜기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삼한골에 있는 골짜기로 사냥꾼이 사냥을 가서 물잇꾼들을 보고 사냥감을 쫓으라 하 고 포수는 그곳에서 지키고 있다고 하며, 포수가 사냥감을 지키고 있는 목을 말하며 사냥목이 변하여 사냥매기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한골이 깊어 예전에 사냥을 하던 포수가 사냥감을 지키고 있는 길목, 즉 ‘사냥목’이 ‘사냥매기’로 지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사냥+목/매기’으로 분석된다. ‘매기’는 ‘목’의 변이형으로 ‘목’이란 ‘좁다란 산협이나 물 속을 가로 지르는 길목’으로 ‘통로의 다른 곳으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중요하고 좁은 곳’을 말한다. ‘목’은 ‘목/목이/매기/매기/모기’ 등의 이형태로 나타난다.

### ● 삼한골

[별칭] 삼한곡(三韓谷), 사만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발산리 언덕개’ 북쪽에 있는 긴 골짜기로 ‘장본’ 마을 북쪽 골짜기 서편으로 수리봉

(656.7m)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삼한골’은 ‘삼한곡(三韓谷)’이라고도 부르며 ‘언덕개’ 북쪽에 있는 긴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언덕개 북쪽에 있는 긴 골짜기로 이 골짜기를 넘어가면 화천군 간동면 유천리로 갈 수 있으며 골짜기가 깊어 골짜기가 사만 개나 된다고 하여 ‘사만골’로 불렸으며 골짜기에 절터가 많으며 효자비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삼한골은 율문천의 원천이 되는 곳으로 발산리 북쪽 ‘장본’ 마을 언덕개’ 북쪽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골짜기 서편에 수리봉(656.7m)이 있다.

[어원풀이] ‘삼(三)+한(韓)+골[谷]’로 분석된다. ‘삼한골[samhan]’에서 ‘한[han]’의 ‘한’은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되거나 묵음화되어 ‘사만골’로 소리 나므로, ‘삼한골>사만골’의 이형태가 가능하다.

### ● 새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 연내골 위측에 위치한 골로 삼한골 ‘신선바위’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삼한골에 딸린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삼한골 신선바위 좌측에 있는 골짜기로 옛날에 이 골짜기에 절이 있었는데 다른 절보다 나중에 지었다고 해서 새절골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어원풀이] ‘새[新]+절[寺]+골[谷]’로 분석된다. 삼한골에 있는 다른 사찰보다 나중에 지은 절이 위치한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 ● 서남골

[별칭] 서남아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 수리봉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근처에 아들바우가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삼한골에 떨린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서남아골’로 부르며 삼한골에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수리봉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라고 하여 명명된 골짜기명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서남(西南)+골[谷]’로 분석된다.

### ● 서남절터

[형태] 터

[위치] 수리봉 남서쪽에 있던 절터이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삼한골 매봉 밑에 있는 절터로 큰 돌을 장비로 떠서 2m 정도 되는 돌을 쌓아 절을 지었으며 지금도 돌은 그대로 절터 옆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지명에 나타나는 ‘서남사’의 한자 표기는 ‘서남사(西南寺)’로, 이 사찰의 명칭 역시 ‘서남사’의 가능성은 상정할 수 있으며 ‘서남절터’만 수리봉 ‘서남쪽’ 아래에 있다.

[어원풀이] ‘서남(西南)+절[寺]+터[垈]’로 분석된다.

### ● 서낭고개

[별칭] 은고개

[형태] 고개

[위치] 발산1리 왕비에서 발산3리로 가는 고개이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발산1리 ‘왕비’에서 발산3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새마을운동 사업을 할 때 서낭당은 없어졌으며 부근에 ‘차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차나무’는 동백나무속 속씨식물로 찻잎을 발효시키거나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녹차, 홍차, 우롱차 등을 만들 수 있는 나무이다. ‘서낭고개’는 ‘은고개’로도 부르며

서낭당이 있던 것에서 유래된 고개명이다.

[어원풀이] ‘서낭[서낭당]+고개[峴]’로 분석된다.

서낭당이 있던 고개라는 의미이다.

### ● 서덜골

[별칭] 서돌골, 서덕골

[형태] 마을

[위치] 궐터 좌측 원수골 아래에 위치한 마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발산리에 있는 마을로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서덕골’이라고도 부르며 ‘궐터’ 좌측으로 들어가면 돌이 많은 ‘서돌골’이 있으며 돌무지무덤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서덜’은 ‘강가에 돌이 널부러져 있는 형상’을 뜻하는 말로 이 곳에 돌이 많이 쌓여 있어 ‘서덜골’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변에 돌무지 무덤 적석총이 있다.

[어원풀이] ‘서덜+골[村]’로 분석되며 ‘서돌골’, ‘서덕골’은 변이형이다. ‘서덜’은 ‘강가에 돌이 널부러져 있는 형상’을 의미하며, ‘서돌골’은 돌이 많이 있는 마을의 의미가 된다.

### ● 솔밭

[형태] 밭

[위치] 발산2리 황골 앞 마을 중간에 있는 소나무밭이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발산2리 황골 앞 마을 중간에 있는 소나무밭으로 ‘솔밭’ 뒤에 고인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발산리 고인돌은 발산1리에서 1기, 발산2리에서 6기가 발견되어 총7기를 모아 신북읍 발산리 253번지에 ‘발산리 지석묘군’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 9월 10일 춘천시 향토문화유산 제2019-1호로 지정되었다. ‘솔밭’은 소나무가 있던 밭으로 발산2리 지명에 남아

있다.

[어원풀이] ‘솔[松]+밭[田]’으로 분석된다. ‘솔밭’은 소나무가 있던 밭의 의미이다.

### ● 수리념이고개

[형태] 고개

[위치] 삼한골의 마지막 골짜기 ‘벼페’를 지나 ‘진달래등’을 넘어가면 ‘수리념이고개’가 나오며 수리념이고개를 넘어가면 화천군 간동면 유천리가 이른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삼한골의 마지막 골짜기 벼페를 지나 진달래등에서 넘어가면 나오는 고개로 수리념이고개를 넘어가면 화천군 간동면 유촌리가 나온다. 삼한골 정상이 수리봉(656.7m)이다. 수리가 이쪽저쪽을 넘어 다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수리+념이[越]+고개[峴]’로 분석된다. ‘수리’는 고유어로서 ‘\*sut/’을 어원으로 하며 어간 말음 ‘ㄷ~ㄹ’이 ‘/순~살/설/술’과 같이 다른 음소로 교체되어 의미분화를 하기도 한다. ‘수리/\*sut/’는 ‘수리(수리과에 딸린 새)’, ‘술(酒)’, ‘설(元旦)’, ‘살(歲)’, ‘소도(蘇塗[soutu], 음차표기)’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수리념이고개’의 명명 의미에 대해서는 ‘수리류’ 새가 날아 넘나드는 행위, 흥수로 마을에서 ‘수리봉’만 남았다는 지형상의 해석 외에 언어적 추론을 통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 수리봉

[형태] 산

[위치] 삼한골 정상이 수리봉이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삼한골에 있는 산으로 옛날에 신북읍 샘밭 일대가 물에 잠겼는데 산꼭대기에 수리가 앉을 정도만 남았다고 해서 불

여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리봉(656.7m)은 발산리 마을 정상에 있는 산으로 발산리 북쪽 중앙에 있다. ‘수리봉’은 전국적인 산 이름이며 춘천시와 관련된 ‘수리봉’에는 신북읍 발산리 수리봉(656.7m) 외에도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수리봉(644m), 동산면 조양리 수리봉(470.5m), 동면 신이리 수리봉(634.6m) 등이 있다.

[어원풀이] ‘수리+봉(峰)’으로 분석된다. ‘수리’는 고유어로 ‘\*sut/’을 어원으로 하며 어간 말음 ‘ㄷ~ㄹ’이 ‘순/순~살/설/술’과 같이 다른 음소로 교체되어 의미분화를 하기도 한다.

### ● 신선바위

[별칭] 신선암(神仙巖), 너럭바위

[형태] 바위

[위치] 삼한골 글쓴마우 아래 쪽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 신선이 놀았다는 바위로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삼한골에 있는 바위로 옛날 신선이 놀다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여 ‘신선바위’, ‘신선암’, ‘너럭바위’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신선(神仙)+바위[岩]’로 분석된다. 신선이 놀던 바위라는 의미이다.

### ● 양통고개(楊通嶺)

[별칭] 양통령(楊通嶺)

[형태] 고개

[위치] 신북읍 발산3리에서 고탄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양통 마을 너머에 있는 고개로 ‘양통령’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서는 발산3리에서 고탄으로 넘어가는 고개로 이 고개를 넘으면 용화산 밑의 양

통 마을이 나오며 양쪽으로 통한다고 하여 붙여진 고개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2019년 새밀터널(2.1km)이 개통되면서 현재는 양통고개보다 새밀터널을 이용하고 있다.

[어원풀이] ‘양(楊)+통(通)+고개(峴)’로 분석된다.

### ● 연냇골

[별칭] 연내골, 연내곡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 아들바우 위쪽으로 뻗어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삼한골에 딸린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연내골’, ‘연내곡’이라고 하며, 바위가 제비등처럼 생겨 제비 ‘연(燕)’, 오다 ‘래(來)’를 써서 ‘연내골’로 부르며 ‘제비가 오는 골짜기’란 의미라고 기록되어 있다. ‘연냇골’은 제비가 오는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어원풀이] ‘연(燕)+내/래(來)+ㅅ+골(谷)’로 분석된다. 제비가 오는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 ● 온수골

[별칭] 원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에 있는 골짜기로 자작골 좌측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삼한골에 딸린 골짜기로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원수골’로도 불리며 골짜기 물이 따뜻해서 얼음이 얼지 않으며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온(溫)+수(水)+골(谷)’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온수골이 원수골로 와전되어 불리는 경우가 많다.

### ● 옹기점말

[별칭] 점말, 토점리

[형태] 마을

[위치] 발산2리 신북교차로 북서쪽 방향 ‘천주교 춘천교구 샘밭본당 발산공소’ 부근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옹기점말’은 ‘토점리’, ‘점밀’이라고 하며, 바리미’ 동쪽에 있는 마을로 병인양요 때 천주교 신자들이 피신하여 옹기를 만들며 살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발산2리와 유포1, 2리 경계에 있으며 6.25 한국전쟁 전까지는 옹기를 구워 팔았으나 지금은 흔적이나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옹기(甕器)+점(店)+마을(村)’로 분석된다. 옹기점이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 옷물

[별칭] 백천수

[형태] 약수

[위치] 삼한골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첫째내를 건너 바로 우측에 있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삼한골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첫째내를 건너 우측에 있는 우물로 옷이 오른 사람이 이 물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하여 마을에서 약수로 이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옷+물’로 분석된다. 옷이 오른 사람이 이 물에 가서 씻고 나아 생겨난 지명이다. ‘옷물’의 이형태는 ‘백천수(白泉水)’이다. ‘백천수’는 ‘파자(破子)’로 ‘泉’의 파자는 ‘白’과 ‘水’이다. 여기에 ‘白’과 ‘水’를 결합하여 ‘泉’이 생성되어 ‘백(白)+천(泉)+수(水)’가 되었다.

### ● 왕뒤

[별칭] 왕위, 왕대산(王臺山)

## [형태] 산

[위치] 바리미에 있는 작은 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왕뒤’는 왕대산(王臺山)’이라고도 부르며 ‘바리미’에 있는 작은 산으로 산 위에는 맥국 시대의 성터가 있고 아래에는 맥국의 궁궐터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발산(鉢山)’에 ‘왕뒤’ 앞에 ‘맥국의 궁궐’이 있었으며 ‘왕뒤’ 뒤에 ‘맥국성(貊國城)’이 있어 ‘맥뚝’을 ‘맥국성’의 자취로 볼 때 선사시대 맥국 도읍지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도로를 중심으로 ‘위왕뒤’, ‘아래왕뒤’로 나뉜다. 현재 ‘왕뒤길’이 도로명으로 남아 발산리 마을을 관통하고 있다.

[어원풀이] ‘왕(王)+뒤(後)’로 분석되며, ‘왕뒤>왕위’와 같이 ‘왕위’의 이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왕뒤’는 ‘왕대산(王臺山)’으로 명명되기도 한다. ‘왕대(王臺)’는 ‘왕의 궁궐(宮闈)’이 있는 곳, ‘왕의 누대(樓臺)’가 있는 곳, ‘왕릉이 있는 곳’ 등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데 왕대산(王臺山)’의 의미는 ‘맥국 왕의 궁궐이 있던 산’의 의미가 된다.

## ● 왕뒤보

### [형태] 보

[위치] 왕뒤 ‘장수물’에 있는 ‘보(渾)’이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왕뒤’ 장수 물에 있는 수로로 기술되어 있다. ‘왕뒤’는 바리산(발산, 30.6m) 쪽 밑에 있는 마을로 도로를 중심으로 ‘위왕뒤’, ‘아래왕뒤’로 나뉜다. ‘왕뒤보’는 장수물에 있는 수로이자 ‘보(渾)’가 된다.

[어원풀이] ‘왕+뒤+보(渾)’로 분석된다.

## ● 왜수

### [형태] 들

[위치] ‘서덜골’ 쪽에 있는 들이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서델골’에서 쪽으로 나오면 있는 들로 이 지역에는 천수담이 많은데 물이 왜소하다고 하여서 왜수라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왜[矮]+수(水)’로 분석된다. 물길이 작은 들판이란 의미이다.

## ● 용가매

### [별칭] 용소(龍沼), 용개미, 학소

### [형태] 소(沼)

[위치] 발산2리 마을회관에서 남쪽으로 600m쯤 되는 곳으로 순환대로와 춘양로가 교차하는 ‘신북 교차로’에서 서쪽 방향으로 1km쯤에 위치한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지골과 삼한 골 물이 합수되는 곳으로 두 골 사이에 있는 용소를 용가매라고 하였으며 지금은 묻혀서 마른 개울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되어 있다. 언덕개 쪽에 위치한 용소이다. 율문천의 상류는 두 골짜기가 된다. 한 줄기는 용화산 남동 자락과 북쪽 수리봉 동쪽 계곡 등에서 내려오는 율문천이며, 다른 한 줄기는 배후령 서쪽 계곡과 마적산 서편 자락에서 흘러들어 유포리 삼한골에서 합류하여 유포리 ‘무지골천’이 되며 발산2리에서 합류하여 산천리, 율문리, 천전리를 거쳐 소양강이 된다.

[어원풀이] ‘용(龍)+가마[鼎]가매/개미’로 분석된다.

[유래담] ‘용가매’의 다른 이름인 ‘용소(龍沼)’는 ‘가마술(鼎)’ 형상을 띠고 있으며 용이 승천하였다는 ‘용(龍)’과 관련된 전설이 남아 있다.

## ● 장본(章本)

### [별칭] 장변

### [형태] 마을

[위치] 발산 2리 장본 마을로, 바리미 동북쪽 산 밑

에 있는 마을이 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장본(章本)’은 ‘장변’이라 하며 바리미 동북쪽 산 밑에 있는 마을로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발산2리 전체를 장본이라고 하며 옛날에 서당을 했던 훈장이 있어 장본 마을로 했다는 기록이 있다.

[어원풀이] ‘옛날 서당을 하는 훈장이 그곳에 살아서 장본(章本)이라고 이름 지었다.’라는 유래는 음차(音借) 표기한 지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장본(章本)’의 이형태는 ‘장변’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유어 지명인 ‘장변’의 유래를 살펴보아야 한다. ‘장변들’이란 ‘궁벽한 지역에서 예외로 길고 평평한 들’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평평한 들이 펼쳐져 마을을 이룰 수 있어 ‘장벌(長坪)’이라고 했던 것이 ‘장변’, ‘장본’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즉, ‘장(長)+벌[野, 坪]’이 ‘장벌/장변/장본’의 이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 ● 장수물들

[별칭] 장수들, 장수평, 장수물벼덩

[형태] 들

[위치] 발산1리 마을회관 북동쪽 400m 벌텃말 아래에 있는 들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長水坪’, ‘장수물벼덩’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발산리 마을회관 앞에 있는 들로 벌텃말 아래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발산1리 마을회관 북동쪽 400m 쯤에 있는 들로 벌텃말 아래에 위치한 들이다.

[어원풀이] ‘장수+물/우물[井]+들[野]’로 분석된다.

### ● 장수물보

[형태] 보(洑)

[위치] 발산1리 마을회관 북동쪽 400m 벌텃말 아래에 있는 들에 있는 ‘보(洑)’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長水井洑’은 ‘장수물보’로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발산리 마을회관 앞에 있는 보로 물을 대기도 하고 배수 역할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장수+물[井]+보(洑)’로 분석된다. 장수 물들에 있는 ‘보(洑)’가 된다.



장수물보

### ● 족두리바우

[별칭] 쪽도리바우, 맞선바우

[형태] 바위

[위치] 삼한골 수리념이고개 우측에 위치한 바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족두리처럼 생긴 바위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삼한골에 있는 족두리 모양의 바위로 옛날 노인들이 입던 두루마기 형상을 하고 그 위에 족두리를 쓴 것과 같은 모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족두리+바우[岩]’로 분석된다. 사람이 족두리를 틀고 있는 모양처럼 생긴 바위라는 의미이다.

### ● 중고개

[별칭] 중꼬개

[형태] 고개

[위치] 발산1리에서 발산 3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발산1리에서 3리로 넘어가는 고개 맨 밑에 ‘서 낭고개’가 있고, 거기서 올라와 가운데 부근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중꼬개’로 바리미 중앙에 있는 고개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발산1리 바리미 중앙에 있는 고개로 발산1리에서 3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맨 밑에 서낭고개가 있고, 거기서 올라와 가운데 고개가 있는데 가운데에 있다고 하여 중고개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중(中)+고개[峴]’로 분석된다. 가운데쯤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 지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발산2리 삼한골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이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발산2리 산천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매봉 밑에 있는 마을과 멀지 않은 골짜기이며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산제당골>산지당골>지당골’로 변이된 것이다.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를 말한다.

### ● 채동막골

[별칭] 채덕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 둘째내 부근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삼한골에 딸린 골짜기로 기술되어 있으며, 『춘주지』에는 삼한골로 올라가다보면 동쪽으로 난 골짜기로 옛날에 이 골짜기에 서 싸리나무를 베어 곡식을 담는 채독을 만들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채동막골’은 싸리나무를 베어 곡식을 담는 채독을 만들던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채독’이란 싸릿개비나 벼들가지 따위를 엮어서 독이나 항아리 모양으로 만들고 안팎으로 종이를 바른 채 그릇을 말한다.

### ● 첫내

[별칭] 첫째내

[형태] 개울

[위치] 삼한골 초입에 있는 개울로 이 개울을 건너면 삼한골로 갈 수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바리미에서 첫째 되는 내’로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삼한골로 가려면 개울을 건너야 하는데 첫 번째 건너는 개울이라고 하여 ‘첫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첫[初]+내[溪]’로 분석된다. 삼한골 초입에 있는 개울로 첫 번째 건너는 개울이라고 하여 ‘첫내’로 부르게 되었다.

### ● 치마바우

[별칭] 너럭바우

[형태] 바위

[위치] 삼한골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삼한골 개울가에 있는 너럭바우로 치마모양으로 넓게 펼쳐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한골로 흐르는 율문천의 한 줄기로 개울로 부근에 치마 모양의 너럭바위가 펼쳐진 형상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어원풀이] ‘치마+바우[巖]’로 분석된다. 치마를 펼쳐놓은 듯한 너럭바위[盤石]를 말한다.

### ● 치마바웃골

[별칭] 너럭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삼한골에 펼린 골짜기로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치마+바우[巖]+へ+골[谷]’로 분석된다. 치마를 펼쳐놓은 듯한 너럭바위(盤石)가 있는 골짜기라는 의미이다.

아들이 9개의 절을 돌며 밥을 얻어다 아버지를 봉양했다. 아이가 모든 절을 돌아다니며 밥을 얻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스님 중 한 분이 도끼로 바위를 내리쳤더니 바위에서 피가 솟구쳐 아홉 개의 절은 모두 불에 타 없어졌으며 아버지와 어린 아들도 사라지고 9개 절터와 깨진 바위만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 ● 황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 송골 동쪽에 있으며 발산리 고인돌이 발견된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삼한골에 펼린 골짜기로 기록되어 있으며,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황골은 송골 우측에 있으며 황골에 고인돌이 있다 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황(黃)+골[谷]’로 분석된다. 발산리 고인돌이 발견된 골짜기로 큰비가 올 때마다 골짜기로 황토물이 흘러 ‘황골’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 ● 효자바위

[별칭] 효자암(孝子岩), 기특바위

[형태] 바위

[위치] 발산리 삼한골 가마골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효심이 있는 아들이 살던 바위라고 하여 ‘효자바위’라고 하며 아이가 기특하다고 하여 ‘기특바위’로 부른다고 한다.

[어원풀이] ‘효자(孝子)+바위[岩]’로 분석된다.

[유래담] <발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삼한골 수리봉에는 9개의 절이 있었으며 절 밑의 바위에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병에 걸리자

**위치와 현황** | 서쪽으로 한계천이 흐르고, 북쪽으로 삿갓봉과 수리봉이 있다. 골짜기와 평야로 이루어져 있는 농촌마을이다. 자연마을에는 산본리(山本里), 샘두역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북중(北中)에 산본(山本)만 있다. 『여지도서』는 북중면(北中面)에 천구리(泉丘里)와 산본리(山本里)가 있으며, 이후의 자료인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 『조선지지자료』도 같다. 『강원도지』는 신북면(新北面)에 산천리(山泉里)만 보이고, 『수춘지』도 마찬가지다. 1984년에 발행된 『춘주지』에는 신북면(新北面)에 산천1리와 산천2리로 분화되었고, 1995년 1월 1일 춘천시와 춘천군 통합으로 신북읍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행정리는 산천리고, 법정리는 산천1리와 산천2리다.

**유래** | 행정구역 폐합으로 천구리(泉邱里), 산본리(山本里), 발산리(鉢山里)의 일부를 합쳤는데, 산본리(山本里)의 ‘山’자와 천구리(泉邱里)의 ‘泉’자를 따서 산천리(山泉里)라 부르게 되었다.

## ●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

[형태] 공공기관

[위치] 산천2리 마을회관 맞은편 신북로 위쪽 방향에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가 있다. 강원도 춘천시 산천리 6-7번지가 된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주변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 한국동물위생학회 등 강원도 농축업관련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소재하고 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식품연구소

## ● 개명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천리에서 지내리로 넘어가는 구리고개 입구에서 북쪽방향으로 깊게 트인 골짜기로 주소는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산23-1이 된다.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구리고개 부근에 있는 골짜기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개명+골’로 분석된다. ‘개명골’이란 지명은 전국적으로 산재한 지명인데 그 유래는 불분명하다.

## ● 구리고개

[별칭] 구릿고개

[형태] 고개

[위치] 산천1리와 지내리 남단과 신동 북동 지역을 동서로 오가는 고갯길이다. 현재(2021년) 도로지명은 ‘구리고개길’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신동리 구리개로 가는 고개’라고 기록되어 있다. 산천리에서 지내리로 연결되는 고갯길이다. ‘산천1리와 지내리 남단과 신동 북동 지역을 동서로 오가는 고개로 현재(2021년) 도로명은 ‘구리고개길’이다. ‘구리(銅)’ 성분이 함유된 냇물이 흐르는 마을을 ‘동포(銅浦)’라 하는데 ‘동포’는 구리 고개를 넘어 ‘신동(新洞)’에 있다.

[어원풀이] ‘구리(銅)+고개(峴)’로 분석된다. 지명에서 ‘구리’는 ‘구리(銅)’, ‘구리(九里)’, ‘구령이’의 방언인 ‘구령이/구랭이/구리이/구리’ 등으로 남아 있다.

## ● 금광터

[별칭] 금광대(金光垈), 금강터, 금광리(金光里), 금관터

[형태] 마을

[위치] 산천2리 마을회관에서 춘천막국수체험장과 춘천운전시험장 방향으로 600m쯤 가다가 서쪽 도로지명 금광길로 600m쯤 가면 ‘금광터’가 나온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금광대는 예전에 금광이라는 부자가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춘천의 지명유래』에는 옛날에 금광이라는 부자가 살았으며 금광대(金光垈), 금광터, 금광리로 불렸다고



금광터

기록되어 있다. 금광이 개발되어서 ‘금광터’가 되었다는 일례도 있다.

[어원풀이] ‘금광(金光)+터[垈]’로 분석된다.

### ● 금송버덩

[형태] 들

[위치] 산천2리 금광터 단우물 막국수 부근 넓은 들을 가리킨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벼들개에 있는 산으로 ‘금송’이 기재되어 있다.

[어원풀이] ‘금송(金松)+버덩’으로 분석된다. 후부요 소인 ‘버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을 말한다.

### ● 다락개

[형태] 들

[위치] 산천1리 율문천을 따라 조성된 들을 말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산천리 앞에 있는 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춘천지명유래』에는 산천1리 앞에 있는 들로 경지정리사업으로 바둑판처럼 잘 가꾸어진 옥답이 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다락(논배미)+개(율문천)’로 분석된다. ‘다락’이란 ‘논배미’의 방언으로 ‘논배미’란 논두렁으로 둘러싸여 다른 논과 구분되는 구역을 말하며, ‘개’는 ‘개울’의 약자로 율문천이 된다. 즉, ‘다락개’는 ‘율문천을 따라 논두렁으로 둘러싸인 논의 구역이 모인 곳’이 된다.

### ● 다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천1리 북쪽 방향으로 수리봉(657m)이 있으며, 수리봉 능선 서쪽으로 1.8km 지점에 ‘다래골’이 있다.

[유래] 다래골에 다래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지명으로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다래’는 한국의 각 지역의 산에 서식하는 낙엽덩굴나무과 나무로, 키는 2~5m 정도이며 잎은 넓은 난형과 타원형으로 가장자리에 가늘고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어린 잎은 나물로 열매는 식용으로 쓰이는데 열매의 맛은 키위와 비슷하다.

[어원풀이] ‘다래(나무)+골’로 분석된다.

### ● 동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 동쪽 끝부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삼한골 동쪽의 마지막에 소재한 골짜기라고 하여 붙여진 골짜기명이다.

[어원풀이] ‘동(東)+막(幕)+골(谷)’로 분석된다. 동쪽 끝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 둔지

[형태] 언덕

[위치]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1002번지

[유래] 산천리에 위치한 물가 가장자리에 있는 언덕으로, ‘둔지’ 끝 부분에 망부석이 있다고 한다.

[어원풀이] ‘둔지’는 ‘둔치’의 강원 지역 방언으로 ‘둔치’는 물가의 언덕, 강, 호수 등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 마른개울

[형태] 개울

[위치] 장본과 산천리 사이의 삼한골에서 흘러나오는 개울로 오동초등학교 뒤의 장본으로 가는 곳에 있다.

[유래] 개울물의 양이 적어 장마철이 되어야 물이 흘러간다고 하여 마른개울이라고 하였다.

[어원풀이] ‘마른+개울’로 분석된다.

### ● 말무덤

[형태] 묘

[위치] 산천2리 금광터 단우물마국수 부근 넓은 들  
인 금송버덩 옆에 있는 돌무지 무덤을 가리킨다.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금송버덩 옆에 있었다.  
길옆에 돌멩이로 쌓아놓은 곳이다.”라 하였다.

[어원풀이] ‘말+무덤’으로 분석된다.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적석총으로 보인다.

### ● 바람매기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 초입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이 골짜기에만 유난히 바람이 분다고 하여  
골짜기 명칭을 ‘바람매기’라고 명명하였다고 한다.

### ● 박수고개

[형태] 고개

[위치] 웃산천리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웃산천리에 있는 고개라  
소개되어 있다.

[어원풀이] ‘박수+고개’로 분석된다. ‘박수’가 남자  
무당인 ‘박수무당’과 관련되기에 무당집이 있던 고  
개란 의미로 보인다.

### ● 밤물

[형태] 샘물

[위치] 미상이다.

[유래] <산천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밤물이  
라는 샘물이 있어 겨울에도 따뜻한 물을 쓸 수 있  
었지만 송어 양식장 및 지하수 개발로 인해 밤물  
이 없어졌다고 기술되어 있다. 샘물이 끊이지 않고

밤낮으로 졸졸 흐르는 것에서 ‘밤물’이라는 지명이  
생성되었지만 이곳의 물이 좋아 송어 양식장의 수  
원지였으나 지하수 개발로 인해 밤물은 현재 없어  
진 상태이다.

[어원풀이] ‘밤[夜]+물(水)’로 분석된다. ‘밤물’이란  
끊이지 않고 밤낮으로 졸졸 흐르는 샘물이라는 의  
미이다.

### ● 뽕나무마을

[형태] 마을

[위치] 산천1리

[유래] 1970년대 정부의 양잠 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20여만 평의 뽕나무밭을 조성했던 곳이지만 현재는 양잠업의 사양화로 뽕나무밭은 밭으로 변하였고 일부만 남아 있다. 『춘천의 지명유래』에 1970년 산천1리 일대에는 뽕나무밭이 조성되어 양잠업이 활발하였으며 1974년 5월 28일 고육영수 여사가 산천리 뽕나무마을에서 열린 새마을 양 잠대회에 참석하여 양잠 시범을 보임으로써 전국에 알려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원풀이] ‘뽕나무+마을’로 분석된다.

### ● 새밀

[별칭] 새밀, 새밋, 산본리(山本里)

[형태] 마을

[위치] 산천 2리에 있다. 산천 2리의 자연마을명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산 밑에 있는 마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산천리 지명조사보고서>  
에서는 ‘새밀’은 산본(山本)의 고유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북읍 ‘산천리’에서 ‘고탄’으로 넘어가는  
고개명이 새밀고개인데, 최근 새밀터널이 개통되었다.

[어원풀이] 산 밑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새밀

### ● 샘두력

[별칭] 샘두리, 심두력, 천구리(泉邱里)

[형태] 마을

[위치] 산천 1리에 있다. 산천 1리의 자연마을명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천구리(泉邱里)’이며 산천리에서 가장 큰 마을로 큰 샘과 언덕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지지자료』에는 ‘심두력’이 천구리의 이표기로 제시되어 있다.

[어원풀이] ‘샘[泉]+두력/두둑[邱]’으로 분석된다. ‘두력’은 ‘두둑’의 강원 지역 방언이다. 샘물이 있는 큰 언덕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 서낭목

[형태] 나무

[위치] 산천 1리 샘두력 마을 중앙에 있는 큰 소나무이다.

[유래] 〈산천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산천 1리 마을 중앙에 있는 큰 소나무로 이곳에는 소나무 두 그루, 갈참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소나무 중 한 그루가 서낭목이며, 산천리 사람들이 매년 정월대보름에 서낭목에서 서낭제를 지낸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원풀이] ‘서낭+목(木, 소나무)’으로 분석된다.

### ● 성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신북읍 산천리 북쪽 춘천시 신북읍 순환대로 아래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성지골’은 다른 지역에도 분포하지만 산천리 ‘성지골’은 ‘맥국(貊國)’, ‘맥성(貊城)’과 관련하여, 성(城)이 있던 지역 또는 성(城)과 관련된 곳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성지(城地)+골[谷]’로 분석된다. ‘성지골’은 ‘맥국(貊國)’, ‘맥성(貊城)’과 관련된 ‘성(城)’이 있던 지역으로 보인다.

### ● 석악골

[별칭] 서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삼한골에 있는 골짜기로 골짜기에 돌이 많이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유래] 돌이 많이 있어서 붙여진 골짜기명이다. 서가골 아래에 말등바우가 있다.

[어원풀이] ‘석(石)+악(岳)+골[谷]’로 분석된다. ‘서가골’은 변이형이다.

### ● 성천정(成泉亭)

[형태] 정자

[위치] 산천 1리 서낭목 옆에 있는 정자이다.

[유래] 〈산천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산천리 서낭목 옆에 있는 정자로 마을 사람들이 오래도록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자 명칭을 ‘성천정(成泉亭)’이라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 ● 솟대배기

[형태] 터

[위치] 산천 1리 마을 입구에 있다.

[유래] ‘솟대’는 마을 수호신 및 경계의 상징으로 마을 입구에 세운 장대로 마을에서 선달 무렵에 새해의 풍년을 바라는 뜻으로 볍씨를 주머니에 넣어 높이 달아매고 장대 끝에는 나무로 만든 새를 붙인다. 신북읍의 ‘솟대배기’는 발산리, 산천리, 용산리, 유포리, 율문리 등 5곳이 있다.

[어원풀이] ‘솟대+배기’로 분석된다. ‘-배기’는 ‘-박이’의 방언형 지명 후부요소로 ‘점박이, 불박이’, 차돌박이’와 같이 ‘무엇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낸다.

### ● 신북농협벼건조장

[형태] 공공기관

[위치] 신북사거리에서 율문리를 지나 산천리까지 직선화된 신북로로 2km 정도 가면 동쪽에 있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1080-1번지가 된다. 주변 도로명은 샘뜨락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천1리 자연마을 지명인 ‘샘두리’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신북농협벼건조장

### ● 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천전리 샘두리에서 ‘밤물’을 지나 아래 지역이 ‘안골’이다.

[유래] 〈산천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안골은 밤물 아래 지역으로 동네 안쪽이라는 의미이며, 어려운 시절 안골에서 쌀이 나와서 이 동네를 먹여 살렸다고 서술되어 있다. 천전리 샘두리에서 ‘밤물’을 지나 더 아래 지역을 ‘안골’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안[内]+골[谷, 洞]’로 분석된다. 안쪽에 있는 골짜기마을이란 의미이다.

### ● 안골들

[별칭] 안골버덩, 내동평(內東坪)

[형태] 들

[위치] 천전1리 안골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내동평은 천구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동평’은 ‘안골들’을 가리키며, ‘안골버덩’이라고도 부른다. 안골들은 ‘동평(東坪)’ 안쪽인 천전1리 샘두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동평(東坪)’은 발산3리와 발산1리와 경계를 이루는 밤울산 사이의 동쪽의 평평한 지대로 현재 춘천운전시험장 부근이 안골들 지역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안[内]+골[谷, 洞]+들[野]’로 분석된다. ‘버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을 의미한다.

### ● 안골보

[별칭] 내동보(內洞深)

[형태] 보

[위치] 천전1리 샘두리에서 ‘밤물’을 지나 더 아래를 ‘안골’이라고 하며, ‘안골보’는 율문천 부근에 위치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내동보(內洞深)’는 천구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내동보’가 ‘안골보’가 된다. 천전리 본 마을 샘두리 중심에서 ‘밤물’ 지나 더 아래를 ‘안골’이라 부르며, ‘안골보’는 그

아래 율문천 쪽에 있다.

[어원풀이] ‘안[內]+골[谷, 洞]+보(深)’로 분석된다.

### ● 오동(五洞)

[형태] 마을

[위치] ‘산천리’, ‘발산리’, ‘유포리’, ‘율문리’, ‘지내리’의 5개 지역 전체가 오동(五洞) 지역이다.

[유래] <산천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신북읍 발산리, 산천리, 유포리에 속한 다섯 개 마을을 합하여 오동이라고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오동(五洞)’은 ‘산천리’, ‘발산리’, ‘유포리’, ‘율문리’, ‘지내리’가 된다.

### ● 오씨네종산

[형태] 산

[위치] 산천1리에서 지내리, 신동으로 가는 ‘구리고개’에 있는 산이다.

[유래] <산천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구리고개 아래, 위의 산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어원풀이] ‘오씨(吳氏)+네+종산(宗山)’으로 분석된다.

### ● 와골

[별칭] 오얏골, 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천천1리 샘두역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산천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옛날 이 지역에서 기와를 구웠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기와를 굽는 골짜기를 ‘와골’이라고 한 것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와(瓦)+골[谷]’로 분석된다.

### ● 와야골벼덩

[별칭] 오얏골벼덩, 왜골벼덩, 와골벼덩

[형태] 들

[위치] 산천1리 샘두역에 있는 들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는 ‘와야평’, ‘와야골벼덩’은 천구리에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와야/와[瓦]+골[谷]+벼덩’으로 분석된다. ‘벼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로 지명 후부요소에서 나타난다.

### ● 유촛물

[별칭] 유천물, 유추물

[형태] 논

[위치] 산천1리 샘두역 ‘다락개’에 있던 논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다락개에 있는 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촛물’은 ‘다락개’에 있는 논이며, ‘조간개’와 함께 경지 정리되어 옥답이 되었다고 한다. <산천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산천1리 ‘샘두역’ 초입에 ‘솟대배기’가 있고, 그 아래 ‘유촛물’이라 부르던 논이 있었다고 제시되고 있다. 현재(2021년)는 소강강 강변 율문리에서 산천리 춘천운전면허시험장 부근까지 4차선 직선도로가 2km 정도 진행되어 도로에 잠식된 가능성이 있다.

### ● 조간개

[형태] 들

[위치] 산천1리 샘두역 조관터에 있던 들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산천리 앞에 있는 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춘천의 지명유래』에는 ‘조간개’는 산천리에 있는 들로 다락개와 함께 경지가 정리되어 옥답으로 변하였다고 서술되어 있다. 현재(2021년)는 소강강 강변 율문리에서 산천리 춘천운전면허시험장 부근까지 4차선 직선도로가 2km 정도 진행되어 도로에 잠식된 가능성이 있다.

[어원풀이] ‘조간/조관(朝官)+개[溪, 川]’로 분석된다.

### ● 조관터

[별칭] 조간터, 조관지

[형태] 마을

[위치] 산천1리 율문천 부근에 위치한다.

[유래] 옛날에 조관(朝官)들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으로 산천리 서쪽 율문천 부근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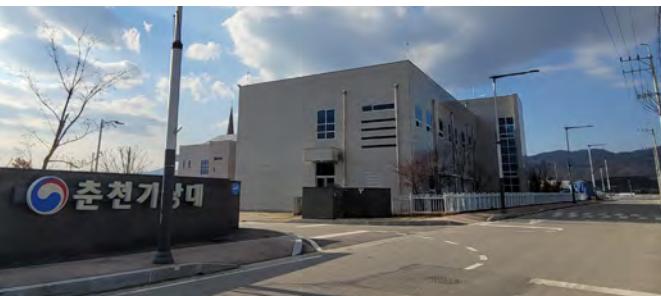
[어원풀이] '조관(朝官)+터(址)'로 분석된다. 예전에 조관(朝官)들이 살았다고 해서 붙여진 지명이다.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은 춘천 지역 사회의 먹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막국수의 세계화와 명품화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전시관과 체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 전시관에서는 막국수의 유래와 종류, 메밀 음식 등 막국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층 체험관에서는 방문객이 직접 메밀을 반죽하여 전통 방식의 막국수 틀에서 면을 뽑아 직접 막국수를 시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춘천기상대

[형태] 공공기관

[위치] 신북 사거리에서 율문리를 지나 산천리까지 신북로로 3km 정도 가면 삼거리가 있으며, 북동 방향으로 뻗은 도로명 '장본길'로 300m 정도 가다 동쪽 방향으로 '춘천기상대'가 있다.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280-2번지가 된다.



춘천기상대

### ●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별칭] 막국수 박물관

[형태] 박물관

[위치] 신북사거리에서 율문리를 지나 산천리까지 신북로로 3km 정도 가면 춘천운전면허시험장이 나오고 조금 더 가면 우측에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이 있다.

[유래] 춘천의 대표 음식인 막국수를 테마로 건립된

### ● 춘천시농업기술센터

[형태] 공공기관

[위치] 신북 사거리에서 율문리를 지나 산천리까지 신북로로 3km 정도 지나면 북서 방향으로 춘천운전면허시험장이 나오며, 1km 정도 더 가면 춘천시



춘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가 있다.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342-2번지가 된다. 주변에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소양강댐효나눔복지센터 등이 있다.

### ● 춘천운전면허시험장

[형태] 면허시험장

[위치] 신북 사거리에서 율문리를 지나 산천리까지 신북로로 3km 정도 지나면 북서 방향으로 춘천운전면허시험장이 나온다.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춘천마국수체험박물관

344-3번지가 된다. 주변에 춘천마국수체험박물관,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등이 있다.

**위치와 현황** | 북쪽으로 삿갓봉이 위치하고, 서쪽으로 북한강과 춘천댐이 있다. 골짜기와 평야로 이루어진 농촌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놋점, 뵙쳤골, 서원말 등이 있다. 신북읍 용산리와 서면 오월리 간의 북한강 본류를 막아 축조한 수력발전댐인 춘천댐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북내(北內)에 가라항(加羅項), 우두(牛頭), 칠산(漆山), 대포곡(大浦谷), 도정(陶井), 돌고지(戛古之), 월봉동(月峰洞), 어전(於田), 송현(松峴), 회동(檜洞), 고탄(古吞), 가곡(加谷) 등이 표기되어 있는데, 용산리에 해당하는 곳을 비정하기 어렵다. 『여지도서』,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는 북내면(北內面)에 서원리(書院里)를, 『조선지지자료』는 북내일작면(北內一作面)에 유점리(鎰店里)와 서원리(書院里)를 표기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와 『강원도지』, 『수춘지』는 신북면(新北面) 용산리(龍山里)로 바뀌었다. 『춘주지』는 용산1리, 용산2리, 용산3리로 구분하였다. 1995년 1월 1일 춘천시와 춘천군 통합으로 신북읍으로 승격되었다. 현재 행정리는 용산리고 법정리는 용산1리, 용산2리, 용산3리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북내일작면 지역인데 행정구역 폐합으로 유점리, 회동리, 서원리를 병합하여 용산리라 부르게 되었다.



### ● 골짜깨

[별칭] 골밖에, 골바께

[형태] 마을

[위치] 용산1리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저수지 못  
둑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골+바깨/밖에’로 분석된다. 저울골 바  
깥 마을이라는 의미가 된다.



골짜깨

### ● 귀영골

[별칭] 궁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3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3리에 있  
으며, 나무가 큰 것이 있으면 소의 먹이통인 구유  
를 맴는데 구유가 귀영, 궁으로 바뀌었다라고 기술

되어 있다. 골짜기 형태가 소가 여물을 먹을 때 사  
용하는 ‘구유/귀영’처럼 생겼다고 해서 생성된 지  
명이다.

[어원풀이] ‘귀영/궁/킹’+골[谷]’로 분석된다. ‘귀  
영/궁/킹’ 등은 ‘구유’의 변이형이다. ‘구유’는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으로  
흔히 큰 나무토막이나 큰 돌을 길쭉하게 파내어  
만든다.

### ● 난쟁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3리 오리나무골 옆 골짜기로 능선에 있  
는 골짜기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3리 오리  
나무골 옆, 능선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난쟁이+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미  
상이다.

### ● 납작고개

[형태] 고개

[위치] 용산 3리 마을회관 부근에 있는 고개로 용  
산 3리 역골에서 놋점으로 넘어다니는 고개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 3리 놋점  
에 있으며, 역골에서 놋점으로 넘어다니던 고개라  
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납작+고개’로 분석된다. 높지 않은 고  
개란 의미로 보인다.

### ● 놋점개울

[형태] 개울

[위치] 놋점에 위치한 산에서부터 놋점 마을을 끼  
고 내려오는 개울다.

[유래] 놋점 마을로 흐르는 개울이라고 한 것에서

‘놋점 개울’로 유래되었다.

짜기에 콘크리트로 못을 박았다고 한다.

### ● 놋점

[별칭] 유점(鎰店)

[형태] 마을

[위치] 용산 3리 놋점 일대를 가리킨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에 놋그릇을 만드는 가게가 있었음’이라고 서술되어 있다. 놋쇠로 만든 생활도구인 놋그릇을 만드는 가게가 있어 마을 명칭을 ‘놋점’이라고 하였다.

[어원풀이] ‘놋/유(鎰)+점(店)’으로 분석된다. 놋그릇, 즉 유기(鎰器)를 만들던 마을이라고 하여 ‘유점(鎰店)’이라고도 한다.

### ● 놋점골

[별칭] 점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 3리 놋점 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 3리 놋점에 있는 골짜기라고 서술되어 있다. 놋점에 있는 골짜기라고 하여 ‘놋점골’로 불여지게 되었다.

[어원풀이] ‘놋+점(店)+골[谷]’로 분석된다.

### ● 대명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 1리 저울골 마을의 처녀골 정상에 있는 골짜기로 큰 대명골과 작은 대명골이 있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처녀골 꼭대기를 이루고 있는 능선에 있는 골짜기로 춘천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다. 대명골은 큰 대명골과 작은 대명골이 있다.

[어원풀이] ‘대명(大明)+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담] 일본인들이 장수가 나온다고 하여 이 골

### ● 덕고개

[형태] 고개

[위치] 용산 3리와 용산 1리를 왕래하던 고개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 3리에서 1리로 넘어오는 고개로, 용산 3리에서 덕고개를 넘으면 저울골로 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덕(德)+고개(峴)’로 분석된다. 둔덕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 덕밭

[형태] 밭

[위치] 소리개에서 놋점으로 넘어가는 길의 정상에 있는 밭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 3리 산비탈에 있는 밭으로 소리개에서 놋점으로 넘어가는 길 꼭대기에 있는 밭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더기+밭’ ‘덕+밭’으로 분석된다. ‘더기밭’은 ‘고원의 평평한 땅을 일군 밭’을 말하며, ‘더기’는 ‘고원의 평평한 땅’, ‘덕’은 ‘더기’의 준말이 된다. 즉, ‘더기밭’이 ‘덕밭’으로 변한 것으로 보인다.

### ● 도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 1리 ‘저울골’에서 ‘아리산’으로 가는 방향에 있다.

[유래] 지명에서 ‘도장골’인 경우는 ‘사방이 산이나 둔덕으로 둘러 쌓여 아득한 지형’, 도장나무라고 불리는 목질이 단단한 회양목이 서식하는 곳, 도살장, 승방(僧房) 등이 있던 곳에서 명명되고 있다. 용산 1리 저울골에 도장나무, 도살장, 승방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곳의 지명은 산이나 둔덕으로

둘러 쌓인 아늑한 지형에서 유래되어 도장골로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도장+골(谷)’로 분석된다. ‘도장’은 ‘안방’의 고어이다.

### ● 돌배나무골

[별칭] 신배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 2리 뾰치골에 있는 골짜기로 행정나무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 2리 뾰치골에 있는 골짜기로 행정나무골 지나서 좌측으로는 망귀봉, 우측으로는 돌배나무골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돌배+나무+골[谷]’로 분석된다. 돌배나무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 돌뱅이

[형태] 들

[위치] 용산 1리 쟁골에서 분덕골로 들어가는 곳에서 능선이 하나로 갈라진 곳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쟁골에서 분덕골로 들어가는 곳에 능선이 하나로 갈라지며, 분덕골에서 돌아가면 ‘돌뱅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돌+뱅이/방(房)’으로 분석된다. ‘뱅이’는 ‘방(房)’의 방언형이다.

### ● 돌투배기

[별칭] 모루배기

[위치] 용산3리 북동쪽 끝의 ‘역골’과 용산 3리 마을회관 중간 ‘소리개’ 사이에 ‘돌투배기’가 있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3리 역골에서 소리개로 올라가는 곳이 ‘모루배기’라고 서술

되어 있다. 이처럼 ‘돌투배기’는 ‘모루배기’라고 불리기도 한다.

[어원풀이] ‘돌+투+배기’로 분석된다. 돌투성이가 박혀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다른 표기인 ‘모루배기’는 ‘산모퉁이에 돌투성이가 박혀 있는 곳’라는 의미이다. ‘모루배기’에서 ‘모루’는 ‘산모룡이’, ‘산모퉁이’가 되며, ‘모룡이’는 ‘모루/모룡/모룡이/모통이/모통이/모탱이/모탱이/모팅이/모랭이/모링이’처럼 변이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 ● 뒷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 2리 뾰치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뒷골 너머 골짜기는 행정나무골 더 들어가면 돌배나무골이 나온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동리 뒤쪽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다. 용산2리 뾰치골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가 된다.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라고 하여 ‘뒷골’로 명명되었다.

[어원풀이] ‘뒤[後]+ㅅ+골[谷]’로 분석된다.

### ● 뒷봉

[형태] 산

[위치] 용산2리 서원말에 있는 봉우리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용산2리 서원말에 위치한 봉우리로 예전에 나룻배로 북한강을 건너가던 곳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뒤[後]+ㅅ+봉(峰)’으로 분석된다.

### ● 망귀골

[별칭] 독사뱀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 3리 마을회관 뒤쪽 망개산에 있는 골

짜기로 행정나무골 지나서 제일 높은 지점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망귀골은 용산 3리 마을회관 뒤쪽 망개산에 있는 골짜기로 원래는 독사뱀골이었으나 한국전쟁 때 이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총살을 많이 당해 ‘망귀골’로 바뀌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망귀(亡鬼)+골[谷]’로 분석된다.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묻힌 골짜기란 의미이다.

### ● 망재산

[별칭] 보통산, 보탱이산

[형태] 산

[위치] 용산 3리의 덕고개와 산줄기가 이어져 있는 산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 3리 입구 덕고개와 산줄기가 이어져 있으며, 아리산 아래 있는 산으로 군부대가 있는 서쪽 방향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망재산을 ‘보통산’, ‘보탱이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어원풀이] ‘망(望)+재[峙]+산(山)’으로 분석된다.

### ● 맹소나무터

[형태] 터

[위치] 용산 3리의 소나무가 있던 터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 3리에 큰 소나무가 두 그루 있어 그 소나무에 말을 매어두고 쉬게 하였다. 소나무에 말을 매어두었다고 하여 ‘맹소나무’라고 하였으며, ‘맹소나무’가 ‘맹소나무’로 바뀌었으며 이 소나무는 한국전쟁 때 없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소나무에 말을 매어두고 쉬게 하였다고 하여 ‘맹소나무’, ‘맹소나무가 되었으며 현재는 없어졌기에 ‘맹소나무터’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어원풀이] ‘맨+소나무+터>맹+소나무+터’로 분석된다. 지명에서 어간 말음이 ‘ㄴ,ㅁ,ㅇ’과 같은 비음(鼻音)의 경우에는 ‘멘소나무터>맹소나무터’처럼 음운이 교체되어 변이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있다.

### ● 명지내

[형태] 개울

[위치] 용산1리 용산저수지 밑 오리나무들 근처에 있는 개울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저수지 밑 오리나무들 근처라고 기술되어 있다. 용산리와 신동리 경계에 있는 개울이다.

[어원풀이] ‘멍지+내’로 분석된다. ‘멍지’의 유래는 불분명한데, 『조선지지자료』에 ‘멍지내들’이 ‘明池川坪’으로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명주(明紬)의 변이형인 ‘멍지’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한다.

### ● 명지내들

[형태] 들

[위치] 용산1리 용산저수지 밑 오리나무들 근처에 있는 명지내 앞에 있는 들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멍지내들’은 ‘明池川坪’이며 한계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멍지내’가 흐르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멍지+내+들’로 분석된다. ‘멍지내’ 참조.

### ● 뢰치골

[별칭] 뢰치골, 메치골, 매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 2리 춘천댐에서 영서로로 춘천 방향 2km쯤에 용산2리마을회관이 있다. 회관 동쪽 금가까이에 ‘뫼치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용산리의 중심이 되는 마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용산리 지명보고서〉에 용산2리 댐 밑에 있는 마을에 옛날에 몇 집이 살았고 하여 이렇게 ‘뫼침골’로 불린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명명 근거로 적합해 보이지 않는다. 현재는 상당히 개간되었지만 예전에 뫠치골 뒷 산자락을 못자리로 이용하였기에 ‘못자리 골짜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뫼/묘(墓)+치(置)+ㅅ+골(谷)’로 분석된다. 예전에 뫠치골 뒷 산자락을 못자리로 이용하였기에, ‘못자리 골짜기’로서 ‘묘지골’이 기본형이다. ‘뫼치골, 묘치골, 메치골, 메치골’ 등의 이형태가 있다.

### ● 문암서원(文巖書院)터

[별칭] 서원터, 서원말

[형태] 터

[위치] 용산2리마을회관 앞을 지나는 영서로를 따라 춘천댐 방향으로 북한강변에 있다.

[유래] 『강원도지』에 춘천시 신북면 용산리에 있던 서원으로 조선 광해군(1610년)에 춘천 지역 유생들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인조(1648)로부터 ‘문암(文巖)’으로 사액되어 이황(李滉), 이정형(李廷馨), 조경(趙絅) 등의 위패를 모셨으나 홍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철폐되었다. 이로 인해 서원마을(書院里)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기술되어 있다.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현재 강원수자원공사 사택이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문암(文巖)+서원(書院)+터’로 분석된다.

### ● 보탱이

[별칭] 보테이

[형태] 마을

[위치] 용산3리 버스 종점인 놋점 입구를 가리킨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 3리 버스 종점인 놋점 입구로 ‘보(深)’에 물을 대는 곳인 ‘보대’가 있어 ‘보탱이’로 명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보(深)+탱이(보탱이)’로 분석된다.

### ● 봉랫둑

[형태] 산

[위치] 용산3리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옛날에 봉화를 올리던 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에 봉화를 올리던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3리에서 지내리, 고탄리로 넘어가는 능선 가장 높은 봉우리로 옛날에 이곳에서 봉화를 올렸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봉애/봉화(烽火)+ㅅ+뚝/뚝’으로 분석된다.

### ● 부채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 3리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 3리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부채+골(谷)’로 분석된다. 지명에서 ‘부채골’은 골짜기에 들어서면 저절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경우, 골짜기의 지형이 부채 모양인 경우에 유래된 경우가 있으나 용산3리 부채골의 유래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 ● 분덕골

[별칭] 분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 1리에 있는 골짜기로 공동묘지가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공동묘지가 있

어 분덕골이라 하며, 쟁골에서 지내리 방향으로 가는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분(墳)+덕/둔덕+골[谷]’로 분석된다. 지명에서 ‘분덕골’은 묘지가 있는 골짜기에 명명된다.

### ● 불개미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3리 놋점 마을 호랑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3리 놋점 마을 호랑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불개미가 많아 ‘불개미골’로 유래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불+개미/가마+골[谷]’로 분석된다. 용기를 굽던 불가마가 있던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 산자골

[별칭] 산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 1리 저울골 마을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저울골에서 산제당이 있는 골짜기로 큰 산자골과 작은 산자골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자골에는 큰 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그곳이 산제당이 있던 곳이 된다.

[어원풀이] ‘산자/산제(山祭)+골[谷]’로 분석된다.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 산지당터

[별칭] 산제당터

[형태] 터

[위치] 용산 1리 저울골 마을 산자골에 있는 산제당터로 큰 나무 세 그루가 있는 곳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1년에 한번씩

마을 제사를 지내는 산지당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산천지라고 해서 산신, 하늘의 신, 땅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현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산(山)+지당/제당(祭堂)+터[垈]’로 분석된다. 산제(山祭)를 지내던 당집이 있던 곳이란 의미이다.

### ● 샛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 2리 골짜기로 뒷골과 행정나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사이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다.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2리 골짜기로 뒷골과 행정나무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새/사이[間]+ㅅ+골[谷]’로 분석된다.

### ● 서원말

[형태] 거주

[위치] 용산2리

[유래] 『한국지명총람』 등에 “용산리 서쪽 북한강에 있는 마을로서 문암서원이 있었음”이라 기록되어 있다. <조사보고서>에서는 용산2리 전체를 서원말이라고도 한다. 옛 자양강 옆에 있는 마을로서 문암서원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원풀이] ‘서원(書院)+말[村]’로 분석된다. 문암서원이 있던 마을이란 의미이다.

### ● 성산(成山)

[형태] 산

[위치] 용산리 서지골의 성산약수가 있는 산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서는 성산은 성

산약수가 있는 산으로 일제강점기 때 은광 채굴을 했으며 성씨의 산이라 하여 ‘성산’으로 명명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성(成)+산(山)’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산재한 지명인 ‘성산(城山)’은 ‘산성이 있는 산’, ‘성처럼 둘러싸고 있는 산’, ‘고개가 있는 산’ 등의 의미로 쓰인다.

### ● 성산약수(成山藥水)

[형태] 샘

[위치] 용산리 성산에 있는 약수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춘천댐 부근 용산리 성산에 있는 약수이다. 1968년 류광국에 의해 발견되었고 약수의 수질 검사 결과 약수를 마시는 것은 적합하지 않지만 피부병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용왕 샘터 아래 산비탈 계단을 타고 올라 가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 ● 소덕골

[형태] 골짜기

[위치] 놋점 부근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용산 3리 놋점에서 춘천댐 방향으로 보이는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소(小)+덕[언덕, 둔덕]+골[谷]’로 분석 된다. 작은 둔덕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 소리개

[별칭] 쑥고개, 송현동

[형태] 고개

[위치] 용산 3리에서 지내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고개 마루턱에 큰 소

나무가 있다 함”이라 되어 있고,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 3리에서 지내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쑥고개’라고도 부르며, 소씨가 살아 붙여진 이름으로 기술되어 있다. 서낭고개, 쑥고개, 돌투배기까지 이르는 지역을 말하며, 예전에는 소리개에 장이 섰다고 한다.

[어원풀이] ‘소리/솔[松]+고개’로 분석된다. 소나무가 있는 고개, 또는 얕으막한 고개란 의미이다.

### ● 수살배기

[형태] 터

[위치] 용산 1리 용산 저수지 입구를 말한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용산 저수지 입구를 ‘수살배기’라고 하며 장승과 솟대를 세웠는데 현재 자취가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수살(水殺)+배기/박이’로 분석된다. ‘수살(水殺)배기’를 ‘수살대’라고도 하는데 마을의 재앙이나 병마를 막기 위해 만든 긴 장대나 나무에 물새를 엎어 놓으며 흔히 장승과 함께 세우는 것이다. ‘-배기’는 ‘불박이’, ‘차돌박이’와 같이 ‘무엇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는 지명 후부요소로 ‘-박이’의 방언형이다.

### ● 수청령고개

[별칭] 뭇푸레고개, 물푸레고개, 무푸레고개

[형태] 고개

[위치] 용산 2리에서 사북면 고탄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뭇푸레 고개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 2리에서 사북면 고탄리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고개에 쉬청나무가 서식한 것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보인다. 쉬청나무의 다른 이름이 물

푸레나무이기에 물푸래고개, 무푸래 고개라는 지명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수청/쉬청(나무)+령(嶺)+고개[峙]’로 분석된다.

### ● 숯나짓골

[형태] 골짜기

[위치] 오리나무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오리나무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솟/솟+나지(裸地)+ㅅ+골[谷]’로 분석된다.솟을 굽던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 아기장수발바우

[형태] 바위

[위치] 용산리 용암샘터 아래 강가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왕샘터 아래 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 사람 발자국 같은 흔적이 세 개 있는데, 이 발자국은 예전부터 아기장수 발자국이라 전해지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아기+장수+발[足]+바우[岩]’로 분석된다. 아기장수 설화와 연관되어 붙여진 명칭이다.

### ● 아리산

[형태] 산

[위치] 용산1리에서 북한강변 용산 3리로 넘어가는 ‘쑥고개’ 서쪽 끝에 있는 산이 ‘아리산’이다. 춘천순환대로와 영서로가 교차하는 삼각지점 남쪽에 있는 산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1리에서 용산 3리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는 산으로 기술되어 있다. 용산1리에서 북한강변 용산 3리로 넘어가는 ‘쑥고개’ 서쪽 끝에 있는

[어원풀이] ‘아리/알[卵]+산(山)’으로 분석된다. ‘알(卵)’은 ‘얼(魂)’과 같은 어원으로 ‘아리수’의 ‘아리’도 같은 어원이다. 용산리의 ‘아리산’은 ‘얼(魂)’이 서린 곳’의 의미이다. 북한강 문화의 상징성이 서린 산으로 볼 수 있다.

### ● 아리산고개

[형태] 고개

[위치] 용산1리와 3리 사이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 1리에서 용산 3리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기술되어 있다. 현재 용산 1리 주민들은 아리산 남쪽 아리산길로 용산저수지와 저울골을 다니고 있으며, 용산3리를 가려고 아리산 고개를 넘어다니지 않는다.

[어원풀이] ‘아리/알+산+고개’로 분석된다.

### ● 안골

[형태] 마을

[위치] 용산1리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용산저수지를 기점으로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용산저수지 안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안골’로 명명되었으며 바깥쪽은 ‘골바깨’라 한다.

[어원풀이] ‘안[内]+골[谷]’로 분석된다.



안골

## ● 역골

[별칭] 역동(驛洞)

[형태] 마을

[위치] 용산 3리 마을회관에서 춘천순환대로 북동 방향에 지내 2리 ‘지둔지소류지’ 부근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역동’, ‘놋점’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 시대 역(驛)이 있었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역동’은 ‘소리개’ 조금 못 미쳐 있으며 놋점 남동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 역이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역(驛)+골[谷]’로 분석된다. 조선시대에 역(驛)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역골

## ● 영귀정터(詠歸亭)

[별칭] 사군정터, 서대터

[형태] 터

[위치] 문암서원(文巖書院) 동쪽에 있던 정자 터로 현재는 그 위치를 밝히기 어렵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문암서원(文巖書院) 동쪽에 있는 정자 터로 성종 때 시인 이주(李胄)의 서(序)가 있으며 ‘사군정터’, ‘서대터’로 불린다는 기록이 있다.

## ● 오리나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 3리 역골 마을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오리나무가 많은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용산 3리 역골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오리나무+골[谷]’로 분석된다. 오리나무가 서식하고 있는 골짜기라고 하여 생겨난 지명으로 보인다.

## ● 오리나무들

[형태] 들

[위치] 용산저수지 부근의 들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저수지가 생기기 이전 논둑에 오리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오리나무+들’로 분석된다.

## ● 용갑재

[형태] 고개

[위치] 용산 3리 북동쪽 끝에 있는 고개로 신복읍 지내리, 사북면 고탄리까지 갈 수 있는 고개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용산 3리에 있는 고개로 지내2리 지둔지와 가까우며 용산리 리(里) 지명이 생성되게 된 토대가 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용(龍)+갑(岬, 산허리)+재[峙]’로 분석된다. 용처럼 길게 뻗은 능선 중간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 용산리피암제1터널

[형태] 터널

[위치] 용산 3리 마을회관에서 영서로로 춘천댐 방향으로 1km쯤에 있다. 피암1터널, 피암2터널이 연속해 있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성산약수 바로 밑에 있는, 돌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터널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 ● 용산샘터

[별칭] 용왕천(龍王泉)

[형태] 샘

[위치] 용산피암제2터널 부근 춘천댐 가는 국도 옆에 있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왕천(龍王泉), ‘수리봉지맥’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도로명은 ‘용산1길’이다. 예전에는 춘천 화천 방향으로 지나던 사람들이 용산샘터에 들려 샘물을 몇 통씩 떠갈 정도로 불렸으나 춘천순환대로의 개통으로 한산해졌다.

[어원풀이] ‘용산+샘+터’로 분석된다.

### ● 용산저수지(龍山貯水池)

[형태] 저수지

[위치] 용산 1리 저울골. 춘천시 신복읍 용산리 184번지



용산저수지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954년에 착공하여 1957년 완공된 길이 105m, 높이 9.6m 제방을 쌓아 만든 농업용 저수지로 용산리, 신동리의 농업용수 공급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용산(龍山)+저수지(貯水池)’로 분석된다.

### ● 용소

[형태] 소(沼)

[위치] 용왕샘터 부근 아기장수발바위 밑에 있던 소(沼)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왕샘터 아래 아기장수발바위 밑 자양강에 있던 소(沼)이며, 옛날에 용소에서 용이 승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용(龍)+소(沼)’로 분석된다. 용이 승천한 곳이라고 하여 생겨난 지명이다.

### ● 원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 2리에서 고탄으로 넘어가는 수청령고개 못 미쳐 오른쪽 골짜기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 2리에서 고탄으로 넘어가는 수청령고개 못 미쳐 오른쪽 골짜기이다. 원골은 큰 원골과 작은 원골로 나뉘며 큰 원골에는 연못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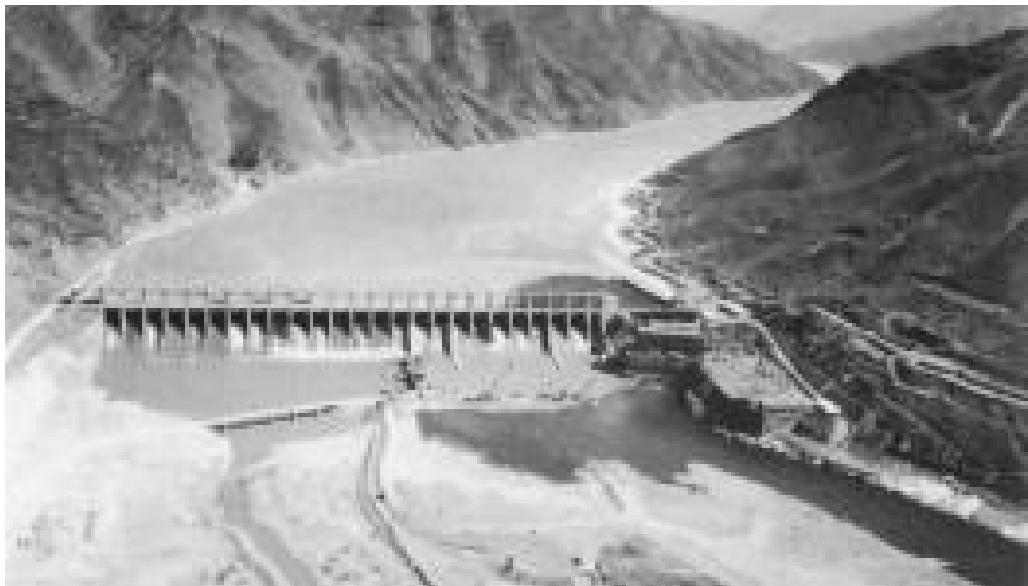
[어원풀이] ‘원(院)[院]+골[谷]’로 분석된다. 조선시대 역원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 쟁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 1리 분덕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어원풀이] ‘재[峙]+앵+골[谷]’로 분석된다. 고개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1965 춘천댐



춘천댐

### ● 저울골

[별칭] 회동(檜洞), 절골

[형태] 마을

[위치] 용산 1리 시내버스 용산리 종점부터 용산저수지 북쪽에 해당되는 마을이다.

[유래] 1915년 간행된 『강원도지지조서』에 용산리 소재 마을이름으로 한자지명 ‘檜洞里’와 한글지명 ‘저울골’이 표기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회나 무가 많은 마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용산 3리 마을회관에서 북동쪽 1km쯤에 있는 ‘소리개’에서 남동쪽 1km쯤 거리에 ‘용산저수지’가 있는데 북쪽 마을이 ‘저울골’이다.

[어원풀이] ‘저울+골[谷]’로 분석된다. 한자지명 ‘회동(檜洞)’에 쓰인 ‘檜’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자 사전에 ‘젓나모 회’라고 풀이하였기에 ‘저울’을 훈차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근처에 용산저수지가 있다는 지형적인 면을 고려할 때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대라는 의미에서 생겨난 지명으로 보인다. ‘저(低)+울(고을>울, 村)+골’ 즉 ‘낮은 골 마을’이란 의미이다.

춘천댐에서 의암댐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경치가 좋아 춘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명소가 되고 있다.

### ● 태봉(胎峰)

[형태] 봉우리

[위치] 용산 2리에 있는 봉우리이다.

[유래] 〈용산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산 2리 뒷산에 영조의 7녀인 화협옹주의 태실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태(胎)+봉(峰)’으로 분석된다. 왕실에서 나온 ‘태(胎)’를 묻은 봉우리란 의미이다.

### ● 태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산 2리 서원 마을 춘천댐 방향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 공주의 태봉(胎封)이 있던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태봉(胎封)+골[谷]’로 분석된다. 태를 묻은 봉우리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태봉골

### ● 춘천댐

[형태] 댐

[위치] 춘천신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수력발전용 댐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춘천댐은 신북읍 용산리와 서면 오월리 간을 흐르는 북한강을 막아 1965년에 완공된 수력발전용 댐으로. 댐의 높이는 40m, 길이는 465m, 만수위 해발 103m로 북한강 하류의 의암수력발전소, 청평수력발전소의 발전량과 용수를 조절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춘천댐의 건설로 인공호수인 춘천호가 생성되었으며 호수 주변에는 팔각정, 매운탕집들이 생기게 되고,

**위치와 현황** | 마을 대부분의 지대가 비교적 평坦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서쪽에서 북쪽방향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다. 자연 마을로는 유포, 아침못, 웃문정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북중(北中)에 유포(柳浦)가 나온다. 『여지도서』는 북중면(北中面)에 유포리(柳浦里)가 포함되었다.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도 마찬가지다. 『조선지지자료』는 북중면(北中面)에 상유포리(上柳浦里)와 하유포리(下柳浦里)로 구분하였고, 『강원도지지조서』, 『강원도지』, 『수춘지』는 신북면(新北面)의 유포리(柳浦里)라 하였다. 『춘주지』는 유포1리, 유포2리, 유포3리로 나뉘었다. 1995년 1월 1일 춘천시와 춘천군 통합으로 신북읍으로 승격되었으며, 현재 행정리는 유포리고 법정리는 유포1리, 유포2리, 유포3리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북중면 지역으로서 냇가에 버드나무가 많았으므로 버들냇가 즉 유포(柳浦)라 했으며, 행정구역 폐합으로 상유포리와 문정리, 하유포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유포리라 하였다.



### ● 가래나무선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마적산 작은 무쇠골에서 등성이를 하나 넘어 원편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마적산 작은 무쇠골에서 조금 올라가 왼쪽에 있는 골짜기로 가래나무가 많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가래나무+선[棲, 立]+골[谷]’로 분석된다. 가래나무가 서식하고 있어 생겨난 지명이다.

### ● 갈기식

[형태] 들

[위치] 2군단 부근 윗문정리 들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웃문정 앞에 있는 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춘천의 지명유래』에는 윗문정리 들인데 경지정리사업으로 바둑판처럼 잘 다듬어진 옥답으로 변했다고 설명되어 있다. 논을 갈아먹었다고 해서 ‘갈기식’이 되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갈기/갈다+식(式)’으로 분석된다.

### ● 갈미고개

[형태] 고개

[위치] 유포리 아침못에서 천전리 오수물로 넘어가는 작은 고개로 천전리에 2군단이 주둔하면서 고개는 없어졌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유포리 아침못에서 천전리 오수물로 넘어가는 작은 고개로 이 고개를 넘어가면 지둔지로 갈 수 있으며 2군단이 주둔하면서 고개는 사라졌고 현재 2군단 통신대가 있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갈[岐]+미[山]+고개(峴)’로 분석된다. 여러 분기점으로 갈라지는 고개란 의미로 보인다.

### ● 강원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

[형태] 공공기관

[위치] 소양6교를 건너 자동차전용도로 끝자점에서 양구 방향 신설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보인다.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228번지가 된다.

[유래] 1959년 1월 1일 강원도 농도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강원도 농민교육원, 강원도 농업기술연수원,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업연수관 등 명칭 변경이 있었으며, 2005년 3월부터 강원도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21세기 전문농업인을 양성을 위한 농업인 전문연수기관으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농업의 이론, 작물 재배, 판매 전략 등 미래농업대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 갯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무지골의 첫 골짜기로 바람매기 반대방향으로 뻗어 있는 깊은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지골에 들어서면 깊은 첫 골짜기로 바람매기 반대방향으로 뻗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개/계[川, 溪]+ㅅ+골[谷]’로 분석된다. 개울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 구재집진골

[별칭] 구제비집진골

[형태] 골짜기

[위치] 떡갈봉장등 방향 작은 승지골 아래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작은 승지골 아래 있는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유래는 불분명하다.

다. 2군단에서 ‘아침못’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벼들개에 있는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2군단 사령부에 있는 야산으로 이곳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옛날부터 정부에서 소나무를 베지 못하도록 금지했던 지역이라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금(禁)+송(松)’으로 분석된다. 소나무를 베지 못하는 지역이라고 하여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 ● 굴용소

[형태] 소(沼)

[위치] 무지골에 있는 용소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구멍이 뚫어져 있는 용소로 상당히 깊어 소가 빠지면 소양강까지 떠내려갈 정도였는데 배후령 터널을 뚫으면서 메워 알아졌다고 한다.

[어원풀이] ‘구렁[窟]+소(沼)’로 분석된다. 구렁처럼 움푹 패인 소란 의미의 ‘구렁소’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 ● 김가무장등

[형태] 장등

[위치] 절골과 뒷골을 나누는 큰 능선에 있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절골과 뒷골을 나누는 큰 능선을 말하며, 옛날에 김씨들이 모여서 이곳에 제사를 지낸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유래는 불분명하다. ‘장등’은 산마루의 방언으로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부분을 말한다.

### ● 금광구뎅이

[형태] 광산터

[위치] 밤나무선골과 큰 선비골 사이에 있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큰 선비골에 금광구뎅이가 있으며, 밤나무선골과 큰선비골 사이에 광산의 흔적인 굴(窟) 자리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금광(金光)+구뎅이’로 분석된다. ‘구뎅이’는 ‘구덩이’의 비표준어이다.

### ● 너구리봉

[형태] 봉우리

[위치] 유포리 무지골 닥구뎅이 옆에 있는 봉우리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닥구뎅이 바로 옆에 있는 봉우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닥구뎅이는 용소둔지 밑 발산농장 근처로 창호지를 만드는 탁나무를 찌던 구덩이를 말한다.

[어원풀이] 유래는 불분명하다.

### ● 금송(禁松)

[형태] 산

[위치] 2군단 사령부 위치에 소재하고 있는 야산이

### ● 느릅나무선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 곱골 지나서 화전밭이 있으며 화전밭이 뒤에 있던 골짜기가 된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큰 곰골을 지나 예전에 화전을 하던 화전밭의 뒷 골짜기이다. 이곳에 느릅나무가 많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느릅나무[榆]+선[棲, 立]+골[谷]’로 분석된다. 느릅나무가 많이 서식하여 생겨난 지명이다.

### ● 닥구뎅이

[별칭] 닥둔지  
[형태] 터  
[위치] 유포리 무지골 아래 발산농장 부근에 있던 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 ‘벼들개에 있는 무덤처럼 생긴 터’로 기록되어 있으며,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용수둔지 밑 발산농장 근처 오목한 부분으로 무지골 초입새 전체를 이르는 말로 쓰였으며 창호지를 만들려고 구덩이에 닥나무를 썼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닥[楮]+구뎅이/구덩이’로 분석된다. ‘닥’은 ‘닥나무’를 말하며 ‘구뎅이’는 ‘구덩이’의 방언이다.

### ● 덕바치

[별칭] 덕밭이  
[형태] 골짜기  
[위치] 무지골 절골 첫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절골 첫 골짜기로 골짜기가 좌측으로 뻗어 있으며 작은 승지골, 큰 승지골을 넘어가면 갯골로 통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덕[둔덕]+밭[田]+이’로 분석된다. 언덕에 밭이 있는 골짜기 또는 둔덕 밖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 덜덜이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갯골 골짜기에서 원쪽으로 뻗은 골짜기가 된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갯골 조금 들어가서 원쪽으로 뻗은 골짜기로 깊고 크며, 돌이 많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덜덜+이+골[谷]’으로 분석된다. ‘덜덜’은 돌이 부딪칠 때 나는 소리로 의성어이다. 골짜기에 돌이 많아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보인다.

### ● 도장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무지골 마을 박항 묘가 있는 곳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지골 박항 묘 있는 곳으로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도장+골[谷]’이다. ‘도장’은 ‘안방’의 고대어이다. 박항 묘가 있는 곳이 산이나 둑역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지형에서 유래되어 도장골로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 ● 둔지들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봉곶한 모양을 닮아서 붙여진 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포리 지역의 둔치에 있던 들로 지형이 그대로 지명으로 생성된 경우가 된다.  
[어원풀이] ‘둔지/둔치+들[野]’이 된다. ‘둔지’는 ‘둔치’의 강원 지역 방언으로, 강이나 못 따위의 가장 자리가 된다.

## ● 뒷골

### [형태] 골짜기

[위치] 유포리 낚시터 부근에서 떡갈봉장등으로 뻗어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유포리 낚시터에서 떡갈봉장등으로 뻗어 있는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뒤[後]+ㅅ+골[谷]’로 분석된다. 마을 뒤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다. 돌이 마당처럼 넓게 펼쳐 있던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 ● 마당음덩개

### [형태] 들

[위치] 유포리 벼들개 마을의 들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벼들개에 있는 들로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마당+음덩/옹덩/옹덩이+개’이다. ‘마당 모양의 웅덩이가 있는 들’로 해석할 수 있다.

## ● 떡갈봉장등

### [형태] 산

[위치] 무지골 장승매기에서 마적산 사이의 장등을 말한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마적산에서부터 이어진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모여 큰 장등을 이루는데, 특히 장승매기장등에서 마적산 사이를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떡갈+봉(峰)+장등’으로 분석된다. ‘장등’은 산마루의 방언으로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부분을 말한다. 떡갈나무가 서식했던 것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보인다.

## ● 만니골

### [형태] 골짜기

[위치] 높은터골 다음에 있는 첫 골짜기로 방랑골에서 방어재로 가는 방향의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높은터골과 말림골 사이에 있으며, 높은터골 다음에 있는 첫 골짜기로 방랑골에서 방어재로 가는 방향 좌측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유래는 불분명하다.

## ● 망두석개

### [형태] 터

[위치] 유포리 아침못에서 접박골로 넘어가는 고개 앞 망두석이 서있던 터로 2군단 사령부가 들어서 서 지금은 없어졌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망두석이 서 있던 터’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묘 앞에 갓 모양을 닮은 두 개의 비석을 세워 놓은 망두석이 있던 터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다.

[어원풀이] ‘망두석+개[들, 野]’로 분석된다. 망두석이 서있던 터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보인다.

## ● 마당서틀

### [형태] 들

[위치] 유포리 무쇠골 원편 능선의 나무가 없이 큰 돌로만 이루어진 곳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쇠골 원편 능선에 나무가 없는 큰 돌로만 이루어진 곳으로 작은 무쇠골과 무쇠골 사이로 ‘서틀’이 마당처럼 넓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마당+서틀/서덜’로 분석된다. ‘서틀/서덜’은 ‘강가에 돌이 널부러져 있는 형상’을 의미한

## ● 머굴봉

[별칭] 머구리봉, 머구리터, 머굴터

[형태] 산

[위치] 유포리 무지골 앞에 있는 작은 산봉우리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지골 앞에 있는 작은 산봉우리로 머구리는 뱈의 먹이인 개구리를 의미하며, 머구리봉은 무지골 올라가기 전 좌측에 위치하며 박씨 묘를 쓴 자리 앞에서 바라다 보인다. 아침 농원 근처로 빛과 산의 경계이며 산의 형세가 뱈이 먹이를 먹으러 내려오는 형국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라 기록되어 있다. 『신북읍 지명유래』에는 “머굴봉 뒤에는 약 200m 사이를 두고 뱠처럼 길고 좁은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 뭉친 곳에 묘를 쓴 박항의 묘가 있는데 이곳이 뱠머리 형상의 못자리라 해서 사두형(蛇頭形)이라고 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어원풀이] ‘머굴/머구리+봉(峰)’으로 분석된다. ‘머구리’는 ‘개구리’나 ‘보자기’의 방언이다.

## ● 며느리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마적산 밑에 있는 바위라고 기술되어 있다. 현재 정확한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며느리바우’는 아침못 저수지 유래담과 관련된 바위로 보인다.

[어원풀이] ‘며느리+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유래담] 옛날 아침못 저수지 부근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으며 어느 날 스님이 시주를 부탁하였으나 쌀 시주 대신 쇠똥을 주었다. 이에 며느리가 뒷문으로 나가 며느리가 스님에게 쌀을 시주하자 스님은 며느리에게 곧 장마가 질 것이니 몸을 피하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고 장마가

시작되어 많은 비로 인해 부자집에는 며느리 혼자 살아남게 되었다. 며느리는 스님의 말을 잊고 결국 뒤를 돌아보게 되어 돌이 되었다고 한다.

## ● 모래구데이

[형태] 터

[위치] 무지골 마지막 부분에 위치한 터로 밤나무 선골 옆에 있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지골 막바지에 위치한 좁다란 터로 밤나무선골 다음에 위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모래+구데이/구덩이’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 무쇠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마적산 아래 공동묘지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마적산 아래 공동묘지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로 새마을회관에서 바로 보이는 골짜기이며 도로의 커브가 있는 지점에서 올라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무쇠[水鐵]+골[谷]’로 분석된다. 풀무간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로 보인다.

## ● 무스매기

[형태] 골짜기

[위치] 용소둔지와 작은 선비골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소둔지와 작은 선비골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로 좁고 험한 골짜기로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무스+매기[項]’로 분석된다. ‘무스’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무쇠골’과 연관되어 ‘무수막

이'로 보인다.

### ● 무지골

[별칭] 무지동(茂枝洞), 무짓골

[형태] 골짜기

[위치] 유포리 닥구뎅이 위쪽의 긴 골짜기이다. '무지골'은 순환대로와 춘양로가 교차하는 신북교차로에서 2.2km쯤에 있는, 배후령터널이 시작되는 위아래 골짜기를 이른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골짜기가 무지무지 깊어서 붙여진 이름이며 유포리에서 오음리로 넘어가는 골짜기인데 지금은 배후령 터널이 생겼다고 설명하고 있다. 순환대로와 춘양로가 교차하는 신북교차로에서 2.2km쯤에 있는 배후령 터널이 시작되는 위아래 골짜기를 말한다.

[어원풀이] '무지(茂枝)+골[谷]'로 분석된다. 골짜기가 깊어서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서쪽 들을 말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유포리와 율문리에 걸쳐 있는 마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웃문정은 유포3리, 아랫문정은 율문리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소슬뫼를 찾아서』에서는 '문정(文廷)'은 임금이 나랏 일을 집행하던 곳으로 해석하여 '문치(文治)를 주로 하는 조정'에서 '문정리'의 지명을 유추하였다. '문정리(文廷里)'는 천전2리와 율문3리에 걸쳐있던 마을이었지만 현재는 행정 지명상 유포3리에 속하며 '웃문정'은 유포3리, '아랫문정'은 율문3리에 해당된다. 문정리는 현재 마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둔지' 남서쪽 바로 아래 '언매기들'부터 서쪽 들녘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원풀이] '문정(文廷)+리(里)'로 분석된다. 지명에서 '문정'은 특별히 변이된 이형태가 없는 경우 '문안에 있는 뜰이나 정원(門庭)', '문 안이나 밖에 있는 우물(門井)' 등으로 볼 수 있다.

### ● 무지골천

[별칭] 무지골개울, 무짓골개울

[형태] 개울

[위치] 유포리 닥구뎅이 위쪽 긴 골짜기인 무지골에 있는 하천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무짓골에 있는 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배후령 서쪽 계곡과 마적산 서편 자락에서 흘러들어 삼한골에서 합류하여 유포리 무지골로 흐르는 하천이 무지골 개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무지(茂枝)+골[谷]+천(川)'으로 분석된다.

### ● 물방앗간

[형태] 물방앗간

[위치] 무지골 개울 부근에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져 위치를 알 수 없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지골 개울물로 돌리던 물방앗간이 있었으나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물+방아+ㅅ+간'으로 분석된다.

### ● 물향아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무지골의 한바우골 다음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지골 더 올라가서 한바우골 다음 골짜기로 현재 도로까지 파

고든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물[水]+향아+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 바람매기

[형태] 산

[위치] 용소둔지 방향으로 원쪽으로 보이는 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소둔지 위 원쪽에 위치한 높고 넓은 산으로 작은 선비골을 라가기 전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바람+매/막+기/이’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지내 생겨난 지명으로 보인다.

### ● 밤나무선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무지골 원쪽 방향으로 큰 선비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지골 올라가면서 원쪽 방향으로 나있는 골짜기로 큰 선비골 위쪽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밤나무[栗木]+선[棲, 立]+골[谷]’로 분석된다. 밤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생겨난 지명이다.

### ● 박달나무선골

[형태] 골짜기

[위치] 느릅나무선골 윗 골짜기로 무지골 막바지에 위치하고 있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느릅나무선골 윗 골짜기로 무지골 막바지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박달나무[檀]+선[棲, 立]+골[谷]’로 분석된다. 박달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생겨난 지명이다.

### ● 배후령(背後嶺)

[형태] 고개

[위치] 용화산과 오봉산 사이

[유래] 『한국지명유래집』에 춘천시 신북읍에서 화천군 간동면 간척리로 갈 수 있는 고개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전에는 배후령 고개나 46번 국도로 다녔지만 2012년 3월 30일 5,057m 배후령 터널이 개통되어 국도는 폐쇄되었다.

[어원풀이] ‘배후(背後)+령(嶺)+고개[峴]’로 분석된다. 마을 뒤에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 박정승묘

[별칭] 박항 묘

[형태] 묘

[위치] 유포리 도장골에 있는 묘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고려 충렬왕 때의 무덤’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춘천 박씨 시조인 박항의 무덤이라 하였다.

[어원풀이] ‘박(朴)+정승(政丞)+묘(墓)’로 분석된다. 춘천 박씨의 시조인 박항이 고려 시대에 정승을

### ● 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박항 묘가 있는 방향의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박항의 묘가 있는 방향의 골짜기로 뱀의 모양과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신북읍 지명유래』에 뱀처럼 길고 좁은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 뭉친 곳에 박항의 묘가 있으며, 이곳이 뱀머리 형상의 뭇자리라 해서 ‘사두형(蛇頭形)’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뱀[蛇]+골[谷]’로 분석된다. 골짜기의 모양이 뱀 모양과 같이 길고 좁아 붙여진 지명으로 보인다.

### ● 뱀산

[형태] 산

[위치] 무지골 뱀골에 있는 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뱀골에 오르면 도착할 수 있는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뱀[蛇]+산[山]’으로 분석된다. 뱀골 막바지에 있는 산으로 보인다.

### ● 벼들개

[별칭] 유포2리

[형태] 마을

[위치] 유포2리에 있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벼드나무가 많은 개울이라 기술하고 있다. ‘벼들개’는 행정지명 ‘유포리(柳浦里)’의 바탕이 되었다.

[어원풀이] ‘벼들[柳]+개[浦]’로 분석된다. 벼드나무가 많은 개울이란 의미이다.



벼들개

### ● 범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유포리 갯골에서 갈라진 첫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지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며, 큰 바위가 있는 것에서 유래된 골짜기명으로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범[虎]+바우[岩]+골[谷]’로 분석된다. 호랑이 모양의 바위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 사그매기

[별칭] 사기매기

[형태] 장등

[위치] 마적산으로 이어지는 장승매기 옆으로 뻗은 장등으로 덜덜이골과 갯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마적산으로 이어지는 장승매기 옆으로 뻗은 장등으로 덜덜이골과 갯골 사이에 놓여 있으며 옛날에 사기를 구웠던 곳이라 하여 붙여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사그/사기(沙器)+매기/막[幕]+이’로 분석된다. 사기를 구웠던 움막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 ● 사시나무선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무지골에서 왼쪽 방향으로 뻗어 있는 첫 번째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지골 올라가다 왼쪽으로 뻗은 첫 번째 골짜기로 논 초입새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사시나무+선[棲, 立]+골[谷]’로 분석된다. 사시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 생겨난 지명이다.

## ● 삼성구령

[형태] 산

[위치] 유포리의 통신대대와 2군단 사령부 사이에 있는 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벼들개에 있는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유포리 벼들개의 2군단 사령부 사이에 있는 산으로 2군단 사령부에 별 2개인 소장으로 부임하였다가 별 3개인 중장으로 승진하고 간다고 하여 삼성구령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삼성+구령’으로 분석된다. ‘삼성’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 ● 샛가지

[형태] 들

[위치] 유포리 ‘아침못’ 마을 주변의 갈기식 근처에 있는 들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삿갓을 벗어 놓으면 그 밑에 들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논이라 함’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갈기식에 있으며 벼가 잘 안 되면 ‘샛가지’하는데 샛가지란 벼가 잘 안되어 이삭이 조금밖에 안 달린다는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삿갓/삿갓[笠]+이(겹미사)’로 분석된다. 삿갓처럼 작은 들판이란 의미로 보인다.

## ● 서낭고개

[형태] 고개

[위치] 유포1리에서 유포2리로 넘어가는 작은 고개로 접박골과 닥구뎅이 사이에 위치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서낭이 있는 고개’라고 기술되어 있다. 유포1리에서 유포2리로 넘어가는 작은 고개로 접박골과 닥구뎅이 사이에 있다.

[어원풀이] ‘서낭+고개’로 분석된다. 서낭당이 있던 고개란 의미이다.

## ● 서낭목

[별칭] 유포1리 서낭당 나무

[형태] 나무

[위치] 유포1리 아침못 옆에 있는 서낭당 나무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동짓달 초하루 ‘아침못’ 옆에 있는 나무에서 산천 제사를 지냈으며 이것을 대동제라고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서낭/서낭당+목(木)’으로 분석된다.

## ● 선뒤골

[형태] 골짜기

[위치] 바람매기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바람매기 위쪽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람매기는 용소둔지 위 왼쪽에 있으며 작은 선비골을 올라가기 전에 있는 높고 넓은 산을 말한다.

[어원풀이] ‘선+뒤[後]+골[谷]’로 분석된다. 바람매기 능선 뒤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 설통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마적산 쇠마당터에서 윈편 능선을 하나 넘어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마적산 쇠마당터 위에 있는 골짜기로 설통바우골을 따라 올라가면 등성이를 넘어 어둔이로 통하며, 벌을 쳤던 벌통이 여러 개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설통+바우/바위[岩]+골[谷]’로 분석된다. ‘설통’은 토종벌을 치던 벌통을 말한다. 토종벌을 치던 벌통을 놓은 바위가 있는 골짜기란 의미

이다.

### ● 소못들어가는골

[형태] 골짜기

[위치] 범바우골 다음 골짜기로 갯골 안쪽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범바우골 다음 골짜기로 갯골 안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소가 들어 가지 못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소[牛]+못[否]+들어가는[入]+골[谷]’로 분석된다.

### ● 솟대배기

[위치] 유포3리 갈기식 좌측에 위치하며 솟대를 세웠던 곳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솟대를 세웠던 곳’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유포리 갈기식 좌측에 위치하며 솟대를 세웠던 곳으로 기술되어 있다. ‘솟대’는 마을 수호신 및 경계의 상징으로 마을 입구에 세운 장대로 마을에서 선달 무렵에 새해의 풍년을 바라는 뜻으로 볍씨를 주며니에 넣어 높이 달아매고 장대 끝에는 나무로 만든 새를 붙인다. 신복읍의 ‘솟대배기’는 발산리, 산천리, 용산리, 유포리, 율문리 등 5곳이 있다.

[어원풀이] ‘솟대+배기’로 분석된다. ‘-배기’는 ‘-박이’의 방언형 지명 후부요소로 ‘점박이, 불박이, 차돌박이’와 같이 ‘무엇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낸다.

### ● 쇠마당터

[형태] 터

[위치] 가래나무선골과 설통바우골 사이에 위치한 넓은 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마적산 가래나 무선골 위에 있는 곳으로, 소가 많이 놀아서 마당처럼 넓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쇠/소[牛]+마당+터’로 분석된다. 소를 풀어놓았던 언덕이란 의미로 보인다.

### ● 쇠미듬이

[형태] 골짜기

[위치] 뒷골과 어둔이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어둔이와 능선 하나를 두고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로 뒷골과 어둔이 사이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유래는 불분명하다.

### ● 쉴바우

[형태] 바위

[위치] 써르매재와 품무골이 갈라지는 곳에 위치한 바위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써르매재와 풀무골을 나누는 바위로 옛날에 나무꾼들이 뒷골을 올라가다 쉬어가는 바위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쥘[休]+바우/바위[岩]’로 분석된다. 쉬어가는 바위란 의미이다.

### ● 승지골

[별칭] 승짓골

[형태] 골짜기

[위치] 떡갈봉장등 방향에 있는 골짜기로 작은 승지골, 큰 승지골이 있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승지골의 장등은 크고 넓으며 아래는 작은 승지골, 위쪽은 큰 승지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승지+ㅅ+골[谷]’로 분석된다. ‘승짓골/

승지골’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명으로 ‘지 형적으로 햇빛이 들지 않는 읍달, 음지 지역’, ‘경치 가 좋기로 이름난 곳’, ‘스님이 살던 곳(승지 僧地)’, ‘승지, 좌승지, 우승지를 지낸 인물이 살던 곳’ 등에 명명되고 있다.

### ● 시냇들

[형태] 들

[위치] 유포3리 윗문정리 갈기식 솟대배기 부근의 들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시냇들에 옛 맥국의 유적이 있었다 힘’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유포3리 갈기식 솟대배기 부근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경지정리사업으로 바둑판처럼 잘 다듬어진 유포3리 윗문정리갈기식 부근의 들을 말한다.

[어원풀이] ‘시내[溪]+ㅅ+들[野]’로 분석된다. 시냇 물이 흐르는 들판이란 의미이다.

### ● 써르매재

[형태] 고개

[위치] 마적산에서 장승매기 사이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마적산에서부터 이어진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모여 큰 장등을 이루며 특히 장승매기 장등에서 마적산 사이를 써르매재라고 한다. 나무꾼들이 떡갈봉장등에서 나무한 뒤 나무를 지게에 지지 않고 써르매재에서 썰매를 이용해 운반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라 기록되어 있다. 써르매재로 올라가면 곧바로 떡갈봉장등과 만난다.

[어원풀이] ‘써르매/썰매+재[峙]’로 분석된다. ‘써르매’는 썰매의 방언이다.

### ● 아랫샛가지

[형태] 들

[위치] 웃샛가지 아래에 있는 들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샛가지를 ‘삿갓을 벗어 놓으면 그 밑에 들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논이라 힘’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갈기식에 있으며 벼가 잘 안 되면 ‘샛가지’하는데 샛가지란 벼가 잘 안되어 이삭이 조금밖에 안 달린다는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아래[下]+ㅅ+샛갓/삿갓[笠]+이(첩미사)’로 분석된다. ‘샛가지’ 참조.

### ● 아랫서낭고개

[형태] 고개

[위치] 유포1리에서 유포2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잡박골 부근에 위치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서낭이 있는 고개’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잡박골이 있는 곳이며 서낭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의 고개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아래[下]+ㅅ+서낭+고개[峴]’로 분석된다.

### ● 아침못저수지

[별칭] 아차지, 조연지(朝淵池)

[형태] 마을

[위치] 신북읍 유포리 279-2번지에 위치한다.

[유래] 유포리 아침못에 있는 저수지이다. 『한국지명총람』에 벼들개 서쪽에 있는 마을로 하루 아침에 생긴 못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옛날 어느날 하루 아침에 생긴 못이란 뜻에서 ‘아침못’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아침못의 다른 명칭으로는 ‘조연지’, ‘아차지’

등이 있다. 원래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못이었는데,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1945년 확장공사를 시작하여 1949년 완공된 대규모 인공저수지로 변모하였다.

[어원풀이] ‘아침[朝]+못[淵]+지(池)로 분석된다. 고유어지명인 ‘아차지’에서 ‘아차’는 ‘작다’는 의미를 지닌 고대어 ‘얕’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침못’은 ‘작은 못’ 정도의 의미로 풀이된다.

[유래담] 옛날 아침못 저수지 부근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으며 어느 날 스님이 시주를 부탁하였으나 쌀 시주 대신 쇠똥을 주었다. 이에 며느리가 뒷문으로 나가 며느리가 스님에게 쌀을 시주하자 스님은 며느리에게 곧 장마가 질 것이니 몸을 피하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이후고 장마가 시작되어 많은 비로 인해 부자집에는 며느리 혼자 살아남게 되었다. 며느리는 스님의 말을 잊고 결국 뒤를 돌아보게 되어 돌이 되었다고 한다.



아침못저수지

### ● 어둔이

[형태] 골짜기

[위치] 마적산 풀무골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풀무골 안에 있는 쇠무덤이 옆에 있는 골짜기로 골짜기가 그늘

져 어두운 곳이라고 해서 ‘어둔이’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어둔/어둡[暗]+이(첩미사)’로 분석된다. 어두컴컴한 골짜기란 의미이다.

### ● 언매기

[형태] 들

[위치] 유포3리 윗문정리 갈기식을 조금 지나 시냇들에 위치하고 있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갈기식을 조금 지나 시냇들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시냇들은 유포3리 윗문정리 갈기식 부근에 있는 잘 다듬어진 들이다.

[어원풀이] ‘언(堰, 뚝, 방죽)+매기/막이’로 분석된다. ‘보(保)’를 막아 만든 들로 ‘시냇들’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

### ● 용소둔지

[별칭] 용수둔지

[형태] 둔지

[위치] 무지골 머구리봉 부근에 있는 ‘둔치’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지골의 머구리봉을 조금 올라가서 논이 시작되기 전에 있으며 지금은 약트막한 호수이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깊었던 용소가 있던 둔지라고 기술되어 있다.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용소를 얇은 호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배후령 터널을 뚫으면서 용소는 모두 메워졌다. 용소 두근에 있던 ‘둔치’가 된다.

[어원풀이] ‘용(龍)+소(沼)+둔지’로 분석된다. ‘둔지’는 ‘둔치’의 강원 방언으로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 높은 곳이 둔지가 된다.

## ● 웃셋가지

[형태] 들

[위치] 아랫샛가지 위에 있는 들이다. 유포3리 갈기식 근처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서는 샛가지를 ‘삿갓을 벗어 놓으면 그 밑에 들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논이라 함’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갈기식에 있으며 벼가 잘 안 되면 ‘샛가지’하는데 샛가지란 벼가 잘 안되어 이삭이 조금밖에 안 달린다는 뜻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위[上]+ㅅ+샛갓/삿갓(笠)+이(첩미사)’로 분석된다.

## ● 웃서낭고개

[형태] 고개

[위치] 유포1리에서 유포2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현재는 도로가 되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서낭이 있는 고개’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유포1리에서 유포2리로 넘어가는 곳이며 서낭나무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의 고개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웃[上]+서낭+고개[峴]’로 분석된다.

## ● 유포2리 서낭당

[별칭] 성황당

[형태] 서낭당

[위치] 유포2리에 있는 성황당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유포2리에 있는 성황당으로 산천 제사를 지냈으며 지금은 마을 회관에서 매년 지내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유포2리 마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공동체의 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어원풀이] ‘서낭/성황(城隍)+당(堂)’으로 분석된다.

‘서낭당’은 서낭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집을 말한다. 서낭신이란 한국 고유의 산신(山神)인 ‘산왕신’을 말하며, ‘산왕신(山王神)>서낭신’으로 음운 변이한 것이다.

## ● 유포3리 서낭당

[별칭] 성황당

[형태] 서낭당

[위치] 유포3리 2군단 사령부에 있던 성황당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2군단 사령부에 자리에 있으며 예전에 유포 3리 사람들이 서낭제를 지내던 곳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유포3리 마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을공동체의 제사를 지내던 성황당으로 2군단 사령부가 들어면서 없어졌다.

## ● 윗문정

[형태] 마을

[위치] 유포3리에 있는 유포리 자연마을을 가리킨다. ‘윗문정’은 ‘문정리’에서 다시 서쪽으로 500m 남짓한 거리 부근으로 ‘유포3리 도정공장’이 있다. 유포리 자연마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유포리와 율문리에 걸쳐 있는 마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웃문정은 유포3리, 아래문정은 율문리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윗문정’은 ‘문정리’에서 다시 서쪽으로 500m 남짓한 거리 부근으로 ‘유포3리 도정공장’이 있다. ‘윗문정’과 ‘아랫문정’은 그 사이를 흐르는 개천을 경계로 나뉜다.  
[어원풀이] ‘윗[上]+문정(文廷)’으로 분석된다.

## ● 작은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무지골의 큰 선비골, 작은 선비골을 지나 밤나무선골 맞은 편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지골로 깊이 들어가서 갯골, 큰 선비골, 작은 선비골을 지나 밤나무선골 맞은 편에 위치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작은[小]+곰+골[谷]’로 분석된다.

### ● 작은무쇠골

[형태] 골짜기

[위치] 마적산 무쇠골에서 산등성이를 하나 넘어 원쪽 방향으로 뻗어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쇠골에서 산등성이를 하나 넘어 원쪽에 위치한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무쇠골은 마적산 아래 공동묘지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로 새마을회관에서 바로 보이는 골짜기이다. 작은 무쇠골은 무쇠골에서 산등성이를 하나 넘어 원쪽에 위치한 골짜기가 된다.

[어원풀이] ‘작은[小]+무쇠[水鐵]+골[谷]’로 분석된다. ‘무쇠골’ 참조.

### ● 작은선비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갯골 지나서 무지골 쪽으로 뻗은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스매기와 갯골을 지나 위쪽으로 더 올라간 후 원쪽으로 뻗은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작은[小]+선비+골[谷]’로 분석된다.

### ● 작은승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 승지골 아래 골짜기로 절골 방향으로 좌측으로 뻗은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큰 승지골 아래 골짜기로 절골 방향으로 좌측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승지골의 장등은 크고 넓어 위쪽에는 큰 승지골, 아래쪽에는 작은 승지골이 있다.

[어원풀이] ‘작은+승지+골’로 분석된다. ‘승지골’ 참조.

### ● 작은용소

[형태] 소(沼)

[위치] 무지골 머구리봉 용소둔지 근처에 있는 용소로 배후령이 개통되면서 메워져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소둔지 근처 머줄터 방향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용소는 원래 큰 용소, 작은 용소 두 개였는데 배후령 터널이 개통되면서 모두 메워졌다.

[어원풀이] ‘작은[小]+용(龍)+소(沼)’로 분석된다.

### ● 작은풀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큰 승지골 아래 골짜기로 절골 방향으로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큰 승지골 아래 골짜기로 절골 방향으로 좌측에 있는 골짜기로 기록되어 있다. 뒷골에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뻗은 첫 골짜기로 큰 풀무골, 작은 풀무골이 있다.

[어원풀이] ‘작은[小]+풀무[治]+골[谷]’로 분석된다. ‘풀무골’ 참조.

### ● 작은흰베이

[형태] 골짜기

[위치] 무지골 무스매기 근처 큰 흰베이 아래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소둔지에서

조금 올라가면 무스매기가 있다. 무스매기 사이에 두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무스매기 바로 아래 골짜기가 큰 흰베이이며, 그 아래 방향에 있는 골짜기가 작은 흰베이다.”라 기록되어 있다.

### ● 잡박골

[별칭] 접박골

[형태] 골짜기

[위치] 유포1리 아침못 저수지 좌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에 잣밭이 있었다는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아침못 뒤에 논이 있는 골짜기로 조연 저수지 좌측에 위치한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다. ‘잡박골’은 ‘접박골’로도 불린다.

[어원풀이] ‘잡/접/잣[柏]+밭[田]+골[谷]’로 분석된다. 잣나무가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 장녹개

[형태] 들

[위치] 유포2리 버들개에 있는 들인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버들개에 있는 들’로 기록되어 있다.

### ● 장승매기

[형태] 산

[위치] 갯골 정상에 있는 산으로 마적산 장등과 연결된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갯골 제일 막 바지에 위치한 산 정상으로 마적산으로 이어지는 장등인데 지세가 넓어 옛날에 화전을 일구었다고 기록이 있다.

[어원풀이] ‘장승+매기/막이’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 절골

[형태] 골짜기

[위치] 떡갈봉장등으로 올라가는 골짜기 중 갯골과 뒷골 사이에 위치한 깊은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작은 승지골 밑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절[寺]+골[谷]’로 분석된다. 절이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 조연리(朝淵里)

[별칭] 아침못, 조연지(朝淵池)

[형태] 마을

[위치] 유포1리 아침못 마을을 말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아침못이라 부르며 버들개 서쪽에 있는 마을로 하루아침에 생긴 못이 있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춘천의 지명유래』에 원래 ‘아침못’은 버들개 서쪽 아침못 저수지 부근으로 8.15 해방 직전 수리 조합에서 저수지를 축조하면서 수몰되었고 지금은 옆 마을인 유포1리 를 총칭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하루아침에 생긴 못이란 의미에서 ‘아침못’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조연(朝淵)+리(里)’로 분석된다. ‘아침못 저수지’ 침조

### ● 지둔지

[형태] 들

[위치] 유포리 금송 아래에 위치한 들로 2군단 사령부 앞에 있는 들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길게 생긴 둔지로 된 들

로 기록되어 있으며,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통신대가 있는 곳으로 물이 없는 지역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어원풀이] ‘지[址, 주둔지]+둔지(둔치)’로 분석된다. ‘지’는 ‘2군단이 주둔해 있는 곳’의 ‘지’가 되며, ‘둔지’는 ‘둔치’의 강원 방언이다.

### ● 초당개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초당이 있었던 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초당(草堂)+개[溪]’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 풀무골

[형태] 골짜기

[위치] 유포리 뒷골에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뻗은 첫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뒷골에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뻗은 첫 골짜기로 큰 풀무골, 작은 풀무골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풀무[治]+골[谷]’로 분석된다. 지명에서 ‘풀무골’은 풀무를 다루는 ‘대장간이 있던 곳’에 많이 명명되었다.

### ● 큰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무지골의 큰 선비골, 작은 선비골을 지나 밤나무선골 올라가기 전에 위치한 골짜기로 오음리 방향으로 뻗어 있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지골로 깊이 들어가서 갯골, 큰 선비골, 작은 선비골을 지나 밤

나무선골 올라가기 전에 작은 곰골 위쪽 방향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다. 골짜기가 너무 깊어 예전에 호랑이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원풀이] ‘큰[大]+곰+골[谷]’로 분석된다.

### ● 큰승지골

[형태] 골짜기

[위치] 떡갈봉장등 방향에 있는 골짜기로 절골 올라가서 제일 막바지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절골 올라가서 제일 막바지에 위치한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큰+승지+골’로 분석된다. ‘승지골’ 참조.

### ● 큰용소

[형태] 소(沼)

[위치] 작은 용소 위에 위치한 용소였으며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소는 원래 큰 용소, 작은 용소 두 개인데 데 배후령 터널을 뚫으면서 모두 메워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큰[大]+용(龍)+소(沼)’로 분석된다.

### ● 큰흰베이

[형태] 골짜기

[위치] 무지골 무스매기와 작은 흰베이와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소둔지에서 조금 올라가면 무스매기가 있다. 무스매기 사이에 두 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무스매기 바로 아래 골짜기가 큰 흰베이이며, 그 아래 방향에 있는 골짜기가 작은 흰베이다.”라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유래는 불분명하다.

### ● 통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무스매기를 지나 갯골 방향으로 난 골짜기로 장승매기까지 채 올라가지 못한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스매기를 지나 갯골 방향으로 난 골짜기로 갯골 정상까지 못 미치는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갯골 방향이지만 갯골의 정상인 장승매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골짜기를 말한다.

[어원풀이] ‘통(通)+골[谷]’로 분석된다.

### ● 흰베이들

[형태] 들

[위치] 무지골 큰 흰베이, 작은 흰베이 사이에 있는 들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작은 흰베이와 큰 흰베이 골짜기 앞에 위치한 좁다란 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 한바우골

[형태] 골짜기

[위치] 무지골 올라가는 방향으로 통골 다음 골짜기가 된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무지골 올라가는 방향으로 통골 다음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한[大]+바우/바위[岩]+골[谷]’로 분석된다. 큰 바위가 있었던 것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 ● 황장자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용소둔지와 갯골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로 흰베이들 중간에서 시작되어 오음리 도로 방향으로 뻗어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용소둔지와 갯골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로 흰베이들 중간에서 시작되어 오음리 도로 방향으로 뻗어 있는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황+장자+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위치와 현황** | 마을 대부분 지대가 비교적 평坦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서쪽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소양강이 흐르고 있다. 소양강의 작은 지류가 마을 중앙으로 흐르고 있다. 자연 마을로는 밤나무터, 사랑말, 장거리 마을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북중(北中)에 율목기(栗木基)가 나온다. 『여지도서』는 북중면(北中面)에 율대리(栗垈里)를 표기했다.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도 북중면(北中面)에 율대리(栗垈里)가 포함됐다. 『조선지지자료』는 북중면(北中面)에 문정리(文廷里)와 율대리(栗垈里)로 구분하여 표기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 『강원도지』, 『수춘지』는 신북면(新北面) 율문리(栗文里)로 표기하였다. 1984년에 출간된 『춘주지』는 신북면(新北面)에 율문1리, 율문2리, 율문3리, 율문4리로 표기하였고, 1995년 춘천시와 춘천군 통합으로 신북읍으로 승격되면서 신북읍(新北邑) 율문1리, 율문2리, 율문3리, 율문4리, 율문5리가 되었다. 현재 행정리는 율문리고 법정리는 율문1리, 율문2리, 율문3리, 율문4리, 율문5리이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북중면 지역인데 행정구역 폐합으로 율대리, 문정리, 천구리의 일부를 병합하여 율대리(栗垈里)의 ‘栗’과 문정리(文廷里)의 ‘文’을 따서 율문리(栗文里)가 되었다.

## ● 강원경찰박물관

[별칭] 경찰박물관

[형태] 건물

[위치]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315-3

[유래] 강원도 경찰의 역사와 문화, 경찰 활동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박물관이다. 이곳에는 조선 후기 포졸모자, 야간순찰용 육모방망이, 기마 경찰이 사용하던 말동자와 재갈, 장택상 초대 수도청장의 단추, 방범순찰장비인 가스총과 같은 경찰이 사용하던 주요 물품, 미국 국무성 마약교육이수증, 중국 인민공화국 길립성 공안청과의 합의문, 춘천경찰서 박제택 경사의 미국 테네시주 명예보안관증 등 경찰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강원경찰박물관

## ● 구리고개

[별칭] 구릿고개

[형태] 고개

[위치] 사랑마을에서 신동으로 넘어가던 고개로, 현재 이 고개는 차가 다닐 수 없는 오솔길이다.

[유래] 『신북읍 지명유래』에 신북읍 용산리, 지내리 아이들이 신동초등학교가 생기기 전에 천천초등학교에 다닐 때 넘어 다니던 고개라고 기록되어 있

다. ‘사랑말’ 남쪽 ‘사랑말1길’을 따라 신동으로 갈 수 있는 자동차 도로가 있으며, 산천1리에서 지내리를 거쳐 신동으로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구리고개길’이 있다. ‘구리고개’는 율문리 외에도 산천리, 지내리 용산리에도 나타나고 있다.  
[어원풀이] ‘구리[銅]+고개’로 분석된다. ‘구리’는 일반적으로 지명에서 ‘구리[銅]’, ‘구리(九里)’, ‘구렁이’의 방언인 ‘구렁이/구령이/구리이/구리’ 등에서 유래되고 있다.

## ● 군속마을

[형태] 마을

[위치] 사랑말 근처

[유래] 『신북읍 지명유래』에 군속마을은 한국전쟁이 끝난 후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던 마을로 기록되어 있다. 도로가 넓혀지면서 군속마을의 집들은 없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군속(軍屬)+마을’로 분석된다.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여살던 마을이란 의미이다.

## ● 늄둔지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둔덕에 있는 마을로 기록되어 있다. 넷가 건너 둔덕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어원풀이] ‘늦[廣]+둔지’로 분석된다. ‘둔지’는 ‘둔치’의 강원 방언으로, 해안, 강, 개울가 등의 가장자리가 약간 높은 지대를 말한다. 넓은 둔지라는 의미로 보인다.

## ● 돈치령

[형태] 고개

[위치] 미상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돈치령(豚峙領)은 ‘도치고 통터’이며, 율대리에 소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원풀이] ‘돈(豚)+치(峙)+령(嶺)’으로 분석된다. ‘돈’은 ‘돛/돛/도치’의 이형태로 나타나며 ‘돛/도치’는 ‘산돛/산돼지’를 의미한다.

### ● 디딜방아터

[형태] 터

[위치] 율문4리 마을회관 부근

[유래] 율문4리를 지칭하는 소지명으로서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사랑말’로 명명하고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율대리(栗垈里)를 ‘사랑말’로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지명총람』에 고려 때 정승 박항이 낙향하여 사랑채를 짓고 잘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 ● 문정리

[별칭] 아랫문정

[형태] 마을

[위치] 율문3리에 있는 위치한 마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문정리 소재 마을 이름으로 ‘무정리[文廷里]’가 기록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유포리와 율문리에 걸쳐 있는 마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유포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웃문정은 유포3리, 아랫문정은 율문리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원풀이] ‘문정(文廷)+리(里)’로 분석된다. ‘유포리 문정리’ 참조.

### ● 밤나무터

[형태] 터

[위치] 율문리 일대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전에 밤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행정지명 ‘율문리(栗文里)’는

‘밤나무터[栗堡]’의 ‘율(栗)’과 ‘문정리(文廷里)’의 ‘문(文)’을 결합하여 만든 명칭이다.

[어원풀이] ‘밤나무[栗]+터[堡]’로 분석된다.

### ● 사랑말

[형태] 마을

[위치] 율문4리 마을회관 앞 200m 방향에 ‘사랑말’이 있으며, 이 지역의 주소정보는 ‘사랑말길’이다.

[유래] 율문4리를 지칭하는 소지명으로서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사랑말’로 명명하고 있다. 『조선지지자료』에 율대리(栗垈里)를 ‘사랑말’로 기록하고 있으며, 『한국지명총람』에 고려 때 정승 박항이 낙향하여 사랑채를 짓고 잘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

[어원풀이] ‘사랑마을>사랑말’로 음운변이되었다. ‘사랑’의 의미는 불분명한데, 타 지역의 경우 ‘사랑이’, ‘사래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따라서 ‘길게 늘 어진 산등성이에 있는 밭이랑’이란 의미의 ‘사래’에서 유래한 지명으로 보인다.

[유래답] 『춘천의 지명유래』에 이 지역에 박씨라는 거부가 살았는데 여우 고개를 넘어오는 외부 사람을 괴롭혔으며 박씨의 허락없이는 외부 사람 및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을 지날 때 말을 타고 다닐 수 없게 하였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여우 고개에서 서로 망을 보며 박씨집 사랑방 문이 열려 있으면 말을 타고 내려올 수 있었다는 유래와 고려 시대 정승 박항(朴恒)이 낙향하여 사랑채를 짓고 살았다는 데서 ‘사랑말’이라는 이름이 명명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사랑말

### ● 사랑말버덩

[별칭] 사랑촌평(舍廊村坪)

[형태] 들

[위치] 율문4리 마을회관 부근에 있는 들로, 풀이 무성한 높고 평평한 들을 이루고 있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사랑말버덩(舍廊村坪)’이 율대리에 소재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랑방 버덩’은 나무는 없이 풀이 무성한 높고 평평한 거친 들을 이루고 있다.

[어원풀이] ‘사랑+말(마을)+‘버덩’으로 분석된다.

‘사랑말’ 참조.



사랑말버덩

### ● 솟대배기

[별칭] 솟다배기

[형태] 터

[위치] 예전에 솟대를 세웠던 터로 율문2리와 율문3리 사이에 있었다고 한다.

[유래] ‘솟대’는 농가에서 설달 무렵에 새해의 풍년을 바리는 뜻으로 볍씨를 주머니에 넣어 높이 달아매는 장대로, 마을 수호신 및 마을 경계의 상징으로 마을 입구에 세운 장대이다. 장대 끝에는 나무로 만든 새를 달아 놓는다. 신북읍에는 민속신앙, 유물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해 산재해 있다.

[어원풀이] ‘솟대+배기’로 분석된다. 지명접미사 ‘-배기’는 ‘불박이, 차돌박이’ 등과 같이 ‘무엇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가진 ‘-박이’의 방언형이 지명의 후부요소가 나타난 형태이다.

### ● 샘밭장터

[형태] 시장터

[위치] 율문5리 장거리 남쪽 ‘신샘밭로변 샘밭장’에 위치한다.

[유래] 샘밭장은 천천리에 위치한 ‘윗샘밭’과 율문리에 위치한 ‘아래샘밭’을 아우르는 명칭이다. 『춘천지명유래』에 ‘샘밭장’은 본래 천천리에 위치한 ‘윗샘밭’에 있었으나 율문리가 신북읍의 중심 지역이 되면서 ‘아래샘밭’으로 이동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샘밭장’은 본래 천천리에 위치한 ‘윗샘밭’에 있었으나 율문리가 신북읍의 중심 지역이 되면서 ‘아래샘밭’으로 이동되었다. ‘샘밭장’이 천천리에서 율문리로 위치가 이동하면서 기존의 지역과의 차별화하여 원래 지역은 ‘윗샘밭’, 옮겨간 지역은 ‘아래샘밭’으로 부르게 되었다. 율문5리의 ‘샘밭장’은 2021년 현재 소양강변 부근의 ‘신샘밭로’ 근처에서 4일, 9일 열린다.

[어원풀이] ‘샘밭+장터’로 분석된다.



샘밭장터

### ● 서낭당

[형태] 성횡당

[위치] 심우정사 옆에 서낭당이 있었으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유래] 『춘주지』에 심우정사(尋牛淨寺) 옆에 서낭당이 있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매년 가을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6.25 한국전쟁 전에 소실되었다고 한다.

### ● 아랫문정

[표제어] 아랫문정

[형태] 마을

[위치] ‘아랫문정’은 윗문정 남쪽 200m 율문3리 마을회관 부근이다. ‘윗문정’과 ‘아랫문정’은 그 사이를 흐르는 개천으로 나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문정리(文廷里)는 ‘무정리’, 문정리(文廷里) 소재로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의 소슬뫼를 찾아서』에는 문정리(文廷里)의 ‘문정(文廷)’은 ‘임금이 나랏일을 집행하던 곳’으로 설

명하고 있어, ‘문정(文廷)’은 일반적 술어라기보다는 뜻을 함축하여 만든 어사로 보인다. ‘아랫문정’은 『한국지명총람』에서는 ‘문정리 아래 쪽의 마을’로 기록하고 있다.

[어원풀이] ‘아래[下]+ㅅ+문정’으로 분석된다. ‘문정리’ 참조.



아랫문정

### ● 아랫샘밭

[별칭] 아래샘밭, 율문리

[형태] 마을

[위치] 아랫샘밭은 율문1리와 율문5리에 위치하여 신북읍행정복지센터, 천전초등학교, 춘성중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 298-4 지역이다.

[유래] 일반적으로 신북읍을 위와 아래 지역으로 구분하여 ‘윗샘밭’은 천전리를, ‘아랫샘밭’은 율문리를 가리킨다. ‘아랫샘밭’은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가리키는 공간문화적 개념의 지명이다. ‘샘밭장터’가 천전리에서 율문리로 이동하며 기존의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본래 지역은 ‘윗샘밭’으로, 옮겨간 지역은 ‘아랫샘밭’으로 부르게 되었다.

[어원풀이] ‘아래+ㅅ+샘[泉]+밭[田]’으로 분석된다.



아랫샘밭

## ● 안골

[별칭] 안꼴, 안골들

[형태] 들

[위치] 율문리 장거리 북쪽에 있는 들로, 산천리로 가는 개울 건너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장거리 북쪽에 있는 들로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안[內]+골[谷]’로 분석된다.

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여우[狐]’+‘고개[峴]’로 분석된다. 한자로 ‘호현(狐峴)’이라고도 한다.

[유래담] 잇샘밭에 살던 총각이 우두별 서당에 글 공부를 하러 다녔다. 점점 총각의 얼굴이 초췌해지는 것을 보고 훈장님이 그 이유를 묻자 총각이 말하기를, 고개 중간쯤에 매일 소녀가 나타나 입에서 구슬 한 개를 입속에 넣어주고 헤어질 때 구슬을 되돌려 받는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훈장님은 총각에게 “내일은 구슬을 되돌려 주지 말고 삼키고 소녀를 보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고 와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다음 날 총각은 훈장님의 당부대로 구슬은 삼켰으나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소녀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자 소녀는 곧 여우로 변하더니 사라졌다. 총각은 황망하여 서당으로 돌아가면서 땅만 보고 걸었다. 이 이야기를 훈장님께 말했더니 훈장님은 “하늘만 보고 걸었더라면 네가 큰 벼슬을 할 운명이었는데 안타깝구나.”라고 아쉬워하였

## ● 여우고개

[별칭] 호현(狐峴)

[형태] 고개

[위치] 신북읍 샘밭에서 춘천시 신사우동으로 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현재 이 고개는 ‘신샘밭로’로 통과하는 국도로 변하였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춘천시 우두동으로 가는 고개로 옛날에 여우가 처녀로 둔갑하여 서당에 다니는 아이를 호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라고 기

다. 이 고개에서 총각과 여우와 관련된 이야기가 생성되고 전해졌기에 이 고개를 ‘여우고개’라고 명명하게 되었다고 한다.

### ● 율문천(栗文川)

[별칭] 우두천

[형태] 하천

[위치] 수리봉에서 발원하여 신북읍을 관통하고 소양강으로 유입된다.

에 있었으나 율문리가 신북읍의 중심지역이 되면서 ‘아래샘밭’으로 이동되었다. ‘샘밭장이 멀어지는 장소라는 뜻에서 ‘장거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율문1리와 율문5리는 ‘장거리’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아래샘밭’은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샘밭장이 있는 큰 마을 전체를 가리키는 지명이다

[어원풀이] ‘장(場)+거리[街]’로 분석된다. 샘밭장이 있는 마을 전체를 가리키는 자연마을 지명이다.



율문천

[유래] 신북읍 북쪽 수리봉(657m)에서 발원하여 밭산리, 산천리, 율문리를 지나 우두산(133m) 북쪽으로 나와 소양강에 합류하는 신북읍 샘밭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말한다.

### ● 장거리

[형태] 마을

[위치] 율문1리와 율문5리 지역으로, 현재 신북읍 행정복지센터, 천전초등학교, 춘성중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샘밭장이 있는 마을’로 기록하고 있다. 샘밭장은 천천리에 위치한 ‘윗샘밭’과 율문리에 위치한 ‘아래샘밭’을 아우르는 명칭이다. ‘샘밭장’은 본래 천천리에 위치한 ‘윗샘밭’

**위치와 현황** | 북쪽으로 삿갓봉이 위치하고, 서쪽으로 북한강이 흐르고 있다. 골짜기와 평야로 이루어진 농촌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늘안말, 상리, 성문안, 절터 등이 있다.

**연혁** | 『춘주지』에서 북내(北內)에 도정(陶井)으로 표기된 아래로, 『여지도서』에서는 북내면(北內面) 지외리(池外里)와 지내리(池內里)로 표기하였다. 『호구총수』, 『춘천읍지』와 『춘천부지』, 『관동읍지』도 동일하다. 『조선지지자료』는 북내일작면(北內一作面)에 지내상리(池內上里), 지내중리(池內中里), 지내하리(池內下里)로 표기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 『강원도지』, 『수춘지』는 신북면(新北面) 지내리(池內里)로 표기하였다. 1984년에 빨간한 『춘주지』는 신북면 지내1리, 지내2리, 지내3리로 표기하였다. 1995년 1월 1일 춘천시와 춘천군 통합으로 신북읍으로 승격되면서 신북읍 지내1리, 지내2리, 지내3리가 되었다. 현재 행정리는 지내리고 법정리는 지내1리, 지내2리, 지내3리이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북내일작면의 지역으로서 큰 못 안쪽이 되므로 지름풀 또는 지내(池内)라 하였는데 행정구역 폐합으로 지내상리, 지내중리, 지내하리를 병합하여 지내리라 하였다.

## ● 가마터

### [형태] 터

[위치] 지내 1리 지름물 마을 입구에 있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풍은부원군 조만영의 묘를 지내저수지 동쪽 개명골에 쓴 후 가마를 놓았던 자리로, 임금이나 왕비가 지내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도 이곳에 가마를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가마[鼎]’+‘터[垈]’로 분석된다. 도기를 굽던 가마가 있던 곳이란 의미이다.

## ● 개명골

###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3리 지내리 저수지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사태골 옆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사랫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사랫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지내3리에 있으며 풍은부원군 조만영의 신도비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어원풀이] ‘개명+골’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이 모양을 하고 있는 바위이다.

## ● 고룬고개

[별칭] 고탄령(古吞嶺), 고운고개, 고통고개, 고탄고개, 고군고개

### [형태] 고개

[위치] 지내리에서 사북면 고탄리 ‘고룬이’ 마을로 갈 수 있는 고개이다. 현재는 403번 국도 지암고탄로가 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내중리에 있는 ‘고탄령(古吞嶺)’은 ‘고운고개’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지명총람』에 ‘사북면(史北面) 고탄리(古吞里)의 고룬이로 가는 고개’라고 기록되어 있고,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지내리에서 사북면 고탄리 ‘고룬이’로 가는 고개라고 기술되어 있다. 지내리에서 사북면 고탄리 ‘고룬이’로 가는 고개를 넘으면 송화초등학교가 나온다. ‘고룬이’ 마을로 갈 수 있는 고개라고 하여 고룬 고개로 명명되었다.

[어원풀이] ‘고운/고룬[古吞]+고개[嶺]’로 분석된다. ‘고운고개(古吞嶺)>고운고개>고룬고개’로 변이 된 것이다.

## ● 거북바위

### [형태] 바위

[위치] 지내3리 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700미터 정도에 성문 마을이 있으며 성문 마을 성문바위 위에 거북바위가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모양이 거북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 고개’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서는 거북바위가 성문바위 위에 있으며 그 모양이 거북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렇게 불렀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원풀이] ‘거북[龜]+바위[岩]’로 분석된다. 거북

## ● 고사리골

### [형태] 골짜기

[위치] 신북읍 지내리 성문안골로 들어가기 전 좌측에 있는 골짜기로 신북읍 지내리 산2-15번지에 해당된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신북읍 지내리 성문안골로 들어가기 전 좌측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고사리가 많이 나서어 붙여진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고사리+골’로 분석된다. 고사리가 서식하고 있어 붙여진 지명이다.

## ● 골안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2리 마을회관 부근에 있는 골짜기이다. 신북읍 지내리 산43번지에 있다.

[유래]

[어원풀이] ‘골[谷]+안[内]+골[谷]’로 분석된다. 골짜기 [마을] 안쪽에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 구리고개

[별칭] 동현(銅峴), 구릿고개

[형태] 고개

[위치] 산천리에서 지내리로 넘어가는 도로명 ‘구리고개길’로 초입에서 북쪽으로 깊게 트인 골짜기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동현(銅峴)’은 ‘구리고개’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지내3리 연못에서 신동3리로 넘어가는 고개’라고 기술되어 있다. 산천리에서 지내리로 넘어가는 도로명 ‘구리고개길’로 초입에서 북쪽으로 깊게 트인 골짜기로 산천리에서 지내리, 지내리에서 신동리까지 오고가던 고갯길로 보인다.

[어원풀이] ‘구리[銅]+고개[峴]’로 분석된다.

## ● 구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3리 지내리저수지 동쪽에 가까이 있는 골짜기가 불당골이며 불당골 옆에 구수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불당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조사 보고서〉에는 고룬골 옆이며, 불당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불당골은 지내3리 지내리 저수지 동쪽에 가까이 있는 골짜기로 불당골 옆에 구수골이 있다.

[어원풀이] ‘구수+골(谷)’로 분석된다. ‘구석골’의 와전으로 보인다.

## ● 노송나무골

[형태] 들

[위치] 지내3리 지내리 저수지 부근의 들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노송나무가 서 있던 들’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노송이 서 있던 들로 지름물 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노송(老松)+나무[木]+골[谷]’로 분석된다. 노송이 있는 골짜기란 의미이다.

## ● 구석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3리 풍원부원군 조만영 묘가 있는 개명골 옆 골짜기이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지내3리 풍원부원군 조만영 옆에 있는 골짜기이며 구석에 있다고 해서 구석골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구석+골(谷)’로 분석된다. 골짜기가 구석에 있어 ‘구석골’로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 ● 늘안말

[별칭] 어전리(於田里), 놀악말

[형태] 마을

[위치] 고룬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어전리(於田里)는 지내중리 ‘놀악말’로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지명총람』에는 ‘울문리 경계에 있는 마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고룬고개 밑에 있는 마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늘/능+안[内]+말/마을[里, 村]’로 분석

된다. 조만영의 무덤이 있던 안쪽 마을이란 의미의 ‘능안말’이 와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길게 늘어진 밭이 있는 마을이란 의미로도 볼 수 있다.

### ● 대명골

[형태] 봉우리

[위치] 용산리에서 지내리로 이어지는 산의 능선으로 지내리에 있는 산봉우리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용산리와의 중간에 있는 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명골은 지내리와 용산리와의 중간에 있는 골짜기로 용산리에서 동서로 펼쳐진 산의 능선이 동쪽 방면 지내리 들녘이 되고 있다.

[어원풀이] ‘대(大)+명(明)+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 도정제(陶井堤)

[별칭] 도정언(陶井堰), 돈정제

[형태] 제방, 뚝

[위치] 지내3리 저수지 제방을 말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도정제(陶井堤)’는 지내하리(池內下里)의 ‘질우물흘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도정지(陶井池)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축조한

제방이 도정제(陶井堤)가 된다.

[어원풀이] ‘도정(陶井)+제(堤)’로 분석된다. ‘도정’의 제방, 방죽, 뚝의 의미이다.

### ● 도정지(陶井池)

[별칭] 질우물, 지름물, 지내리 연못, 지내리 저수지

[형태] 연못

[위치] 지내3리 ‘지내리저수지’를 말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도정지(陶井池)’는 지내하리(池內下里) ‘질우물흘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지명총람』에 지둔지는 땅이 질은 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관동지』에 부의 북쪽 20리에 있으며, 둘레가 972척이고 깊이가 2척 5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지역은 늘 땅이 질어 질그릇과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가 있었으며, 지내 3리 마을에 물이 자주 고이자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물구덩이, 우물 등으로 사용해왔으며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도(陶)+정(井)+지(池)’로 분석된다. 고유어로 ‘질우물’이 된다. ‘질(땅이 질다)+물구덩이(우물)’가 ‘질우물/질음물/지름물’의 이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질우물’을 훈차하여 ‘도정(陶井)’으로 부르게 되었다.



도정제



도정지

## ● 도촌리(陶村里)

[별칭] 옹기마을

[형태] 마을

[위치] 지내2리 옹기 마을을 말한다. 옹기를 굽던 마을이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지내2리의 마을명으로 ‘옹기를 굽던 마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도(陶)+촌(村)+리(里)’로 분석된다.

## ● 돌방양지쇠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2리 성문안골에 있는 골짜기로 주변에 열음골이 있다. 신북읍 지내리 산2-16번지가 된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 ● 돌배기산

[별칭] 돌봉산, 동문산, 돌명산

[형태] 산

[위치] 지내1리와 2리 사이에 있는 산으로 ‘노송나무골’ 부근으로 ‘쑥고개’에서 마주보는 곳에 있는 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돌이 많은 산’으로 기술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서는 쑥고개에서 마주보는 곳에 있는 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돌봉산은 지내1리와 2리 사이에 있는 산으로 노송나무골 부근에 있는 산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돌[石]+배기/박이+산(山)’으로 분석된다. ‘배기’는 ‘무엇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가진 ‘-박이’의 방언형이다. 돌이 많이 박혀 있는 산이란 의미이다.

## ● 동무산

[형태] 산

[위치] 지내1리마을회관에서 개울로 가는 방향에 있는 작은 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셋골 위에 있는 산’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동네에 있는 작은 산으로 끝에 묘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내1리 마을회관에서 개울로 가는 방향에 있는 작은 산으로 옆에는 뼈쪽산이 있다. 남쪽으로 바로 아래에는 말무덤이 있다.

[어원풀이] ‘동(洞)+무(묘)+산(山)’으로 분석된다. 무덤이 있는 산이란 의미로 보인다.

## ● 말무덤

[별칭] 말무덤산

[형태] 묘

[위치] 지내1리 마을회관 남쪽에 ‘동무산’이 있고 동무산 아래 부분에 ‘말무덤’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지내리에 있는 큰 무덤’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논 가운데 둥그렇게 있는 작은 산으로 산보다는 큰 무덤과 같은 모습이며, 마을의 무덤이 있던 곳으로 마을의 한가운데 있으며 산소가 있다 고 기록되어 있다. 『신북읍 지명유래』에는 동네에서 말을 묻어 ‘말무덤’이 되었으며 크기는 높이 10m, 폭 20m, 길이 25m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마을>말+무덤(墓)’으로 분석된다. ‘마을 무덤>말무덤’ 음운변이는 가능하다. 말을 묻어 말무덤이 되었다는 일설보다는 ‘마을의 무덤이 있던 곳’, ‘마을의 산소가 모여 있던 곳이 작은 둔덕 형태’를 떤 것이 ‘말무덤산’으로 지명에 남게 된 것으로 보인다.

## ● 맹소나무

[형태] 나무

[위치] 지내 2리에서 용산 3리로 넘어가는 ‘소리개’ 부근에 있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소나무가 어른 다섯 아름 정도 되며 지금은 두 갈래로 쓰러져 누워있으며, 맹씨 성을 지닌 사람이 심었다는 기록이 있다.

[어원풀이] ‘맹+소+나무[木]’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 물고개

[별칭] 수현(水峴)

[형태] 고개

[위치] 지내1리와 2리 경계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수현(水峴)’은 ‘물고기’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지명총람』에는 ‘예전에 이 고개로 물이 넘어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지내1리와 지내2리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이 고개로 물이 넘어왔다고 해서 ‘물고개’라 부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강원의 고지명』에는 소양강의 물을 우두평야로 끌어들이는 고개라고 서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물[水]+고개[峴]’로 분석된다. 물을 끌어오는 수로가 있는 고개란 의미이다.

### ● 불당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3리에 있는 ‘지내리저수지’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산635번지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불당이 있던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불당이 있던 골짜기로 지내 3리 지내리저수지가 있는 옆 도로에서 500미터 들어간 곳이라고 기록

되어 있다. 불당골은 현재 인삼을 재배하는 인삼밭으로 바뀌었다.

[어원풀이] ‘불당(佛堂)+골[谷]’로 분석된다.

### ● 뼈목재

[별칭] 뼈목산

[형태] 산

[위치] 지내1리와 지내2리 경계에 있는 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뼈목새가 많은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지내1리와 지내 2리의 경계를 이룬 동네에 있는 산으로 ‘뼈목산’이라 하며 한자로는 ‘법곡(法谷)’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뼈목+재’로 분석된다. ‘법곡(法谷)’은 의성어 ‘뼈목’의 음차자이다.

### ● 사태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 3리와 지내리 저수지에서 산천 2리로 넘나드는 골짜기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내하리(池內下里)에 위치한 ‘삼태동(三台洞)’은 ‘사태골’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지명총람』에 ‘전에 사태가 났던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다.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산사태가 났던 골짜기로 지내 3리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사태(沙汰)+ㅅ+골[谷]’로 분석된다. 예전에 산사태가 났던 것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 ● 삼회사터(三捨寺)

[별칭] 회삼사지

[형태] 터

[위치] 지내2리 제일봉에 있으며 삼회사가 있던 절

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지내상리 북쪽 산허리에 있는 절터이다. 삼한 시대에 지은 절인데 화전민이 불태웠으며 기와조각과 머리 없는 불상이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상리(上里)’는 지내2리 동쪽 마을로 북쪽 순환대로 너머로 고탄리로 넘어가는 산자락이 있다.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지내리 ‘젤봉/제일봉’ 중턱에 있던 절터로 ‘회삼사지’라고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삼희사터’는 ‘삼희(三檜)+사(寺)+터(垈)’로 분석된다.

### ● 상리(上里)

[형태] 마을

[위치] 지내 2리 옹기마을로 지내리 북쪽으로 순환대로 위치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니상리(池內上里)’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지명총람』에 ‘지내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지내리 위쪽에 있는 마을로 지내 2리를 상리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지내상리, 지내중리, 지내하리를 통합하여 지내리라고 하였다. 지내2리 옹기마을을 말하며 지내리 북쪽 순환대로 아래에 있다.

[어원풀이] ‘상리’는 ‘상(上)+리(里)’로 분석된다. 지내리 위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 ● 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 2리 마을회관에서 북쪽 순환대로 너머 물고개 정상을 말한다. 현재 샘골 과수원이 위치한 곳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좋은 샘이 있던 골짜기’

라고 기술되어 있고,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물고개 꼭대기를 말하며 지금은 물이 없지만 옛날에는 샘이 많이 났던 곳, 중리 물고개 정상이 샘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지내 2리 마을회관에서 북쪽 방향으로 순환대로 너머를 말하며 현재 샘골 과수원이 위치한 곳이다.

[어원풀이] ‘샘[泉]+골[谷]’로 분석된다.

### ● 서낭댕이

[별칭] 서낭거리, 산양평(山陽平)

[형태] 고개

[위치] 지내2리와 지내3리 사이에 예전에 서낭당이 있던 들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산양평(山陽平)’은 지내 중리(池內中里)에 있으며 ‘서낭댕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지명총람』에는 ‘옛날에 서낭이 있던 들’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지내2리와 지내3리에 있던 들로 옛날 서낭이 있어서 서낭거리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서낭당’은 마을을 수호하는 서낭신을 모셔놓은 신당을 말하며, ‘성황당’이라고 한다. 서낭신이란 한국 고유의 산신(山神)인 ‘산왕신’을 말한다. 서낭댕이는 서낭신을 모셔놓은 서낭당이 있던 들이 된다.

[어원풀이] ‘서낭당+이’(접미사)로 분석된다. ‘서낭당이’→‘서낭댕이’로 음운변이한 것이다.

### ● 서낭댕이바위

[형태] 바위

[위치] 지내2리와 지내3리 사이 서낭댕이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지내 2리와 지내 3리 사이의 서낭댕이에 있는 바위라고 기록되

어 있다. 서낭댕이에 있던 치성을 드리던 바위를 말한다.

[어원풀이] ‘서낭+댕/당(堂)+이+바위’로 분석된다.

### ● 성문바위

[형태] 바위

[위치] 지내3리에서 지내2리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성문안’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큰 바위로 지내3리에서 지내2리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성문안’은 ‘백국 시대의 성문이 있던 곳의 안쪽이 되는 마을’로 적시하고 있어 ‘성문(城門)’의 ‘성(城)’은 ‘백국성(貊國城)’이 되며, 성문바위는 성문안 마을에 있던 바위가 된다.

[어원풀이] ‘성(城)+문(門)+바위[岩]’로 분석된다. 마을 입구에 있는 바위를 일반적으로 일컫는 석문(石門)의 와전으로 볼 수도 있다.

### ● 성문안

[형태] 마을

[위치] 지내3리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700m 부근을 말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백국 시대의 성문이 있던 곳의 안쪽이 되는 마을’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지내리 지름물 안쪽을 가리키는 마을로 백국의 안쪽 마을이라는 의미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문안’은 지내 3리 마을 회관에서 북쪽으로 700m 정도가 되며 ‘성문길’이 도로명에 남아 있다. 지금도 근처에서 성이 무너진 돌이 발견된다고 한다.

[어원풀이] ‘성(城)+문(門)+안[內]’으로 분석된다. 성문 안쪽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 성문안못

[형태] 연못

[위치] 성문안 마을에 있던 연못이다. 연못이 없어져 위치를 알 수 없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성문안에 있는 못’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성문안에 있는 연못으로 1965년 장마 때 없어졌다 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성(城)+문(門)+안[內]+못[淵]’으로 분석된다. 성문 안쪽에 있는 연못이란 의미이다.

### ● 성문안산

[형태] 산

[위치] 성문안 마을에 있던 마을 산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는 ‘城門內山’은 지내상리에 있으며 ‘성문안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강원의 고지명』에는 백국시대 성문이 있던 곳의 안쪽이 되는 마을에 있는 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성문내의 산’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성(城)+문(門)+안[內]+산(山)’으로 분석된다.

### ● 성문약수(城門藥水)

[별칭] 도촌약수(陶村藥水)

[형태] 약수

[위치] 지내2리 마을회관 부근 창고 옆에 있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지내2리 마을회관 아래 창고 옆에 있으며, ‘도촌약수’로도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도촌리는 지내2리 옹기마을의 다른 이름이다.

[어원풀이] ‘성(城)+문(門)+약(藥)+수(水)’로 분석된다.

## ● 성문월영루(城門月影樓)

### [형태] 누각

[위치] 지내 2리 성문 마을에서 북쪽 방향으로 순환대로 아래 있으며 지둔지 소류지가 서쪽 방향에 있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지내 2리에 있는 누각으로 지내리가 사람이 살기 좋은 말의 형국을 떤 명당이라는 내용이 누각을 알리는 표지석에 새겨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성(城)+문(門)+월영루(月影樓)’로 분석된다.

## ● 소리개능선

### [형태] 산

[위치] 지내리 쑥고개와 용산리 소리개가 맞닿고 있는 능선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용산리 소리개 마을에는 고개 마루턱에 큰 소나무가 있다고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쑥고개 옆 용산리와 연결되는 능선으로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소리/솔[松]+개[峙]+능선’으로 분석된다. 소나무가 서 있는 고개의 능선이란 의미이다.

## ● 셋골

### [별칭] 쇄기골

### [형태] 골짜기

[위치] 샘골 우측에 있는 골짜기이다. 지내2리 마을회관에서 북쪽으로 1시 방향으로 순환대로 너머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샘골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샘골 우측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골짜기가 가늘어서 붙여진 명칭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쇄[細]+ㅅ+골[谷]’로 분석된다.

## ● 쑥고개

### [별칭] 솟고개

### [형태] 고개

[위치] 지내2리에서 용산리 소리개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현재는 순환대로가 지나는 길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솟을 구웠던 고개’라고 기술되어 있고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솟을 구웠던 고개라고 하여 솟고개라고 부르며, 지내2리에서 용산리 소리개로 넘어가는 고개로 솟을 굽던 가마터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쑥/숯[炭]+고개[峴]’로 분석된다. ‘숯을 굽던 고개’라는 의미이다. ‘숯고개’로 불리던 것이 경음화하여 ‘쑥고개’로 지명에 남게 된 것이다.



쑥고개

## ● 승짓북

### [형태] 골짜기

[위치] 장승박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장승박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셋골 부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승지+ㅅ+물’으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 승짓물

[별칭] 승지물, 승지물벼덩, 승지꼴

[형태] 들

[위치] 지내1리에 있는 들이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군 사격장 부근으로 논과 물이 있으며 승지꼴이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승지+ㅅ+물’로 분석된다.

### ● 아랫텃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2리 텃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텃골 아래쪽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고,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텃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맥국 시대 임금이 정착하던 곳이라 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아래[下]+ㅅ+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 ● 안골

[형태] 들

[위치] 지내저수지 안쪽에 있는 들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동리 북쪽에 있는 들’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연못 안쪽에 있는 들로 농경지가 펼쳐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안[內]+골[谷]’로 분석된다. 지내저수지 안쪽에 있는 들이라는 의미이다.

### ● 양짓말

[형태] 마을

[위치] 빼꾹재 옆에 있는 마을이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빼국재 옆에 있는 마을이라 하였다. ‘빼꾹재’는 지내1리와 지내2리의 접경에 있는 고개명이다.

[어원풀이] ‘양지(陽地)+ㅅ+말[村]’로 분석된다.

### ● 얼음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2리에 있는 골짜기로 근처에 고사리골이 있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지내2리에 있는 골짜기로 5월까지도 얼음이 녹지 않아서 ‘얼음골’로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얼음[氷, 冷]+골[谷]’로 분석된다.

### ● 오릿들

[별칭] 오리깨들

[형태] 들

[위치] 지내1리 마을회관 남쪽에 ‘말무덤’ 앞 들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오리나무가 많은 들’이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오리깨들. 말무덤 앞에 있는 들로 ‘오리깨들’로도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리나무는 자작나무과의 낙엽활엽교목으로 습지에 서식하며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 산림녹화 사업으로 많이 심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오리(오리나무)+ㅅ+들’로 분석된다. 오리나무가 있어 생겨난 지명이다.

### ● 용두봉(龍頭峰)

[형태] 봉우리

[위치] 지내2리 팔망산 부근의 봉우리이다. 인근에 성산약수가 있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지내2리에 있는 산으로 옆에 성산약수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팔망산 부근의 봉우리 중 하나로 보인다.

[어원풀이] ‘용(龍)+두(頭)+봉(峰)’으로 분석된다.

### ● 웃텃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2리 텃골 위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텃골 위쪽의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웃[上]+터[垈]+ㅅ+골[谷]’로 분석된다.

### ● 월룡동(月籠洞)

[별칭] 어농골, 월유동, 월령동, 월영동, 월형동

[형태] 마을

[위치] 지내 2리를 가리키는 자연마을명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내상리(池內上里) ‘월룡동(月籠洞)’을 ‘어농골’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지내 2리 3반 마을로, 마을의 모습이 달처럼 생겼다고 불여진 이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월룡동(月籠洞)’은 달을 담은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어원풀이] ‘월(月)+룡(籠)+동(洞)’으로 분석된다. ‘월룡동(月籠洞)’은 달을 담은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월룡동(月籠洞)이 음운변이 되어 ‘월유동’, ‘월령동’, ‘월영동’, ‘월형동’과 같은 변이형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 월매나무

[별칭] 500년 넘은 은행나무

[형태] 나무

[위치] 지내2리 문화 류씨 사당 옆에 서식하고 있는 은행나무를 말한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지내 2리에 있는 오래된 고목인 500년 넘은 은행나무는 문화류씨 류견룡(柳見龍)이 낙향하여 심은 나무로 문화류씨의 집 성촌이 되었으며, 기우제, 치성 등 마을의 수호수 역할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은행나무의 꽃이 밤에만 피었다가 진 후 열매를 맺어 ‘월매나무’로 불린다고 기술되어 있다.

### ● 은고개

[별칭] 동현(凍峴)

[형태] 고개

[위치] 지내리에서 산천리로 넘나들던 고개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내중리(池內中里)’의 ‘동현(凍峴)’은 ‘은고개(凍峴)’로 표기되어 있다. 『한국지명총람』에 ‘은고개’는 ‘물고개 건너편에 있는 고개’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조선지지자료』 ‘물고기(水峴)’는 ‘우두상리(牛頭上里)’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지내2리에서 산천2리로 넘어가는 고개로 물고개 옆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문현상의 기록으로 볼 때 ‘은고개’는 지내리에서 산천리로 넘나들던 고개로 보인다.

[어원풀이] ‘은/언[凍]+고개[峴]’로 분석된다. 숨어 있는 듯 보이지 않는 고개란 의미의 ‘은고개[隱峴]’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 ● 은행나무(銀杏木)

[형태] 나무

[위치] 지내1리 마을회관 앞에 있는 은행나무이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지내1리 마을 회관 앞에 있는 은행나무로 1982년 11월 13일 춘

천시 보호수로 지정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지내리 마을 주민들이 더위를 피해 쉬는 나무라고 한다.



은행나무

### ● 이명봉

[별칭] 이명등

[형태] 산

[위치] 제일봉 밑에 있는 산이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제일봉에 있는 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제일봉’은 지내리에서 제일 높은 산인 삿갓봉(352m)으로, 사북면 고탄리와 신복읍 지내리와 접경을 이룬다.

### ● 작은젤봉

[별칭] 작은제일봉

[형태] 산

[위치] 춘천시 사북면 고탄리와 신복읍 지내리의 경계에 있는 제일봉 옆에 있는 작은 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젤봉/제일봉’은 ‘지내리에서 제일 가는 봉우리’, ‘작은 젤봉’은 ‘젤봉 옆에 있는 작은 산’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작은[小]+젤/제일(第一)+봉(峰)’으로 분석된다. 지내리에서 제일 높은 산인 삿갓봉(352m)으로 사북면 고탄리와 신복읍 지내리와 접경을 이룬다.

### ● 작은통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리 큰통골과 장승박골 사이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통골에서 작은 골짜기란 의미이다.

[어원풀이] ‘작은[小]+통(通)+골[谷]’로 분석된다.

### ● 장승박골

[별칭] 장승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2리에 샘골 부근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장승이 있던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고,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장승막골’로도 불리며 지내2리 화학대 사격장 뒤 쪽 대기로 샘골 사이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장승+박/박이/배기+골[谷]’로 분석된다. 장승이 서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 절터

[별칭] 삼회사(三檜寺)터, 회삼사자터

[형태] 터

[위치] 지내2리 제일봉 중턱에 있는 삼회사 절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예전에 절이 있었던 마을로 지내상리 북쪽 산허리에 있는 절터이다. 삼한 시대에 지은 절인데 화전민이 불태웠으며 기와 조각과 머리 없는 불상이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삼회사터’를 달리 일컫는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절[三檜寺]+터[垈]’로 분석된다.

### ● 젤봉

[별칭] 제일봉, 삿갓봉

[형태] 산

[위치] 지내2리와 고탄리 접경에 있는 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지내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지내2리와 고탄리 경계에 있는 산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젤봉’은 지내리에서 ‘삿갓봉’, ‘제일봉’으로 불리고 있다. ‘젤봉’은 지내리에서 높은 산인 삿갓봉(352m)을 말하며, 이 산은 신북읍 지내리와 사북면 고탄리가 접경을 이룬다.

[어원풀이] ‘제일(第一)》젤+봉(峰)’으로 분석된다. 지내리에서 제일 높은 산이라는 의미이다.

### ● 중리(中里)

[별칭] 중말, 지내중리,

[형태] 마을

[위치] 지내1리 자연마을명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내중리는 ‘지니중리(池內中里)’로 표기되어 있으며 『한국지명총람』에는 ‘중말’로 기록되어 있다.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

에는 ‘중말. 지내리 중앙에 있는 마을로 지내1리’를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중리’는 현재 지내1리 마을을 말한다.

[어원풀이] ‘중(中)+리(里)’로 분석된다. 지내리 중앙, 중간에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이다.

### ● 지내리 소류지

[형태] 소류지

[위치] 지내2리 마을회관 서쪽 순환대로 건너편에 있다.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961번지가 된다.

### ● 지내저수지

[별칭] 지내리저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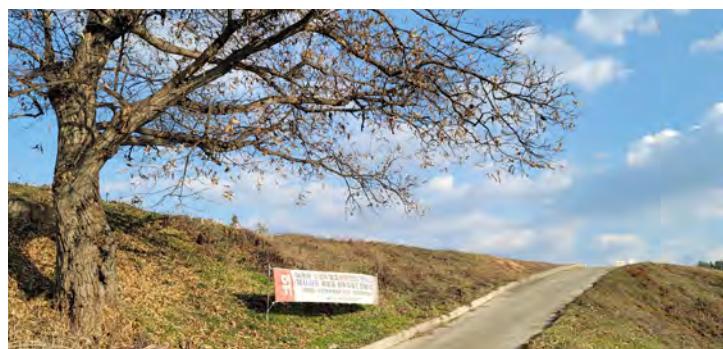
[형태] 저수지

[위치] 지내3리에 위치한 저수지이다. 신북읍 지내리 635번지이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도정지(陶井池, 도정지)’로 표기하였으며, 『신북읍 지명유래』에 풍원부원군 조만영의 묘를 비보(裨補)하기 위해 연못을 조성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내 저수지는 1957년 길이 920m, 높이 6.2m 제방을 쌓아 만든 농업용 저수지로 지내리, 신동리의 농업 용수 공급원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중리



지내저수지

## ● 지둔지(地屯池)

[별칭] 둔지들

[형태] 들

[위치] 지내2리 쑥고개 초입에 있는 들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땅이 절다는 들’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지내2리에 있는 들로 쑥고개 앞의 연못을 막았으며 이곳의 진흙이 좋아서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둔지는 지내2리 쑥고개 초입의 들로 추정된다. 물가의 언덕이나 강, 호수 따위의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에서 짓는 농사를 ‘둔치 농사’라고 한다.

[어원풀이] ‘지(地)+둔지(屯池)’로 분석된다. ‘둔지’는 ‘둔치’의 강원 방언이다. ‘둔치’란 물가의 언덕으로, 바다, 호수, 강, 개울 따위의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를 말하며 물가의 가장자리가 두둑한 둔덕이 ‘둔치’가 된다.

## ● 지둔지들

[별칭] 둔지들, 둔짓들

[형태] 들

[위치] 신북읍 지내2리 마을회관과 지둔지 소류지 사이에 있는 들이다. 춘천시 신북읍 지내리 815-2 가 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높은 곳에 있는 들’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쑥고개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들로 여기서 진흙이 많이 나와서 지둔지라고도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신북읍 지명유래』에 ‘지둔지 소류지’를 조성하기 전에 이곳에서 도자기를 만들기에 적합한 진흙이 나와서 도자기를 굽는 점촌이 있었던 것에서 명명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지+둔지+들’로 분석된다. ‘지둔지’ 참조.

## ● 지름물

[별칭] 절우물, 지내리 연못, 지내리, 도정지(陶井池), 도정리(陶井里), 지내저수지

[형태] 마을

[위치] 지내3리에 있는 지내저수지를 말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본래 춘천군 북내일작면 지역으로 큰 못 안쪽이 되므로 지름물, 지내리(池內里)라고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지내상리, 지내중리, 지내하리를 병합하여 지내리라고 하여 신북면(新北面)에 편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지름물’ 지역은 북한강과 소양강의 영향으로 땅이 절어 도자기의 주원료인 점토 토양이 풍부하여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가 있었으며 마을의 저지대인 지내 3리에 물이 고이자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 물구덩이, 우물, 연못 등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지역을 대표하는 풍은부원군 조만영이 물이 자주 고이는 지내3리에 마을의 공동 우물, 연못을 만들어 ‘도정지(陶井池)’라고 하였으며 지역민들은 ‘지내리 연못’이라고 부리기도 하였다. ‘지름물’은 현재 지내 3리에 있는 ‘지내저수지’가 된다.

[어원풀이] ‘절+우물>절음물>지름물’로 분석된다. ‘절우물’은 ‘절(땅이 절다)+물구덩이(우물)’가 ‘절우물>절음물>지름물’ 형태로 음운변이된 것이며, ‘절우물’을 한자어로 훈차하면 ‘도정리(陶井里)’가 된다.



지름물

## ● 진달래장등

### [형태] 산

[위치] 삼한골 마지막에 있는 골짜기 ‘벼폐’를 지나 올라가면 있는 장등이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삼한골 마지막에 있는 골짜기 벼폐를 지나 올라가면 있는 장등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삼한골은 율문천의 원천이 되는 골짜기이다. 발산리 북쪽 ‘장본’ 마을 북쪽 끝으로, 골짜기 서편으로 수리봉이 있다.

[어원풀이] ‘진달래+장등’으로 분석된다. ‘장등’은 산마루의 방언으로 산등성이의 가장 높은 부분을 말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 진사터

### [형태] 터

[위치] 지내2리 제일봉으로 올라가는 산 밑에 있는 터이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진사가 살았다는 집터로 지내리 제일봉으로 오르는 산 밑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진사(進士)+터[垈]’로 분석된다.

## ● 짹바위

###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두 개가 나란히 있는 바위’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팔망산에 있었다는 일설과 서낭거리 앞 논에 있던 바위가 6.25 전쟁 당시 없어졌다는 일설이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쫙[雙]+바위[岩]’로 분석된다.

## ● 춘덕골

### [형태] 골짜기

[위치] 성문안 피나무골 옆 삼회사가 있던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피나뭇간 옆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고,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서는 성문안 마을 삼회사가 있던 골짜기로 피나무가 많이 나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춘덕+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 큰통골

###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2리 마을회관 북쪽이며 쌔기골 방향에 있는 골짜기이다. 신북읍 지내리 산2-2번지가 된다.

[유래] 통골에서 큰 골짜기란 의미이다.

## ● 텃골

###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2리 성문안 마을 성문안골 부근의 골짜기를 말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맥국시대 옛 건물터가 있었다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는 맥국의 옛터가 있었으며 성문안 마을 성문안골 부근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터[貊國]+ㅅ+골[谷]’로 분석된다.

## ● 통골

###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2리 쑹고개 부근 둔지 아래 방향으로 뻗어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둔지 밑에 있는 골짜기’로 기록되어 있다. 둔지는 지둔지를 말

하며 지내2리 쑥고개 초입의 들이 된다. 즉 ‘통골’은 지내2리 쑥고개 부근 둔지 아래 방향으로 뻗어 있는 골짜기로 보인다.

[어원풀이] ‘통(通)+골[谷]’로 분석된다.

### ● 통수골

[별칭]

[형태] 골짜기

[위치] 지내2리 성문안 마을에 있는 골짜기로 주변에 춘덕골이 있으며 좀더 올라가면 삿갓봉이 나온다. 신복읍 지내리 산2-3번지가 된다.

[유래] 유래는 불분명하다.

[어원풀이] ‘통(通)+수(水)+골[谷]’로 분석된다.

### ● 피나무골

[별칭] 피나무간

[형태] 골짜기

[위치] 성문안에 있는 골짜기로 피나무골 옆에 춘덕골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는 ‘피나무가 있던 골짜기’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는 성문안 안골에 있으며 피나무가 많이 나서 피나무골이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피나무는 피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교목으로 ‘달피’라고 부르며 꽃은 노란빛을 띠며 열매는 동그란 모양이다. [어원풀이] ‘피나무+골[谷]’로 분석된다. 피나무가 있던 골짜기란 의미이다.

### ● 팔망산

[형태] 산

[위치] 지내2리에 있는 산으로 팔망산 능선이 쑥고개로 이어진다. 용산리와 지내리의 접경산이다.

[유래]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여덟 개의 명당이 있으며, 팔망산 능선이 쑥고개로 이어지며 성산약수 뒤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팔망산은 지내2리와 용산리를 접경하는 산으로 명당이 있어 팔망산으로 명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팔(八)+망+산(山)’으로 분석된다. 8개의 명당이 있는 산이라는 의미이다.

### ● 풍은부원군 조만영 묘

[형태] 묘

[위치] 지내 3리의 지내리 저수지 동쪽 개명골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 어느 부원군의 묘’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지내 3리 개명골에 ‘풍은부원군 조만영의 묘와 신도비가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 ● 하리(下里)

[별칭] 지내하리(池內下里), 지외리(池外里), 지내3리

[형태] 마을

[위치] 지내리 아래 쪽에 있는 마을로 지내하리로 불렸으며 현재는 지내 3리를 말한다.

[유래] 『조선지지자료』에 ‘지내하리(池內下里, 지내하리)’, 『여지도서』에 ‘지외리(池外里)’로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지명총람』에는 ‘지내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지내리 지명조사 보고서〉에서는 지내리 아래쪽에 있는 마을로 지내 3리로 기록되어 있다. ‘하리’는 ‘지내하리’를 말하며 현재 지내 3리 지역이 된다.

[어원풀이] ‘하(下)+리(里)’로 분석된다. 현재 지내 3리 마을을 말한다.

**위치와 현황** | 북쪽으로 마적산이 위치하고, 동쪽으로 소양강이 흐르고 있다. 골짜기와 평야로 이루어진 농촌마을이다. 자연마을에는 골말, 마재기 등이 있다. 천전리에는 동양 최대의 다목적댐인 소양댐이 있다.

**연혁** | 『춘주지』를 보면 북중(北中)에 천전리(泉田里)가 보인다. 『여지도서』에 북중면(北中面) 천전리(泉田里)로 표기하였고, 『호구총수』, 『춘천읍지』, 『춘천부지』, 『관동읍지』도 동일하다. 『조선지지자료』는 북중면(北中面) 상천전리(上泉田里)와 하천전리(下泉田里)로 구분하였다. 『강원도지지조서』는 신북면(新北面) 천전리(泉田里)로 하였고, 『강원도지』, 『수춘지』도 동일하다. 1984년에 출간된 『춘주지』는 신북면 천전1리, 천전2리, 천전3리, 천전4리, 천전5리로 구분하였다. 1995. 1. 1일 춘천시와 춘천군 통합으로 신북읍으로 승격되면서 신북읍 천전1리, 천전2리, 천전3리, 천전4리, 천전5리, 천전6리가 되었다. 현재 행정리는 천전리고 법정리는 천전1리, 천전2리, 천전3리, 천전4리, 천전5리, 천전6리, 천전7리, 천전8리, 천전9리다.

**유래** | 본래 춘천군 북중면의 지역으로서 샘(泉)과 밭(田)이 많으므로 샘밭 또는 천전(泉田)이라 하였는데, 행정구역 폐합으로 상천전리, 하천전리, 하유포리 일부를 병합하여 천전리라 하였다.

### ● 거리제터

[별칭] 노제터

[형태] 터

[위치] 천전리 마을의 입구인 ‘천전삼거리’로, 현재는 천전4리 마을회관에서 거리제를 지낸다.

[유래] 노제(路祭)를 지내던 장소로 천전 1리에서는 매년 음력 11월 동짓날에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예전에는 천전리 입구 ‘천전삼거리’에서 노제를 지냈으나 최근에는 천전4리 마을회관에서 지내고 있다.

[어원풀이] ‘거리[路]+제(祭)+터[垈]’로 분석된다.



거리제터

### ● 건넌구레

[형태] 들

[위치] 천전1리 ‘추묵정들’ 옆에 있는 들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추묵정 옆에 있는 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천전1리 마을회관과 ‘지둔지’ 사이에 위치한다.

[어원풀이] ‘건년[越]+구레’로 분석된다. ‘구레’는 북한말로 지대가 낮아서 물이 늘 피어 있는 땅, 즉 ‘웅덩이’를 뜻한다. 물 건너편 낮은 지대란 의미이다.

### ● 고무랫골

[별칭] 고무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산제당골 옆 골짜기로 소양강댐과 세월교 사이의 마적산(610m) 남쪽 능선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산지당골 옆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록하고 있다. 골짜기의 명칭은 ‘丁’ 자 모양의 ‘고무래’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무래’는 곡식을 짚어모으고 펴거나, 밭의 흙을 고르거나 아궁이의 재를 짚어모으는 데에 쓰는 농기구를 말한다.

[어원풀이] ‘고무래[丁]+ㅅ+골[谷]’로 분석된다.

### ● 고인돌

[별칭] 천전리 지석묘군, 지석묘

[형태] 지석묘

[위치] 신북읍 천전리 690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유래] 천전리지석묘군은 강원도 지정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신북읍에는 ‘천전리’, ‘산천리’, ‘발산리’, ‘울문리’, ‘지내리’ 등에 15기 이상이 분포하고 있다.

### ● 골말

[형태] 마을

[위치] 안콜들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부근에는 분두골, 강원대학교 부속농장 등이 있다.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산길 쪽으로 가는 입구에 있는 마을을 말한다고 하였다.

[어원풀이] ‘골[谷]+말[村]’로 분석된다. 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란 의미이다.

### ● 굴뚝골

[형태] 골짜기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굴뚝처럼 생긴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굴뚝+골[谷]’로 분석된다. 골짜기 모양이 굴뚝처럼 생겨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 ● 느치골

[별칭] 느찻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강댐 방향 백골 아래 있는 골짜기로,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6-6에 해당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승지골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승지골 건너편 백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느치골의 명칭은 장마에 물이 넘쳐서 ‘누치’가 올라와서 ‘느치골’이 되었다는 설, 느티나무가 있던 골짜기라는 설 등이 전한다. 현재 느치골길이 조성되어 있으며, 느치골 계곡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어원풀이] ‘느치+ㅅ+골[谷]’로 분석된다. 느티나무가 있던 ‘느티나무골’을 줄여서 ‘느티골’로, 다시 구개음화 현상에 따라 ‘느치골’로 된 것으로 보인다.



느치골

### ● 덩서리

[형태] 논

[위치] 덩서리 개울 근처에 위치한 논으로 천천3리에 있다. 주변에 안골논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보매기 건너편에 있는 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조사결과 천전3리 덩서리 개울 근처에 있는 논을 말한다.

[어원풀이] ‘덩/덕+서리’로 분석된다. ‘덩/덕’은 ‘둔덕’, ‘서리’는 ‘써레’의 강원 지역 방언이 된다. ‘서리/써레’는 논의 바닥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로, 긴 각목에 둉글고 끝이 뾰족한 살을 7~10개 박고 손잡이를 대었으며 각목의 양쪽에 밧줄을 달아 소나 말이 끌게 되어 있다. 둔덕에 있는 논이란 의미로 보인다.

### ● 덩서리개울

[형태] 개울

[위치] 천전리 샘밭교에서 오수물 쪽으로 흘러가는 개울을 말하며 부근에 덩서리논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2군단 앞에 있는 개울을 ‘덩서리개울’이라고 한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조사 결과 덩서리논 부근에 있는 개울에 해당되며 샘밭교에서 오수물 방향으로 흘러가는 개울로 보인다.

[어원풀이] ‘덩/덕+서리+개울’로 분석된다. ‘덩서리’ 참조.

### ● 도지가(賭地街)

[별칭] 도지골, 도지거리, 도짓거리, 도지걸, 도지걸이, 도주골

[형태] 마을

[위치] 예전에는 ‘워나리나루/원진(元津)’ 부근이었으며 현재는 천전리 세월교 주변 지역으로 닭갈비, 막국수 등을 파는 음식점이 조성되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도지결’, ‘도지가’로 기록되어 있다. 예전에 이 지역에서 ‘도지’ 즉, 소작료를 받은 것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보인다. 이 곳은 양구로 가는 배의 쉼터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어원풀이] ‘도지(賭地)+가(街)’로 분석된다.

[유래담] 예전에 청평사 스님들이 이곳에 와서 ‘도지(소작료)’를 받았다고 한다.

### ● 돌가리

[별칭] 여담우리, 적석총, 돌무지무덤

[형태] 묘

[위치] 천전 2리 소양강변에 소재하고 있는 지석묘이다.

[유래] ‘돌가리’란 ‘적석총’, ‘돌무지무덤’ 등 천전리에 위치한 적석총을 일컫는 말이다. ‘적석총’이란 돌을 쌓아 올려 봉분을 이루고 있는 ‘돌무지무덤’으로 선사 시대부터 고구려·백제 초기의 무덤의 한 양상이다. 『춘천군 역사와 문화 유적』에 의하면 ‘천전리 적석총’은 천전 2리 소양강 강변에 동서로 5~6m의 간격으로 발견된 적석총으로 발굴 당시에는 1기는 하부구조가 파괴되었으며, 2기는 잘 보전되었으나 현재는 3기의 적석총이 없어지고 지석묘 5기만이 남아 보존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돌가리 즉, ‘천전리 적석총’은 고대 사회의 무덤의 한 형태가 된다.

[어원풀이] ‘돌[石]+가리’로 분석된다. ‘가리’는 무엇인가를 차곡차곡 쌓은 더미로 ‘돌가리’에는 ‘돌무지’의 의미가 내포된다. 돌을 차곡차곡 쌓은 ‘돌가리’와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든 ‘돌무지무덤’, 돌을 쌓아 올려 봉분을 이루고 있는 ‘돌무지무덤’의 한 자어인 적석총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돌가리’는 ‘여담우리’라는 이칭도 있는데 ‘여담+우리’에서 ‘여담’은 낮게 쌓는 담을, ‘우리’는 ‘울타리’의 방언

으로 ‘여담우리’는 돌담으로 쌓은 울타리로 돌을 차곡차곡 쌓은 ‘돌가리’와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든 ‘돌무지무덤’과 같아진다.

### ● 동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천전 6리에 있는 골짜기로, 느치골로 가기 전 산 밑에 위치한 작은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천전리의 동막골은 큰 동막골과 작은 동막골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동(東)+막(幕)+골(谷)’로 분석된다.

### ● 떡갈봉

[형태] 봉우리

[위치] 마적산 부근에 있는 봉우리로 천전 6리 ‘떡갈봉장등’에 있다.

[유래] 마적산 부근의 떡갈봉장등에 있는 봉우리로 이 지역에 떡갈나무가 많이 서식하여 명명되었다.

[어원풀이] ‘떡갈(떡갈나무)+봉’으로 분석된다.

### ● 뜨내리재

[별칭] 부침재, 부침치(浮沈峙)

[형태] 고개

[위치] 신북읍 천전리와 북산면 청평리를 오고 가는 고개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마적산에 있는 고개로 중국인이 지나가면 산이 흔들려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마적산 정상에서 북쪽 능선 향해 가다 보면 낮은 능선의 고개가 뜨내재가 된다.

[어원풀이] ‘뜨다[浮]+내리[沈]+재[峙]’로 분석된다.

[유래담] 병자호란 때 춘천 지역 ‘이석을’의 아내인 ‘무작개’를 청나라 장수가 겁탈을 하려고 하자 ‘무

작개’는 저항하다가 죽게 되었다. ‘무작개’의 시신을 뜨내리채 근처 굴속에 던지자 땅이 요동치며 청나라 장수들이 미쳐 죽게 되었다. 이후 중국인들이 뜨내리채를 넘어 가려면 땅이 요동쳐서 고개를 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 ● 마재기

[별칭] 마지기

[형태] 마을

[위치] 천전1리 마을회관에서 북쪽 300m 지점에 위치한 마을로 주변에 마작산 기슭에 조성된 ‘춘천 공원묘원’, 천전1리 마을회관 남서쪽 500m 지점에 ‘오수물 막국수’ 등이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샘밭 북동쪽 마적산 골짜기에 있는 마을로 기록되어 있다. ‘마재기’의 ‘마적’은 ‘마적산(610m)’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마재/마적/마작+이’로 분석된다. ‘마적 이/마저기/마작이/마자기/마제기/마재기’ 등의 변이형으로도 불린다.

### ● 멱바우

[별칭] 미역바우

[형태] 바위

[위치] 천전리 할미여울에 있는 바위이다.

[유래] 할미여울에 있던 바위로 마을 아이들이 떡을 감다가 몸을 말리던 바위라고 한다.

[어원풀이] ‘멱+바우’로 분석된다. ‘멱’은 ‘미역’의 준말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미역’은 ‘냇물이나 강물 또는 바닷물에 들어가 몸을 담그고 씻거나 노는 일’로 등재되어 있다.

### ● 물어귀

[별칭] 수구동(水口洞)

[형태] 수리

[위치] 현재 소양강댐이 있는 곳이다.

[유래] 예전에 스님이 이 지역을 지나다가 나중에 물어귀가 된다고 예언을 하였는데, 예언대로 1973년 10월 소양강댐이 완공되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물[水]’+‘어귀[口]’로 분석된다. 물길이 드나드는 첫머리란 의미이다.

### ● 바나골

[별칭] 반하골

[형태] 골짜기

[위치] 우묵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반하’는 천남성과의 약초로 땅속에 묻혀 있는 동근 덩이줄기를 약재로 쓰이고 있으며, 한방에서 이뇨 작용, 두통 완화, 소화기 질환, 호흡기 질환, 두뇌 질환에 핵심 약재로 사용된다고 한다. 이 지역에 ‘반하’가 많이 나서 ‘반하골’이 되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반하골’이 ‘바나골’로 음운변이하였다. 또는 ‘방아골’의 와전으로 볼 수도 있다.

### ● 박안구 묘

[형태] 묘

[위치] 천전리 장관대(壯官垈)에 있다.

[유래] 『강원도지』 능묘 조에 대제학 박안구 묘가 춘천군 천전리 장관대(壯官垈)에 있으며 심후택이 신도비 비문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 배골

[별칭] 뱃골, 백골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강댐 바로 아래 원편에 있는 비교적 폭은 넓은 골짜기이다. 신북읍 천전리 산73-3번지에 해당한다.

[유래] 소양강댐 바로 아래 왼편에 있는 비교적 폭은 넓은 골짜기이다. 산골 마을에서 배나무는 일반적으로 돌배나무를 가리키며, 돌배나무가 많아 배골로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어원풀이] ‘배[배나무]+ㅅ+골[谷]’로로 분석된다. ‘벳골’은 ‘백골’로 음운변이되기도 한다.



배골

### ● 뱃소

[형태] 소(沼)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배 모양으로 생긴 소’로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배[船]+ㅅ+소(沼)’로 분석된다. 배처럼 생긴 소를 말한다.

### ● 베덩말

[형태] 마을

[위치] 천전2리 천전리 교차로 남쪽 소양강 강변 유역의 마을이다.

[유래] 천전2리를 베덩말이라고 한다. ‘베덩’은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로 ‘베덩말’은 현재 ‘천전 2리’를 가리킨다.

[어원풀이] ‘베덩+ 말[村]’로 분석된다.

### ● 벼들우물

[형태] 들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벼드나무와 우물이 있는 들로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벼들[柳]+우물[井]’로 분석된다.

### ● 보매기

[형태] 마을

[위치] 가마골 밑 소양댐 바로 밑이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보(洑)를 막은 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보(洑)+매기/막이’로 분석된다.

### ● 보매기소

[형태] 소(沼)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보매기 근처에 있는 소’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보(洑)+매기/막이+소(沼)’로 분석된다.

‘소(沼)’는 계곡에서 흘러 내려온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패여 고여 있게 된 물웅덩이를 말한다.

### ● 보매기여울

[형태] 여울

[위치] 보매기 근처에 있는 여울로 현재 ‘세월교(콧구멍다리)’에서 소양댐 사이가 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보매기 근처에 있는 여울’로 기록되어 있다. 이 여울은 뗏목, 소금배 등이 다니기에 좋은 수로로 ‘뗏목아리랑’에 등장할 정도로 천전리에서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원풀이] ‘보(洑)+매기/막이+여울[灘]’로 분석된다. ‘여울’은 ‘강, 바다 등에서 바닥이 얕거나 폭이

좁아 물살이 빠르게 흐르는 곳'을 말한다.

### ● 분둑골

[형태] 골짜기

[위치]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부속농장 안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지명에서 '분둑골/분덕골'은 묘지가 있는 골짜기에 명명된다.

[어원풀이] '분(墳)+둑/덕[둔덕]+골[谷]'로 분석된다.

### ● 비득재

[형태] 고개

[위치] 마적산 부근에 있는 고개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마적산 부근에 있는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비득[비둘기]+재'로 분석된다. 중세국어에서 '비둘기'는 '비+닭+이'로 분석이 가능한데, '비'는 비탈이란 용례에서 확인되듯이 '경사지다, 가파르다'는 의미이고, '닭'은 '언덕, 둔덕'의 의미이다. 따라서 비득재는 경사가 급한 고개란 의미가 된다.

### ● 빙소

[형태] 소(沼)

[위치] 콧구멍다리 위쪽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낳떠러지 밑에 있는 소'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빙[벼랑 崖]+소(沼)'로 분석된다. 소양강 건너편 동면 월곡리에 있는 산이 '빙산'이므로 빙산 아래 있는 소(沼)란 의미이다.

### ● 산장모퉁이

[형태] 마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보통이에 있는 마을'로 기록되어 있다. 모통이란 '산모퉁이의 휙돌아 들어가는 부분'을 말한다.

[어원풀이] '산장(山莊)+모퉁이'로 분석된다.

### ● 산지당골

[별칭] 산제당골, 산지당꼴

[형태] 골짜기

[위치] 우묵골과 영막골 사이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로 기록되어 있다. 산제당이 있어 예전에 이곳에서 산신제를 지냈던 것에서 유래된 골짜기 명칭이다.

[어원풀이] '산+지당/제당+골[谷]'로 분석된다. 산신제를 지내던 산제당이 있던 골짜기이다.

### ● 삼성골

[형태] 골짜기

[위치] 지둔지 2군단 부근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천전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별 2개의 계급을 갖고 있던 장군이 2군단에 근무하며 별 3개를 딴는 삼성 장군으로 승진한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어원풀이] '삼성(三星)+골[谷]'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 ● 삼형제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세 개가 나란히 있는 바위'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삼형제+바우/바위[巖]'로 분석된다.

### ● 샘밭

[별칭] 천전(泉田)

[형태] 마을

[위치] 천전리 지역을 말한다.

[유래] 『한국지명유래집』에 ‘본래 춘천군 북중면 지역으로 샘과 밭이 많으므로 샘밭, 천전(泉田)’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장마철이 되면 이 지역의 이곳저곳에서 샘이 많이 터졌는데 물이 사방으로 흘러 샘이 많이 난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샘밭은 한자로는 천전(泉田)이 되며, 신북읍을 대표하는 지명이다. 일반적으로 윗샘밭은 천전리, 아래샘밭은 율문리를 가리킨다.

[어원풀이] ‘샘[泉]+밭[田]’으로 분석된다. 샘밭은 ‘천전리(泉田里)’ 행정지명의 바탕이 된다.

### ● 샘밭버덩

[별칭] 심밧버덩

[형태] 들

[위치] 샘밭 전체를 말하기에 한 지역을 특정하기 곤란하다.

[유래] 샘밭 지역에 있는 버덩에서 유래된 지명이다. ‘버덩’은 나무는 없이 풀이 우거진 높고 평평하며 거친 들을 말한다.

[어원풀이] ‘샘밭/심밧+버덩’으로 분석된다.

### ● 서낭당

[별칭] 성횡당

[형태] 사당

[위치] 산지당골에 위치한다.

[유래] 마을을 수호하는 서낭신을 모셔 놓은 제당이 있어 유래된 지명이다.

### ● 서덜

[형태] 터

[위치] 마적산 능선의 ‘떡갈봉’ 밑에 있다.

[유래] 떡갈봉 밑에 큰 돌무더기 곳을 서덜이라고 한다.

[어원풀이] ‘서덜’은 ‘냇가, 강가 등에 돌이 많은 곳’을 의미한다.

### ● 세월교(歲月橋)

[별칭] 콧구멍다리

[형태] 교량

[위치] 윗샘밭과 옆에 있는 다리이다.

[유래] 소양강댐을 건설할 때 자갈을 싣기 위해 임시 다리를 놓은 것으로 다리에 콧구멍 모양의 구멍이 있어 콧구멍다리라고 불린다.



세월교

### ● 소양강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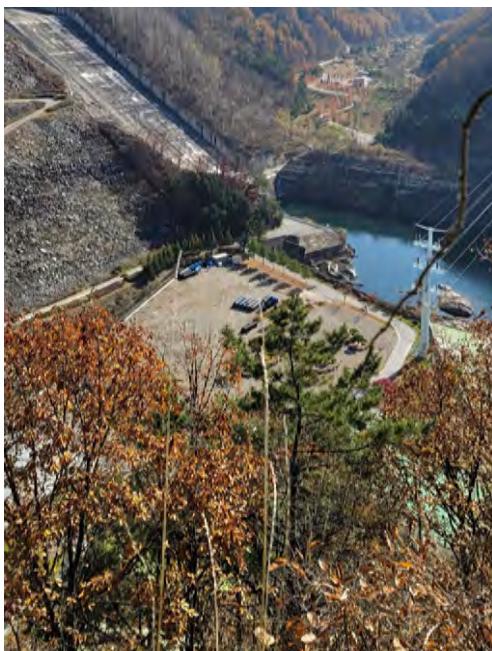
[별칭] 소양댐

[형태] 다목적댐

[위치]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1128에 위치하고 있다.

[유래] 소양강댐은 신북읍 천전5리와 동면 월곡리 사이의 협곡을 막아 높이 123m, 제방 길이 530m,

제방 폭 550m로 조성된 다목적댐으로, 1967년 4월 17일 착공하여 1973년 10월 15일 완공되었어. 소양강댐 건설로 소양호가 생성됨으로써 소양강댐에서 청평사, 양구로 가는 배길이 운행되어 소양강댐과 소양호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졌다. 2008년 7월 1일 ‘소양강댐 물문화관’이 개관되어 소양강댐과 소양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양강댐

### ● 소양강댐 물문화관

[형태] 공공기관

[위치] 소양강댐과 소양호가 위치한 강원도 춘천시 천전리 산73-6번지에 있다.

[유래] K-water 소양강댐지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양강댐 물 문화관’은 2008년 7월에 개관되었다. 2013년 10월 리모델링 이후 물 문화, 물 자원의 이용과 가치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워터 갤러리’, ‘체험관’, ‘전망대’ 구성하여 소양강댐을 찾는 관광객에게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소양강댐 물문화관

### ● 소양강댐 용너미길

[형태] 고개

[위치] 소양강댐 하류 주차장, 댐 사면 길, 댐 정상, 가마골 생태공원까지의 길이다.

[유래] ‘소양강댐 용너미길’을 알리는 용이 승천하는 모양의 표지석이 소양강댐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다. 소양강댐 ‘용너미길’은 댐 아래에서 소양강댐에 정상에 오르는 지형이 지그재그 모양을 이루어 마치 용이 승천할 때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명명되었다. 이 길은 평소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소양강댐 용너미길 걷기대회’가 개최되는 4월이면 1년에 한 번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있다.



소양강댐 용너미길

### ● 승지골

[별칭] 승짓골

[위치] 천천리 느치골과 산제당골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지역조사보고서에 동막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느칫골과 산제당골 가운데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승지+ㅅ+골’로 분석된다. ‘승짓골/승지 골’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명으로 ‘지형적으로 헛빛이 들지 않는 읍달, 읍지 지역’, ‘경치가 좋기로 이름난 곳’, ‘절이나 암자가 있던 곳’,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를 지낸 인물이 살던 곳’ 등에 명명되고 있다.

### ● 아랫고개

[형태] 골짜기

[위치] 천천리 마지기에서 화채봉으로 올라가는 고개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천천리 아래쪽에 있는

고개’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아래[下]+ㅅ+고개’로 분석된다.

### ● 아오리

[별칭] 아홉이, 아오비

[형태] 골짜기

[위치] 소양강댐 아래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소양강댐 아래 아홉 개의 골짜기로, 여기서 나온 나무를 뗏목으로 벗사공이 실어 날랐다고 한다.

[어원풀이] ‘아홉[九]+이(접미사)’>아호비>아오비>아오리’로 음운변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의미는 ‘아홉 가지 골’이 된다.

### ● 안골

[별칭] 안골들, 안골논

[형태] 들

[위치] 신북사거리에서 북쪽에 있는 들이 ‘안골’이다. 안골에서 북쪽으로 가면 천전1리 오수물이 나온다.

[유래] 예전에는 ‘안골못’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골’만 남아 있으며 주변에는 덩서리논이 있다.

[어원풀이] ‘안[内]+골[谷]’로 분석된다.

### ● 언매기들

[별칭] 엇내기들, 엇매기들

[형태] 들

[위치] 천전1리 지둔지 부근으로 신북읍 천전리 1047-2가 된다.

[유래] ‘지둔지’ 남서쪽 들녁이다. ‘언(堰)’은 ‘보를 막은 것’을 의미하는데 1‘보(濠)’를 막아 들(野)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언매기들 부근에 ‘안골들’이 있다.

[어원풀이] 언매기들은 ‘언(堰, 뚝, 방죽)+매기/막이)+들(野)’로 분석된다. ‘엇매기들’은 이형태이다.

### ● 언매기못

[별칭] 엇매기못

[형태] 연못

[위치] 천전1리 지둔지에 2군단 사령부 부근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고 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뚝을 막은 못’으로 기록되어 있다. ‘언(堰, 뚝, 방죽)’은 방죽이나 보를 막은 것을 말한다.

[어원풀이] ‘언(堰, 뚝, 방죽)+매기/막이)+못[淵]’으로 분석된다. ‘엇매기못’은 이형태이다.

### ● 연막골

[별칭] 영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느치골과 배골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느칫골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장조사에 의하면 느치골과 배골 사이에 위치한 골짜기로 추정된다.

[어원풀이] ‘연[霧]+막(幕)+골[谷]’로 추정된다. 소양강으로 인해 물안개가 자욱한 골짜기란 의미이다.

### ● 오수물

[별칭] 웃우물, 칠정(漆井)

[형태] 마을

[위치] 천전1리 마을이다. 천전1리 마을회관 남서쪽 500m에 ‘오수물막국수’가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오수물’은 ‘샘밭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웃 오른 테 잘 낫는 웃우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천전1리 오수물 지역으로 이곳에 ‘웃 우물’이 있어 웃이 오른 사람이 이 물로

씻으면 잘 나았으며, 여름에 땀띠가 났을 때 오수물에 가서 씻으면 나았는데 웃을 털어버린다고 해서 ‘오수물’이라고 했다고 한다.

[어원풀이] ‘웃우물[漆井]>웃우물>오수물’로 음운 변화되었다.

[유래담] 옛날 어떤 임금님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의 발굽이 불어서 서게 되었다. 이상하게 여긴 임금님이 이곳을 파니 우물이 나왔다고 하는 전설이 있다.

### ● 용머리바위

[별칭] 용머리바우

[형태] 바위

[위치] 마적산 남쪽 능선 중턱에 있다.

[유래] 바위 모양이 용의 형상을 하고 있어 용머리바위라고 불리고 있다.

[어원풀이] ‘용머리+바위[巖]’로 분석된다.

### ● 우두보매기

[형태] 보

[위치] ‘세월교’에서 소양강댐 사이가 된다.

[유래] <천전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천전리 보매기의 물을 우두벌로 보내 농사를 짓게 한다고 해서 우두보매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연막골 앞의 보를 막아서 ‘우두벌’에 물을 보내 농사를 짓게 하였는데 이것이 ‘우두보매기’의 유래가 된다.

[어원풀이] ‘우두(牛頭)+보(涙)+막+이>매기’로 분석된다.

### ● 웃고개

[형태] 고개

[위치] 마지막 마을에서 마적산으로 가는 고개이다.

[유래] <천전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마제기에서 마

적산으로 올라가는 고개라고 기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웃[上]+고개[峴]’로 분석된다.

### ● 웃목골

[별칭] 우물골, 우목골, 우뭇골

[형태] 골짜기

[위치] 천전4리회관 북쪽 가까이에 '상천초등학교'가 있고, 그곳에서 북동쪽 400m쯤 마적산 남쪽 끝자락에 '웃목골'이 있다. 신북읍 천전리 산 48-1에 해당 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우물이 있는 골짜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웃목/우물[井]+골[谷]’로 분석된다.

것은 '원'의 말음 '-ㄴ'과 '나루'의 두음 'ㄴ-'의 동음충돌(同音衝突)을 피해 발음을 원활히 하기 위해 변이형이 생긴 것이다. 큰 나루란 의미이다.

### ● 웃샘밭

[형태] 마을

[위치] 천전2-4리, 천전6리 지역이 된다.

[유래] <천전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샘밭'이라는 지명은 장마철이 왔을 때 땅의 이곳저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것에서 유래되었으며, 원래는 천전리 일대를 샘밭이라고 하였는데 이후 천전리를 웃샘밭, 율문리를 아랫샘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어원풀이] ‘웃[上]+샘[泉]+밭[田]’으로 분석된다.

### ● 워나리

[별칭] 원진(元津), 원나루, 원나리, 원하진(原河津), 원하리, 원나리, 원아리, 워나루

[형태] 나루

[위치] 현재 '세월교(콧구멍다리)'를 중심으로 천전리, 지내리, 월곡리를 품는 지역이다.

[유래] 『해동지도』에는 춘천부 읍치를 흐르는 소양강과 원하진(原河津)이 표시되어 있으며 『한국지명총람』에 '원나리 나루, 동면으로 가는 소양강 가의 나루'라고 기록되어 있다. <천전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천전리에서 동면으로 가는 소양강가의 나루이며 '워나리'는 '원나루'가 변해서 '워나리'

가 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다. '워나리(원진, 元津)' 지역은 현재 '세월교(콧구멍다리)'를 중심으로 천전리, 지내리, 월곡리 지역이 된다. 워나리 지역은 소양강 북쪽 신북읍 일대의 대표적 나루라는 상징성이 있다.

[어원풀이] '원(元)+나루[津]'로 분석되며, '워나리/월나리/원나루/워나루' 등의 이형태를 가진다. 이

### ● 일새여울

[형태] 여울

[위치] 콧구멍 다리 위쪽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북한강에 있는 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천전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춘천시 동면으로 건너가는 길목에 있는 여울로 서술되어 있다.

[어원풀이] '일새+여울[灘]'로 분석된다. '일새'는 '한 때, 한 순간'의 의미로, '일(一)+새/사이[間]'로 해석할 수 있다. '일새여울'이란 한 순간에 몰아치는 센 여울이란 의미이다.

### ● 작은동막골

[형태] 골짜기

[위치] 천전리 승지골 옆에 있는 골짜기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동막골의 작은 골짜기라 하였고, <천전리 지명조사 조사보고서>에는 동막골 옆에 있는 골짜기로 느치골과 산제당골 가운데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 ● 장승백이

[형태] 마을

[위치] 천전1리 3반에 해당되며 장승이 세워져 있던 곳이다.

[유래] <천전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천전1리 3반에 해당되며 예전에 장승이 세워져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현재 장승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어원풀이] ‘장승+백이/배기’에서, 지명접미사 ‘-배기’는 ‘무엇이 박혀 있는 것을 나타내는 뜻’을 가진 ‘-백이’의 방언형이 지명으로 접미사화한 것이다.

### ● 정성바우

[형태] 바위

[위치] 미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천전리에 치성을 드리는 바위가 있다고 하였고, <천전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천전리에 있는 고인돌을 가리킨다고 제시되어 있다.

[어원풀이] ‘정성+바우/바위’로 분석된다. 치성을 드리는 바위란 의미이다.

### ● 지둔지

[별칭] 주둔지

[형태] 들

[위치] 천전 1리 마을회관에서 서쪽으로 500m 산자락 아래 지둔지가 있다. 신북읍 천전리 1165에 해당된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길게 생긴 둔지로 된 들로 기록되어 있으며, <천전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오수물로 가는 곳에 산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길게 생긴 둔지로 된 들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주둔

지’라고 불리기도 한다.

[어원풀이] ‘지(주둔지)+둔지(둔치)’로 분석된다. ‘지’는 ‘2군단이 주둔해 있는 곳’의 ‘지’가 되며, ‘둔지’는 ‘둔치’의 강원 방언이다.

### ● 지퇴당 이정형 사당

[형태] 사당

[위치] 천전2리에 있는 사당이다.

[유래] 『춘천의 지명유래』에 조선시대 선조 때 천전2리에 살고 있던 지퇴당 이정형의 공로를 치적하여 지어준 사당으로 이씨 문중에서는 봄과 가을에 제사를 지낸다고 기록되어 있다.

### ● 진밭

[형태] 밭

[위치] 천전리 해강 아파트 부근의 밭이다.

[유래] 천전리 해강 아파트 부근으로 이 지역에는 땅에서 저절로 솟아 나오는 샘이 있어 땅이 절어 ‘진밭’이라는 지명이 생성되었다고 한다.

[어원풀이] ‘진+밭’으로 분석된다. 샘이 솟아 땅이 진 밭이다.

### ● 천전리지석묘군

[별칭] 지석묘군

[형태] 묘, 유적

[위치] 순환대로 천전IC와 소양강변 사이로 소양강변 가까이에 있다. 신북읍 천전리 690-1번지에 해당한다.

[유래] 『춘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일제강점기에 처음 발굴되었고 1966년~1967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하였고, 2003년에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재발굴하였는데, 소양강변을 따라 11기의 지석묘가 있었으나 4기만 남아 있으며 발

굴 당시 돌화살촉, 민무늬 그릇 조각, 대롱구슬 등의 유물이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천전리지석묘군

### ● 천전장(泉田場)

[별칭] 구샘밭장

[형태] 터

[위치] 천전 4리 마을회관 주변의 소양강댐 막국수 거리가 있는 ‘윗샘밭’ 일대가 된다.

[유래] 『춘천지명유래』에 ‘샘밭장’은 본래 천전리에 위치한 ‘윗샘밭’에 있었으나 율문리가 신북읍의 중심 지역이 되면서 ‘아래샘밭’으로 이동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구샘밭장인 천전장 지역은 현재 ‘신북읍소양댐막국수거리’가 형성되어 막국수, 닭갈비, 커피숍 등이 들어서 새로운 장터가 되었다.

[어원풀이] ‘천(泉)+전(田)+장(場)’으로 분석된다.

### ● 추목정들

[별칭] 추목정, 추목정

[형태] 들

[위치] 천전1리 마을회관과 ‘지둔지’ 사이 북쪽 바로 위에 있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옛날에 가래나무가 있던 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천전리 지명조사 보고

서>에 추목정에 있는 들로, 2군단 앞에 있는 논의 일부는 ‘추목정/추목정들’, 일부는 ‘엇내기/언매기 들’, 일부는 ‘안골/안골들’이라고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추목(楸木)+정(亭)+들[野]’로 분석된다. ‘추목’은 ‘가래나무’로 ‘추목정들’은 가래나무가 있는 들이라는 의미이다.

### ● 춘천공원묘원

[형태] 공원묘지

[위치] 마적산 서쪽 중턱에 있는 공원묘지로 배후령으로 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다.

[유래] 1972년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산34-1번지에 설립된 공원묘역으로, 매장묘, 평장묘, 가족남골묘, 납골당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 ● 춘천국유림관리소

[형태] 공공기관

[위치] 천전 2리 마을회관 북쪽 방향에 있다. 신북읍 천전리 708-3번지이다.

[유래] 북부지방산림청 소속기관으로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 국유 임산자원의 보호, 선진임업기술 보급, 산불예방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천전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천전리를 포함한 샘밭 일대는 잣나무, 낙엽송, 소나무 서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천전리에 중부영림서를 세우고 나무를 베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 통통바우

[형태] 바위

[위치] 세월교 할미여울 아래 있던 바위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통통하게 생긴 바위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퉁퉁+미우(巖)/바위’로 분석된다. 유래는 불분명하다.

는 상여 모양으로 생긴 산이란 의미로 보인다.

### ● 할미여울

[형태] 여울

[위치] 세월교 부근의 여울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북한강에 있는 여울이라 고 기록되어 있으며, <천전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윗샘밭 떡바우 옆에 있는 여울로 세월교 부근이라 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할미+여울’로 분석된다. 여울이 가늘어 붙여진 지명이다.

### ● 호전구레

[별칭] 호전구루

[형태] 들

[위치] 천전4리 마을회관 주변의 넓은 들녁이다.  
[유래] 『한국지명총람』에 윗샘밭에 있는 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천전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윗 샘밭에 있는 들인데 땅이 기름지고 좋은 지역으로 한자로는 ‘호전(好田)’이라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소양강에서 가까워 강물이 넘칠 수 있는 들로 천전4리 마을회관 주변 넓은 들을 말한다.

[어원풀이] ‘호전(好田)+구레’로 분석된다. ‘구레’는 지대가 낮아서 물이 늘 괴어 있는 땅을 의미한다.

### ● 화채봉(花菜峰)

[형태] 산

[위치] 마적산에 위치한 봉우리이다.

[유래] <천전리 지명조사 보고서>에 마적산에 있는 봉우리로 얇은 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어원풀이] ‘화채봉’은 ‘화채(花菜)+봉(峰)’으로 분석 된다. 상여를 화채라고 하기에 곳집이 있는 산 또



# **춘천지명사전 | 상**

**춘천시내 · 신복읍**

---

**발행일** 2022년 12월 26일

**발행인** 윤용선

**편찬기획** 춘천문화원 춘천학연구소

**주소** 강원도 춘천시 퇴계농공로 40

**전화** 033-254-5105

[www.cccc.or.kr](http://www.cccc.or.kr)

**편집디자인** 여름출판사





# 춘천지명사전 | 상

